

남동초등학교
종합정비계획

발 간 등 록 번 호
53-3480000-000025-01

달성 도동서원 ²⁰¹³종합정비계획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외부표지)

2013. 08

【일러두기】

- 01_ 이 보고서는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이다.
- 02_ 본문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외국어(한자, 영어)를 병기하였다.
- 03_ 지도 및 도면의 방위는 도북을 기준으로 하였다.
- 04_ 도면은 범위에 따라 스케일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 05_ 위성사진은 Daum, Naver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 06_ 기초자료조사, 분석 및 정비계획은 (재)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담당하였다.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2013. 08

Contents



I. 계획 개요	7
1. 계획 배경 및 목적	8
2. 계획 범위 및 방법	9
3. 계획수행과정 및 참여연구진	12
II. 일반현황	15
1.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일반현황	16
2. 조선시대 서원과 서원건축	25
3. 도동서원 일반현황	34
4. 달성 도동서원 재 사액 시기검토	132
III. 도동서원 조사	143
1. 도동서원 개요	144
2. 서원 내부 조사	146
3. 서원 외부 조사	190
4. 관리현황	211
5. 활용현황	218
6. 서원 사례조사	219
IV. 종합정비계획	229
1. 기본구상	230
2. 기본방향	233
3. 기본계획	234
4. 단계별 정비	236
V. 종합정비 기본계획	239
1. 서원 내부 정비계획	240
2. 서원 외부 정비계획	255
3. 경관 정비계획	263
4. 방재시설 정비계획	281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85
1. 서원 관리계획	286
2. 보존관리의 실행 체계	287
3. 관리 현황 종합	288
4. 활용계획	288
5. 마스터플랜	296
VII. 사업추진계획	299
1. 사업추진방향	300
2. 사업투자계획	301
VIII. 부록	305
1. 자문의견서	306
2. 달성 도동서원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검토 의견	314
3. 달성 도동서원 식생현황도	315
4.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317





I

계획 개요

1. 계획배경 및 목적

1) 계획배경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 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제향의례와 강학 및 사회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 이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됨에 따라 이 서원들의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달성 도동서원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효행과 덕행, 학문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며, 달성 도동서원의 위치와 관련된 경관이 특징이다.

2) 계획목적

- 달성 도동서원의 보존과 역사적 환경의 보전계획을 제안하고 관람객에게 달성 도동서원이 갖고 있는 내용과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계획을 구상한다.
- 또한 충실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정비의 방향과 방법을 계획하고 현재 정비된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달성 도동서원에 관한 철저한 고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달성 도동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계획 범위 및 방법

1) 계획범위

(1) 공간적 범위

■ 달성 도동서원 문화재구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도동리 35번지)
- 문화재구역 면적 : 8,891m²

■ 달성 도동서원 주변

- 인근 마을을 포함하여 달성 도동서원 주변



달성 도동서원 위성사진(<http://map.daum.net> 참고)

(2) 시간적 범위

■ 2012년 12월 27일 ~ 2013년 08월 23일

(3) 내용적 범위

- 고문헌 및 기존자료 조사·정리
- 서원 및 주변 건물 현황조사
- 기본구상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2) 계획방법

(1) 자료조사 및 분석

- 달성 도동서원 및 관련 선현의 역사적 배경 정리
- 달성 도동서원 관련 문헌조사(고문헌 해제 등)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내용 조사 정리
- 달성 도동서원 정비공사에 관련된 자료조사

(2) 현황조사

- 달성군 일반현황 조사
 - 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 달성 도동서원 현황조사
 - 서원 내·외부 건축물에 대한 파악 및 배치, 건물 구조와 양식 조사
 - 도면은 기존 보고서 및 정비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누락 부분은 간이 실측을 통한 도면 작성(건축물 도면, 수목현황도, 배수로 공사 도면, 소방도면 등)
 - 토지이용 및 시설물 현황 파악
 - 주변의 교통이용 및 경관 현황 검토
- 주변 마을 현황조사
 - 건축물 및 시설물, 도로, 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 관련 계획 및 법규검토
 -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상위계획에서 부터 부처별 관련계획을 검토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대구광역시 조례 등
- 여건분석
 -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문제점 및 잠재력 등을 분석
 - 자료 분석을 통한 보존, 활용, 개발 등 정비계획 여건분석
 - 각종 의견 수렴 및 반영

(3)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 서원 정비계획 사례조사 및 분석
- 기존 정비현황의 장단점 비교검토

(4) 기본구상

- 기본방향 설정
- 기본구상

(5)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 기본도면 작성
-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 건축물 정비계획 - 달성 도동서원의 원형고증에 따른 원상복원 및 철거 등
 - 동선 정비계획 - 보행자 및 차량동선계획, 관람동선계획 등
 - 시설물 정비계획 - 주차장, 방재시설물,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등
 - 조경 정비계획 - 경관 향상을 위한 수목 제거 및 보식 등
 - 편의시설 정비계획
 - 주변 마을 정비계획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 및 완전성 제고 방안 제시
- 관리 및 활용계획
 - 달성 도동서원에 대한 다각도의 활용방안 제시
 -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방안 모색
 -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제시

(6) 사업추진계획

- 연차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제시
- 추정 소요사업비 산출 및 단계별 투자계획 제시

(7) 기타 사항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연구에 반영

(8)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원고는 감독공무원과 합의하여 집필자 및 감수자를 선정함
-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문화재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구조적 특성 및 양식, 조경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을 수록함

3. 계획수행과정 및 참여연구진

1) 계획수행과정



2) 참여연구진

달성군		
	표준식	관광과장
	민병제	문화재 담당
	김제근	학예연구사
자문위원		
	김용수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사적분과 문화재위원)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최종희	배재대학교 교수(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남시진	계림문화재연구원 연구원장
연구원	정해두	계림문화재연구원 건축조사연구실장
	김동기	계림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지원실장
연구보조원	황선진	계림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윤동훈	계림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윤묘화	계림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객원 연구원		
사 학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서지학	조철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조경학	최재영	경주대학교 교수

3) 예정 공정표

구분	내용	D + 30	D + 60	D + 90	D + 120	D + 150	D + 180	D + 240
인문 조사	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						
	기초자료 조사		■					
	기초자료의 검토 및 분석		■	■				
현장 조사	현장조사		■	■	■			
보 고 서 작 성	종합정비 기본 계획(안) 작성			■	■			
	도면, 사진 등 자료 정리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
협의	심의 및 협의						■	■



水月樓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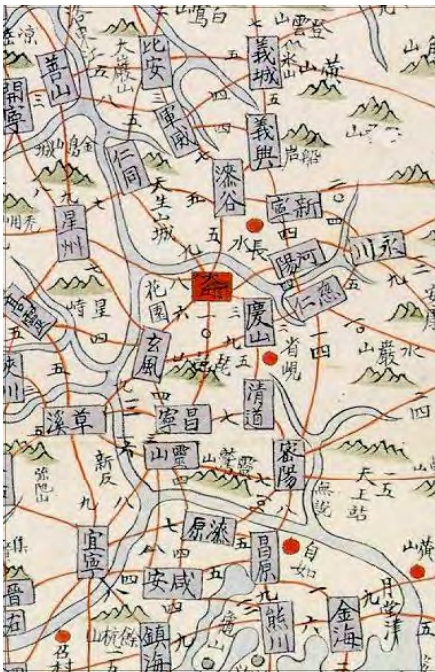
인제대학교
아름다운 자연

1.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일반현황

1) 대구광역시

(1) 자연지리적 환경

대구광역시는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동쪽은 경산시, 서쪽은 성주군과 고령군, 북쪽은 칠곡군, 군위군, 영천시가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은 청도군, 창녕군과 인접하고 있다.



여지도 경상도 대구 지리(19세기 전반)

지점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 거리
	지명	극점	
동단	동구 내곡동	동경 128°46' 북위 35°52'	동서간 37.4km
서단	달성 구지·도동	동경 128°21' 북위 35°42'	
남단	달성 구지·대암	동경 128°23' 북위 35°36'	남북간 45.4km
북단	동구 공산동(팔공산 정상)	동경 128°41' 북위 36°01'	

대구광역시는 침식분지인 대구분지에 발달해 있다. 대구분지는 동서 약 26km, 남북 약 33km의 규모로서 북부와 남부 산지가 병풍처럼 분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금호강이 흐르는 동·서부는 남·북부에 비해 고도가 낮다. 분지상(盆地床)에는 고도 200~300m의 구릉지와 대규모의 범람원이 발달해 있다.

대구분지의 북쪽은 팔공산괴(八公山塊)를 주체로 하는 산지가 발달해 있다. 이 팔공산괴는 불국사관입암으로서 초례봉(醺禮峰 : 636m)·환성산(環城山 : 809m)·인봉(印峰 : 891m)·팔공산(八公山 : 1,192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팔공산괴 내에는 하천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소규모 분지가 곳곳에 산재하며, 그 주변산록에는 도덕산(道德山 : 660m)·응해산(鷹蟹山 : 526m)·문암산(門巖山 : 431m)·응봉(鷹峰 : 456m)·용암산(龍巖山 : 368m) 등이 환상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 환상산맥은 팔공산괴를 구성하는 화강암이 관입될 때 경상누층군의 암석들이 경화되어 만들어진 접촉변질경화대에 해당되는 곳이다.

남부에는 신천(新川) 서쪽에 청룡산(靑龍山 : 794m)·산성산(山城山 : 653m)·앞산(660m)·삼필봉(三筆峰 : 468m) 등이 있으며, 동쪽에는 용지봉

(龍池峰 : 629m)·대덕산(大德山 : 600m)·병풍산(屏風山 : 571m) 등이 솟아 있다. 이들 산지 사이에는 팔조령(八助嶺 : 373m)·비내현(飛內峴 : 426m)·통점령(通店嶺 : 703m) 등의 고개가 있다.

금호강이 분지 중앙부를 동에서 서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데, 신천이 분지 남쪽에서 유입되어 시내 중심부를 관류하다 침산교(砦山橋)를 지나고, 달서천은 시내 중심부를 가로질러 달서교를 지나 모두 금호강으로 흘러든다. 이들 하천은 유로 변동이 심하고 홍수의 피해가 잦아 제방을 축조했으며, 그 양안과 주변 일대에 형성된 범람원과 구릉지에는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다. 분지 북동쪽에서는 동화천(桐華川)이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금호 제1교 근처에서 금호강으로 흘러 들어가며, 북서쪽에서는 팔거천이 남류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서대구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역시 금호강으로 흘러든다. 기타 금호강의 작은 지류들이 분지의 남북사면에서 발원하여 금호강으로 유입된다.

대구의 기후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분지지역으로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연평균기온 14.1℃ 내외, 1월평균기온 0.6℃ 내외, 8월평균기온 26.4℃ 내외로 연교차는 25.8℃에 달한다. 특히 연중 일 최고 기온 30℃ 이상인 날이 55.5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1942년 8월 1일에는 40.0℃로서 이례적인 고온일을 기록했다. 연평균강수량은 1,064.4mm로 소우지이며, 연간 일조시간은 2,266시간이다¹⁾.

대구광역시 월별 강수량 및 평균기온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수량(mm)	118.98	8.1	7.1	82.1	74.4	50.6	85.1	202.5	327.1	241.5	28.1	32.5	50.7
평균기온(℃)		0.8	1.1	7.7	15.1	20.1	23.2	27.5	27.9	21.7	15.8	8.2	-0.3

(2) 인문사회적 환경

대구광역시 2013년 1월 1일 현재 883.63km²의 면적에 중구(中區)·동구(東區)·서구(西區)·남구(南區)·북구(北區)·수성구(壽成區)·달서구(達西區)·달성군(達成郡) 등 7개 구, 1개 군, 139개 행정동, 290개 법정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인구는 총 2,505,644명, 948,465세대이다.³⁾

1) 대한민국 기상청

2) 대구광역시 2013년 시정현황

3) 대구광역시 2013년 시정현황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면적표

구분	면적(km ²)	법정동·리	행정읍·면·동	통·리	반
계	883.63	290	139	3,495	23,014
중 구	7.05	57	12	175	1,012
동 구	182.16	45	20	405	2,267
서 구	17.48	9	17	337	2,360
남 구	17.44	3	13	325	1,988
북 구	94.08	31	23	673	4,209
수성구	76.47	26	23	576	4,028
달서구	62.34	24	22	748	5,288
달성군	426.61	95	9	255	1,862

대구광역시의 인구변동은 행정구역의 변천, 8·15해방 및 6·25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30년 인구는 약 10만 1,000명이었으나, 1938년에 시역이 9.25km²에서 115.64km²로 확장되면서 약 17만 2,000명으로 55.17%나 증가했다. 1944년에는 20만 7,000명이 되었고 1946년에는 해방과 함께 해외동포가 귀국하는 등의 사회적 변동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6만 9,000명, 1949년에는 31만 4,000명이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26만 9,000명으로 다시 감소했고 1951년에는 피난민의 유입으로 36만 8,796명, 1952년에는 40만 6,96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협정으로 피난민이 귀향함으로써 다시 인구는 39만 3,852명으로 감소했다. 1958년 시역이 463.19km²로 확장되면서 인구는 61만 4,290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1969년에는 103만 4,234명이 되었다. 그 뒤 연평균 5.96%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1979년에는 157만 2,824명이 되었고, 1981년 직할시가 되면서 시역이 확장되어 183만 8,03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985년에는 202만 9,853명, 1990년 222만 8,834명, 달성군과 통합 이후 시역이 확장되면서 광역시 인구는 247만 6,983명으로 1985년을 기준해 22%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구증가와 함께 가구 수도 1951년 7만 1,431가구에서 1960년 12만 1,275가구, 1970년 21만 7,666가구, 1980년 36만 2,627가구, 1990년 59만 1,138가구, 1996년 75만

1,502가구로 증가했다. 그러나 가구당 인구수는 1955년 5.7명, 1965년 5.3명, 1975년 4.6명, 1985년 4.0명, 1996년 3.3명으로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1990년 이후 남자의 인구가 여자의 인구보다 약간 더 많다. 2012년 현재 인구는 달서구(60만 6,542명), 수성구(46만 1,083명), 북구(44만 9,775명), 동구(34만 1,206명), 서구(22만 2,619명), 달성군(18만 351명), 남구(16만 9,095명), 중구(7만 6,600명)으로 총 대구시 인구는 250만 7,271명이다.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세대수

구분	인구수(외국인 포함, 명)			2011년 대비 증감률(%)	세대수 (세대)
	계	남	여		
계	2,527,566	1,261,527	1,266,037	△0.07	948,652
중구	76,142	37,302	38,840	△1.52	35,175
동구	343,644	171,669	171,975	0.27	136,479
서구	222,173	112,870	109,303	△1.06	91,162
남구	169,646	82,780	86,836	△0.22	75,085
북구	452,836	227,270	225,566	△0.29	164,222
수성구	461,157	226,040	235,117	△0.29	162,023
달서구	614,330	307,205	307,125	△0.02	217,731
달성군	187,668	96,393	91,275	2.19	66,775

(3) 역사문화적 환경

삼국시대에 신라의 위화군(火郡)과 달구화현(達句火縣 : 또는 達句伐)이었다. 경덕왕 16년(757)에 위화군을 수창군(壽昌郡)으로, 달구화현을 대구현(大邱縣)으로 개칭하여 양주(良州 : 양산) 관하에 두었다. 이때 수창군은 대구현·하빈현(河濱縣)·팔리현(八里縣)·화원현(花園縣)을 영현으로 관할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940년 수창군은 수성군(壽城郡)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종 9년(1018)에 경주에 속했다가 1390년 감무를 둠으로써 독립했다.



신라 연혁도칠목 (19세기 이후)



영남지도 대구부 (18세기 중엽)

대구현은 1018년 경산부(京山府 : 성주)의 속현이 되었으나 인종 21년(1143) 현령을 둬으로써 그 지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조선 초 태조 3년(1394)에는 대구현이 수성현과 해안현(解顔縣)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세종 1년(1419)에 군으로, 1466년에 도호부로 승격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구의 군사적·지리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선조 34년(1601) 경상도 관찰사영이 설치됨으로써 경상도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현종 때에는 풍각현(豊角縣)을, 숙종 때에는 화원현을 다시 합병하여 면적을 확대함은 물론 교통의 요지를 확보했다. 별호는 달성(達城)이었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5년에 대구부 대구군, 1896년에 경상북도 대구군이 되었다. 1906년 월경지 정리에 의해 두입지(斗入地)인 각북면·각현내면·각초동면·각이동면이 청도군으로 이관되었다. 1911년 동상면과 서상면을 합하여 대구면을 신설했다. 1914년 군면 폐합 때 시가지 부분인 대구면은 대구부가 설치되어 독립되고, 옛 대구부의 30개면이 12개면으로, 현풍군의 15개면이 4개면으로 통합되어 달성군이 되었다. 대구의 성장에 따라 1938년에 달성군의 수성면 일원과 성북면·달성면 일부가 대구부로 편입되었으며, 1949년에 대구시로 개칭되었다. 1958년에 달성군의 동촌·공산·성서·월배·가창의 5개면이 대구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동촌면을 제외한 4개면이 다시 달성군에 환속되었다. 1962년에 구제(區制)가 실시되고 1980년에 수성구가 신설되었다. 1981년에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산군의 안심읍·고산면, 달성군의 월배읍·성서읍·공산면, 칠곡군의 칠곡읍이 편입되었으며, 1988년에 달서구가 신설되었다. 1990년 7개구 141개동의 행정구역에서 1992년 서구 평리동·산격동, 수성구 만촌동·지산동·황금동, 달서구 월배동이 분동함으로써 7개구 147개동으로 행정구역이 늘어났다. 1994년 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되었으며, 1995년 달성군을 편입하여 “7개 구 1개 군”으로 행정구역이 광역화되어 영남권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 달성군

(1) 자연지리적 환경

- 본 계획 대상지인 달성 도동서원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으로 달성군 구지면에 속해있다.
- 달성군은 19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가 확장되면서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달성군은 남북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성주군과 고령군, 남쪽으로 창녕군과 청도군을 접하며 동북쪽으로 수성구 및 경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점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 거리
	지명	극점	
동단	가창면 상원리	동경 128°42'	동서간 31.2km
서단	구지면 도동리	동경 128°21'	
남단	구지면 대암리	북위 35°37'	남북간 37.9km
북단	하빈면 대평리	북위 35°56'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달성군은 낙동강 유역을 연결하여 농업이 발달하였고 동서로 흐르는 금호강은 다사읍 남단 강정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 낙동강은 달성군 남북으로 하빈면 묘리에서 다사, 화원, 옥포, 논공, 현풍, 구지면 대암리까지 7개 읍면을 관류(貫流)하고 그 연장이 58.07km나 되며, 왕선들(다사), 쌀밋들(화원), 옥공들(옥포, 논공), 현내들(현풍) 등이 하안평야를 이루고 있다.
- 달성군은 팔공산과 함께 대구 2대 명산 중 하나인 비슬산이 화원, 논공, 가창, 옥포, 현풍, 유가의 6개 읍·면에 뻗쳐있다.

- 비슬산은 일명 포산(苞山)으로 불리우며 해발 1,084m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조화봉, 월광봉이 있고 서편으로 필봉, 북쪽으로 석검봉, 수도봉이 있다.
- 주맥이 청도에서 팔조령을 거쳐 대구 앞산으로 뻗쳐 유가에서 최고봉을 이루고 남주(南走)하여 창녕에 화왕산, 서주(西走)하여 창녕의 소백산을 형성하고 있다.
- 비슬산 주봉에서 동쪽으로 최정산(915m), 주암산(846m), 가창면으로 뻗쳐 있고, 또한 지맥은 청룡산(793m), 산성산(653m)으로 수성구와 가창면이 경계를 이루었고, 북쪽에는 금계산(488m)이 옥포면, 논공읍으로 뻗쳐졌다.
- 달성군은 내륙성 기후로 기온교차가 크고 연평균기온 14.4℃, 1월 평균 기온이 0.0℃, 8월 평균기온이 28.7℃이며 연강수량은 1204.5mm 이지만 소우지역에 속한다.

(2) 인문사회적 환경⁴⁾

- 달성군은 626.60km²의 면적에 3개 읍(화원, 논공, 다사), 6개 면(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251개 행정리, 95개 법정리가 설치되어 있다.
- 중구(中區)·동구(東區)·서구(西區)·남구(南區)·북구(北區)·수성구(壽成區)·달서구(達西區)·달성군(達成郡) 등 7개 구, 1개 군, 139개 행정동, 290개 법정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인구는 총 183,639명, 64,851세대이다.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읍	면	리		반
					행정	법정	
계	426.60	100	3	6	251	95	1,819
화원	27.67	6.5	1		46	6	498
논공	63.87	10.3	1		26	9	177
다사	36.66	8.6	1		42	11	508
가창	111.17	26.1		1	26	12	127
하빈	36.70	8.6		1	19	9	62
옥포	48.94	11.5		1	18	9	151
현풍	24.47	5.7		1	25	11	127
유가	57.36	13.4		1	20	13	63
구지	39.76	9.3		1	29	15	106

4)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2년 통계연보 참조

■ 2012년 현재 달성군의 인구는 화원읍(56298명), 논공읍(24847명), 다사읍(57648명), 가창면(8623명), 하빈면(4535명), 옥포면(10973명), 유가면(2685명), 구지면(7262명)이며, 매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⁵⁾

구 분	인구수(명)-외국인포함			세대수 (세대)	인구밀도(명)	
	계	남	여		계	면적(km ²)
계	183,639	94,375	89,264	64,851	430.46	426.61
화 원	56,298	28,499	27,799	18,681	2,034.62	27.67
논 공	24,847	13,437	11,410	8,749	566.38	43.87
다 사	57,648	29,027	28,621	19,045	1,572.50	36.66
가 창	8,623	4,321	4,302	3,561	77.57	111.17
하 빈	4,535	2,506	2,029	1,968	123.57	36.70
옥 포	10,973	5,782	5,191	4,229	224.21	48.94
현 풍	10,768	5,496	5,272	4,321	440.05	24.47
유 가	2,685	1,373	1,312	1,228	46.80	57.37
구 지	7,262	3,934	3,328	3,069	182.65	39.76

■ 2011년 현재 달성군의 전체면적은 426.61km²로 대구광역시의 48.28%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 달성군의 토지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258.28km²로 경상도의 지역적인 특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달성 도동서원이 위치한 구지면(39.76km²)도 임야(14.14)의 면적비율(35.5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논(8.02km²)과 밭(5.04km²)도 높은 면적비율(32.85%)을 보이고 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2년 통계연보

연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구 (총수)	140,345	144,487	156,405	158,278	157,797	160,062	158,208
연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 (총수)	160,363	160,693	162,854	173,361	178,477	181,623	183,639

(3) 역사문화적 환경⁶⁾



대구 달성도 (18세기 후반)

대구광역시 전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대략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집단끼리 세력통합운동이 일어나 성읍국가와 같은 소국(小國)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삼한시대에는 변한에 속했으며, 달구화(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이라 하였다. 신라의 군현체제가 실시되면서 달성군 일대는 위화군(지금의 대구, 가창일원)과 달구화현(達丘火縣)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신라 경덕왕 16년(757) 군현 명칭 개정 시 위화군은 대구현(大丘縣), 다사지현은 하빈현, 설화현은 화원현, 추량현은 현효현, 지성화현은 해안현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리고 하빈현, 화원현은 수창군(壽昌郡), 해안현은 장산군(지금의 경산), 현효현은 화원군(지금의 창녕)에 속하게 되었다. 현효현은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삼랑화정이 설치된 군사적 중심지역이다.

후삼국시대 달성군 지역은 신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장이 되었고, 고려 태조 10년(927)에는 고려와 후백제군과의 싸움인 공산전투가 있었다. 고려 초기 지명 개정 때 수창군을 수성군으로 불렀고, 현종 9년(1018)에 해안현과 함께 동경유수관의 속읍(屬邑)이 되었다. 현효현은 현풍현으로 고친 뒤 밀성군의 속현이 되었고, 하빈현과 화원현은 경산부(지금의 성주)에 속하였다. 공양왕 2년(1390)에 수성군·현풍현에 감무가 파견되었고, 인종 21년(1143) 경산부의 속읍이었던 대구현에는 현령이 파견되었다.

조선 태종 14년(1414)에는 현풍현과 화원현을 제외한 수성현·해안현 등 달성군 지역 일대가 대구에 속하게 되었다. 세종 원년(1419) 대구현을 군으로 승격하여 달성이라 하였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고종 32년(1895)에 대구부 대구군, 1893년에 경상북도 대구군이 되었다.

임진왜란 후인 선조 34년(1601) 대구에 경상도 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정치·행정·군사 중심지가 되었다. 1905년 성주군 노곡면이 현풍군에 편입되고,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대구부 외곽지와 현풍군을 통합하여 달성군이라 하였다.

1958년 대구시가 확장되면서 동촌면·공산면·가창면·성서면·월배면이 대구로 편입되었다가 1963년 동촌면을 제외한 4개면이 환원되었다. 1979년 월배면과 성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 7월 1일 대구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월배읍·성서읍·공산면이 대구로 편입되었다. 1992년 화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전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데 이어 4월에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가 달서구로 편입되었다. 1996년 논공면이 논공읍으로, 1997년 다사면이 다사읍으로 승격되었다. 2012년 현재 관할구역은 화원읍·논공읍·다사읍·가창면·하빈면·옥포면·현풍면·유가면·구지면 등 3읍 6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6)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43~44쪽

2. 조선시대 서원과 서원건축

1) 조선시대 서원

(1) 서원의 역사



성균관 명륜당



전주향교 대성전

유교를 치국 이념으로 내세워 유교 정치를 펼쳤던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학은 성균관(成均館), 사부학당(四部學堂), 향교(鄕校) 등이 있고, 사학은 서원(書院), 서당(書堂), 정사(精舍) 등이 있다.

관학 중 최고기관인 성균관은 조선후기까지 최고 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부학당과 향교는 시대에 따라 쇠미해지고⁷⁾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사학 교육기관들이 성행하게 되었다.⁸⁾

서원의 명칭은 원래 당나라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정의 도서관 혹은 개인의 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나라 현종 때 궁중에서 서적을 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하였다. 당나라 때의 서원은 서적만을 편수하였으나 송나라 초기에 조정에서 지방의 사숙(私塾)⁹⁾에 서원의 이름을 사명(賜名)¹⁰⁾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명칭이 되어 수양서원(睢陽書院)¹¹⁾·석고서원(石鼓書院)·악록서원(嶽麓書院)·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의 4대 서원이 건립되어 서원제도가 중국에 정착하게 되었다.¹²⁾

조선시대의 서원은 신라시대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사학교육(私學教育)과 고려시대에 발생한 사묘제도(祠廟制度)가 결합하여 성립된 사학 교육기관¹³⁾으로 중국과 같이 서적을 수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이미 신라 말 고려 초부터 존재하였으나, 소위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발생하게 되었으며, 조선 초 태종과 세종의 사학 장려책에 힘입어 고려 말 이래로 발전해 온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의 사학이 한층 융성하여 유학과 더불어 발전해 나갔다.

7) 조선 중기 16세기이후 향교는 과거 준비의 장으로 변질되어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양식 있는 선비들은 관학을 기피하고 우수한 교관들도 향교를 떠나 학문에는 뜻이 없고 벼슬에만 관심 있는 자들만 남게 되었다.

8)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1994, 7쪽

9) 글방, 한문을 사사로이 가르치던 곳

10) 공이 많은 신하에게 임금의 이름을 지어줌, 또는 그 이름

11) 주자(朱子)가 강론하던 서원으로 유명함

12)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6쪽

13)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최완기, 『한국의 서원』, 대원사, 1991이 참고가 된다.

이후 사학과 사묘가 각각 발전해 오다가 조선 연산군 이후 지방 사림의 발전과 주자 숭배사상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종 37년(1542)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고려 말 성리학자였던 안향(安珦(1243-1306))의 고향인 순흥에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사당 앞에 학문을 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¹⁴⁾'을 건립하여 한국 최초의 서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후 서원은 명종(明宗)대까지는 건립상황이 미미한 상태였으나, 선조(宣祖)대에 이르러 급격히 상승하여 그 이후 광해군(光海君)대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선조대의 상승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현종(顯宗)대에 들어서는 남설의 징후를 보이면서 숙종(肅宗)대에 서원 건립은 그 정점을 이룬다. 이후 숙종대와 영조(英祖)대에 걸쳐 실시된 서원건립 억제책이 반영되어, 경종(景宗)대부터 서원 건립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순조(純祖)대부터는 사실상 서원 건립 활동은 거의 중단되어 현상유지에 그치고 만다.

그 이유는 서원의 남설, 즉 수적 증가에 반비례한 서원 교육의 질적 하락이라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고종 8년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이항의 활동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세붕이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이래, 초창기 이항(李滉)은 서원 건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항은 향교(鄕校)와 국학(國學)은 나라의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고 과거(科擧)와의 관련으로 올바른 학문에 심잠(心潛)할 수 없는 반면, 서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세주의나 공리주의를 떠나 순수한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제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항은 서원을 통해 성리학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서원이 이항과의 관련 속에서 건립되고 명명되었다. 하지만 17~18세기에 양반관료 사이에서 당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당(自黨)의 선사(先師), 선배를 경쟁적으로 봉사하면서 서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후 서원이 남설되고 질적하락이 동반되어 서원의 맥락이 쇠퇴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원 건립은 경상도가 33%, 전라도가 20%, 충청도가 14%를 차지하는 등 남부지방에 집중되었으며, 현재 남한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총 서원은 약 350여 개에 이르며, 경상도가 45%, 전라도가 33%, 충청도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경북지방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¹⁵⁾



주세붕 영정 (소수서원 소장, 사진촬영본)



안향 영정 (소수서원 소장, 사진촬영본)

14) 현재의 소수서원(紹修書院)

15)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1994, 14~17쪽 참조

미철서원 일람표(47개소)

서원명	지정별	주향인	소재지	건립연대	사액연대
금오서원(金烏書院)	시도기념물 제60호	충절공 길 재(忠節公 吉 再)	경북 선산	1570	1566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적 제499호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경남 함양	1522	1575
노강서원(鷺江書院)	시도기념물 제41호	문열공 박태보(文烈公 朴太輔)	경기 의정부	1695	1697
노강서원(魯岡書院)	시도유형 제30호	문정공 윤 황(文正公 尹 煌)	충남 논산	1687	1742
노덕서원(老德書院)	-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함남 북청	1627	1687
덕봉서원(德峰書院)	시도유형 제8호	문정공 오두인(文貞公 吳斗寅)	경기 안성	1695	1700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 제488호	문경공 김광필(文敬公 金宏弼)	대구 달성	1604	1610
도산서원(陶山書院)	사적 제170호	문순공 이 황(文純公 李 滉)	경북 안동	1574	1575
돈암서원(豚巖書院)	사적 제383호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충남 논산	1634	1660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 제166호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전북 정읍	1615	1696
문희서원(文會書院)	-	문성공 이 이(文成公 李 珥)	황해 연백	1599	1628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 제260호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경북 안동	1613	1863
봉양서원(鳳陽書院)	-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황해 은율	1695	1696
사충서원(四忠書院)	-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경기 하남	1725	1726
서악서원(西岳書院)	시도기념물 제19호	홍유후 설 충(弘儒侯 薛 聰)	경북 경주	1561	1623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 제55호	문성공 안 향(文成公 安 珦)	경북 영주	1543	1550
송양서원(松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경기 개성	1573	1575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경기 개성	1650	1650
옥동서원(玉洞書院)	시도기념물 제52호	익성공 황 희(翼成公 黃 喜)	경북 상주	1714	1789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 제154호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경북 경주	1573	1574
용연서원(龍淵書院)	시도유형 제70호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경기 포천	1691	1752
우저서원(牛渚書院)	시도유형 제10호	문열공 조 헌(文烈公 趙 憲)	경기 김포	1648	1675
창절서원(彰節書院)	시도유형 제27호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강원 영월	1685	1699
충렬서원(忠烈書院)	-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壽)	강원 김화	1650	1652
파산서원(坡山書院)	문화재자료 제10호	문간공 성 혼(文簡公 成 渾)	경기 파주	1568	1650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 제242호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전남 장성	1590	1662
흥암서원(興巖書院)	시도기념물 제61호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경북 상주	1702	1705
강한사(江漢祠)	-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경기 여주	1785	1785
기공사(紀功祠)	-	장렬공 권 울(莊烈公 權 慄)	경기 고양	1841	1841
무열사(武烈祠)	-	상 서 석 성(尙 書 石 星)	평남 평양	1603	1709
삼충사(三忠祠)	-	무항후 제갈량(武侯侯 諸葛亮)	평남 영유	-	-
수충사(酬忠祠)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평북 영변	-	-
창렬사(彰烈祠)	-	문정공 윤 집(文貞公 尹 集)	충남 부여	1717	1721
충렬사(忠烈祠)	-	문충공 김상용(文忠公 金常容)	인천 강화	1642	1658
충렬사(忠烈祠)	-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부산 동래	1606	1624
충렬사(忠烈祠)	-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경남 통영	1614	1723
충렬사(忠烈祠)	-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충북 충주	1697	1727
충민사(忠愍祠)	-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평남 안주	1681	1682
태사사(太師祠)	-	장절공 신승겸(壯節公 申崇謙)	황해 평산	고려	조선정조
포충사(褒忠祠)	-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전남 광주	1601	1603
포충사(褒忠祠)	-	충강공 이술원(忠武公 李述原)	강원 철원	1665	1668
포충사(褒忠祠)	-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경남 거창	1738	1738
표절사(表節祠)	-	충렬공 정 시(忠烈公 鄭 蓄)	평북 정주	-	-
표충사(表忠祠)	-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詳)	충북 청주	1731	1736
현절사(賢節祠)	-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常憲)	경기 광주	1688	1693
청성묘(淸聖廟)	-	청혜후 백 이(淸惠侯 伯 夷)	황해 해주	1691	1701

(2) 서원의 역사문화적 성격¹⁶⁾

조선시대 서원은 복잡한 성격변화를 거치면서 400여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향약 등의 향촌 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문 연구와 발전을 선도했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신사적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가치는 유형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 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서원은 향촌 지성들의 집회소로서 다양하고 중첩적인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인물사와 고건축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서원 본연의 교육적 기능보다도 전통제례, 또는 원론적 유학의 본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의 고유 기능은 지방 교육으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삼은 사학기구이다. 각 서원은 저마다 교육의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며, 이는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방침이 엄연히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학맥의 개성적인 특성은 서원의 운영과 교육방침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또 서원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상징적 기구로,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를 꾸리기도 하였다. 집회소로서 서원의 기능은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수많은 명칭의 각종 조직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지성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의 토대는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유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 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실시 등의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족활동의 거점은 바로 서원이었고,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서원에서의 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16) 『서원 보존·정비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10~12쪽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향촌사회의 교화 및 훈육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의 보존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의 장서각에는 경서(經書)를 기본으로 유가(儒家), 역사(歷史), 전기(傳記) 등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장된 도서 외에 각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 장서의 관리와 점검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도서의 보존기능에 더하여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새로운 기능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추배된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遺稿)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원은 유교문화의 대표적 공간임과 동시에 유학자 개인에게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仁)과 '천리절문(天理節文)'의 예(禮)를 실천하는 장소였다. 서원에서 유학자들은 배우며 쉬고 노닐며 축적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세계관·자연관을 체득 인식하고자 했다. 이에 적합하도록 서원 입지를 선정하고, 경관과 장소를 조성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대체로 연고(선현의 강학처, 유허지, 씨족마을)가 있으면서도 배산임수에 천석(泉石)이 있는 경승지를 선택하였다. 자연전망을 통해서 천인합일을 체득 인식할 수 있도록 서원 전면에 생기 있는 안(案)을 설정하였으며, 경사 있는 자연지형은 상승감을 주는 진입로로 활용하였다. 누문과 강당에서 보이는 자연전망을 확보하고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형국)를 각별히 중시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예의 실천 장소로 서원 내부공간을 만들고자, 위계에 따른 당하·계하의 차별, 비움과 채움의 장소, 오행의 순서, 우회로 활용 등으로 장소경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서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며,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건축, 기록, 경관 등)들이 존재하며,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서원은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2) 서원건축의 이해

(1) 서원의 일반현황

국가지정 9개소 (도동, 돈암, 무성, 필암, 소수, 옥산, 도산, 병산, 남계)
외 636개소

서원 문화재 지정현황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내용 중 서원 문화재 지정현황 참조)

단위 : 건

구분	국가 지정 (사적)	시·도지정			문화재 자료	지정계	비지정	합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서울							2	2
부산							1	1
대구	1		1		3	5	25	30
인천								0
광주					1	1	4	5
대전					1	1		1
울산					1	1	8	9
경기		5	3		4	12	19	31
강원		3				3	10	13
충북			3		1	4	22	26
충남	1	2	1		14	18	18	36
전북	1				21	22	86	108
전남	1		7		8	16	47	63
경북	4	5	12	1	15	37	156	193
경남	1	4	7		35	47	135	182
제주								0
합계	9	19	34	1	104	167	533	700

(2) 서원의 시대적 가치

■ 과거 : 교육철학이 담긴 지성의 장소

서원의 가치는 유형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은 향촌 지성들의 집회소로서 다양하고 중첩적인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

■ 현재 : 시대정신 전승의 장소

서원은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천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있어

높은 건축적 가치와 수려한 입지여건을 갖춘 역사교육 및 관광지로써의 잠재력이 높다.

■ 미래 :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상징적 장소

서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던 선조의 지혜를 전승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와 현재의 서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하드웨어 구축을 통해 신구조화의 상징적 장소로 세계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명소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서원의 공간적 특성

■ 서원은 보통 내부적으로는 상승적 대칭구조를 가지며 기능적으로 분절된 배치를 통해 위계를 가진 동선을 형성한다.

■ 이에 따라 강학영역, 제향영역, 관리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변부는 입지에 따라 유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과 마주보는 전망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성된 배경은 기능별로 진입 영역과 경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원의 공간구성-달성 동동서원 평면 활용



(4) 서원의 건축적 특성



서원의 개방성 - 달성 도동서원 평면도 활용

- 서원의 건축양식 및 건축기술은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가장 큰 건축적 특징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 개방적인 건축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 특징은 배치 및 입지, 담장, 강당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 재료는 나무를 주재료로 하고, 강당은 내부에서 외부로 열려 있으며, 담장은 조망을 고려하여 낮고, 배치는 지형에 순응하는 특징을 지닌다.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서원의 특성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의 경사지형에 의해 건축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지에 세워지는 서원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전저후고 지형의 서원과 같이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입지구성을 취하고 있다.

(5) 서원의 경관적 특성

서원 건축의 경관적 특성은 조선시대의 유교가 추구하는 가치인 “천인합일”을 체득하고 그 원리를 경관에서 구현하는데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서원 및 향교 경관을 해독하는 주요 경관 요소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입지경관

㉠ 자연성

- 우리나라 서원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입지하는 자연성에서 볼 수 있다. 푸른 산색과 반짝이며 굽이쳐 흐르는 물색에서 생의를 깨닫고 마음을 넓히며 지혜를 함축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산수경관이 서원의 필수적 입지 요소이다.

㉠ 전저후고의 경사지형

■ 우리나라 서원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의 경사지형에 입지한다. 이러한 서원의 전저후고의 입지경관은 내부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개방적 시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천일합일'을 체득하게 한다. 또한 자연적 지형 경사를 따라 외삼문(누문) - 안마당 - 강당 - 사당의 순으로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진입과정에서 느끼는 상승감이 공간의 위계에 대한 외경심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② 전망경관

■ 전망경관은 문루나 강당에서 전면의 대자연을 내다보는 경관으로 인간과 대자연이 마주보는 천인대대의 경관을 뜻한다. 자연과 생의를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仁)를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③ 안마당(中庭) 경관

■ 서원 내부는 기능에 따라 많은 분절된 장소가 형성된다. 서원의 중심, 곧 강당 앞에는 보통 안마당(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안마당은 비움의 공간으로 황토로 채우고 화초나 수목을 심지 않는다. 비움으로써 마당은 양기를 충전하는 장소가 되고, 수양의 성찰을 돕도록 침묵의 공간이 된다.

■ 중정의 규모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규모로 제한되는 '인간적 스케일'이다.

④ 수목 경관

■ 서원은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입지하므로 의도적 수목식재는 제한적이다. 식재 수종의 특성은 서원 경외는 진입공간과 담장 주위, 서원 내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원 경외의 진입공간의 공통적인 수목은 소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행단과 관련된 은행나무가 대표적이고 노거수가 많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유식, 여가장소인 정자나무 역할을 한다. 담장 주위와 서원 뒤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대표적이다. 경내에 식재되는 나무는 강학공간에는 은행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강학공간은 안마당이 중심 장소가 되기 때문에 나무나 초본의 식재가 적다.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수목이 많은 편이다. 목백일홍(배롱나무)과 무궁화 및 모과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측백과 회화나무 등이 있다.

3. 달성 도동서원 일반현황

1) 달성 도동서원의 역사

(1) 김굉필의 생애와 사상

김굉필은 15세기 후반 사림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자(字)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 시호(諡號)는 문경(文敬)이다. 그는 단종 2년(1454)에 한양의 정릉동(貞陵洞, 지금의 貞洞) 자택에서 부 절충장군호군(折衝將軍護軍) 유(紐)와 모 청주한씨(淸州韓氏)의 맏아들로 출생하여, 연산 10년(1504) 51세 때 갑자사화를 계기로 적소(謫所) 순천부(順天府)에서 일생을 마쳤다.

김굉필의 선세(先世)는 본래 황해도 서흥토성(瑞興土姓)으로 고려 후기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그의 증조 김사곤(金士坤)이 선초에 수령과 청환(淸宦)을 역임하였다가 처향(현풍곽씨)을 따라 현풍현에 이주하면서 현풍인이 되었다.¹⁷⁾ 또한 그의 조부인 의영고사(義盈庫使)를 지낸 김소형(金小亨)은 개국공신 조반(趙胖, 復興君)의 사위였는데, 김굉필이 태어난 서울 정릉동 사제는 이러한 부조(父祖)이래의 기반이었다. 한편 김굉필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19세에 합천군(陝川郡) 야로(冶爐)의 순천박씨(順天朴氏)의 사위가 되면서 부터는 처가를 따라 이곳에 내주(來住)하였으며, 이후 현풍·서울·야로·성주 가천(伽川, 처외가) 등지를 왕래하면서 사류들과 교류하였다.

김굉필은 태어나서 가학을 계승하다가 21세에 당시 함양군수인 김종직(金宗直)을 처음 대면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 소학을 배웠다. 이 때 점필재는 김굉필이 지은 「독소학(讀小學)」이란 시에 “소학 책에서 어제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네”란 구절을 보고 “성인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있다”며 찬탄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그는 소학동자라 불리워 질 정도로 율신(律身)에 있어서 소학으로 규준(規準)을 삼았다 한다.

이후에도 김굉필은 선생인 김종직을 모시고 선산향교에서 학우들과 경서를 토론하고 또한 함께 지리산을 종유하는 등 김종직 문하에 출입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27세에는 생원시에 합격하고, 또한 이해에 원각사의 승려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관계에는 진출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그의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가 33세에 당시 이조참판이었던 김종직이 사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함을 빗대는 시를 올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제지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7)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2~193쪽

이와 같이 김광필은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기 훈구·사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정여창 등 여타의 영남출신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온건파에 속하였다. 조선조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 당시 집권 훈구세력에게 위기감을 고조시킨 것은 김종직 문하에서 주로 근기지역 출신의 소장파 인사들이었지만 그 피해는 영남인사들에게도 컸다. 김광필은 성종중반기 이후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환력(宦歷)은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유일(遺逸)로 남부참봉(南部參奉)에 천거되어 무오사화가 발발한 45세 때 약 4년간 짧은 기간을 관직에 있으면서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사헌부감찰을 거쳐 형조좌랑 등을 역임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정치라기보다는 도학자 또는 교육자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김광필은 일찍부터 후진교육에 힘써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성종조 사림파는 김종직·김광필·정여창 세 사람의 사우(師友)·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김광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컸다. 그는 사림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문인들 가운데 후대에까지 문명(文名)을 떨치고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거나 개혁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이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조광조(趙光祖)·김안국(金安國)으로 대표되는 중종조 개혁정치의 주역은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며, 또한 이들의 문인들은 사림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스승인 김광필을 계승해 이 당시 가장 문제시 되었던 사습(士習)의 부정(不正)을 바로 잡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학을 크게 장려하였다.

특히 김광필은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도학자로서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사림파는 신왕조의 건국을 내심으로 반대하였던 국초의 재야세력과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을 내심 불의로 간주하였던 절의파의 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계보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계보의식은 김광필의 제자인 조광조 일파에 의하여 정설화 되어 갔는데 중종대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림(己卯士林)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의 강화와 관련하여 자기들의 영수인 조광조의 학통을 그의 스승인 김광필에 잇고 그것을 다시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인 정몽주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다.¹⁸⁾

중종조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류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 연산조 이래 피폐해진 교학(敎學)의 진흥을 위한 한 방법으로 정몽주·김광필의 문묘종사를 추진하였다. 이때의 문묘종사논의는 먼저 5년과 9년에 정몽주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2년 8월에 조광조와 연결된 성균생원 권전(權堧)이 정몽주·김광필 양인의 종사를 청하는 상소¹⁹⁾를 올림으로서

18) 이병휴, 「朝鮮前期 士林派의 推移 속에서 본 金宏弼의 歴史的 座標」, 『역사교육 논집』34, 2005

19) 『중종실록』 권29, 12년 8월 경술.

크게 재연되었다. 문묘종사 문제는 문묘에 1인을 배향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유학의 적통자를 밝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들의 학문적 계승자로 자처하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계열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도학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한 방법이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집권의 명분 강화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공신세력과 조광조로 대표되는 신진 사림 간에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²⁰⁾

중종대의 김굉필 승무(陞廡)운동은 훈구세력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갔지만, 정몽주에서 김굉필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림파의 학문적 계보의식은 16세기 후반 본격적인 사림정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황·기대승 등에 의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통일되다시피 하였다.²¹⁾ 이것은 곧바로 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 이른바 동방오현(東方五賢) 문묘종사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서 김굉필은 5현 중 수현(首賢)의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분으로 확정되었다.

선조 때 김굉필의 문묘종사를 청하면서 그의 학문적 성취와 후세에 끼친 공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의리(義理)의 학문은 실로 김굉필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굉필이 아조(我朝) 초기의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성현의 학문을 흠모하여 구습(舊習)을 모두 버리고 소학에 진심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시다. 학문에 힘쓰는 지 10년 만에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모두 예법(禮法)을 따랐고 지경(持敬) 공부에 전력한 지 30여 년에 정력(精力)이 쌓이고 도(道)와 덕(德)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세를 만나게 되자 화(禍)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세상에 시행한 것은 없었으나 그가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있음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인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우리 동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의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의 공입니다.²²⁾

도학자로서의 김굉필에 대한 평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는데 퇴계는 "김선생의 도학연원(道學淵源)은 진실로 후학의 감히 추측할 바 아니다. 그러나 先朝(중종) 추장(追獎)의 뜻으로 보면 단연코 근세 도학지종(道學之宗)이라 하겠다"²³⁾라고 하여 김굉필의 도학적 위치를 간명하게 평가하였다.

20) 鄭萬祚,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1, 33~35쪽

21) 『선조실록』 권1, 선조즉위년 11월 갑진 및 을묘.

22) 『선조실록』 권4, 3년 5월 병자.

23) 『退溪集』答盧仁甫書.

(2) 달성 도동서원의 역사

① 달성 도동서원의 입지와 자연경관

달성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도동리 35)에 위치한다. 구마고속도로 현풍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서쪽으로 낙동강에 접하는 현풍면 길을 따라서 다람재를 넘어서면 큰 강을 마주하고 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달성 도동서원의 배향자인 김광필의 선조 때부터 살던 곳으로 다람재 전망대 옆에 김광필의 시비 노방송(路傍松)과 다람재 기념비가 있고, 다람재를 내려서면 달성 도동서원이며, 그의 묘소도 인근 산기슭에 있다. 서원이 위치한 곳은 도동동 뒷산 기슭의 활갈이 휘어져 돌출된 구릉으로서 터전은 평지와 같이 다듬어졌으나 건물은 지형 때문에 경사지에 전체적으로 북향으로 놓여있으며 배산 임수의 모습을 띠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의 대니산(戴尼山) 기슭에서 북향하여 낙동강과 건너편 산들을 바라본다. 이러한 배치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대니산이 현풍 읍치 서쪽에서 서북방향으로 뻗고 그 밖을 흐르는 낙동강은 대니산 끝자락을 돌아 남동방향으로 흐른다. 대니산과 낙동강이 어울려 북서쪽으로 돌출한 반도 모양을 만들었다.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 '오설면(烏舌面)'은 까마귀 혀(舌)를 뜻하는데, 이곳의 지형을 형상한 것으로 보인다. 대니산은 원래 태리산(台離山) 혹은 제산(梯山)으로 불렸는데, 후대 사람들이 김광필이 이 산 아래 살았다 하여 대니산으로 바꾸어 불렀다. 대(戴)는 머리에 인다는 뜻이고 니(尼)는 공자를 뜻한다. 공자의 본이름(휘:諱)은 공구이고 자(字)가 중니(仲尼)이다. 따라서 대니산은 공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높이 받드는 산이라는 의미가 된다. 김광필이 현인으로서 성인인 공자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생 도(道)를 실천했다면, 달성 도동서원의 선비들은 김광필을 닮고자 하는 뜻을 대니산 이름에 담았다.

달성 도동서원의 앞으로는 낙동강이 깊은 물길을 이루며 서쪽으로 흐르고, 물 건너에 개구리 모양의 작은 섬이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서원 동쪽 대니산 산줄기가 물가로 내려와 잘린 것처럼 강물 가운데 산이 가깝다. 현지 사람들은 물가로 내리뻗은 이 산줄기를 다람쥐 모양으로 생각해 '다람재'라 부르고, 잘린 듯 떨어져 물속에 고립된 작은 산을 '개구리 산'으로 부른다. 서원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 전망하면, 달성 도동서원 정면의 '개구리 산'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서 산줄기가 모여 드는 모습이다.

달성 도동서원이 가깝게 마주 보는 산, 곧 안대(案對)는 이 '개구리 산'이다. 보다 먼 안대 경관은 낙동강과 개구리 산을 향해 일제히 달려드는 듯 느껴지는 강 건너편의 산들이다. 이 형국은 풍수적으로 뱀들이 개구리를 노리고 쫓은 장사추와형(長蛇追蛙形), 혹은 용 모양의 주위 산들이 구슬 모양의 개구리 산을 얻고자 달려드는 오룡쟁주형(五龍爭珠形)으로 설명될 수 있다. 쫓는 뱀과 쫓기는 개구리의 모양이나 용들이 구슬을 삼키려는 형국은 모두 극도의 긴장을 느끼게 하고 따라서 생기가 매우 충만한 국면이 된다.²⁴⁾

달성 도동서원 건축물 현황

구분	건립 연대	면적(m ²)	규모	양식	비고
사당	1604	37.27	1층, 정면3칸·측면3칸	맞배지붕, 겹처마	
내삼문	1604	18.48	1층, 정면3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증반소	1604	11.90	1층, 정면2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일각문	1604	-	1층, 정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중정당 (강당)	1605	93.31	1층, 정면5칸·측면2칸	이익공, 맞배지붕, 겹처마	
거인재 (동재)	1605	25.29	1층, 정면3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거의재 (서재)	1605	24.92	1층, 정면3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장판각	1605	7.39	1층, 정면2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환주문	1605	-	1층, 정면1칸	사모지붕, 홑처마	
수월루	1973	37.08	1층, 정면3칸·측면2칸	팔작지붕, 겹처마	1855년 건립되었으나 1888년 화재로 소실
전사청	1605	75.39	1층, 정면5칸·측면4칸	우진각+맞배지붕, 홑처마	
문간채	1605	22.66	1층, 정면4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곡간채	1605	33.53	1층, 정면4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사주문	1605	-	1층, 정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신도비각	1976	5.68	1층, 정면1칸·측면1칸	맞배지붕, 겹처마	1626년 신도비 건립
유물전시관	2001	44.16	1층, 정면4칸·측면1.5칸	맞배지붕, 홑처마	
화장실	1997	3.60	1층, 정면3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달성 도동서원 중건을 주도한 정구(鄭逋)는 김굉필의 묘소와 은거지 인근을 입지로 선택했다. 정구는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선생을 봉안하는 글」에서, 서원의 새 입지 선택의 기준을 첫째 대니산을 주산으로 하여 낙동강을 안대 경관으로 전망하는 것, 둘째 보다 조용한 환경, 셋째 선생의 연고지와 가까운 점 등 3가지로 밝혔다. 정구는 자신의 외증조부 되는 김굉필을 제향하는 서원 자리를 주도적으로 물색하고 서원의 제도 규모를 정하면서, 김굉필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터를 찾고 서원 건물의 공간배치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장소와 좌향(坐向)의 결정은 서원 앞 낙동강 경치의 충만한 생기를 깊이 배려했을 것이다.

서원 입구에서 늠름한 은행나무가 눈에 크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 은행나무는 정구가 서원 중건을 기념하여 심었다고 한다. 서원 앞뜰에는 인조 3년(1625) 건립한 신도비가 있는데, 이 신도비는 사우당 김대진

24) 김덕현, 「외로운 달이 찬 강물을 비추는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한국의 서원-』, 2013

(金大振, 종손)이 후손과 사림 및 경상감사 이민구(李敏求)의 협력으로 세워졌는데, 그 글은 장현광(張顯光)이 짓고 사헌부감찰 배홍우(裴弘祐)가 썼다. 그 맞은편에 1980년에 건립한 국역 신도비가 있다.

② 달성 도동서원의 연혁

조선시대 서원은 사림의 교육·교화기구인 동시에 대표적인 향촌운영 기구이다. 서원설립 주체인 사림은 조선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재야세력으로 밀려나는 계열의 후예들로 이들은 향촌에 내려가 교육과 향촌건설에 주력하였는데, 서원제도의 성립은 이러한 사림세력들의 향촌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제도이다. 사림세력들의 향촌문제에 대한 관심은 조선 초 사창제 실시, 유향소 복립운동, 향약실시 등으로 나타났는데 서원제도의 성립은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간 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제도이다. 사림세력이 이와 같이 향촌사회의 중심점을 서원으로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은 서원자체가 교육기관으로써 훈구파의 견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송대(宋代) 서원제도의 일정한 영향에서였으며 이는 사림세력 자체를 위해서도 그만큼 유리한 일이었다. 즉 서원은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세력으로부터의 견제를 그만큼 덜 받을 수 있는 기구였다.

초창기 서원은 강학(講學)이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존현(尊賢) 또한 중요한 기능이었다. 따라서 배향인물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였다. 이후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선조대에 오면 명종대의 일정한 제약에서 벗어나 서원은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이때 오면 제향자도 김굉필·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 등 사화기에 피화된 인물 및 이황(李滉)·이이(李珥)·조식(曹植) 등 학파의 영수 등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확대되었다. 당시 사림들은 서원의 제향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도학적 정통성을 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일정하게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김굉필을 배향하는 서원이 곳곳에 건립되었다. 김굉필을 향사하는 최초의 서원은 그가 별세한 후 60여년 뒤인 명종 20년(1565)에 그가 별세한 적소(謫所)인 전라도 순천(順天)에 건립된 옥천서원(玉川書院)이다. 이 서원은 퇴계문도로서 순천부사였던 이정(李禎)의 주관하에 향내유림들과 함께 건립되었다. 원래 1564년에 김굉필의 학덕을 추모한다는 뜻에서 경현당(景賢堂)을 건립하였다가 다음해에 옥천정사(玉泉精舍)와 동·서재를 건립함으로써 서원의 구조를 갖추었다. 이 서원은 선조의 등극(1568년)과 동시에 사림의 청액(請額)으로 옥천(玉川)으로 사액을 받았다.²⁵⁾

이후 그의 고향인 현풍에서도 김굉필을 향사하는 서원 건립이 추진되어

25) 『全南의 書院·祠宇』(사액서원편), 전라남도, 1988, 127쪽

선조 원년(1568) 현의 동쪽 비슬산(琵琶山) 기슭에 쌍계서원(雙溪書院)이 건립되었다. 이 서원에 대한 자료는 전무해서 서원의 건립과정이나 운영 등 구체적인 것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도동서원창건시문적(道東書院 勸建時文蹟)』에 의하면 이 쌍계서원의 건립은 당시의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향중사림(鄉中士林) 뿐만 아니라 특히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 서원은 선조 6년(1573)에 경상감사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경주의 옥산(玉山), 영주(榮川)의 이산(伊山)서원과 함께 사액과 동시에 서적을 하사받았다.²⁷⁾ 이후 쌍계서원은 임란으로 폐파(廢破)되었지만 당시 전란으로 인한 향촌사회의 피폐와 물력의 부족으로 10여 년간 중건되지 못하였다. 이후 선조 37년(1604)에 현서(縣西) 15리 오설면(烏舌面) 도동(道東) 송추하(松楸下)로 옮겨 중건되었는데 이때 서원명을 보로(甫老)로 개명하였다가 광해 2년(1610)에 봉안하였으며, 이해에 도신(道臣)의 계청(啓請)으로 도동(道東)으로 재사액(再賜額)되었다.²⁸⁾ 『봉안시제집사분정기(奉安時諸執事分定記)』에 의하면 이때 초헌(初獻)은 도사(都事) 배대유(裵大維), 아헌(亞獻)은 의령현감(宜寧縣監) 이함(李涵), 종헌(終獻)은 현풍현감(玄風縣監) 권양(權養)이었다. 참제유생(參祭儒生)은 경상도 29개 지역 84명이었다.²⁹⁾

이때 건립된 건물 중 강당에는 도동서원 현판이 전면에 하나 안쪽 정면 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걸려있다. 정간(正間)은 퇴계의 글씨를 모각(模刻)한 것이고, 강당 안쪽의 서원현판은 경상도 도사(都事) 배대유(裵大維)의 글씨이다. 강당 중정당(中正堂) 현판은 봉조하(奉朝賀) 이관징(李觀徵)의 글씨이다. 상량문과 원기(院記)·송(頌) 등은 원래 없었다고 한다.³⁰⁾

정면의 현판 아래에는 「도동서원 액판 밑에 쓰다(書道東書院額板下)」라는 제목의 작은 현판이 달려 있다. 정구가 퇴계 글씨를 모각한 서원 현판을 달게 된 사유를 적은 것이다. 정구의 스승인 퇴계 이항이 살아 있을 때 김굉필을 제향하는 서원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졌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26) 『道東書院勸建時文蹟』 萬曆 32년 7월 請助呈書, 「歲戊辰之間 (雙溪書院)---鄉中父老 景慕先生之道德而勸立祠院 財合於公 力借於公 數年而後 訖功 祠宇廚舍講堂齋寮 總若干間架 額扁雙溪 藏書數千 自 上賜命也 守有典僕 月有供入 方伯定式也」

27) 『선조실록』 권7, 6년 11월 갑진

28) 현재 달성 도동서원 현판에 1607년에 사액받았다고 되어 있고, 또 정구의 手書에도 1607년에 현판을 나라에서 내렸다는 내용이 있다. 도동서원에 현판을 걸은 것이 1607년(『道東書院四字 都事裵大維筆 萬曆丁未(1607)懸揭』(『列邑院宇事蹟』도동서원조)임은 틀림없다. 다만 실록 등 관찬사료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또 도동서원이 再賜額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도동서원의 사액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列邑院宇事蹟』도동서원조에 1610년에 奉安하고 감사가 청해서 사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萬曆甲辰(1604)移建于道東松楸之下 庚戌(1610)奉安 道臣啓請 賜額). 또 도동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향사시 제문에 보면 1609년까지는 사액이라는 내용이 없다가, 만력 38년(1610) 제문에 사액을 거듭 내려 번뜻 번뜻 빛친다(宣額천(至+存)降 輝映)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 사액년은 16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수환(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생각임). 참고로 도동서원 入院錄은 1610년부터 기록되어 있고, 參祭錄은 만력 39년(1611)부터 기록되어 있다.

29) 이수환, 「道東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 基盤」, 『사학연구』 60, 2001

30)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玄風 道東書院條

그 때 건립이 이루어 졌더라면, 퇴계 선생이 직접 이 서원 액호를 썼을 것이다. 정구가 이를 아쉽게 생각하여 퇴계의 글씨를 모각하여 사액현판과 함께 안팎으로 내걸게 되었으니 후학들은 '도동(道東)'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노력하라는 내용이다. 현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선생(李滉)이 일찍이 김 선생(金宏弼)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생존 시에 이 일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아 열 곳의 서원이 채워지지 못하였다. - 문집 속에 「서원십영(書院十詠)」이라는 시가 있으나 아홉 곳의 서원만 있고 열 개의 수호가 채워지지 못했다. - 만일 도동서원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액호(額號)를 손수 쓰시는 일을 어찌 여느 서원보다 뒤에 하였겠는가. - 여러 서원의 액호는 대부분 선생이 손수 쓰신 것이다. - 지금 서원이 중건되어 이름을 도동(道東)으로 하라는 명이 대궐에서 내려오고 뒤이어 판액(板額)이 장차 내려올 예정인데, 마침 또 선생이 쓰신 편액의 글씨 중에서 네 자의 큰 글씨를 찾아서 본을 떠 각(刻)하여 서원으로 보냈다. 이리하여 선사(先師)의 옛 필치와 성주(聖主)께서 하사한 판액이 장차 안팎에서 빛을 발하게 됨으로써 배우는 유자(儒者)로 하여금 무엇을 모범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게 하였으며, 따라서 또 이 선생의 유지(遺志)를 이루게 되었다. 이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 서원에 들어오는 우리 선비들은 서로 이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道東)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오도(吾道)의 전통이 끊이지 않을 방도를 어찌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강당에는 국왕의 전교(傳敎), 김안국시판(金安國詩板), 백록동규(白鹿洞規), 국기(國忌), 서원규목(書院規目) 등 현판이 걸려있다. 전교의 내용은 1676년(숙종 2) 10월 10일에 숙종 임금이 밤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푸는 자리(夜對)에서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를 하면서, 문묘종사 등 공이 큰 현인을 향사하는 서원에는 특전을 주는 것을 허용하라는 국왕의 전교를 등서한 것이다. 김안국시판(金安國詩板)은 경상감사 김안국이 경상도 각 읍(各邑)의 학자에게 보낸 학문을 장려하는 시이다. 현풍의 학자들에게는 현풍 사람인 김광필의 학문을 세상에서 으뜸으로 추존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김안국은 조광조와 함께 김광필의 수제자이다. 서원규목은 정구가 지은 도동서원 원규이다.³¹⁾

달성 도동서원의 중건과정에 대해서는 『도동서원창건시문적』을 통해 대체적인 과정은 파악된다. 달성 도동서원은 이 시기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사림의 공론에 의해 김광필의 내외손 및 일향사림의 공동협력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감사를 비롯한 본현 내지 인근 지방관의

31) 김덕현, 앞의 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특히 이 서원의 중건과정에서는 김굉필의 외증손이며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해 나갔던 정구와 감사의 역할이 컸다.

정구는 서원 가까운 곳에 정자 낙고재(洛臯齋)를 짓고 거처하면서 도동서원의 설립을 주도했다. 스승 정구로부터 제자들이 들은 바를 기록한 『한강집』 「언행록」에는 정구가 김굉필의 외증손임을 언급하고, 도동서원 건립 사업이 정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서원의 규모와 제도, 그리고 서원에서 3월과 10월 연 2회 김굉필의 묘소에 제사를 올리는 일까지 정구의 의견으로 시작되어 서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음을 기술하고 있다.

한훤당 김선생은 선생의 외증대부(外曾大父; 할머니의 아버지)인데, 실로 동방 이학의 종주이다. 전에 포산읍(苞山邑; 현풍의 옛 이름) 사람이 고을 동쪽 1리 쯤 되는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 지세가 낮고 좁은데다가 성시(城市; 읍내)가 가까워 배우는 이들이 도를 강론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진년의 병화에 불타버리자 선생이 마침내 이건을 모아 보로동(甫老洞)으로 옮겨 세우고 '도동(道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는 조정에 사액을 청하여 편액을 걸었으니 그곳은 바로 김선생의 묘소 아래였다. 곽공근(郭公赆)이 그 일은 주관하였는데 그 규모와 제도는 한결같이 선생의 의견을 따랐다. 매년 봄·가을로 제향을 올리고 나서 3월과 10월 상순에 원생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선생의 묘소에 제사를 올렸는데, 그것이 전해져서 정식(定式)이 되었다. -이육(李堉)

정구는 또한 중건초기에 백록동규를 모범으로 한 도동원규(道東院規)를 제정하여 매 삭망에 제생(諸生)에게 의리를 강마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선조 37년(1604)에는 먼저 중건 역사를 관장할 원장으로 곽근(郭根)을 천거하였고, 선조 40년(1607)에는 안동대도호부사로 있으면서 당시 영남학파의 중심인사였던 대구도호부사인 정경세(鄭經世)와 합천군수(陝川郡守) 여대로(呂大老)와 함께 중건구조통문(重建求助通文)을 내기도 하는 등 도동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³²⁾

달성 도동서원은 중건 당시에 그 역사(役事)를 주도하였던 정구에 의해 제정된 원규(院規)³³⁾가 있어 이를 통하여 서원의 인적구성 및 그 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영남지역 남인계 서원의 경우 원규는 대체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규와 퇴계가 제정한 이산원규(伊山院規)를 모범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었는데, 도동서원 원규는 앞 두 서원규와 기본 방향은 같지만 그 내용이 여타의 서원규보다 상당히

32) 『道東書院勸建時文蹟』 및 『道東書院重修事蹟志』, “昔在萬曆甲辰勸建是院 而寒岡鄭先生實主張之時 愚伏鑑湖兩先生 適莅隣邑 亦拔例助將 鄭先生遂 本鄉士林一心經營 七載告落”

33) 도동원규는 현재 서원 강당내에 1918년에 刻板된 현판으로 걸려있는데, 그 내용은 『寒岡續集』 권4, 雜著, 院規條에 전제되어 있다.

구체적인 것이 특징이다. 도동서원규는 서원 중건시 정구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이때 이미 제정되어 있었던 성주의 천곡서원규(川谷書院規)를 대본으로 해서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곡서원규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제정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서원규범(書院規範)』(永川 臨臯書院 소장)³⁴⁾를 통해서 그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된다. 『서원규범』에서 확인되는 천곡원규와 도동원규를 비교해 보면 천곡원규는 모두 도동원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천곡서원(김광필 등 배향)은 1558년에 건립된 성주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이 지역 출신인 정구는 퇴계에 품정하여 원호(院號)를 천곡으로 하는 등 그 건립에 앞장섰다. 이렇게 볼 때 이 서원 원규의 제정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정구는 원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구가 도동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서원운영의 기본원칙을 밝히는 원규를 제정하면서 이전부터 그가 숙지하고 있었던 천곡원규를 도동서원 실정에 맞게 원용하였다고 보인다. 정구의 문집에 실려 있는 「도동서원원규」의 주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향사를 근실하게 실행할 것(謹享祀)

향교는 사실 근본이 되는 곳인데 요즘에는 의식이 해이해진 정도가 지나쳐 비록 식견이 있는 선비라 해도 스스로 세속에 휩쓸려 남의 집안일처럼 보고 있다. 앞으로 원임(院任)은 항상 정일(丁日)을 만나면 경내의 유생을 인솔하고 미리 한자리에 모여 석전(釋奠)을 행하고, 본원의 향사는 중정(中丁)에 행함으로써 유생 상호간에 일체감을 갖게 하고 선현에 대한 향사가 선후의 순서가 있도록 해야 한다. 향사에 일곱 번까지 불참한 자는 명단에서 축출한다.

○ 원장을 존중할 것(尊院長)

원장의 직임은 자주 선불리 바뀌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글로 갖추어 원중(院中)에 고한다.

○ 유사를 가려 정한다(擇有司)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고르되 반드시 순박하고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을 골라 맡긴다.

○ 신진을 영입한다(引新進)

언제나 향사하는 날 신진을 논의하여 영입한다. 천거하여 올리는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서 훌륭한 학행이 있는 자로 한다. 또 비록 약관이 채 안 되었더라도 사마시에 입격(入格)하거나 혹은 향시에 합격

34) 이 『書院規範』에는 川谷·伊山·屏山·陶山書院 등의 院規 및 竹溪誌 소재 원규 등이 발췌 기재되어 있다.

하고 재주와 행실에 뛰어나 유익한 벗의 반열에 끼일 만한 자로 한다. 새로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인 자들은 모두 양몽재(養蒙齋)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20세가 지났더라도 미처 원유 선발에 들어오지 못해 양몽재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 또한 그 요구를 들어 준다. 양몽재는 서재 앞 담 밖에 있었다.

○ 앉는 순서를 정한다(定座次)

앉을 때는 반드시 나이 순서대로 한다. 만약 벼슬이 높은 자가 있거나 혹은 다른 지방의 손님이 있을 때는 모두 차례를 정해 앉는다. 양몽재의 학생은 모두 남쪽에 앉는다.

○ 강습을 부지런히 한다(勤講習)

원장은 벗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권하고 강습하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겨울과 봄에는 오경과 사서 및 이락(伊洛)의 여러 성리서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자서(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읽도록 한다. 본 서원에 들어 온 선비는 과거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시험 이외에도 옛 사람의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란 것이 있다... 타고난 본성 속에서 위기지학을 찾는다면 마음을 두어야 할 곳과 힘을 들어야 할 길은 아마도 경(敬) 한 자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훤당께서 평생 절실히 추구한 것은 다 이 경(敬) 자였다.

조정의 이해, 변방의 소식, 관원의 임명, 고을 관원의 장단과 득실, 못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등에 관해서는 모두 언급하면 안 된다. 음담패설 등 여색에 관한 부정한 말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부끄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양몽재 여러 학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이 깊은 뒤에 잠자리에 들어 『소학』을 읽을 것을 명하되, 그 과정을 엄하게 세워 가차 없이 훈계한다. 음하고 절하는 것이 법도가 있고 말씨가 겸손하여야만 배움의 길로 들어선 초기에 예의를 잘 익혀 진취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 어진 선비를 예우한다(禮賢士)

은거한 현인이나 성인의 도를 좋아 하고 지조를 지키는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원장은 마땅히 학우들을 거느리고 예로써 그를 영접하여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 금지와 예방을 엄격히 한다(嚴禁防)

『장자』, 『열자』, 『노자』, 불교의 서책과 바둑판이나 장기판 같은 놀이기구는 모두 서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일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출입하지 못한다. 다른 색깔들이란 무사나 잡술을 익힌 사람이다.

○ 청작(淸酌 제사에 쓰이는 술) 이외에 다른 술을 빚지 못한다. 윤제(尹祭 제사에 쓰이는 육포) 이외에 소를 죽이지 못한다. 여종은 제당(齋堂)에 출입하여 밥상을 들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위 원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입원생(入院生)을 구분 입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20세를 기준으로 하여 20세 이상인 자는 정식 입원생으로 선발하였고, 20세 미만의 신학소아(新學小兒)는 입원의 전단계로서 별도로 설치한 양몽재(養蒙齋)에 먼저 입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입원(入院)하지 못한 자로서 양몽재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허락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입원생은 초학(初學)이 아닌 이미 가학(家學) 및 서당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양몽재는 서원교육 이전의 일종의 예비교육 기관이었던 것이다. 서원 내에 이러한 입원생과 동몽의 구분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이산원규에는 동몽에 대해 단순히 “성재내승원(成才乃升院)”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별도의 건물을 세워 교육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이다.

현풍 사람들은 서원중건 논의가 시작되자 곧바로 감사에 정서(呈書)하여 이전의 쌍계서원 건립 당시에 감사가 후원한 예를 들면서, 량향(糧餉)·재철(材鐵)·선척(船隻)·목수 등 중건에 필요한 물력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하였다.³⁵⁾ 이러한 서원유생들의 정서에 대해 감사는 제음(題音)에서 공량(工糧)은 본 현과 고령 소재 미(米) 5석(石), 태(太) 3석을, 철물(鐵物)은 웅천상신철(熊川上薪鐵) 100근(斤)을 하사하였고, 재목은 본 현 경내의 것을, 선척은 본 현 유재선(留在船) 1척을 군량미나 영중(營中)잡물 등 운송 시를 제외한 한가한 때에 차급(借給)함을 허락하였다. 그 외에도 기강(岐江)의 구황염(救荒鹽) 5석을 하사하였고 장인(匠人)은 본현경내(本縣境內) 장인으로서는 사한 하도록 하고, 만약 타관(他官) 장인이 필요하면 고령(高靈)·초계(草溪) 등지의 장인을 지명하여 속목(贖木) 10필을 초송(抄送)하라고 하였다. 그 외의 일들은 본 읍 현감이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구는 무이고사(武夷故事)를 인용해 서원 뒤에 있는 묘택(墓宅)의 춘추묘사를 서원에서 설행(設行)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가(朝家)에서는 봉영(封塋)을 수호할 산직(山直) 10명을 획급하기도 하였다.³⁶⁾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의 중건은 이 시기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선생의 내외손, 향촌사림의 공동 협찬 하에 감사 및 본 읍과 인근 수령 등 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그 경제적 기반 또한 그들에 의해서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후 숙종 3년(1677)에 본현 생원 곽수하(郭壽夏) 등이 상서³⁷⁾를 올려 서원중건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고 또한 초기 운영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던 선생의 외증손인 정구의 종향(從享)을 청하였다. 이때의 상서에서는

35) 『道東書院勸建時文蹟』 만력 32년(1604) 7월 請助呈書

36) 『道東書院勸建時文蹟』 丁亥(1647) 玄風生員 郭壽星等 上書, “(道東書院) 先生墓宅在於院後 而方其設院之初 自朝家劃給十名山直 使之守護封塋 寒岡鄭先生 一依中朝武夷故事 春秋墓祀 自本院設行 國家之尊尙 士林之崇奉 與他院有別矣”

37) 『奉安時諸執事分定記』현풍생원 郭壽夏 등 上書, 여기에는 약 70명 이상의 유생이 참여하였다. 『숙종실록』 권6, 3년 11월 기묘조

정구을 비롯해 배신(裴紳)과 박성(朴惺)의 배향을 청했지만 정구만 윤허를 얻어 숙종 4년(1678) 3월 26일에 봉안하였다.³⁸⁾

한편 도동서원은 김광필 당시에 그와 도의지교(道義之交)가 있었던 현풍출신의 곽승화(郭承華, 진사)·배신(호 洛川, 교관)·곽일(郭日, 호 禮谷, 군수)·원개(元槩, 참봉) 등 4인을 배향하기 위해 서원 옆에 별도로 별사(別祠, 미사액)를 건립하였다.³⁹⁾ 이 별사는 숙종 21년(1695) 관통(館通)에 의해서 건립되어 앞 3인을 먼저 병향(竝享)하였는데, 숙종 32년(1706) 사론(士論)이 제발(齊發)하여 원개가 추향(追享)되었다.⁴⁰⁾ 이 별사는 대원군 원사(院祠) 훼손시에 훼손되었다.

달성 도동서원은 창건과 동시에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확보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도동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원노비와 피역을 목적으로 한 원속(院屬), 원위전(院位田) 및 지방관·유림들의 기부 또는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서원 소용의 각종 현물, 속사(屬寺), 속점(屬店) 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 달성 도동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자료로는 17세기 노비안 1책과 전답안 2책 및 원속안 등 몇몇 자료를 제외하면 그 외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도동서원 경제적 기반의 총체적인 규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동서원 경제의 2대 기반은 서원전과 원노비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서원전은 1678년 『도동서원전답수정기(道東書院田畓修正記)』에 의하면 17세기 중·후반의 도동서원 총 전답은 약 10여결 정도로 나타난다. 서원노비의 경우 17세기 초의 26구에서 17세기 말-18세기 초에는 약 150구(故·逃제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옥산·병산서원 등 조선후기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의 경우 17세기 중·후반을 기준하면 원노비가 약 150-200여구 정도로 확인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도동서원의 설립초기의 노비 확보상황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1650년에 감사에 의해 2번에 걸쳐 속공노비 4구가 지급되는 등 여타 서원의 경우와 동일하였다고 생각된다.⁴¹⁾

도동서원은 노비뿐만 아니라 피역을 목적으로 한 원속(院屬)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도동서원은 옥산·도산서원 등 문묘에 종사(從祀)된 제현을 봉사하는 서원은 당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호함에 따라 원속의 규모를 크게 증대시켜 나갔다.

11월 초 10일 야대시(夜對時)에 동부승지 권모(權某)의 계(啓)에 의하면 (….) 문묘종사제현은 백세에 공이 있다. 서원을 건립한 것은 실은 우문흥도(右文興道)의 뜻에서 나왔다. (….) 종사제현(從祀諸賢)의

38) 『奉安時諸執事分定記』文穆公寒岡鄭先生奉安時諸執事分定記에 의하면 이때 제집사 이외에 영산·대구·칠곡·창녕·의성·칠원·현풍 등지에서 49명의 유생이 참제하였다.

39) 『列邑院宇事蹟』慶尙道 玄風 道東書院條. 이 책에는 別祠의 上樑文과 元公奉安 祭文이 실려 있다.

40)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41) 이수환, 앞의 논문 참조

평생의 경과처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였다. 비록 일일이 모두 특전을 주는 것은 불가하지만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 양주의 도봉서원 영일의 오천서원과 같은 서원은 모입(募入)자를 그대로 두고 물침(勿侵)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서원등록』 권1, 丙辰(1664) 11월조).

도동서원은 중건 이후 당시 조선왕조의 서원진흥책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특히 제향자인 김굉필이 1610년(광해 2년)에 동방 5현의 한분으로 문묘(文廟)에 종사되자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도동서원은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하였던 정구가 그 중건을 주관하였고 또한 중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남남인계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 잡았다.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현풍의 유림사회를 영도했던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지동(池洞)과 솔례(率禮)를 근거지로 한 서흥김씨(瑞興金氏)와 현풍곽씨(玄風郭氏) 양 가문을 들 수 있다. 이들 양 가문은 현풍권 내 여타의 재지사족들과 더불어 임란 당시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향촌사회내에 재지적 기반을 크게 신장해 나갔다. 이들은 이후 양란을 거치면서 이완된 향촌질서를 재정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동안(洞案)과 동약(洞約)을 작성·실시하는 한편 『향안(鄉案)』을 작성하여 유향소를 운영하고 한편으로는 임란 때 불타버린 쌍계서원(雙溪書院)을 중수하는 등 향촌사회를 영도하고 지방유림을 조직·동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 곽·김 양가문은 토지·노비로 대표되는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17세기 초에 향촌사람과 지방관의 협조를 받아 도동서원을 설립하였고, 중반 이후에는 곽씨의 서원인 예연(禮淵)·이양서원(尼陽書院)을 설립하여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영남의 열읍(列邑)의 교원(校院) 세력과 연합하여 활발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 양 가문은 조선후기 서인 내지 노론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남인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풍권의 사림을 조직·동원하였던 것이다.

도동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림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원록(尋院錄)』의 분석이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심원록에서 보면 내방인사의 거주지는 대체로 현풍·성주·고령·창령·칠곡·합천·대구 등 이른바 경상도 중앙부에 해당하는 성주권에 집중되어 있다. 성주권은 17세기 초 경상도의 퇴계·남명학파를 융합한 한려학파(寒旅學派 : 정구, 장현광)가 형성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도동서원은 정구가 그 건립을 주도하였고 또한 중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강문인들의 관심이 컸다.

중건초기 심원록에서 보면 첫 등재자인 정구 이후로 장현광(張顯光)·이윤우(李潤雨)·허목(許穆)·허후(許厚)·유영순(柳永詢, 순찰사)·이호민(李好閔)·윤방(尹昉, 京)을 비롯해 곽재겸(郭再謙)·곽주(郭澍, 현풍), 박정번(朴廷璠, 고령), 이서(李舒)·이천봉(李天封)·이언영(李彦英, 성주), 문경호(文景虎)·

권양(權養, 합천), 서사원(徐思遠)·손처눌(孫處訥, 대구), 성안의(成安義, 창령), 이대기(李大期, 초계), 이의활(李宜活, 경주), 김광계(金光繼)·금개(琴愷)·이유도(李有道, 예안), 성여신(成汝信, 진주), 정사물(鄭四勿, 영천), 조익(趙翊, 상주) 등 당시 정구문인을 비롯한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내방하였다. 이후에도 영남의 남인계 중요인사들의 내방이 끊이지 않았으며, 또한 현풍현감을 비롯한 인근 지방관들도 관심도에 따라 서원에 내방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동서원을 중심으로한 현풍사람들은 김굉필의 학통을 계승하면서 남북분당 이후에는 김굉필의 외증손으로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했던 정구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도동서원은 대구·성주 등 경상도 중앙부지역을 대표하는 수원(首院)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도동서원은 이 지역 유림들을 결집하면서 나아가 안동·경주·상주권 등 도내 유림세력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이 시기 도동서원의 영남지역 내 위치는 서원 건물의 중건·중수 시 사정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도동서원 건물의 중수·수리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원래 각 서원에는 그 역사를 간단히 정리한 『고왕록(考往錄)』이 있었는데, 도동서원에도 원래는 고왕록이 있었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도동서원 창건시문적』, 『도동서원중수사적지(道東書院重修事蹟志)』(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및 기타 중수·수리기 등을 통하여 서원건물의 수리·중수·중건상황은 그 대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도동서원 건물에 대한 중건·중수·수리 등의 내용은 18세기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때까지는 대체로 대대적인 중건·중수는 없었으며,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 퇴락하면서 간단한 수집(修葺)·수보(修補) 정도는 수시로 있었다고 보여 진다. 서원 개별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중수로는 숙종 46년(1720) 묘우(廟宇)중수가 있었다. 이때 중수 비용은 경상도 좌우도 열읍의 향교·서원에 통문을 돌려 물력을 보조받아 충당하였는데⁴²⁾ 이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이어 순조 3년(1803)에 묘우·강당·동서재·신문(神門)·별묘 등 서원 건물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다. 이때의 대규모 중수는 1년 전인 1802년 7월에 논의가 되어 10월에 별목을 시작하여 1803년 10월에 낙성되었다. 중건 역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본손 및 본읍과 열읍의 각 향교·서원과 문중 등의 부조로 충당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³⁾ 본손 기부가 330량이고, 본 읍에서는 향교 15량, 예연·이양서원 각 9량, 육영재(育英齋) 3량, 별보매답전(別補賣畓錢) 553량 및 30여 문중

42) 『道東書院初建時文蹟』 道東書院儒生 嚴大厦等 通文에 의하면 이때 서원 物力이 凋弊하여 서원유생들이 左右道 列邑校院에 通文을 돌려 물력을 보조받아 完畢하였다. 이때 통문발간처는 다음과 같다. “右文通 高靈·陝川·居昌·安陰·咸陽·山陰·三嘉·草溪·宜寧·丹城·晉州·河東·昆陽·泗川·固城·鎭海·咸安·漆原·昌原·金海·熊川 等邑校院此亦中 事機甚急 左右道分 四張通告 而試役 當在七月初 各自惕念 所助物件 及期委傳 通文所到處 次次飛傳 俾無遲滯之患 千萬幸甚”

43) 『重修物力都摠』(癸亥, 1803)

및 댁에서 91량 8전, 원생완문전(院生完文錢) 90량, 원생·교생 부조전 각 10량·4량, 매와전(賣瓦錢) 36량, 이외 관가에서 10량을 부조하여 합 1160량 8전이였다. 이외 열읍의 부조는 성주 60량, 청도 25량, 의령 11량, 고령 19량 5전, 초계 27량, 영산 15량 5전, 창원 6량, 대구 14량, 창령 34량, 합천 15량, 칠곡 10량, 거창 9량, 함안 1량 등 13읍의 향교·서원과 문중에서 부조한 247량이였다. 본 읍과 열읍에서 부조한 전(錢)은 도합 1,407량 8전이였다. 이후 두 문중에서 4량과 매송전(賣松錢) 52량 1전 5분이 추도(追到)했으며, 1804·1805년에도 각 3량, 2량이 내도해 별보(別補)에 붙혔다. 이중 1,394량 4전이 중수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65량 5전 5분은 본원채전(本院債錢)을 갚았다. 이때의 중수는 일향사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10월 3일 낙성연에는 백일장을 겸하였는데 인근 6·7읍 의 여러 선비가 내회하였다.

한편 1899년에는 보원계안(補院稷案)을 작성해 유림들로부터 수전(收錢)하여 당시 조잔해진 서원복구에 힘썼다. 이해에 거둔 전(錢)의 규모를 보면, 2월 초 1일에 본읍 유림 117명으로부터 각각 1·5량씩 193량을 수전하였고 이어서 2월 향례 시에 21명으로부터 38량이 투입 되었고 여기에 이자 113량 5전을 합해서 합 344량 5전이였다. 이러한 보원계(補院稷)을 통한 모은 돈은 해마다 계속되어 1904년에는 이자를 합쳐 1,937량 9전 7분이나 되었고 이중 1,437량으로 답 19두락지를 매득하여 항구적인 서원경제의 확대를 기하였다. 이후에도 이러한 투입(追入)은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 읍뿐만 아니라 고령·창령·성주·합천·인동·경주·칠곡·군위·상주·봉화 등 인근 열읍의 유림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 중수 문제는 향내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열읍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서원이 가문 중심으로 변모한 이 시기에 이러한 인근 열읍의 관심은 당시 영남에 있어서 도동서원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증거가 된다.

최근 건물의 영조척(營造尺)을 분석한 외형적 결과로 보면 도동서원은 최초 건립 시에 수월루(水月樓)를 제외한 현존하는 주요건물 대부분이 일시에 조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조영시기와 관련된 기록들과도 일치한다. 수월루의 경우 1855년(철종 6)에 작성된 상량문에 의하면 최초 조영시기에는 건립되지 않았으며, 1855년 고을 선비들의 요청으로 건립되었고 이후 1888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73년에 복원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에도 서원 건물의 중수는 계속되었는데 해방 후에는 주로 도비·국비가 충당되었다. 1954년에는 김태섭(金兌燮, 후손)이 10만환을 내어 중정당을 보수하였고, 1956년에는 도비 20만원으로 포사(鋪舍)와 고사(庫舍)를 수리하였으며, 1957년에는 국비 30만원으로 원우(院宇)를 수리하였고, 1964년에는 국비 60만원으로 묘우·내삼문·중정당·동서재·장판각·외삼문을 수리하였다.⁴⁴⁾ 이후에도 서원의 중수·수리는 계속되었다.



달성 도동서원 배치

44) 20세기 이후의 서원 중수·수리 내용은 柳奭夏, <한훤당과 도동서원>을 참조

2) 달성 도동서원 관련 기록

(1) 달성 도동서원 중수내역

달성 도동서원의 중수 내역

시 기	내 용	비 고(해당 건물 및 기타사항)
1568년(선조 원년)	쌍계서원 창건	중정당, 동재, 서재, 환주문, 조한정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전소	
1604년(선조 37)	현 위치로 이건	사당 건립
1605년(선조 38)	보로동서원 중건	사당, 중정당, 동재, 서재, 환주문, 전사청, 장판각
1607년(선조 40)	도동서원 개명	
1626년(인조 4)	신도비 건립	
1634년(인조 12)	별사, 전각 건립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훼손
1720년(숙종 46)	묘우 중수	
1730년(영조 6)	서재 중수	
1803년(순조 3)	서원 중수 및 수리	묘우, 중정당, 동·서재, 신문, 별묘 등
1837년(헌종 3)	묘우 중수	
1855년(철종 6)	수월루 건립	
1888년(고종 25)	수월루 소실	
1954년	중정당 보수	후손 김태섭 사비(10만원)
1956년	포사(鋪舍) 및 고사(庫舍) 수리	도비(20만원)
1957년	원우(院宇) 수리	국비(30만원)
1962년	문화재 지정	중정당, 사당, 담장 일곽
1964년	수리	국비(60만원) 묘우, 내삼문, 중정당, 동·서재, 장판각, 외삼문 등
1973년	내삼문 보수 등	내삼문 보수, 막돌담장 해체 및 쌓기 34m, C형 안내판 설치 1개, 경고판 설치 1개
1975년	수월루 신축 등	수월루 신축(2층 한식) 1동, 환주문 보수공사, 내삼문 단청, 증반소 해체 번와, 막돌담장 해체보수

시 기	내 용	비 고(해당 건물 및 기타사항)
1976년	비각보수공사 등	비각보수공사 1.71평, 일각문 담장기와 해체 보수
1977년	일각문, 강당 보수 등	일각문, 강당 기단 해체 복원, 장독대 계단 및 기단 공사, 목공사 및 미장공사, 묘사체 보수 공사
1979년	관리사 보수	관리사 보수 1동 6.65평
1981년	관리사 헛간채 보수	관리사 헛간채 1동
1988년	자연석 축대 보수 등	자연석 축대 보수 및 신설, 사당 좌·우·배면 기단석 설치, 내·외삼문 전면 계단 축대 보수, 담장 7m, 협문 해체복원, 강당 방충, 방연제 도포 29.2평
1992년	중정당 보수 등	중정당 보수 28평, 고직사 보수 23평, 소화전 설치
1994년	증반소 보수 등	증반소 드잡이 보수 3.53평, 협문 1동 보수
1995년	사당 보수 등	사당 지붕 기와 번와 37.2㎡, 강당 툇마루 보수, 거인재 보수 24.91㎡, 거의재 보수 24.93㎡, 곳간채 보수 20.0㎡
1996년	훈증소독	문화재관리국 일괄시행
1997년	화장실 개축 등	화장실 개축 1.24평, 화장실 신축 1동, 문간채 보수 6.78평, 내삼문, 환주문, 수월루 전면 계단 보수, 음료대 설치 1기, 부지성토 및 주차장 설치, 조경 1식
1998년	담장 보수 등	담장 보수 및 배수로 설치
1999년	유물 전시관 건립	유물 전시관 건립 1동 13.06평
2003년	사당 보수	사당 번와 및 기단 보수
2005년	도난방지시설 설치	CCTV 9대, 화재·열선 감지기 6회로
2006년	사당 및 강당 보수 등	사당 및 강당 기단 보수, 사당 고막이 재사벽 마감공사 49.8㎡, 사당 교체 목부재 금모로 단청보수
2008년	방재시스템 구축	방범, 경보설비
2009년	방재시스템 구축	소방설비
	강당 해체 보수 등	강당 해체 보수(도리 이상), 수월루 및 비각 단청, 안내판, 진입로, 보호책 등 정비



어정규장전운, 정운옥편

(2) 문헌자료⁴⁵⁾

① 서책(국학진흥원 소장)

㉠ 어정규장각운(御定奎章閣韻)

간행연대 : 1838년 혹은 1898경 간행

수량 : 2권 1책

규격 :

<해제>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이며, 한시를 짓는데 꼭 필요한 운서(韻書)다. 흔히 '규장전운(奎章全韻)'이라 하며 평(平)·상(上)·거(去)·입(入)의 사성운(四聲韻)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였다. 특히 한글로 글자의 음을 달아 놓아서 한자음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책은 1798년(정조 20) 경에 나온 이후 여러 곳에서 판매용으로 간행된 방각본(坊刻本)이 널리 보급되었다.

㉡ 전운옥편(全韻玉篇)

간행연대 : 정조 때

수량 : 2권 2책

규격 :

<해제> 조선 정조(正祖) 때, 『강희자전(康熙字典)』을 본떠서 만든 한자(漢字) 자전이며, 한글로 음을 달고 운자를 붙인 것이 특징이다. 간행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규장전운(奎章全韻)』의 부록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부터 운서의 색인을 검해서 옥편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책도 그러한 경로로 만들어진 듯하다. 이 옥편은 다른 옥편과 달리 자의(字義) 아래 한글 자음(字音)을 쓰고 상세한 자의를 달았으며 운목명(韻目名)과 통용자 그리고 속자 등도 표시하여 다른 책을 볼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옥편 편찬의 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경백편

㉢ 오경백편(五經百篇)

간행연대 : 1795년(정조 19)

수량 : 5권 5책

규격 :

<해제> 정조가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예기(禮記)』·『춘추(春秋)』 등 오경(五經) 가운데 중요한 대목 99편을 가려 뽑고, 주자

45) 조철제(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작성

(朱子)의 저술 2편을 실었다. 정조는 이 책을 경상감영에 보내 유학자들로 하여금 교정을 보게 한 다음 내각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는 정조의 위대한 문화 사업의 일환이며, 당시 정치적 동향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백성을 계도하고 풍속을 순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오경의 중요 내용을 쉽게 접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목차로 권1은 역경, 권2는 시경, 권3은 시경, 권4는 춘추좌씨전, 권5는 예기이다.

본 책의 권1 첫 장에 ‘嘉慶三年九月 日 內賜道東書院 御定五經百篇一件’이라 써 두었다. 가경 3년(1798 정조 22)에 도동서원에 내린 내사본(內賜本)이란 의미이다. 내사할 때 이 다섯 책을 넣은 나무로 만든 함(函)이 있다. 그 목함의 표제에 ‘內賜道東書院 御定五經百篇’이라 썼으며, 상태는 양호하다. 도동서원에는 여러 내사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책과 『춘추(春秋)』만 전할 뿐이다.

㉞ 경현록(景賢錄) 4책

간행연대 :

수량 : 4책(상중하)

규격 :

<해제> 1책은 경현록(景賢錄)(상하) 상하, 2책은 경현속록보유(景賢續錄補遺)(중) 상하, 3책은 경현속록(景賢續錄)(하) 상하, 경현속록보유(景賢續錄補遺)(표지가 다름) 상하 등 4책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현록(景賢錄)

한훤당(寒暄堂)은 적소 순천(順天)에서 사사되었기 때문에 유고가 많지 않다. 퇴계 이황의 자제 구암(龜巖) 이정(李楨)이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한훤당은 매우 숭모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경현당(景賢堂)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구암은 한훤당의 가범(家範)과 행장을 모아 한 책을 엮었으나 많이 소략하였다. 구암은 의심된 부분을 스승 퇴계에게 물었다. 따라서 퇴계는 한훤당의 손자 립(立)과 외증손 정곤수(鄭崑壽) 등이 수록한 글을 참고하여 경현록 정본(定本)을 만들었다. 이때 취사(取捨)한 경위를 밝혔고 후학들에게 그 뜻을 알리기 위해 별록(別錄)이란 제목으로 권두에 실었으며, 이 글은 구암이 지었다.

목차 상권을 보면 한훤당의 상계(上系)와 후손들을 약술한 세계(世系)를 먼저 밝혔고, 사실(事實)과 행장(行狀)에서 한훤당에 대한 사적을 기술하였다. 서술(敘述)에서 추강사우록(秋江師友錄)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린 글을 인용하여 실었고, 그가 남긴 시문은 시부문(詩賦文)에 있다. 나머지 글은 추설(追雪)·포증(褒贈)·가증(加贈)·사전(祀典)과 청종사(請從祀)이고, 부록으로 제현(諸賢)의 시를 실었다.



경현록

하권에는 퇴계가 한훤당에 대해 제자들에게 준 간찰이 있고, 옥천서원(玉川書院) 사액 글씨를 적으면서 퇴계 글씨는 당중(堂中), 아계 이산해의 글씨는 처마 앞에 걸었다고 하였다. 다음 변오(辨誤)·속기(續記)·속보(續補)이고 말미에 남계서원(藍溪書院) 등에서 모사해 온 한훤당의 유묵(遺墨)을 실었다.

■ 경현속록(景賢續錄)

한훤당의 외증손 정곤수(鄭崑壽)의 동생 한강(寒岡) 정구(鄭逵)는 앞서 경행록에 실린 한훤당의 행장과 유사에 빠진 부분을 수집하여 엮은 책이 속록이다. 이 책은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한훤당의 후손 하석(夏錫)이 다시 당초의 자료를 찾아서 편집하였다. 속록에는 연보(年譜)와 사우문인(師友門人) 및 서원에 관한 귀중한 글이 실려 있다.

■ 경현속록보유(景賢續錄補遺)

이 책은 속록을 보완한 것이다. 곧 한훤당의 일화와 다른 문헌에 수록한 기사, 기타 후생들이 추모하는 기록 등을 엮었다. 상권 유사(遺事) 다음에 서술(敍述)이 있는데, 후세 많은 학자들이 한훤당의 학문과 삶을 기술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 지은 논사록(論思錄)에, '소학(小學)이 우리나라에 유포된 것은 오래되었으나 그 대의(大義)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김굉필이 학생을 모아 강의하면서 이 책이 크게 세상에 행하였다.'라고 하였다. 하권에 신도비 등 글이 실렸다.

경현속록보유(景賢續錄補遺)은 꼭 같은 내용의 2책이 전한다. 한 책은 앞서 경현록과 같은 표제의 책이고 다른 하나는 표제가 다를 뿐 아니라 장정과 행간도 다르다. 앞의 책 맨 뒤에 '己亥三月 道東重刊'이라 썼으나 뒤의 책은 간기가 없다. 따라서 더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뒤의 책이 더 앞서 출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 또는 사옹(簞翁), 시호는 문경(文敬),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그는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 유(紐)의 아들로서 한성부 정릉동(漢城府 貞陵洞=지금의 貞洞)에서 출생하였다. 아이 때 이름은 효동(孝童)이라 불렀는데, 아버지를 섬김에 극진한 효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천성이 고매하였고, 성장하면서 발분하여 학문에 힘을 썼다.

19세 때 합천에 사는 박씨에 장가를 들었다. 처가 옆 시냇물이 흘렀고, 그 건너 바위 아래 작은 서재를 지어 '한훤당(寒暄堂)'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호를 삼았다. 뒤에 현풍(玄風)으로 돌아오니, 현풍은 증조 때 이주한 고향이다. 21세 때 점필재 김종직을 찾아 성현의 학을 익히고 『소학(小學)』에 잠심하였다. 점필재는 『소학』에서 학문을 시작하면 광풍제월(光風霽月)도 여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는 한훤당이 지은 '독소학시(讀小學詩)'란 시에서 '『소학』의 글 속에서 지난 날의 잘못을 깨달았다(小學書中悟昨非)'라는 시구를 보고 성현의 자질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한훤당은 27세(1480)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척불소(斥佛疏)를 올렸다.



경현속록보유

이 해에 음직으로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다. 그는 점필재 문하에서 『소학』을 배우면서 한결같이 이를 실천하며 몸을 다스리고 잠시도 이를 손에 놓지 않았다. 사람들이 국가의 일을 물으면 '소학동자(小學童子)'가 어찌 대의를 알겠는가하여 스스로 '소학동자'가 되었다.

34세 때 어버이 상을 당하자 죽을 먹고 슬퍼하며 거의 기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오설리(烏舌里) 보로동(甫老洞)의 둔덕에 장례를 치르고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모든 것을 가례에 따라 행하며 3년 간 시묘하였다. 그의 지극한 효성에 고을 사람들이 크게 감복을 받았다. 복을 마친 뒤 어머니를 섬길 때 첫 닭이 울면 반드시 머리를 빗고 의관을 갖춘 뒤 가묘에 나아가 배례한 다음 어머니를 문후하였다. 그리고 서재에 나아가 소상처럼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평소 초립을 쓰고 연자(蓮子)가 달린 갓끈을 썼다. 깊은 밤에 홀로 앉아 책을 읽으면 책상에 스치는 연자영(蓮子纓) 소리만 들렸다.

한훤당이 44세 되던 정사년(1497, 연산군 3)에 형조좌랑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7월에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때 이미 죽은 점필재는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었다는 죄목으로 부관참시 되었고, 한훤당은 그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80대의 장형(杖刑)을 맞고 평안북도 희천(熙川)에 귀양을 갔다.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다. 이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는 14세의 나이로 찰방 벼슬하는 아버지를 따라 평북 어천(魚川)에 왔다. 그는 마침 희천에 유배 중인 한훤당을 찾아와 학문을 전수받았다. 정암의 도학적 정치사상의 근본은 한훤당의 실천궁행한 『소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훤당은 '근세도학지종(近世道學之宗)'이라 일컫게 되었다. 한훤당은 47세 되던 경신년(1500, 연산군 6)에 희천에서 호남 순천부(順天府)로 이배되었다. 한훤당은 북문 밖에 우거하였지만 언제 화를 입을지 모른 상황이었다.

갑자년(1504, 연산군 10)에 다시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무오년의 죄인에게 죄를 더하도록 명이 내리자, 한훤당은 마침내 그 해 10월에 귀양지 순천에서 사사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신색(神色)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수염을 쓰다듬어 입에 물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니 향년 51세다.

정묘년(1507, 중종 2)에 신원되었고, 뒤에 다시 우의정에 증직되었으며 시호 문경(文敬)이다. 임신년(1572, 선조 5)에 퇴계 이황과 같이 동방오현(東方五賢)으로 일컬으며 문묘에 종사(從祀)되었다.

그는 평소 6경(六經)에 전심하여 연구하였고 성리학을 정통하였다. 특히 실천궁행하여 동방도학(東方道學)의 조종(祖宗)이라 불렀고, 충효대절(忠孝大節)은 조야에 떨쳤다. 그의 문하에 조광조(趙光祖)·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이심원(李深源)·성세창(成世昌)·정봉(鄭鵬)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현풍(玄風)의 도동서원(道東書院), 순천(順天)의 옥천서원(玉川書院) 등 15개 서원에 배향(配享)되었다.



성화십육년경자(1480)식년사마방목

㊤ 사마방목(司馬榜目)

간행연대 : 1480년

수량 : 1책

규격 :

<해제> 본 방목은 성화(成化) 16년(1480) 한훤당 김굉필이 생원시에 합격한 동방(同榜)의 명부다. 사마방목은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를 총칭한 것으로, 대개 예문관(藝文館)에서 간행하여 관계자와 합격자들에게 반포했다. 현존하는 판본은 활자본·목판본·목활자본·필사본 등 다양하다. 책머리에는 은문(恩門)이라 하여 시관(試官) 이름 등을 적었다. 본 방목에는 이러한 글이 없이 바로 '생원일등오인(生員一等五人)'으로 시작하였는데 은문의 글이 결락하였다. 일반적으로 합격순서에 따라 열거하고 합격자마다 1행에는 이름·자(字)·생년간지(生年干支)·본관·거주지 등을, 2행에는 아버지의 관위와 이름, 3행에는 부모의 생존여부와 형제의 인적사항을 적었다. 본 방목에는 1행에 한하여 성명·자·본관·거주지만 기록하였고 나머지 인적 사항은 없다. 사마방목은 1894년 과거제도가 폐지 때까지 지속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과거급제자의 성분분석과 인물기록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인쇄방식과 지질(紙質) 등의 변화를 살필 수 있어 서지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중요하다.

㊤ 춘추(春秋)(左氏春秋)

간행연대 : 정조 때

수량 : 10책

규격 :



춘추

<해제> 『춘추(春秋)』는 기원전 722년(魯隱公 元年)부터 기원전 468년(哀公 27년)까지 총 12공(公) 250여 년간 노나라의 역사와 춘추시대 열국의 역사를 편년체로 담은 책이다. 공자가 쓴 경문(經文) 『춘추』에 후대의 작자가 전문(傳文)[해설]을 붙인 것이며, 이 책이 다룬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부른다. 『춘추』는 노나라 사관들이 남긴 역사를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재정리한 책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너무나 간결하게 정리한 『춘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해설서로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 불리는 『춘추좌전』,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이 나오게 되었다. 『공양전』과 『곡량전』이 글자 한 자 한 자에 대한 공자의 의도와 의리(義理)를 밝히는 데 주력한 반면, 『춘추좌전』은 구체적인 사실(史實)을 들어 경문을 설명하고 보정하였으며 나아가 바로잡기까지 하였다. 『춘추좌전』은 문장이 간결하고 굳세며 유창하여 위진(魏晉) 시대 이후에는 『공양전』과 『곡량전』을 압도하게 되었다. 체재와 서사가 완전한 최초의 고대사 책으로 평가받는 『춘추좌전』은 유가 사회의 공직자가 필독해야 하는 한자 문화권의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이자 사서오경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순망치한, 결초보은 등 무수한 고사성어의 원천이기도 하다. 『춘추』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고, 또 중국 최초로 대화체

서술 방식을 사용했으며, 사료가 상세하고 예술성이 강해 사학사 및 문학 사상의 대표작이 되었다. 『춘추좌전』은 『춘추』 또는 『좌씨춘추』라고도 한다.

본 서의 표제는 『춘추(春秋)』라고 썼으나 실제 『춘추좌씨(春秋左氏)』다. 공자의 춘추를 좌구명이 전문(傳文)을 붙였다는 말이다. 목록을 비롯해서 10책이며, 내사본이다. 목함 표제에 ‘春秋 內賜道東書院’이라 하였고, 목록책 첫 장 여백에 ‘上之二十二年戊午十月日 內賜道東書院春秋一件 檢校直提學臣李手決’이라 썼다. 곧 정조 22년(1798) 10월에 『춘추』 한 질을 도동서원에 내사한다고 적은 기록이다. 목함과 내각장판의 책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 육영재완의절목(育英齋完議節目)

간행연대 : 정조 이후 추정

수량 : 1책(성책)

규격 :

<해제> 육영재(育英齋) 재산에 대해 공의(公議)로 규칙의 항목을 정한 책이다. 육영재는 현풍 향교에 따른 학당으로 추정된다. 먼저 빚은 내어 준 일을 적은 ‘급채사(給債事)’다. 첫 번째 항목에, 향교나 서원의 향사(鄉事) 때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썼을 경우 입론(立論)한 자와 자금을 내준 임사(任司) 모두가 벌을 받으며, 향교나 서원에 일에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은 기유년 8월에 향중 논의로 완문을 다시 고쳤다. 그 이유는 앞서 접중(接中)의 완의 절목에 모든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으나 완의를 한 후 규법을 범한 사례가 있어서 손익의 제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노소 향회 때 다시 절목을 정하는데, 만약 뒷날 다시 향교나 서원의 향사 때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면 입론자와 임사 모두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현료사(懸料事)의 절목이다. 첫 번째 임사(任司)는 그 해에 거접(居接, 향교나 서원에서 과거 준비를 하는 서생)하는 사람이 아니면 천출(薦出)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회행(會行)할 때 부조는 오관전(伍貫錢)으로 정한다. 세 번째 문과 또는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의 부조도 오관전(伍貫錢)으로 정한다. 네 번째 무과 출신 부조는 2관전(貳貫錢)으로 정한다. 다섯 번째 향중에 큰 일이 있어서 긴급히 써야 할 때에도 육영재 재산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향중 전답은 양반이 아울러 경작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추수 후 소출된 곡식은 즉시 반입하여 지체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미수한 것이 있으면 임사가 별도로 대신 납입해야 한다. 여덟 번째 육영재 재산의 원수(元數)와 사용한 내력 문서는 관에 내어 치부해 두어야 한다. 아홉 번째 임사가 육영재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접중(接中)에서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는 정미년 3월에 정한 절목 전문이다.



육영재완의 절목

이 외에 완문과 절목이 더 있으나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따라서 본 절목은 현풍향교와 도동서원의 재정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이며, 근래 까지 여러 번 향의를 거쳐 정한 것이다. 내용이 많지 않지만 향원(鄉院) 재정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편액(달성 도동서원 편액 중심)

㉠ 중정당(中正堂)

■ 도동서원(道東書院)

‘도동서원(道童書院)’이란 편액은 두 개가 현액되어 있다. 하나는 강당 전면 서까래 아래에 걸려 있는데 아무런 꾸밈없이 목판에 검은 글씨를 썼다. 누가 언제 썼다는 기록은 없다. 다른 하나는 강당 안 대청마루 후면벽 중앙에 걸린 것으로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썼다. 편액 오른쪽에 ‘만력삼십오년이월일 선액(萬曆三十五年日 宣額)’이라 써서, 만력 35년(선조 40, 1607)에 내린 사액임을 알 수 있다. 또 사액되던 해 한강 정구의 글(수서(手書))에도 1607년 현판을 나라에서 내렸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록 등 관찬사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績)』 도동서원조⁴⁶⁾, 도동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제문⁴⁷⁾ 등의 내용으로 도동서원 재사액년을 161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⁸⁾ 본 보고서에서는 1610년 재사액 되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선조 원년(1568) 당성군 유가면 쌍계리에 쌍계서원(雙溪書院)을 창건하였고, 선조 6년(1573)에 사액되었으며, 그 뒤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선조 38년(1604) 현재의 위치에 옮겨 중건, 2년 뒤 도동서원으로 재사액 되었으나 편액은 광해 2년(1910)에 도동서원에 현액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 편액은 강당 안에 걸려 있다.⁴⁹⁾



강당 전면 서까래 아래에 현액되어 있는 달성 도동서원 편액



강당 안에 현액되어 있는 달성 도동서원 편액과 중정당 편액

■ 중정당(中正堂)

도동서원 강당의 이름이다. 강당의 제호에서 피향자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 이상적이며 함축적인 말로 지어졌다. 한국 유학사에 있어서 도학(道學)은 한훤당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의 스승 김종직의 글은 시문(詩文)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훤당은 유가 경전으로 통해 공맹의 인의(仁義)의 도(道)를 계승함은 물론 송나라 주자의 신유학을 학술적으로 계승하였다. 이를테면 그의 도학 사상은 시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따르고 이를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46) 1610년 봉안하고 감사가 청해서 사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음

47) 1609년까지는 사액이라는 내용이 없다가, 만력 38년(1610) 제문에 사액을 거듭 내려 번뜻번뜻 빛친다라는 내용이 있음

48) 2장 4절 달성 도동서원 재사액 시기검토에서 자세한 내용을 서술

49) 이수환(영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2012년 2월 29일 달성 도동서원의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자문의견서」에서 중건연도는 1604년, 사액연도는 16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부록2. 달성 도동서원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검토 의견 자문의견서 참조)



거인재 편액



거의재 편액

그리하여 '신라로부터 고려까지 문장에 능한 선비는 많이 나왔지만 의리(義理)의 학문은 실로 한훤당으로부터 계도(啓導)되었다'라고 평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역(周易)』 건괘에 '강의중정(剛健中正)'이란 말이 있다. 득위(得位) 곧 양(陽, 九五)이 양의 자리에 있고 음(陰, 六二)이 음의 자리에 있음을 말한 것으로, 중정이란 사람으로서 가장 합당한 자리를 지켰으며 이를 천이(踐履)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 거인재(居仁齋)

다음은 동·서재의 재사(齋舍)에 걸린 편액으로, 이는 동재(東齋)의 이름이다. 재사는 유생들이 유숙하며 공부하던 학사이다. 거인(居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풀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뜻이다. 『논어』에, 항상 인(仁)에 떠나지 않는다는 말로 '의어인(依於仁)'이라 하였고, 『맹자』에 '천하의 광거(廣居)에 산다(居天下之廣居)'고 하였다. 여기에서 광거(廣居)는 곧 인(仁)을 말한다.

■ 거의재(居義齋)

도동서원의 서재 이름이다. 공자의 중심사상을 인(仁)이라고 정의한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인(仁)에 의(義)를 더하여 곧잘 인의(仁義)를 강조하였다. 앞서 『맹자』에, '천하의 대도(大道)를 행한다(行天下之大道)'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대도(大道)는 의(義)다. 따라서 재사의 제호는 한훤당의 사상을 가장 절실하게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유생들로 하여금 규범을 삼게 하였던 것이다.

■ 전교(傳敎)



전교

교지는 국왕이 내린 명령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선조 때 노비와 집 한 채를 서원에 내려주어 영구히 수호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들 노비만으로 서원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백성을 모집하여 서원에서 사용하였고, 이들 백성을 서원의 궤오(關伍)에 보충하려 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백성들이 도망하려 했었고, 이 과정에서 서원의 폐단도 있었다. 따라서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

양주의 도봉서원, 연일의 오천서원은 일찍이 모입(募入)한 사람을 그대로 두며 다른 곳에서 침범하지 말도록 조치를 내린 왕명이 본 글이다. 이 글은 병진(丙辰)년에 내린 글이나 그 연대는 알 수 없다.

▪ 원 문

<傳敎>

丙辰十月初十日夜對時 同副承旨權所啓 臣奉命嶺南回還之時 過禮安陶山書院 卽先正臣文純公李某藏修之所也 宣廟朝既給奴婢 又給一店以爲永久守護之地 而一道多士之所聚會 猶不足以支給 又募民人 得以給使用而供多士矣 頃以重臣建白 諸書院募入者 搜出以充闕伍之 故募入人等 皆懷渙散之計 將無以守護云 書院募入 誠不無其弊 搜出之舉 出於不得已 而至若文廟從祀諸賢

則有功百世 建立書院 實出於右文興道之意 設有些少弊端 有不足爲念者 且禮安有高麗祭酒禹某書院 而此乃先正臣李某所創建者也 如此書院 則事易勿令搜出 其募入人民 俾無渙散之弊 以爲士子聚會講習之所 實合於聖朝儒化之道 而足爲聳動士林之一助矣 從祀諸賢平生所經過處 皆立書院 雖不可一一皆用特典 而若禮安之陶山書院 慶州之玉山書院 玄風之道東書院 安陰之龍門書院 楊州之道峯書院 延日之烏川書院 則曾所募入者 仍存勿侵似當矣

上曰令該書稟處 庚午七月初三日 大臣引見入侍時 右贊成沈曰 啓內

上曰書院所屬 還爲出給事 曾已傳敎而尙不出給事 甚無據 卽爲出給可也 事 允下

▪ 해 석

<전교>

병진년 10월 10일 야대(夜對) 시에 동부승지(同副承旨) 권 모(權謀)가 아뢰다.

신이 명을 받들어 영남에서 돌아올 때,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을 방문하였으니, 바로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이모(李某)께서 장수(藏修)⁵⁰⁾하시던 곳입니다. 선묘조(宣廟朝)에 이미 노비를 내려주셨고, 또 한 집을 내려주어서 영구히 수호할 바탕으로 삼았는데, 한 도의 선비들이 모이게 되어 오히려 지급(支給)하기 부족하여 또 백성들을 모집하여 사용에 공급하고 선비들에게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지난번 중신이 아뢰어 여러 서원에서 모입(募入)한 것을 찾아내어 궂오(闕伍)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입한 사람들이 모두 환산(渙散)할 계획을 품어 장차 지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원에서 모입하는 것은 진실로 그 폐단이 없지 않고, 찾아내는 일은 부득이한데서 나왔지만, 문묘에 종사한 제현들 같은 경우에는 백세에 공이 있으니,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실로 문을 숭상하고 도를 흥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령 사소한 폐단의 실마리가 있다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0) 장수(藏修) : 항상 학문에 뜻을 품고서 중지하지 않고 수습(修習)하는 것을 말한다.

또 예안에는 고려 제주[祭酒] 우 모(禹某) 서원⁵¹⁾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 모(李某)가 창건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서원은 일을 바꾸어 찾아내지 않도록 하고, 모입한 인민은 흩어져 가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 선비들이 모여서 강습하는 곳으로 삼게 하시면 실로 성조(聖朝)에서 유교로 교화하는 도에 합할 것이고 족히 사람을 용동시키는데 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사된 제현들이 평소 지났던 곳에 모두 서원을 세웠으니, 비록 일일이 모두 특전(特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 양주의 도봉서원, 연일의 오천서원(烏川書院) 같은 경우는 일찍이 모입한 것은 그대로 두어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조(該曹)에 물어 처리하게 하라고 하셨다. 경오년 7월 3일 대신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찬성(右贊成) 심 모(沈)가 회계(回啓)⁵²⁾하여 들이자, 임금께서, “서원에 소속된 것을 도로 출급하라는 일은 일찍이 이미 전교를 내렸는데 아직도 출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근거가 없다. 즉시 출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은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 백록동규(白鹿洞規)



백록동규

백록동규는 전국 서원에 거의 빠짐없이 걸려있는 편액 중의 하나다. 이를 달리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學規) 또는 백록규(白鹿規)라 말하며, 앞부분은 같으나 뒤 부분의 내용은 약간씩 다르다. 오교(五敎, 五倫)의 목(目)과, 궁리(窮理)·수신(修身)·접물(接物)·처사(處事)의 요(要), 그리고 구용(九容)과 구사(九思) 및 학자십훈(學者十訓)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적었다. 당나라 이래로 국학을 두었고, 송나라 초기에 서원을 두었으나 황폐되고 말았다. 남송 때 주자가 남강군(南康軍)을 맡아 다스리며 백록동서원을 복원하여 학생을 가르치며 만든 규약이 바로 이것이다.

51) 우 모(禹某) 서원 : 우탁(禹倬, 1263~1342)을 제향하는 역동서원(易東書院)을 말한다. 우탁은 고려 말 정주학(程朱學) 수용 초기의 유학자로 자는 천장(天章) 또는 탁보(卓甫), 호는 백운(白雲) 또는 단암(丹巖),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성균 채주(成均祭酒)로 치사(致仕)한 뒤 예안(禮安)에 은거하면서 후진 교육에 전념하였다.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역학(易學)에 더욱 조예가 깊어 세상에서 '역동 선생(易東先生)'이라 일컬어졌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52) 회계(回啓) : 임금이 하문(下問)한 일을 자세히 조사하여 상주(上奏)하는 일이다.

▪ 원 문

<白鹿洞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教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

博學

審問

慎思

明辨

右窮理之要

篤行

言忠信行篤敬 懲忿窒欲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義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學者十訓

起居坐立 務要端莊 不可傾倚恐至昏怠 出入步趨 務要凝重 不可剽輕以害德性

以謙遜自牧

以和敬待人

凡事切須謹飭

無故不須出入

小說閑話 恐廢光陰

勿觀雜書 恐分精力

早晚頻自點檢所習之業

每旬休日 將一旬內書 溫習數過 勿令少有放佚 則自然漸近道理 講習易明矣

▪ 해 석

<백록동규(白鹿洞規)⁵³⁾>

아버지와 자식에게는 친함이 있으며,
군주와 신하에게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에게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에게는 차례가 있으며,
벗에게는 신의가 있다.

이상 오교(五敎)의 조목이다. 요(堯)·순(舜)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경건하게 오교를 펴라'고 할 때의 바로 그 오교이다. 배운다는 것은 이를 배울 뿐인데, 이를 배우는 차례에도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넓게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이상은 이치를 궁구하는 요체이다.
독실하게 실천한다.

말은 진실하고 믿음 있게, 행실은 독실하면서도 경건하게, 복받치는 분(忿)을 절제하고 욕심을 막으며, 선한 쪽으로 나아가고 과실이 있으면 고친다.

이상은 몸을 닦는 요체이다.

그 의리를 바로잡되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리를 밝히되 공로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상은 일에 처하는 요체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고, 하다가 잘 안 되는 일은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다.

이상은 상대를 대하는 요체이다.

발걸음을 경망하게 하지 않고, 손으로 아무 데나 어지럽게 가리키지 않고, 눈은 흘려보지 않고, 말을 경박하게 하지 않고, 목소리를 온화하게 하여 괴상한 소리를 내지 않고, 고개를 곧게 세워 마구 가우뚱거리거나 돌아보지 않고, 기운을 엄숙하게 하고, 서 있을 때에는 바르게 서서 덕 있는 기상을 지니고, 낮빛을 장중하게 한다.

밝게 보기를 생각하고, 밝게 듣기를 생각하고, 안색을 온화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용모를 공손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진실하게 말하기를 생각하고,

53) 백록동규(白鹿洞規) : 송 나라 때 주자(朱子)가 남강군(南康軍)을 맡아 다스리면서 일찍이 백록동서원을 복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만든 규약이다. 그 학규의 대략은 오교지목(五敎之目),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의 다섯 가지이고 이에 따른 세목이 각기 있다.

공경히 일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나면 문기를 생각하고, 화나면 어려움을 생각하고, 얻을 것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

학자십훈

기거좌립(起居坐立)은 단정하고 장중하기를 힘써야 하지, 기울거나 기대서는 안 된다. 혼매하고 나태해질까 염려된다. 출입보추(出入步趨)는 침착하고 정중하기를 힘써야 하지, 거칠고 경솔하여 덕성(德性)을 해쳐서는 안 된다.

겸손으로 자신을 기르고

공경으로 남을 대하라.

모든 일에 모름지기 삼가라.

까닭 없이 드나들지 마라.

자잘한 이야기나 한가한 담론은 시간을 헛되이 보낼까 염려된다.

잡서(雜書)를 보지 말라. 정력을 소모할까 염려된다.

조만간에 자주 익힌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라.

열흘마다 휴일에 열흘 동안의 글을 가지고 수차례 복습하여 조금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면 자연히 점점 도리에 가까워지고 강습하는 것이 쉽고 분명할 것이다.

■ 도동서원 액판(한강(寒岡) 정구(鄭逵)의 글)



도동서원 액판

정미년(1607, 선조 40) 7월에 한강 정구가 사액한 '도동서원(道東書院)'이란 네 글씨의 의미를 밝힌 글이다. 퇴계 이황은 평소 서원 창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어서 문집 중 '서원십영(書院十詠)'이란 글이 있다. 이 가운데 아홉 곳만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없다. 도동서원이 당시 건립되었다면 반드시 퇴계 선생이 액호를 직접 썼을 것이다. 한훤당을 향사한 쌍계서원이 임란 때 소실되었는데, 이제 이를 중건한 후 도동서원(道東書院)이라 개칭하고 사액을 하였다. 그리고 사액 글씨는 퇴계가 평소에 큰 글씨를 써 둔 것 가운데 네 자를 가려내어 본을 떠 각(刻)을 하여 내려 보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구는, 퇴계의 글씨와 선조의 사액이 서원 안팎에 더욱 빛을 더하고 있으니 선비들은 이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이 글을 남겼다.

▪ 원 문

李先生常拳拳致意於金先生書院之建 惜乎其不及於先生之時 以得備於十書院也 文集中 有書院十詠 而只有九書院 不備十數 若在其時 則親題額號 何後焉 諸書院額 多先生所自寫 今者書院重新 而道東嘉命 錫自九重 宣額將下 適又於先生書額之中 得四大字摹刻 送于書院 先師舊筆 聖主寵額 將交映內外 庶幾使學者知所宗範 亦所以成李先生之遺志也 寧不幸歟 凡我入院之士 盍相與觀瞻想慕 深體道東之意 勉勉不已 思所以不墜也哉

萬曆丁未秋七月日 後學西原鄭述謹書

▪ 해 석

이 선생(李先生)⁵⁴⁾이 항상 김 선생(金先生 김광필(金宏弼))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생존 시에 이 일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아 열 곳의 서원이 채워지지 못하였다. - 문집 속에 〈서원십영(書院十詠)〉이라는 시가 있으나 아홉 곳의 서원만 있고 열 개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했다. - 만일 도동서원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액호(額號)를 손수 쓰시는 일을 어찌 여느 서원보다 뒤에 하였겠는가. - 여러 서원의 액호는 대부분 선생이 손수 쓰신 것이다. -

지금 서원이 중건되어 이름을 도동(道東)으로 하라는 명이 대궐에서 내려오고 뒤이어 판액(板額)을 장차 내리려 할 때, 마침 또 선생이 쓰신 편액의 글씨 중에서 네 자의 큰 글씨를 찾아서 본을 떠 각(刻)하여 서원으로 보냈다. 이리하여 선사(先師)의 옛 필치와 성주(聖主)께서 하사한 편액이 장차 안팎에서 빛을 발하게 됨으로써 배우는 유자(儒者)로 하여금 무엇을 모범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게 하였으며, 따라서 또 이 선생의 유지(遺志)를 이루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 서원에 들어오는 우리 선비들은 어찌 서로 이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오도(吾道)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을 방도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력 정미년(1607, 선조40) 가을 7월 일에 후학 서원(西原) 정구(鄭述)는 삼가 쓰다.

■ 도동서원 규목(規目)



도동서원규목

이는 도동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법도를 삼아야 하는 학칙(學則)이다. 향사를 경건히 지낼 것(謹享祀), 원장을 존경할 것(尊院長), 유사를

54) 이 선생(李先生) :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말한다.

잘 가려서 뽑을 것(擇有司), 새로운 유생을 영입할 것(引新進), 강습을 부지런히 할 것(勤講習), 어진 선비들 예우할 것(禮賢士), 금지와 예방을 엄하게 지킬 것(嚴禁防)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승정 기원 후 다섯 번째 무오년(1918)에 써서 걸었던 것인데, 아마 이전에 있었던 것이 낙후되어 다시 현액한 것으로 사료된다. 서원의 원규는 퇴계가 영주 이산면에 있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원규를 지었는데 이것이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기본이 되었으며, 『퇴계집』 41권 잡저에 실려 전한다. 도동서원 원규는 본디 이를 저본으로 삼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했었다. 따라서 이산서원 원규를 저본으로 삼되, 대폭 수정하여 7개 항목으로 대의를 세우고 그 세부 사항을 작성하였다. '여러 유생은 독서를 함에 있어서 사서오경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아야 한다(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라는 이산서원의 첫 번째 항목이다. 그러나 도동서원 원규 근향사(謹享祀)에서, '향교는 실제 공부하는 근원이 되는 곳인데, 근래에 그 기강의 무너짐이 너무 심하다. 비록 유식한 선비라도 스스로 속세에 휩쓸려 남의 집안일처럼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서 장려하는 성현을 높이고 사도(斯道)를 보위하는 뜻이겠는가.(鄉校 實爲本原之地 而近來頹敝太甚 雖有識之士 亦不免自混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國家尊聖衛道之意哉)'라고 하였다. 분량도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내용도 그 실정에 알맞게 크게 수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 원 문

<道東書院規目>

一、謹享祀

鄉校實爲本原之地 而近來頹敝太甚 雖有識之士 亦不免自混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國家尊聖衛道之意哉

自今院徒 每值上丁 率境內儒生 先期齊會 釋奠後 本院祀事 行於中丁 庶幾彼此一體先後有倫也

本院享禮 自有儀式 今不別具 但院長前期具修 齋(齋)肅嚴潔하고 恪謹行事 如有不參之員 書于籍 有故無故--錄之 待後會面責 至七度不參者乃黜之 無故不參者五度而黜之 如有疾病廢痼衆所共知者 或出行遠方 未及來還者 皆不在此建

每於朔望 在院儒生 盛服青衿 焚香再拜於先生廟

一、尊院長

院長者 所以爲一院之長而主盟倡道 以興起朋徒者也 入院之士 所當尊畏 衿式 不敢輕忽 而爲院長者 亦自端重飭厲 無自辱焉

院長之任 不可數數輕改 至有不得已之故 不容不改 則自具狀告于院中 院中齊會 商議改卜(下) 新員不敢胡亂薦舉 必得衆所推服一意敬信者 通可否無異辭而後定之 既卜之後 院中具狀 遣僮輩中一人迎請 令新舊交代 凡院中規模曲折 竝皆喻告舉行 書冊什物 亦皆傳掌之

院長或有過誤 行輩間密相箴規 庶幾令不遠而復 面責損徒之罰 不敢加於院長 或所失者大 不復可安於院長之職 則院長必自引咎而請改矣

置院長錄 錄前後院長 並書任遞年月 今後之任此者 庶幾有所披閱而欽戒也 有司亦書之

一、擇有司

有司者 亦所以管攝一院之事者也 院長與院中 同議擇之 必得純謹精詳之人而任之 庶幾同心 共治一院之事 如有用心麤悖 不肯盡心力於院事 或濫冒無恥 多惹外說者 小則院長飭之 大則院中責之 終不悛者 自院長與院中同議黜之

一、引新進

每於享祀之日 議引新進 每人各薦一員 進于院長 如無可薦 不必強舉 院長通可否 採衆議而定之 如用可否 則宜只取純點 書于案(籍)(某年某月某日所人各於名下 并書所引之人(所引之人 雖多?書之)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 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 而司馬入格 或累中鄉舉 而才行超異 可齒三益之列者

大槩只觀學行成就之如何 豈可拘拘於科舉之得失耶 既擇之後 院長具書迎之

入院之士 如有行實不修 舉止踰違者 輕則院長糾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減裂 終不肯改者 院長舉院中齊議黜之 前日所引之人 並行損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慎重 而不敢輕舉 噫 孟子曰 觀遠臣以其所爲主 觀近臣以其所爲主 後人之觀 此錄者 據其所引之如何 而其人之邪正得失 亦將難逃矣 宜各謹慎勉勵 無相爲累

志氣衰惰 不復能振發者 惑已經鄉任 不肯從事於問學者 並聽出院

遠方之士 如有願入者 雖無引進之者 學行成就 而別無顯失者 亦許入

新學小兒 凡在二十一歲以下者 改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願入養蒙齋者 亦聽

一、定坐次

坐必序齒 若有異爵者 或有他客 並皆別序 養蒙諸生 並坐南行

一、勤講習

院長迎請朋徒 不廢勸講 冬春 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 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舉之事 而科舉之外 亦有古人所謂爲己之學者 苟能不全爲彼所奪 而或能用心於此焉 而求之於日用性分之內 則其存心之地 用力之方 庶幾不越乎敬之一者矣 伊川夫子 始表章之 而雲谷夫子大發明之

寒暄堂一生辛苦 皆是此字 願與諸君 共艱勉而不敢已也

凡入院之士 必須戰兢自持 衣冠必飾 言笑必莊 凡戲謔喧譁 狎侮 鄙薄之態 皆不敢近 白鹿學規 揭在楣間 宜朝夕觀瞻 而爲勸率之地 而又略倣呂氏鄉約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庶幾無負今日責望之意

朝廷利害 邊報差除 州縣官員長短得失 衆人所作過惡 皆不得言之 淫媒女色 不正之言 干索食物 無恥之事는 皆不得爲之 干索食物 如今學中 所謂 後接禮 歸家禮等事皆是

如今學中 倒懸乘 風擊膝舉 凡凡諸鄙狎之事 皆不得爲之

持志制行 宜和厚勤慎 凡在尙氣喜激之事 皆不得爲之

蓋聖賢之學 初不在於任氣輕俠 狂言妄語 咬得菜根 自是儒者本分內事

院長 餽饗之事 土主 養育之誠 固不敢忽 而入院之士則不可自去理會取舍 以損其德性也

養蒙諸生 必命蚤起晏寢 誦習小學 嚴立課程 痛加繩糾 揖拜有度 辭氣謙遜 庶幾入學之初 純熟禮義而有所進就也

足容必重 手容必恭 目容必端 口容必止 聲容必靜 頭容必直 氣容必肅 立容必德 色容必莊 坐必端直 行必舒恭 入院之士 固不敢不勉而養蒙諸生 尤加警飭 又令揭其窓壁 出入觀省

群居講習之事 固不敢廢 而誘掖作成之方 責在土主 暇日來會 倡率諸生 講明古人之學而勸導之 則觀感慕效之 間自有成就興起之 不可言者矣

古人設院之意 所以避朝市城郭之鬧 直寬閑寂寞之境 庶幾官家法令 不可拘掣 而隱居拘道之士 或相往來講說 而無所不屑 而斯文朋徒得以樂聚 而興起焉 則守令勸課之政 初不相與 而朝廷右文之化 自有浸漸不覺之效矣

一、禮賢士

或在境內 或住隣邑 或致事退伏之賢 或樂道高尚之士 豈無其人哉 院長宜率朋徒 以禮迎請 以師尊之 庶幾有所觀感 而慕悅之 則其得可勝言哉 苟能行之 此言 夫豈空言而止哉

一、嚴禁防

莊列老釋之書 碁局博奕之戲 皆不得入院

凡異色之人 皆不得出入(異色 如武夫雜術之徒)

清酌之外 不得釀酒

尹祭之外 不得殺牛

婢子不得出入齋堂 舉案進止

如修字 點書 考廩 會計 等條는 自有 盧侯之規 可以 遵守今不得云

崇禎後五戊午六月 日重刊

▪ 해 석

하나. 향사를 경건히 한다.[謹享祀]

향교는 사실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 되는 곳인데 요즘에는 의식이 해이해진 정도가 지나쳐 비록 식견이 있는 선비라 해도 스스로 세속에 휩쓸려 남의 집안일처럼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서 장려하는 성현을 존경하고 도를 보위하는 뜻이겠는가. 앞으로 원도(院徒)는 항상 상정일(上丁日)⁵⁵⁾을 만나면 경내의 유생을 인솔하고 미리 한자리에 모여

석전(釋奠)을 행한 뒤에 본원의 향사는 중정일(中丁日)⁵⁶⁾에 행하면 거의 향교와 서원이 일체가 되고 선후의 순서가 있을 것이다.

본원의 향사에 관한 예는 본디 그 의식이 있으므로 여기에 따로 갖추지 않는다. 다만 원장은 미리 제찬을 갖추어 두며 재계를 엄숙하고 정갈히 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다. 만일 불참자가 있을 때는 문서에 쓰되 유고(有故)와 무고(無故)의 사정을 아울러 기록하여 나중에 모였을 때 면전에서 책망한다. 일곱 번까지 불참한 자는 명단에서 축출하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다섯 번째에 축출한다. 만일 병이 들어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자이거나 혹은 먼 지방에 나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자의 경우는 모두 이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언제나 삭망 때에는 서원에 있는 유생은 청금(靑衿)을 정중히 차려입고 선생의 사당에 분향 재배한다.

하나. 원장을 존경한다.[尊院長]

원장은 한 서원의 어른이 되어 서원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많은 벗들을 진작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마땅히 그를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아 감히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원장이 된 자도 스스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가다듬어 욕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원장의 직임은 자주 선불리 바뀌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글로 갖추어 원중(院中)에 고한다. 그러면 원중에서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의하여 새 사람을 바꿔 정하되 감히 어지럽게 천거하지 말고 반드시 많은 사람이 승복하여 한뜻으로 존경하고 믿는 자를 가려 가부간에 서로 이론이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미 정한 다음에는 원중에서 글을 갖추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맞아들여 친구 원장이 교대하게 한다. 이때 신임 원장에게 원중의 모든 규례와 사정을 모두 알려 주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책을 비롯한 집기들도 다 넘겨주어 관장하도록 한다. 원장이 혹시 과오가 있을 때는 같은 또래의 동료들이 남몰래 서로 충고함으로써 빨리 그 과오를 시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손도(損徒)에게 얼굴을 대놓고 책망하는 벌을 감히 원장에게 가하지 않는다. 혹시 잘못을 범한 정도가 커서 더 이상 원장의 직임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경우에, 원장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원장록(院長錄)을 비치해 두고 역대 원장의 성명을 기록하되 임명되고 교체되어 나간 연월을 아울러 기록함으로써 후임 원장이 그것을 열람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유사(有司)의 성명도 기록한다.

하나. 유사(有司)를 가려 정한다.[擇有司]

유사 또한 한 서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이다.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고르되 반드시 순박하고 신중하며 치밀한 사람을 골라 맡겨야

55) 상정일(上丁日) : 매달 간지에 정(丁)이 들어간 첫째 날로, 중추인 2월과 중추인 8월의 상정일에 석전제를 지낸다.

56) 중정일(中丁日) : 음력으로 그 달 중순에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이 정(丁)으로 된 날이다.

한마음으로 함께 서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마음 쓰는 것이 거칠고 어긋나 서원 일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으려 하지 않는다면 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들 앞에 나서며 향간의 말썽을 많이 야기하는 자는 그 허물이 작을 때는 원장이 훈계하고 클 때는 원중에서 책망한다. 그래도 끝내 고치지 않는 자는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축출한다.

하나. 신진을 영입한다.[引新進]

언제나 향사하는 날 신진을 논의하여 영입한다. 누구나 각기 한 사람씩 추천하여 원장에게 올리되 만일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원장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중론을 모아 정한다. 만일 가부를 사용할 것 같으면 마땅히 순점(純點)을 맞은 자만 취하고 문서에 모년 모월 모일에 영입하였다고 기록하고, 또 각 명단 아래 영입한 사람을 아울러 기록한다. - 영입한 사람이 비록 많더라도 기록한다. -

천거하여 올리는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서 훌륭한 학행이 있는 자로 한다. 또 비록 약관(弱冠)이 채 안 되었더라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거나 혹은 향시(鄉試)에 여러 차례 합격하고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 유익한 벗의 반열에 끼일 만한 자로 한다. - 대체로 학행의 성취가 어떠한가만 살펴볼 뿐이니, 어찌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를 따질 것이 있겠는가. 이미 선택한 뒤에는 원장이 글월을 갖추어 그를 맞아들인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 중에 만일 행실을 닦이지 않아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정도가 작으면 원장이 바로잡고 크면 원중이 책망한다. 마음씨가 무모하고 경솔하여 끝내 고치려 하지 않는 자는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축출한다. 전일 추천해 올린 사람도 아울러 손도(損徒)의 벌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추천해 올릴 때 신중히 하고 감히 함부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 - 아, 맹자께서 말씀하기를, “단 나라에서 온 신하의 본색을 살펴보려면 그가 부처 살았던 집의 주인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조정에 벼슬하고 있는 신하의 본색을 살펴보려면 그의 집에 부처 사는 손님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이 명단의 기록을 살펴본 뒷사람은 추천된 인물이 어떠했는가를 근거로 삼을 것이니 추천한 사람의 사정(邪正)과 득실(得失)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각자 삼가고 노력하여 서로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

의지가 약하고 해이해져 더 이상 분발하지 못하는 자이거나 이미 향임(鄉任)을 역임했더라도 학문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자는 모두 서원에서 축출한다.

먼 지방의 선비 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비록 그를 추천하는 자가 없더라도 학문과 행실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또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새로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인 자들은 모두 양몽재(養蒙齋)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20세가 지났더라도 미처 서원의 선발에 들어오지 못해 양몽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또한 그 요구를 들어준다.

하나. 앉는 차례를 정한다.[定坐次]

앉을 때는 반드시 나이 순서대로 한다. 만일 벼슬이 높은 자가 있거나 혹은 다른 지방의 손님이 있을 때는 모두 별도로 차례를 정해 앉는다. 양몽재의 제생은 모두 남향(南行)에 앉는다.

하나. 강습을 부지런히 한다.[勤講習]

원장은 벗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권하고 강습하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겨울과 봄에는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및 이락(伊洛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여러 성리서(性理書)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자서(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내키는 대로 읽도록 한다. 본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과거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시험 이외에도 옛사람의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것이 있다. 만일 저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혹시 이쪽에 마음을 기울여 일상 생활 하는 가운데 타고난 본성 속에서 위기지학을 찾는다면 마음을 두어야 할 곳과 힘을 들여야 할 길은 아마도 경(敬) 한 자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천(伊川 정이) 부자(夫子)가 처음 세상에 밝혔고 운곡(雲谷 주희(朱熹)) 부자께서 크게 천명하였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께서 일생 동안 절실히 추구한 것은 다이경자였다. 이에 대해 제군과 함께 노력하고 감히 중단하지 않기를 원한다.

본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누구나 반드시 전전공공한 마음을 지니고서 의관을 반드시 단정히 하고 말씨와 웃음을 반드시 장중히 할 것이며, 실없이 농담하고 떠들어 대거나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행태는 모두 감히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學規)를 문 위에 걸어 두고 아침저녁으로 주시함으로써 스스로 힘쓰고 후배를 선도하는 바탕을 삼아야 한다. 또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대강 본떠 덕행과 업적을 서로 권하고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 주며 예의의 풍속을 서로 나누고 근심과 재난을 서로 구해 주어야 그런대로 오늘 경계하고 기대하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조정의 이해(利害), 변방의 소식, 관원의 제수, 고을 관원의 장단과 득실, 못사람이 저지른 죄악 등에 관해서는 모두 언급하면 안 된다.

음담패설 등 여색에 관한 부정한 말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일은 다 해서는 안 된다. - 음식물을 요구하는 일은 지금 학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후접례(後接禮)니 귀가례(歸家禮)니 하는 사례가 모두 그런 것들이다. -

지금 학당 안에서 자행되는 사례로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바람을 쏘이게 하거나 무릎을 때리고 궤를 들어 올리게 하는 등 일체 추잡하고 상스러운 일은 모두 해서는 안 된다.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는 마땅히 너그럽고 중후하며 삼가고 조심하여 일체 혈기를 앞세우고 과격함을 지향하는 일들은 모두 하지 않는다. 대체로

성현의 학문은 애당초 객기를 부려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실없이 하는 데에 있지 않다. 나물 뿌리를 씹는 것은 본디 유자(儒者)의 본분이다.

원장이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나 본 고을 수령이 보살펴 주는 정성이야 물론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서원에 들어온 선비로서는 음식의 분배에 스스로 간여하거나 취사선택을 함으로써 그 덕성(德性)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양몽재(養蒙齋) 제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이 깊은 뒤에 잠자리에 들며 《소학》을 읽어서 익힐 것을 명하되, 그 과정(課程)을 엄격히 세워 가차 없이 훈계한다. 읍하고 절하는 것이 법도가 있고 말씨가 겸손하여야만 배움의 길로 들어선 초기에 예의를 잘 익혀 진취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발의 태도는 반드시 진중해야 하며, 손의 태도는 반드시 공손해야 하며, 눈의 태도는 반드시 똑바라야 하며, 입의 태도는 반드시 정지되어 있어야 하며, 말소리의 태도는 반드시 조용해야 하며, 머리의 태도는 반드시 곧아야 하며, 숨기운의 태도는 반드시 엄숙해야 하며, 서 있을 때의 태도는 반드시 덕스러운 기상이 있어야 하며, 얼굴빛의 태도는 반드시 씩씩한 기운이 있어야 하며, 앉을 때는 반드시 단정하고 곧아야 하며, 거닐 때는 반드시 여유롭고 공손해야 한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진정 이에 대해 감히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양몽재의 제생은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또 그곳의 창문과 벽에 게시하여 문을 드나들 적에 이를 보고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며 강습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감히 폐할 수 없지만 이들을 곁에서 붙잡아 주고 배양하는 길은 그 책임이 본 고을 수령에게 있다. 한가한 날 찾아와 한자리에 모여 제생을 인솔하고 옛사람의 학문을 강명(講明)하면서 권하고 인도해 준다면 보고 느끼며 흠모하여 따라 배우는 사이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한 성취와 분발이 저절로 있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서원을 설립할 때 시끄러운 도회지와 성곽을 피해 넓고 한적한 지역을 택한 의도는 그래야만 관가 법령의 간섭이나 제어를 받지 않아, 은거하여 정도(正道)를 지키는 선비가 간혹 스스럼없이 서로 오가며 강론하고 사문(斯文)의 벗들이 즐겁게 모여들어 분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문을 권장하고 행기는 수령의 정사가 전혀 끼어들지 않더라도 문교(文教)를 숭상하는 조정의 교화가 저절로 깊이 배어드는 실효가 있는 것이다.

하나. 어진 선비를 예우한다.[禮賢士]

본 고을 안에 있거나 이웃 고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벼슬길에서 물러나 은거한 현인이나 성인의 도를 좋아하고 지조를 지키는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원장은 마땅히 학우들을 거느리고 예로써 그를 영접하여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면 그를 보고 느껴서 흠모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소득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는가. 이를 진정 실천에

웁긴다면 이 말이 어찌 빈말이 되고 말겠는가.

하나. 금지와 예방을 엄하게 한다.[嚴禁防]

장자(莊子)·열자(列子)·노자(老子)·석씨(釋氏)의 서책과 바둑판이나 장기판 같은 놀이 기구는 모두 서원으로 들여오지 못한다.

일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출입하지 못한다. - 다른 색깔이란 무사(武士)나 잡술(雜術)을 익힌 무리이다. -

청작(淸酌 제사에 쓰이는 술) 이외에 다른 술을 빙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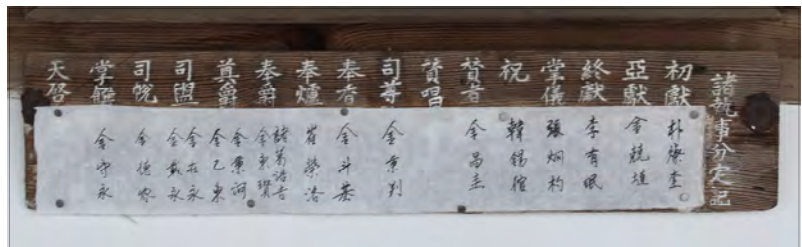
윤제(尹祭 제사에 쓰이는 육포) 이외에 소를 죽이지 못한다.

여종은 재당(齋堂)을 출입하며 밥상을 들고 다니게 할 수 없다.

사우(祠宇)를 수리하고, 서책을 점검하고, 창고를 조사하고, 모여서 성토하는 등의 조항은 본디 노후(盧侯)께서 마련한 규약이 있어 그것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승정(崇禎) 기원후 다섯 번째 무오년(1918) 6월 일 거듭 새기다.

■ 제집사분정기(諸執事分定記)



제집사분정기

향사를 지낼 때 여러 집사자가 분임(分任)을 해서 행하는데, 그 기록의 난이다. 이는 해마다 분임의 인원은 다르지만 그 직명은 같다. 금년(2013)의 분정기를 보면 초헌(初獻) 김재찬(金在燦), 아헌(亞獻) 곽종보(郭鍾寶), 종헌(終獻) 이우석(李宇錫), 장의(掌儀) 이승목(李承穆), 축(祝) 이종목(李鍾穆), 찬자(贊者) 김경원(金慶元), 찬창(贊唱) 김희덕(金熙德), 사존(司尊) 송휘백(宋彙伯) 최병효(崔炳效), 봉향(奉香) 박응대(朴應大), 봉로(奉爐) 이용호(李龍浩), 봉작(奉爵) 김광문(金廣文), 전작(奠爵) 김을동(金乙東), 사관(司盥) 박동학(朴東學), 사세(司悅) 최종완(崔鍾完), 장찬(掌饌) 이우필(李愚弼), 원(原), 천계(天啓)이다. '원(原)'은 인원물제(人原物際)라 하여 사람 명안을 적으면 끝에 '원(原)' 자를, 물목을 적으면 끝에 '제(際)' 자를 써서 구분하였다. 분정기에 원(原) 자를 쓴 것은 명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천계(天啓)라는 연호가 적혀 있어서 천계 연간(1621~1627)에 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 원 문

<諸執事分定記>

初獻 : 朴燦奎

亞獻 : 金兢埴

終獻 : 李有珉

掌儀 : 張炯杓

祝 : 韓錫倌

贊者 : 金昌圭

贊唱

司尊 : 金秉判

奉香 : 金斗基

奉爐 : 崔榮洛

奉爵 : 諸葛浩吉, 金東瓚

奠爵 : 金秉河, 金乙東

司盥 : 金在永, 金載永

司悅 : 金德容

掌饌 : 金守永

天啓

▪ 해 석

<제 집사 분정기>

초헌(初獻) : 박찬규(朴燦奎)

아헌(亞獻) : 김금식(金兢埴)

종헌(終獻) : 이유민(李有珉)

장의(掌儀) : 장형표(張炯杓)

축(祝) : 한석관(韓錫倌)

찬자(贊者) : 김창규(金昌圭)

찬창(贊唱)

사준(司尊) : 김병판(金秉判)

봉향(奉香) : 김두기(金斗基)

봉로(奉爐) : 최영락(崔榮洛)

봉작(奉爵) : 제갈호길(諸葛浩吉), 김동찬(金東瓚)

전작(奠爵) : 김병하(金秉河), 김을동(金乙東)

사관(司盥) : 김재영(金在永), 김재영(金載永)

사세(司悅) : 김덕용(金德容)

장찬(掌饌) : 김수영(金守永)

천계(天啓)

■ 국기(國忌)



국기

이는 국기일(國忌日)을 적은 글이다. 조선시대 태조 이후 임금이나 왕후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인데, 추존한 임금도 포함하였다. 국기일에는 전국적으로 가무와 음주 및 잡희 등의 유흥이 모두 금지되었고, 그 밖에도 모든 도살을 금지하였다. 또한 궁중에서도 국기일에 예에 따라 거행되었고 임금이 능침(陵寢)을 배알한 경우도 있었다. 국기판(國忌板)을 전국 각 서원에 게시해 두고 이날은 근신하였다. 본 국기판에는 태조헌강대왕에서부터 익종(翼宗)까지 적었다. 익종은 순조의 세자이며 이름은 영(昞)이다. 1827년 대리청정(代理聽政)하여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하는 등 선정에 힘썼으나, 대리청정 4년 만에 죽었다. 아들인 헌종이 즉위한 뒤에 익종으로 추존(追尊)하였다. 익종까지만 기술되었기 때문에 본 국기판은 헌종 연간(1835~1849)에 만들어 게시했음을 알 수 있다.

▪ 원 문

<國忌>

太祖康獻大王	五月二十四日	健元陵
神懿王后韓氏	九月二十三日	齋陵
神德王后康氏	八月十三日	貞陵
定宗恭靖大王	九月二十六日	厚陵
定安王后金氏	六月二十五日	厚陵
太宗恭定大王	五月十日	獻陵
元敬王后閔氏	七月十日	獻陵
世宗莊憲大王	二月十七日	英陵
昭憲王后沈氏	三月二十四日	英陵
文宗恭順大王	五月十四日	顯陵
顯德王后權氏	七月二十四日	顯陵
端宗大王	十月二十四日	莊陵
定順王后宋氏	六月四日	思陵
世祖惠莊大王	九月八日	光陵
貞熹王后尹氏	三月三十日	光陵
德宗懷簡大王	九月二日	敬陵
昭惠王后韓氏	四月二十七日	敬陵

睿宗襄悼大王	十一月二十八日	昌陵
章順王后韓氏	十二月五日	恭陵
安順王后韓氏	十二月二十三日	恭陵
成宗康靖大王	十二月二十四日	宣陵
恭惠王后韓氏	四月十五日	順陵
貞顯王后尹氏	八月二十二日	宣陵
中宗恭僖大王	十一月十五日	靖陵
端敬王后愼氏	十二月七日	溫陵
章敬王后尹氏	三月二日	禧陵
文定王后尹氏	四月七日	泰陵
仁宗榮靖大王	七月朔日	孝陵
仁聖王后朴氏	十一月二十九日	孝陵
明宗恭獻大王	六月二十八日	康陵
仁順王后沈氏	正月二日	康陵
宣祖昭敬大王	二月朔日	穆陵
懿仁王后朴氏	六月二十七日	穆陵
仁穆王后	六月二十八日	穆陵
元宗恭良大王	十二月二十九日	章陵
仁獻王后具氏	正月十四日	章陵
仁祖大王	五月八日	長陵
仁烈王后韓氏	十二月九日	長陵
莊烈王后趙氏	八月二十六日	徽陵
孝宗大王	五月四日	寧陵
仁宣王后張氏	二月二十四日	寧陵
顯宗大王	八月十八日	崇陵
明聖王后金氏	十二月三日	崇陵
肅宗大王	六月八日	明陵
仁敬王后金氏	十月二十六日	翼陵
仁顯王后閔氏	八月十四日	明陵
仁元王后金氏	三月二十六日	明陵
景宗大王	八月二十五日	懿陵
端懿王后沈氏	二月七日	惠陵
宣懿王后魚氏	六月二十九日	懿陵
英宗大王	三月五日	元陵
貞聖王后徐氏	二月十五日	弘陵

貞純王后金氏	正月十二日	元陵
眞宗大王	十一月十六日	永陵
孝純王后趙氏	十一月十四日	永陵
正宗大王	六月二十八日	健陵
孝懿王后金氏	三月九日	健陵
純宗大王	十一月十三日	仁陵
翼宗大王	三月六日	緩陵

己亥四月 日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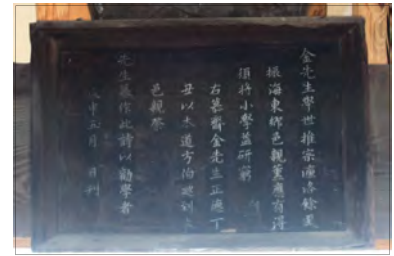
▪ 해 석

<나라의 기일>

태조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	5월 24일	건원릉(健元陵)
신의왕후한씨(神懿王后韓氏)	9월 23일	재릉(齋陵)
신덕왕후강씨(神德王后康氏)	8월 13일	정릉(貞陵)
桃 정종공정대왕(定宗恭靖大王)	9월 26일	후릉(厚陵)
정안왕후김씨(定安王后金氏)	6월 25일	후릉(厚陵)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	5월 10일	헌릉(獻陵)
원경왕후민씨(元敬王后閔氏)	7월 10일	헌릉(獻陵)
세종장헌대왕(世宗莊憲大王)	2월 17일	영릉(英陵)
소헌왕후심씨(昭憲王后沈氏)	3월 24일	영릉(英陵)
조문종공순대왕(文宗恭順大王)	5월 14일	현릉(顯陵)
현덕왕후권씨(顯德王后權氏)	7월 24일	현릉(顯陵)
桃 단종대왕(端宗大王)	10월 24일	장릉(莊陵)
정순왕후송씨(定順王后宋氏)	6월 4일	사릉(思陵)
세조혜장대왕(世祖惠莊大王)	9월 8일	광릉(光陵)
정희왕후윤씨(貞熹王后尹氏)	3월 30일	광릉(光陵)
桃 덕종회간대왕(德宗懷簡大王)	9월 2일	경릉(敬陵)
소혜왕후한씨(昭惠王后韓氏)	4월 27일	경릉(敬陵)
桃 예종양도대왕(睿宗襄悼大王)	11월 28일	창릉(昌陵)
장순왕후한씨(章順王后韓氏)	12월 5일	공릉(恭陵)
안순왕후한씨(安順王后韓氏)	12월 23일	공릉(恭陵)
성종강정대왕(成宗康靖大王)	12월 24일	선릉(宣陵)
공혜왕후한씨(恭惠王后韓氏)	4월 15일	순릉(順陵)
정현왕후윤씨(貞顯王后尹氏)	8월 22일	선릉(宣陵)
중종공희대왕(中宗恭僖大王)	11월 15일	정릉(靖陵)
단경왕후신씨(端敬王后愼氏)	12월 7일	온릉(溫陵)

장경왕후윤씨(章敬王后尹氏)	3월 2일	희릉(禧陵)
문정왕후윤씨(文定王后尹氏)	4월 7일	태릉(泰陵)
祧 인종영정대왕(仁宗榮靖大王)	7월 1일	효릉(孝陵)
인성왕후박씨(仁聖王后朴氏)	11월 29일	효릉(孝陵)
명종공헌대왕(明宗恭獻大王)	6월 28일	강릉(康陵)
인순왕후심씨(仁順王后沈氏)	1월 2일	강릉(康陵)
선조소경대왕(宣祖昭敬大王)	2월 1일	목릉(穆陵)
의인왕후박씨(懿仁王后朴氏)	6월 27일	목릉(穆陵)
인목왕후(仁穆王后)	6월 28일	목릉(穆陵)
祧 원종공양대왕(元宗恭良大王)	12월 29일	장릉(章陵)
인헌왕후구씨(仁獻王后具氏)	1월 14일	장릉(章陵)
인조대왕(仁祖大王)	5월 8일	장릉(長陵)
인열왕후한씨(仁烈王后韓氏)	12월 9일	장릉(長陵)
장열왕후조씨(莊烈王后趙氏)	8월 26일	휘릉(徽陵)
효종대왕(孝宗大王)	5월 4일	영릉(寧陵)
인선왕후장씨(仁宣王后張氏)	2월 24일	영릉(寧陵)
현종대왕(顯宗大王)	8월 18일	송릉(崇陵)
명성왕후김씨(明聖王后金氏)	12월 3일	송릉(崇陵)
숙종대왕(肅宗大王)	6월 8일	명릉(明陵)
인경왕후김씨(仁敬王后金氏)	10월 26일	익릉(翼陵)
인현왕후민씨(仁顯王后閔氏)	8월 14일	명릉(明陵)
인원왕후김씨(仁元王后金氏)	3월 26일	명릉(明陵)
경종대왕(景宗大王)	8월 25일	의릉(懿陵)
단의왕후심씨(端懿王后沈氏)	2월 7일	혜릉(惠陵)
선의왕후어씨(宣懿王后魚氏)	6월 29일	의릉(懿陵)
영종대왕(英宗大王)	3월 5일	원릉(元陵)
정성왕후서씨(貞聖王后徐氏)	2월 15일	홍릉(弘陵)
정순왕후김씨(貞純王后金氏)	1월 12일	원릉(元陵)
진종대왕(眞宗大王)	11월 16일	영릉(永陵)
효순왕후조씨(孝純王后趙氏)	11월 14일	영릉(永陵)
정종대왕(正宗大王)	6월 28일	건릉(健陵)
효의왕후김씨(孝懿王后金氏)	3월 9일	건릉(健陵)
순종대왕(純宗大王)	1월 13일	인릉(仁陵)
익종대왕(翼宗大王)	3월 6일	완릉(緩陵)
기해년 4월 일 새기다.		

■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시



모재 김안국의 시

한훤당의 스승은 점필재 김종직이고 제자는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등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중종반정 이후 한훤당의 문인인 이들의 주축이 되어 개혁정치를 전개하였다. 한훤당은 조광조와 김안국에 의해 신원되었고 도승지를 거쳐 우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문묘종사에 오르진 못했지만 적극 논의가 되었다. 정덕 정축년(1517, 중종 12)에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로서 본 고을에 들러 한훤당 묘소에 참배하고 지은 시가 바로 이 편액이다. 이 시에서, '온 세상이 한훤당 선생을 높이 추앙함은 송나라 도학을 우리나라에 진작시켰기 때문이다. 이곳 고을 선비들은 응당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은 반드시 『소학』을 저본으로 삼아 궁리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원 문

金先生學世推宗

濂洛餘風振海東

鄉邑親薰應有得

須將小學益研窮

右慕齋金先生 正德丁丑 以本道方伯 巡到本邑 親祭先生墓 作此詩以勸學者

戊申五月 日刊

▪ 해 석

김 선생⁵⁷⁾의 학문은 세상에서 으뜸으로 받드니

염락의 여풍⁵⁸⁾을 해동에 떨쳤도다

고을에서 직접 배워 얻음이 있을 것이니

57) 김 선생 : 김광필(金宏弼, 1454~1504)을 말한다.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簑翁) 또는 한훤당(寒喧堂),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을 배운 것을 계기로 평생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 '소학동자'라 일컬었고 《소학》의 화신이라는 평을 들었다.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무오당인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과 함께 오현(五賢)으로 문묘에 종사되었다. 저서로는 《경현록(景賢錄)》·《한훤당집》·《가범(家範)》등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58) 염락(濂洛) : 염락관민(濂洛關閔)의 준말로, 즉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 등 송대(宋代)의 성리학자들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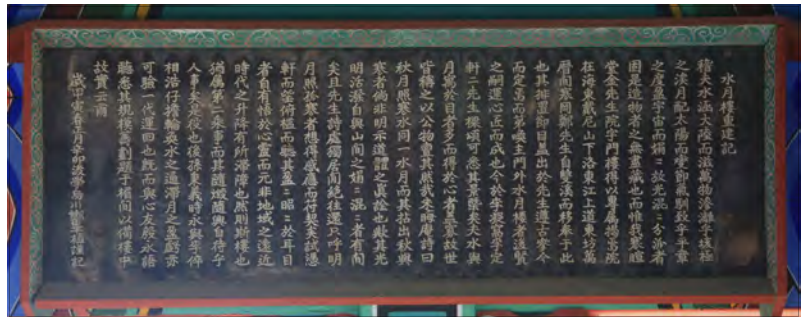
모름지기 장차《소학》을 더욱 깊이 연구하라

위는 모재(慕齋) 김 선생(金先生)⁵⁹⁾이 정덕(正德)⁶⁰⁾ 정축년(1517)에 본도의 방백(方伯)으로 본 고을에 도착하여 친히 선생의 묘소에 제사 지내고 이 시⁶¹⁾를 지어 학자들을 권면한 것이다.

㉠ 수월루(水月樓)

도동서원의 문루(門樓)가 수월루(水月樓)다. 그런데 서원이 창건한 뒤 상당히 후대에 내려와서 문루가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유년(1849, 헌종 19)에 이원조(李源祚)가 지은 상량문에, '한 고을의 선비들이 모여 세 칸의 문루를 지었다(遂合一鄉之衿紳 載營三間之架棟)'이란 말이 그것이다. 문루를 이때 창건했다는 말은 수월루중건전말소기(水月樓重建顛末小記)에서도 밝히고 있다. 수월(水月)의 의미는 한훤당의 고매한 도학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한수조월(寒水照月)'에서 취한 것으로, 주자 시의 '추월조한수(秋月照寒水)'에서 나온 말이다. 글씨는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수월루중건기(水月樓重建記)



수월루 중건기

본 중건기는 갑인년(1974)에 정화식(鄭華植)이 지었다. 내용은 먼저 물(水)과 달(月)의 의미를 새기며 그 도도한 물줄기와 아름다운 광채는 조물주의 무진장이라 하였다. 서원은 대니산(戴尼山) 아래 낙동강 가 도동방(道東坊)에 있으며 한강 정구가 쌍계에서 이곳으로 옮겨 건립하였다. 수월루는 후현(後賢)들이 힘을 모아 건립하였으며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의 상량문에서 그 경개(景槩)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후손 병의(秉義)와 시영(時永) 및 달성군수 이상호(李相浩)과 후손 은영(殷永)이 성의와 힘을 모아 건립했다고 적었다.

59) 모재(慕齋) 김 선생(金先生) :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을 말한다. 모재(慕齋)는 그의 호이다. 자는 국경(國卿),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제자이다. 좌찬성(左贊成)과 문형(文衡)을 지냈으며, 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이천(利川)으로 물러나 살면서 조그마한 서재를 지어 놓고는 은일(恩逸)이라는 편액을 내건 다음, 그곳에서 날마다 여러 학도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였다. 저서로는 《모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60) 정덕(正德) : 명나라 무종(武宗)의 연호이다.

61) 이 시 : 이 시의 제목은 〈현풍의 학자들에게 보이다.〔示玄風學者〕〉인데, 《모재집(慕齋集)》권1에 실려 있다.

■ 수월루중건전말소기(水月樓重建顛末小記)



수월루 중건전말소기

이 글은 앞서 중건기와 같은 해인 1974년에 후손 이은영(李殷永)이 지었다. 원문과 번역문은 『달성 도동서원』 페이지 76쪽에 실려 있다. 주요 내용은, 기유년(1849, 헌종 19)에 수월루를 창건하였으며 이원조(李源祚)가 상량문을 지었다. 그런데 겨우 15년이 지난 후 화재로 수월루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계해년(1863, 철종 14)에 건물 일부를 보수한 뒤 정헌(定軒) 이종상(李鍾祥)에게 상량문을 받아 걸었으나 무자년(1888, 고종 25)에 이르러 다시 화재로 전소하고 말았다. 창상의 변혁을 겪으면서 후손과 사림은 이를 중건하지 못함을 통탄으로 여겼다. 마침내 원사를 확장하며 정비하기에 이르러 묘우와 당재(堂齋)를 일신하였다. 다시 수월루를 중건하여 1973년 9월에 시작한 공사는 12월에 준공하였다. 규모는 4칸이며 재물은 500만금이 들었다. 시종 힘을 쓴 사람은 주손 병의(秉義)와 그의 족속 시영(時永) 및 달성군수 이상호(李相浩)이었다고 하였다.

▪ 원 문

<水月樓重建顛末小記>

凡物之廢興成毀 固大數之使然而相尋於無窮者也 雖然其興其成 亦在於人爲之如何 則惡可專諉於數而不思所以圖舊之方乎哉 惟我道東院水月樓 卽士子舒神休情之所 則有是院而不可無是樓者明矣 樓之刼建 以凝窩李公所撰上梁文推之 則在於憲廟己酉歲者 似無疑矣 纔閱十五星霜而遽爲融魔所燬隨 卽修補於哲宗癸亥而定軒李公撰重建梁頌 至高宗戊子 竟不免於全燼而世仍蒼桑 國社爲屋 所謂爲士者 舉皆惴惴然自躬之猶不閱 奚遑於斯樓之復舊哉 任於葵麥之飄搖者 歲月已久而使過者太息而已 何幸天佑 吾東國復而庶政就緒 以至忠賢之祠院 可謂在在張廓而亦極傾念 於是院神宮與堂齋 旣一切新之 仍及於樓役始於癸丑九月 竣於全年之十二月 計日數則一百有奇也 所入貲則五百萬金也 規制則四架三間而左右同也 始終旋力者 則文敬公嚮嗣秉義 暨其族叔時永 本倅李相浩也 於是乎嚶嚶敞燠 澄江映檻 妍峯揖簷 無復荒煙淒露之滅沒 於蒼茫登覽之僉章甫 皆魂怡目蕩 如入於閨苑別界 是豈非成興之亦在於人爲者歟 誠感慨無量也 迺者院儒諸公以殷永之亦有與相 於是役命之以詳記其本末以告來者 故遂不揆妄率 敢敘梗概之如右而若夫水月之義 則已有鄭斯文華植之記 故不贅焉

檀君紀元四千三百七年甲寅仲春 文敬公后孫 殷永謹記

▪ 해 석

<수월루 중건전말 소기>

무릇 사물이 폐하고 흥하며 이루어지고 훼손되는 것은 실로 큰 운수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 끝없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흥하고 이루어지는 것 또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으니, 어찌 오로지 운수에 맡겨두고서 오래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도동서원의 수월루는 바로 선비들이 정신을 펼치고 성정을 쉬게 하는 곳이니, 이 서원이 있으면서 이 루가 없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수월루가 창건된 것은 응와(凝窩) 이공(李公)⁶²⁾이 지은 상량문으로 미루어보면 현종 기유년(1849)에 있었던 것은 의심이 없을 듯하다. 겨우 15년을 지나 갑자기 용마(融魔)⁶³⁾에게 타버리게 되었다. 바로 철종 계해년(1863)에 수리하였고 정헌(定軒) 이공(公撰)⁶⁴⁾이 중건 상량문을 지었다. 고종 무자년(1888)에 이르러 마침내 완전히 타버리게 됨을 면치 못하였는데 세대가 그대로 변해버렸고 나라가 망해 버렸으니,⁶⁵⁾ 이른바 선비라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몸도 오히려 돌보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 수월루를 회복할 경향이 있었겠는가. 규맥(葵麥)⁶⁶⁾에 흔들리는 대로 맡겨둔 것이 세월이 이미 오래 되자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탄식하게 하였다.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도와 우리나라가 회복되어 여러 정치가 정돈되었고, 충현(忠賢)들의 사원(祠院)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확장하면서 또한 생각을 지극히 기우렸다고 할 만하다. 이에 이 서원의 신궁(神宮)과 당재(堂齋)를 이미 일체 새롭게 짓고, 이어서 수월루의 공역에 미쳤으니, 계축년(1973) 9월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하였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100여일이 걸렸고, 들인 재물은 500만 금이고, 규모와 제도는 네 기둥의 4칸인데 좌우가 같다. 시종 힘을 쓴 사람은 문경공(文敬公)⁶⁷⁾의 주손[鬯嗣] 병의

62) 응와(凝窩) 이공(李公) : 이원조(李源祚, 1792~1871)를 말한다. 응와는 그의 호이다. 자는 주현(周賢), 본관은 성산(星山)이다. 철종 때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냈으며, 이후 공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로는 《응와집(凝窩集)》이 있다. 시호는 정헌(定憲)이다.

63) 용마(融魔) : 축융(祝融)을 말하는데, 불을 맡은 신의 이름이다. 《禮記 月令》

64) 정헌(定軒) 이공(公撰) : 이종상(李鍾祥, 1799~1870)을 말한다. 정헌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여주(驪州), 경주 출신이다. 서양 학문이 국내에 번지자 이를 근심하고 이 사설(邪說)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1866년(고종3)에 미국의 배 서면호가 침범하자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경주진 소모장(慶州鎭召募將)이 되어 의병을 모으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정헌집(定軒集)》이 있다.

65) 나라가 망해 버렸으니 : 사옥(社屋)을 번역한 것인데, 사옥은 토지신(土地神)을 제사 지내는 곳에 지붕을 덮는다는 뜻으로, 전하여 망국(亡國)을 의미한다. 《예기》〈교특생(郊特牲)〉에 “망국의 사에는 지붕을 만들어 덮어서 하늘의 양기를 받지 못하게 한다.[喪國之社 屋之 不受天陽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6) 규맥(葵麥) : 토규(兔葵)와 연맥(燕麥)의 준말이다. 야초(野草)와 야맥(野麥)으로, 가슴 아픈 황량한 정경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당(唐) 나라 유우석(劉禹錫)의 ‘재유현도관절구(再遊玄都觀絕句)’ 해설에 “지금 14년 만에 다시 현도(玄都)를 거닐어 보니, 옛날 도사가 심었다는 선도(仙桃) 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 있지 않고, 오직 토규와 연맥만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秉義) 및 그 족속 시영(時永), 본 군수 이상호(李相浩)였다.

이에 시원하게 높고 환하여 맑은 강이 난간에 비치고 아름다운 봉우리가 처마에 닿아 다시는 황폐한 안개나 처량한 이슬이 창망한데 매몰하는 것이 없었다. 올라 구경하는 여러 선비들이 모두 혼이 기뻐하고 눈이 씻긴 듯 마치 낭원(蘭苑)⁶⁸⁾의 별천지에 들어간 것 같았으니, 이것이 어찌 이루고 흥하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데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감개무량하다.

이에 서원의 여러 선비들이 내[殷永]가 또한 이 일에 도운 것이 있다는 것으로, 명하여 그 본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후손에게 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드디어 망령되고 경술함을 헤아리지도 않고 감히 대강을 위와 같이 서술하고, 수월(水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사문(斯文) 정화식(鄭華植)의 기문이 있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는다.

단군기원 4307년 갑인(1974) 중춘에 문경공 후손 은영(殷永)은 삼가 기록한다.

■ 수월루 상량문(水月樓上梁文)



수월루 상량문

이 글은 기유년(1849, 현종 19)에 수월루를 창건한 뒤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가 지은 상량문이다. 본 상량문은 계해년(1863, 철종 14) 또는 무자년(1888, 고종 25)의 화재 때 소실되었으며 1974년 수월루를 중건한 뒤 다시 써서 게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과 번역문은 『달성 도동서원』 페이지 70쪽에 실려 있다.

▪ 원 문

<水月樓上梁文>

集靑衿而講衣鉢之傳寒水照月

控翠渚而仰門牆之卓畫棟連雲

混混一鑑源頭 念斯文始闡於環嶠

67) 문경공(文敬公)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말하는데, 문경은 그의 시호이다.

68) 낭원(蘭苑) : 신선이 산다는 곳이다.

煌煌三字楣額 猗遺躅尙傳於戴尼
 河東道交想聯卓於伊院
 漢西高弟肇登門於熙川
 理餘韻於玉溪古亭琴濕
 尋舊刻於釵澤內院碑刊
 蓋先生直接於淵源
 俾後學不迷於門路
 光風霽月之都在立得小學根基
 秋毫泰山之可併期至大聖閭域
 主敬直達於天德青邱倡性理之論
 率禮偶符於地名玄都值文明之運
 所以百世之公議
 莫不一辭於儒宗
 尸祝初卜於雙溪蕩然八載之燹
 縉儀克舉於兩廡巍乎五賢之班
 謂密通於墳庵中年倡移安之舉
 起曠感於湮沒聖朝渙頒額之音
 矧惟嫡脉之相傳
 迺有寒翁之繼起
 襲徽美於我之自出啓正路於抽關
 究志業於人皆可爲奉洪規於入室
 肆後人景慕靡間東楹揭虔
 粵諸賢磊落相望別祠旁列
 獨恨門制之不備
 只緣院力之未遑
 繚垣墻於中正堂前既有藏修遊息之所
 歷階級於喚主門外尙欠高明爽朗之觀
 暇日登臨庶幾循序而造極
 遺風綏邈詎緩塗腹而飾墉
 遂合一鄉之衿紳
 載營三間之架棟
 層欄邃閣占面勢於端方
 曠野平沙敞眼界於縹緲
 萬疊雲嶂穹碑如見於羹墻
 一曲清江眞源直通於伊洛

非欲侈大於舊制
 自此增重於吾林
 駕風霆於空樓庶豁堯夫之胸次
 裝烟月於小艇擬續武夷之櫂歌
 課後進於詩禮絃歌 雨珠迸地
 慕前修於揖讓升降 星斗在天
 得其門而入焉次第敬堂義牖
 登斯樓而望也羅列智水仁山
 聊凭百尺之脩梁
 敢陳六偉之短唱
 拋梁東
 活水源流左右逢
 瑤琴試奏舷頭月
 理契鳶魚在鏡中
 拋梁西
 蒼翠群巒入檻低
 十疊雲屏開活畫
 幅巾端坐簡編稽
 拋梁南
 第一江山眼界參
 麗澤當年傾蓋處
 至今遺躅野人諳
 拋梁北
 洛阜齋裏思先則
 蓮纓抵案坐深更
 活潑天機隨處得
 拋梁上
 谷霧林霏不敢障
 勿四省三眞訣傳
 肯教冥擿終迷向
 拋梁下
 照寒亭畔月明夜
 須將方寸證靈通
 寶鑑玄珠光氣射
 伏願上梁之後

益鞏基礎

永藏蕊芬

流峙有控護之靈既濟功役

風雨無動撓之還大壯規模

吾道由是而益明貼曠原而高覲

儒風莞然而丕振望周行而齊趨

憲廟己酉三月 日 後學星山李源祚謹撰

▪ 해 석

<수월루상량문>

선비[靑衿]⁶⁹⁾들을 모아 의발(衣鉢)⁷⁰⁾의 전통을 강론하니, 차가운 물에 달빛이 비추고, 질푸른 물가에 끌어당겨 문장(門牆)⁷¹⁾의 우뚝함을 우러르니, 채색 기둥이 구름에 닿았네. 혼흔히 흐르는 한 연못의 근원에서 사문(斯文)⁷²⁾이 온 영남에 비로소 드러난 것 생각하고, 빛나는 세 글자의 편액에서, 아, 대니(戴尼)⁷³⁾에 유촉이 아직도 전해지네. 하수의 동쪽엔 도의의 교제가 이원(伊院)에서 나란히 우뚝하기를 생각하고,⁷⁴⁾ 한강의 서쪽엔 고제(高弟)들이 희천(熙川)에서 일찍 문하에 들었네.⁷⁵⁾ 옥계(玉溪)에서 여운⁷⁶⁾을 다스리니 오랜 정자의 거문고가 축축하고, 검택(鉞澤)에서 옛날에 새겨 놓은 것 찾으니 내원의 비석 닳았네. 선생⁷⁷⁾께서 연원에

69) 선비[靑衿] : 청금은 동정깃[衿]을 푸른색으로 만든 의복으로서 학생, 곧 수재(秀才)의 의복을 말하나, 여기서는 선비란 뜻이다. 《시경》〈자금(子衿)〉에 ‘靑靑子衿 悠悠我心’이란 데서 온 말인데 주(注)에 ‘청금은 푸른 동정으로서 학자가 입는 옷이라.’고 하였다.

70) 의발(衣鉢) : 학문의 법통을 전하는 것을 의발(衣鉢)을 전한다고 한다. 즉 불가(佛家)에서 중이 죽으면 입던 가사(袈裟)와 반발(飯鉢)을 후배에게 전해 준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71) 문장(門牆) : 스승의 문을 말한다. 노(魯) 나라 대부 숙손 무숙(叔孫武叔)이 조정의 대부에게 “자공(子貢)이 중니(仲尼) 보다 어질다.” 하자, 자복 경백(子服景伯)이 자공에게 고하였는데 자공이 “부자의 담은 몇 길이나 되어 문을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論語 子張》

72) 사문(斯文) : 사문(斯文)은 사도(斯道)이며 유학을 말한다. 사문이란 말은 《논어》〈자한(子罕)〉에서 공자가 광(匡) 땅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였을 때에, “하늘이 이 학문[斯文]을 없애지 아니할진대 광(匡) 땅의 사람이 나에게 어찌 할 것인가?”라고 했던 데서 나왔다.

73) 대니(戴尼)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동동서원이 있는 곳을 말한다. 김굉필이 이 산에 살면서, 공자의 어머니 안씨(顔氏)가 빌어서 공자를 낳았다는 중국의 이구산(尼丘山)을 우러러 기린다는 뜻으로 대니산(戴尼山)이라 불렀다고 한데서 유래 한다.

74) 도의의.....생각하고 : 이원(伊院)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에 있는 이산서원을 말하는데, 퇴계 이황을 모신 곳이다.

75) 희천(熙川)에서 일찍 문하에 들었네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이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의 일파로 몰려 희천(熙川)에 유배되었을 때, 제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이다.

76) 옥계(玉溪)에서 여운 : 주희의 시에, “거문고 홀로 안고 옥계를 건넌나니, 달도 밝은 맑은 밤에 낭랑한 그 소리여.[獨抱瑤琴過玉溪 琅琅清夜月明時]”라고 한데서 인용한 말이다. 《朱子大全 卷7 讀李賓老玉潤詩偶成》

77) 선생 :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말한다.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簑翁) 또는 한훤당(寒暄堂),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을 배운 것을 계기로 평생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 ‘소학동자’라 일컬었고

바로 접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문로(門路)에 미혹되지 않게 하였네. 광풍제월(光風霽月)⁷⁸⁾은 모두 《소학》의 근본을 세운데 있고, 추호태산(秋毫泰山)⁷⁹⁾은 대성(大聖)의 영역에 이르기를 함께 기약하였네. 경(敬)을 위주로 하여 천덕(天德)에 곧장 도달하여 우리나라에 성리(性理)의 의론을 창도하였고, 예를 따른다는 솔레(率禮)가 우연히 지명과 부합하여⁸⁰⁾ 현도(玄都)가 문명의 운수를 만났네. 까닭에 백세의 공적인 의론이 한결같은 말로 유종(儒宗)이라 하지 않음이 없네. 제사를 모시는 것 쌍계(雙溪)에서 처음 정하였으나 허무하게 8년 만에 불타버렸고, 봉안하는 의식 능히 양무(兩廡)⁸¹⁾에서 거행하니 우뚝하게 오현(五賢)⁸²⁾과 나란하였네. 분암(墳庵)⁸³⁾에서 은밀하게 통고하여 중년에 옮겨 봉안하는 일을 창의하였고, 운호(湏護)에서 감회를 일으켜 성스러운 조정에서 사액하라는 윤음을 내렸네. 하물며 적통의 맥이 이어져, 이에 한옹(寒翁)⁸⁴⁾이 이어 일어남에랴. 나의 선조에서 아름다움 이어받아 빗장을 풀듯이 바른 길을 열었고, 사람들이 모두 할 수 있는데서 지업을 궁구하여 집에 들어가 큰 법도를 받들었네. 이에 후인들 경모하여 모두 동쪽 기둥에 경건함을 표시하였고, 아, 제현들 기개가 커 서로 바라보며 별사에 나열되었네. 유독 집의 규모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니, 다만 서원의 능력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네. 중정당(中正堂) 앞에 담장을 둘렀으니 이미 실로 또한 학문을 닦고 노닐며 쉴 곳 있고, 환주문(喚主門) 밖에 계단을 지나오니 오히려 고명하고 시원한 경관이 부족하네. 한가한 날 올라 임하면 거의 차례를 따라 지극한 경지에 나아갈 것이고, 유풍이 아득하니 어찌 단청하여 담장 꾸미는 일 늦출 수 있으랴. 드디어 한 고을의 선비들 모아, 세 칸의 집 경영하기 시작하였네. 층층의 난간 깊은 누각은 단정한 방향에 앞모습 차지하였고, 넓은 들 평평한 모래사장은 아득한 시야가 시원하네.

《소학》의 화신이라는 평을 들었다.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무오당인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과 함께 오현(五賢)으로 문묘에 종사되었다. 저서로는 《경현록(景賢錄)》·《한현당집》·《가범(家範)》 등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78) 광풍제월(光風霽月) : 비가 갠 뒤의 화창한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으로 온화하고 깨끗한 심성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황정건(黃庭堅)의 〈염계시서(滌溪詩序)〉에서 주돈이(周敦頤)의 인품을 평하면서, “홍중이 쇠락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 갠 달과 같다.[胸中灑落如光風霽月]”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79) 추호태산(秋毫泰山) :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천하에는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을 수 있는 반면에 태산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요절한 아이보다 더 장수한 이가 없을 수 있는 반면에 800세를 산 팽조를 요절했다고 할 수도 있다.[天下莫大於秋毫之末 而大山爲小 莫壽乎殤子 而彭祖爲天]”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80) 솔레(率禮)가 우연히 지명과 부합하여 : 솔레는 김굉필이 살았던 현풍면 솔레리와 이름이 같다는 말이다.

81) 양무(兩廡) : 무(廡)는 행랑으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말한다.

82) 오현(五賢) : 조선 중기 때 문묘에 배향된 다섯 유현(儒賢)으로 즉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을 가리킨다.

83) 분암(墳庵) : 묘소 앞에 지어 놓은 재실을 이른다.

84) 한옹(寒翁) :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를 말한다. 자는 도가(道可),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조식(曹植)과 이황(李滉)에게 성리학(性理學)을 배웠다. 경학(經學),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으며 산수(算數)·병진(兵陣)·의약(醫藥)·풍수(風水)에도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한강집(寒岡集)》·《태극문변(太極問辨)》·《역대기년(歷代紀年)》·《관의(冠儀)》·《혼의(婚儀)》·《장의(葬儀)》·《갱장록(羹牆錄)》 등이 있다.

만 겹의 구름 봉우리에 높은 비석은 갱장(羹牆)⁸⁵⁾을 보는 듯하고, 한 줄기 맑은 강엔 참 근원이 이락(伊洛)⁸⁶⁾과 바로 통하였네. 옛날 규모보다 사치스럽고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우리 유림에 무게를 더하려는 것일세. 허공의 누대에 풍정(風霆)⁸⁷⁾을 타니 요부(堯夫)⁸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작은 배에 자욱한 달빛 장식하니 무이(武夷)의 도가(道歌)⁸⁹⁾를 잇는 듯하네. 시례(詩禮)의 현가(絃歌)⁹⁰⁾를 후배들에게 부과하니 주옥이 땅에 우뚝하고, 음양하며 오르내리는 데에서 전현을 사모하니 북극성이 하늘에 있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경의 집과 의의 창문에 차례지었고, 이 누대에 올라 바라봄에 지자의 물과 인자의 산이 나열 되었네. 예오라지 백척의 긴 들보에 기대어, 감히 육위(六偉)의 짧은 노래⁹¹⁾ 진술하네.

들보 동쪽에 던지세

활수가 원두에서 흘러 좌우에서 흘러 근원을 만나네⁹²⁾

옥 거문고로 뱃머리의 달을 연주하니

이치가 연어⁹³⁾와 합하여 연못 가운데 있네

들보 서쪽에 던지세

푸른 빛 여러 산들이 난가 아래로 들어오네

열 겹 구름 병풍에 살아있는 그림 펼쳐지니

복건⁹⁴⁾ 쓰고 단정히 앉아 책을 살펴보네

- 85) 갱장(羹牆) : 선인(先人)을 추모(追慕)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이 3년 동안이나 양모(仰慕)한 나머지, “앉아 있을 때에는 담벼락에 요 임금이 보이고 식사를 할 때에는 국그릇 속에 보였다.[坐則見堯於牆 食則覩堯於羹]”는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63 李固列傳》
- 86) 이락(伊洛) : 이수(伊水)와 낙수(洛水)를 말하는데, 정자(程子)는 이수가에, 주자(朱子)는 낙수가에 살았으므로 정주학(程朱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87) 풍정(風霆) : 속수 선생(涑水先生) 화상찬에 “바람을 타고 우레를 채찍질하니, 가없는 세계를 두루 보도다.[駕風鞭霆 歷覽無際]”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 88) 요부(堯夫) : 송(宋)의 소옹(邵雍)의 자이다. 소옹은 유일(遺逸)로 추천을 받아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다 불고하고 소문산(蘇門山)에서 독서에만 심취하여 자기 거소를 안락와(安樂窩)라고 이름하고 자호를 안락 선생(安樂先生)이라 하였음. 《宋史 卷427》
- 89) 무이(武夷)의 도가(道歌) : 무이산(武夷山) 안의 아홉 굽이 개천을 두고 송(宋) 주희가 지은 구곡가(九曲歌)를 말한다.
- 90) 시례(詩禮)의 현가(絃歌) : 공자는 일찍이 궤리의 행수(杏樹, 살구나무 또는 행나무라고도 한다)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예악(禮樂)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이것을 ‘행단(杏壇)’이라 하며, 이것이 유래되어 노(魯) 나라에는 현가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나 한다.《史記 卷47 孔子世家, 孔子家語, 漢書 卷88 儒林傳序》
- 91) 육위(六偉)의 짧은 노래 : 육위는 동, 서, 남, 북, 상, 하의 여섯 방위를 가리키는 말로, 상량식(上樑式)을 할 적에 여섯 방위로 대들보를 돌려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바, 상량문을 가리킨다.
- 92) 좌우에서 흘러 근원을 만나네 : 맹자(孟子)가 학문에 있어서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몸의 좌우에서 취하여 쓸 때 그 근원을 만날 수 있게 된다.[取之左右逢其源]”라고 한데서 인용한 것이다.《孟子 離婁下》
- 93) 연어(鰲魚) : 연비어약(鰲飛魚躍)의 준말로,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한다는 말로, 도가 하늘 끝에서 깊은 물속까지 위아래로 환하게 드러남을 형용하는 말이다. 《중용장구》 제12장에 “《시경》에 이르기를, ‘술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다.’ 하였으니, 상하에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詩云 鰲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들보 남쪽에 던지세
 제일의 강산에 시야가 모여드네
 이택⁹⁵⁾의 당년에 경개⁹⁶⁾하던 곳에
 지금도 남은 자취 야인들이 알고 있네
 들보 북쪽에 던지세
 낙고재 안에서 선대의 법칙 생각하네
 연자 갓끈 책상에 닿으니 자리가 더욱 깊은데
 활발한 천기를 곳마다 터득하네
 들보 윗 쪽에 던지세
 골짜기의 안개와 수풀의 내리는 비도 막지 못하네
 사물⁹⁷⁾과 삼성⁹⁸⁾ 참 비결 전해지니
 기꺼이 명적⁹⁹⁾으로 하여금 끝내 향할 곳 미혹하게 하라
 들보 아랫 쪽에 던지세
 조한정 가에 달 밝은 밤일세
 모름지기 마음으로 신령하게 통하는 것 증명하니
 보감과 현주가 광채를 쏘네
 삼가 상량한 뒤에는
 더욱 기초가 공고하여
 영원히 향기로움 간직하게 하소서
 강과 산에는 보호하는 신령이 있으니
 이미 공력을 이루었고

- 94) 폭건(幅巾) : 은사(隱士) 등이 쓰는 두건(頭巾)인데, 삼국(三國) 시대 오(吳) 나라 장소(張昭)가 임종시에 폭건소관(幅巾素棺)으로 염(斂)을 하라고 유명(遺命)을 내린 고사에서 온 말이다.
- 95) 이택(麗澤) : 봉우 간에 강습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태괘(兌卦)〉에 “두 못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태이니 군자가 이를 따라 봉우 간에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 朋友講習]”는 말에서 유래한다.
- 96) 경개(傾蓋) : 길에서 우연히 만나 수레의 일산을 마주 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처음 만났음에도 오랜 벗처럼 친밀한 정을 느낀다는 뜻이다. 《사기》〈추양열전(鄒陽列傳)〉에 “속어(俗語)에 ‘백발이 되도록 오래 사귀어도 처음 사귀 듯 하고, 수레를 멈추고 잠깐 만났어도 오래 사귀 듯하다.’ 하였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서로를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97) 사물(四勿) : 공자의 제자인 안연(顏淵)이 인(仁)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고 답한 네 가지를 말한다. 《論語 顏淵》
- 98) 삼성(三省) : 《논어》〈학이(學而)〉에 증자가,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피노니, 남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충실[忠]하지 못한가? 벗과 사귀는 데 신(信)하지 못한가? 스승이 전하여 주신 것을 익히지 아니하였나?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 99) 명적(冥擿) : 맹인(盲人)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길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억측(臆測)으로 생각하여 행동함을 비유한다. 양웅의 《법언(法言)》〈수신편(修身篇)〉에, “맹인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길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을 뿐이다.[素擿塗索塗 冥行而已]”라고 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풍우가 동요시키는 것이 없으니
규모가 장대하네
우리도가 이로부터 더욱 밝아져
빈 언덕 밟고 올라 높이 쳐다보고
선비의 기풍이 무성하여 크게 떨쳐져
큰 도¹⁰⁰를 바라보며 나란히 달려가게 하소서
헌종 기유년(1849) 3월 일 후학 성산(星山) 이원조(李源祚)¹⁰¹는 삼가 짓다.

■ 수월루 중수상량문(水月樓重修上梁文)



수월루 중수상량문

1849년에 수월루를 창건한 지 15년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다. 이를 보수하고 계해년(1863, 철종 14) 6월에 정헌(定軒) 이종상(李鍾祥)에게 글을 받아 편역한 글이 본 상량문이다. 본문에서 '어찌하여 화재의 재앙이 이 아름다운 곳에 거듭 발생했는가(奈何譴出之災 再此苾芬之地)'라고 한 글이 그것이다. 본 상량문은 1888년 화재 때 소실된 것을 1974년에 다시 써서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씨도 이원조 상량문의 서체와 같다.

■ 원문

<水月樓重修上梁文>

斯文正脈與天地而并立猗歟先師之繼往而開來
凡物大數雖鬼神而莫逃惟在後人之嗣修而興廢
所以是樓是役
聿見再圯再新
苟非崇賢慕道之本乎人心
安能圖事建功之若是神速
伏惟道東書院
寔吾嶠南觴淵

100) 큰 도 : 《시경》〈녹명(鹿鳴)〉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대도를 보여 줄지 어다.[人之好我 示我周行]”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101) 이원조(李源祚) : 1792 ~ 1871. 자는 주현(周賢), 호는 응와(凝窩), 본관은 성산(星山)이다. 철종 때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냈으며, 이후 공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로는 《응와집(凝窩集)》이 있다. 시호는 정헌(定憲)이다.

山連戴尼之尊以洙泗則昌平闕里
 地接甫老之舊在考亭則尤溪婺源
 凡我儒冠固知莫不尊親至心殫慕則此鄉爲切
 巍彼無食雖曰布在州縣初頭綿絕則是院居先
 排置已定於雙溪之初事無不備
 節目曾經於寒爺之手禮必合宜
 以至廂夾之小庖湑之微
 皆極規模之遠結構之固
 矧此院門設觀之制
 兼爲生徒登臨之資
 俎豆虔恭之餘政好舒暢其神氣
 衿紳過式之處亦所聳動其觀瞻
 百靈護衛之力斯存擊無由作
 先輩設施之意甚密慮靡不周
 柰何謫出之災
 再此苾芬之地
 咫尺棲神之宮自在寧謐縱不妨於時禋
 暇日怡心之事無處憑依亦一欠於院體
 肆灰燼不過數歲
 而經紀又有今茲
 法周人斯干之詩惟務規制之孔緻
 用魯史修學之義不計葺穠之方殷
 採木於公私之山孰敢牴牾於此事
 壓火於干支之水政自偶合於今年
 工殫勤士殫誠罔或有差緩而後時者
 山增輝水增麗是所謂將多于前功哉
 望廉翼而徘徊自人情之起敬起肅
 涉梯級而升降驗眞工之不疾不徐
 雖未及登覽於斯樓
 猶可以領略其大概
 不住天無邊月想應來照於檻頭
 數頃煙幾疊山依然環拱於望裏
 嗟夫
 非無雲物之舊
 誰識天機之眞

明倫敬身別有光霽之氣像
憑軒縱目猶屬虛閒之境情
爲助修梁
恭疏短引
拋梁東
琵琶山色碧蔥籠
古亭餘韻無人會
鶯策聲中獨倚空
拋梁西
淨水寒泉今古齊
聞道先生生事日
寢門夜夜聽初鷄
拋梁南
戴陽亭畔草毵毵
同人講說今猶想
微奧應參牛與蠶
拋梁北
萬古陶山望不極
闡發伊誰編輯誰
景賢一錄遍於國
拋梁上
白日當天長晃朗
不見長安人莫愁
浮雲散盡自眞像
拋梁下
洛水泱泱流不舍
直到滄溟方始休
工夫不息如斯者
伏願上梁之後
院貌增重
士心喚醒
由是門而入焉 尚可窺夫子之數仞
大其基而做了 因以悟學者之九層
從事五倫 孰非始下學之童子
更進尺步 勿作不上來之遊人
哲宗癸亥六月 日 後學驪江李鍾祥謹撰

▪ 해석

<수월루중수상량문>

사문의 정맥이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서니 아 선사께서 옛날을 잇고 후학을 열어주었고, 모든 사물의 큰 운수는 비록 귀신이라도 달아날 수 없으니 오직 후인들이 뒤이어 닦고 흥기시키는데 달렸네. 까닭에 이 누대의 이 일이, 이에 거듭 무너졌다 다시 새롭게 지어진 것 보았네. 실로 현인을 높이고 도를 사모하는 것이 인심에 근본하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일을 도모하고 공을 세우는 것이 이와 같이 신속할 수 있으랴. 삼가 생각건대, 도동서원은 실로 우리 영남의 시작이고 연원일세. 산은 높은 대니산을 이었으니, 수사(洙泗)¹⁰²⁾에 있어서는 창평(昌平)와 궤리(關里)¹⁰³⁾요, 땅은 옛날 보로동(甫老洞)¹⁰⁴⁾에 접하였으니, 고정(考亭)¹⁰⁵⁾ 있어서는 우계(尤溪)와 무원(婺源)¹⁰⁶⁾일세. 우리 선비들이 실로 아버이를 높이 지 않음이 없는 줄 알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은 이 고을이 절실하고, 우뚝이 저 사당에 배향하는 것은 비록 주현에 널려있다 하더라도 처음 면체(綿緼)¹⁰⁷⁾한 것은 이 서원이 앞선다. 배치가 쌍계의 초두에서 이미 정해지자 일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고, 절목이 한야(寒爺)¹⁰⁸⁾의 손에서 일찍이 만들어지자 예가 반드시 마땅함에 합하였네. 상협(廂夾)과 포팝(庖湊)의 작고 미미함에 이르러서는, 모두 원대한 규모와 견고한 결구를 지극히 하였네. 하물며 이 서원에 경관을 마련한 제도는 생도들이 올라 임하는 바탕을 겸하였음에랴. 제사를 경건하게 받드는 나머지 정신과 기운을 펼치기에 정히 좋고, 선비들이 의식을 치르는 곳에는 또한 구경하는 이들을 용동시키네. 온갖 영령들이 힘써 호위하니 이에 요열이 말미암아 생겨날 수 없고, 선배들이 마련하여 시행한 뜻은 매우 사려가 엄밀하여 두루미치지 않음이 없네. 어찌하여 희출(誥出)의 재앙¹⁰⁹⁾이 이 향기로운 땅에 거듭 생겼는가. 지척에 있는 신령이 계시는 궁은 절로 편안하고 고요하니 비록 때의 제사 지내는 데 방해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가한 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또한 서원의 체제에 한 가지 흠일세. 불타버린 것이 먼 년에

102) 수사(洙泗) : 공자를 의미한다.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두 강,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를 말하는데, 공자가 이곳에서 설교하였다 하여 공자 연원(孔子淵源)의 대표적 명사로 쓰인다.

103) 창평(昌平)과 궤리(關里) : 공자의 선대 고향과 공자가 살았던 곳이다.

104) 보로동(甫老洞) : 경상남도 달성군 현풍의 오설리(烏舌里)에 있는 보로동(甫老洞)을 말하는데, 한훤당 김굉필(金宏弼)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105) 고정(考亭) : 주희(朱熹)의 별칭이다.

106) 우계(尤溪)와 무원(婺源) : 주희(朱熹)의 선대 고향과 살았던 곳을 말한다.

107) 면체(綿緼) : 위치(位次)를 정하여 예악(禮樂)을 익히는 일로 한 나라 설현(薛縣) 사람 숙손통(叔孫通)이 일찍이 문학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고조(高祖) 때에 천하가 처음으로 평정되었을 때 제생(諸生)을 불러 야외에서 띠풀을 묶어 위치를 표시하여 한 달 남짓 예악을 익히게 하였다. 그런 다음 고조에게 보이자, 고조가 여러 신하로 하여금 따라 익히게 하였다. 《史記 卷99 劉敬叔孫通列傳 叔孫通》

108) 한야(寒爺) :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를 말한다. 자는 도가(道可),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109) 희출(誥出)의 재앙 : 《좌전》 양공(襄公) 30년에 “或吁于宋太廟曰 誥誥出出”이란 대문이 있고, 그 주에 “희희는 덩다는 말이고 출출은 백희(伯姬)를 경계한 말이다.”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로, 화재를 말한다.

불과하지만 경영하는 것은 또 지금에 있네. 주나라 사람의 사간(斯干) 시¹¹⁰⁾를 본받으니 오직 규모와 제도가 매우 정치하기를 힘쓰고, 노사(魯史)¹¹¹⁾에서 학문을 닦는 의리를 사용하니 곤표(蓂莢)¹¹²⁾가 바야흐로 성대함을 따지지 않네. 공사(公私)의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니 누가 감히 이 일을 막을 것이며, 간지(干支)의 물¹¹³⁾에서 불기운 누르니 정히 절로 올해와 우연히 합하였네. 장인은 부지런함을 다하고 선비는 정성을 다하니 혹시라도 어긋나거나 늦추어지는 것이 있지 않고, 산은 광채를 더하고 물은 아름다움을 더하니 이른바 장차 전인의 공보다 많게 하리라¹¹⁴⁾는 것이다. 날개 같은 모서리 바라보며 배회하니 절로 인정이 공경과 엄숙함을 일으키고, 계단을 지나 오르내리니 진공(眞工)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줄 알겠네. 비록 이 누대에 올라 미쳐 구경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그 대강을 알겠네. 머무르지 않고 가없는 하늘과 달이 생각건대 응당 난간 끝에 와서 비출 것이요, 몇 이랑 몇 겹의 연기와 산이 의연하게 바라보는 속에 둘러 안았네. 아! 오랜 운물(雲物)¹¹⁵⁾ 아님이 없으니, 누가 참된 천기(天機)를 알랴. 인륜을 밝히고 몸을 공경함에 별도로 광제(光霽)의 기상¹¹⁶⁾이 있고, 헌함에 기대어 눈가는 대로 바라보니 오히려 비고 한가로운 정경(情境)에 속하네. 들보 올리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공손히 짧은 노래 바치네.

들보 동쪽에 던지세

비슬산 질푸른 빛 자욱하네

옛 정자의 여운 아는 이 없으니

필율¹¹⁷⁾의 소리 속에 홀로 허공에 기대었네

들보 서쪽에 던지세

깨끗한 물 차가운 샘 고금에 똑같네

선생이 살았을 때의 일 들으니

110) 사간(斯干) 시 : 이 시(詩)는 집을 짓고 낙성(落成) 잔치를 즐기면서 그 집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그 집에서 행복을 누릴 것을 읊은 것이다.

111) 노사(魯史) : 노나라 역사라는 말로, 《춘추(春秋)》의 별칭이다.

112) 곤표(蓂莢) : 농부의 복돋는 일을 말하는데, 《춘추좌씨전》〈소공 원년(昭公元年)〉에 “비유하자면 농부가 김매고 복돋아서 비록 기근이 들더라도 풍년을 기필하는 것과 같다.[譬如農夫 是穰是蓂 雖有饑饉 必有豐年]”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113) 간지(干支)의 물 : 계해(癸亥)년의 간지가 오행의 수(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114) 이른바.....하리라 : 《서경》〈반경 하(盤庚下)〉에 “옛날 우리 선왕께서는 ‘장차 전인의 공보다 많게 하리라.[古我先王 將多于前功]’”라고 한 것을 말한다.

115) 운물(雲物) : 물(物)을 색(色)의 뜻으로 보아 구름의 다섯 가지 색깔인 청(靑)·백(白)·적(赤)·흑(黑)·황(黃)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운(雲)은 오운(五雲), 즉 오색의 구름이고, 물(物)은 풍(風)·기(氣)·일(日)·월(月)·성(星)·신(辰)으로 보는 설이 있다. 고대에는 대(臺)에 올라서 운물을 관찰함으로써 길흉을 점쳤다. 《春秋左傳 僖公5年 春正月》

116) 광제(光霽)의 기상 : 광제는 광풍제월(光風霽月)의 준말로, 비가 갠 뒤의 화창한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으로 온화하고 깨끗한 심성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황정견(黃庭堅)의〈염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周敦頤)의 인품을 평하면서, “흉중이 쇠락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 갠 달과 같다.[胸中灑落如光風霽月]”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117) 필률(鶯築) : 가로 부는 피리로 8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처량하다고 한다.

침문엔 밤마다 새벽닭소리 들렸다하네
 들보 남쪽에 던지세
 대양정가에 풀이 파릇 돋았네
 사람들과 강설한 것 지금도 오히려 상상하니
 은미하고 심오함은 응당 소털을 분석하고 누에처럼 풀어내었네
 들보 북쪽에 던지세
 만고의 도산 끝없이 바라보네
 천양하여 드러낸 이 누구이며, 편집한 이 누구인가
 경현록¹¹⁸⁾ 한 책이 나라에 두루 퍼졌네
 들보 윗 쪽에 던지세
 흰 해가 하늘에서 길이 밝고 빛나네
 장안을 보지 못해도 사람들은 근심하지 말라
 뜬구름 다 흩어지면 절로 참 형상일세
 들보 아랫 쪽에 던지세
 낙동강물 성대하게 쉬지 않고 흐르네
 푸른 바다에 바로 이르러야 비로소 쉬게 되니
 끊임없는 공부도 이와 같다네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서원의 모습 더욱 무거워지고 선비들의
 마음 깨어나게 하소서. 이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오히려 부자의 몇 길
 담장을 엮 볼 수 있고,¹¹⁹⁾ 그 기초 크게 하여 지었으니 인하여 학자의
 구층(九層)¹²⁰⁾을 깨닫게 하소서. 오류에 종사하는 것 누누인들 동자의
 하학 공부에서 시작하지 않으리오, 다시 진보하여 한 걸음 나아가가
 유인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되지 말게 하소서.¹²¹⁾
 철종 계해년(1863) 6월 일 후학 여강(驪江) 이종상(李鍾祥)¹²²⁾이 삼가 짓다.

- 118) 경현록(景賢錄) : 선조(宣祖) 16년(1583)에 나주(羅州)의 지방 유림(儒林)이 김광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금성산(錦城山) 아래에다 경현서원(景賢書院)을 세웠으며, 이중에서 특히 김광필의 사적(事迹)만을 취해서 《경현록》으로 간행한 고사가 있다.
- 119) 이 문으로.....있고 :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선생님의 담장은 그 높이가 몇 길이나 된다. [夫子之牆數仞]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가 얼마나 아름답고 백관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다."고 스승을 찬미한 고사가 있다. 《論語 子張》
- 120) 학자의 구층(九層) : 《서경》〈여오(旅獒)〉에 "밤낮으로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작은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에 누를 끼친 결과, 마치 아홉 길의 산을 쌓아 올리다가 한 삼태기의 흙을 덜 부어 망쳐 버리는 것처럼 될 것이다.[夙夜罔或不勤 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一簣]"라는 말이 나온다. 대본의 '九層'은 '九仞'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121) 유인들이.....하소서 : 유자(遊者)들이 조용히 탐구하여 깊은 경지를 터득하게 해 달라는 의미이다. 주자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 8곡 시에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 없다 하지 마오. 원래 유인들이 올라오지 않아서라오.[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라고 한 것을 변용한 말이다.
- 122) 이종상(李鍾祥) : 1799~1870. 자는 숙여(淑汝), 호는 정헌(定軒).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에서 살았다. 1831년(순조 31)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836년(헌종 2) 장릉 참봉 역임 후에 한성부 판관·용궁 현감·강원도사 등을

㉞ 관수정(觀水亭)

무릇 사물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물(水)에 있어서 더욱 위대함이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이 이와 같이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論語』 子罕篇)'라고 감탄하였으니, 이는 도체(道體)의 근본을 두고 이룬 것이다. 맹자는 이를 더 천양하여 '물을 보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孟子』 盡心上)'라고 말했는데, 이른 의리(義理)의 진체(眞諦)를 말하였다. 물의 근원을 비유하면 선조이며 스승이고, 물결은 자손이자 제자이다. 한훤당의 후손 사우당(四友堂)이 5세의 유택(遺澤)으로서 한강과 여헌(旅軒)의 문하에 나아가 글을 배웠다. 뒷날 그는 김천찰방을 역임한 후 벼슬을 버리고 이곳 도동의 옛 집으로 돌아와 성리학에 잠심하고 자연에 소요하였다. 그리고 낙동강 가에 관수정(觀水亭)을 짓고 등림(登臨)하며 음영하였다. 이는 모두 중수기문에 있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관수정의 '관수(觀水)'는 선조와 스승의 도학과 연원을 계술(繼述)한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중수기(重修記, 觀水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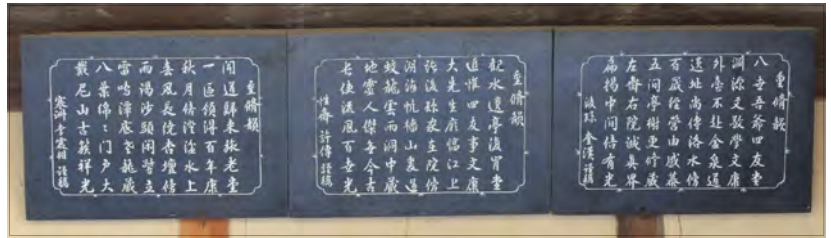


관수정 중수기

사우당(四友堂)이 창건한 관수정이 중세에 퇴락하고 무너져 후손들이 중건하려 했으나 겨를이 없었다. 을축년(1865, 고종 2) 8월에 후손 규한(奎漢)이 옛 터전에서 도동서원 왼쪽으로 이건하였다. 재사 오른쪽에 5칸 집을 지어서 청당(廳堂)과 방실(房室)로 삼았다. 이듬해 공사를 마치자 '관수정(觀水亭)'이라 편액하였다. 따라서 후손 규한이 터를 옮겨 건물을 다시 짓고 중수기를 지었던 것이다. 기문 말미에 '檀紀四二一六年(1865) 八月日 後孫 奎漢 謹識'라고 썼으나 이후 다시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역임하였다. 1862년(철종 13)에 환폐(還弊)·결폐(結弊)·군폐(軍弊)의 시정대책을 올렸을 때는 왕으로부터 책자를 상으로 하사받았다. 저서로는 《정헌집(定軒集)》과 《역학여작(易學蠡酌)》이 있다.

■ 중수운(重修韻)



관수정 중수운

을축년(1865, 고종 2) 8월에 관수정을 중수한 뒤 도내 많은 선비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낙성식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문사들이 관수정 중수에 따른 시를 남겼으나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비 2명과 후손 1명의 시를 택하여 판각한 것이 지금 남아 있는 중수운 3수(首)다. 후손은 관수정을 중수한 규한(奎漢)이고, 나머지는 성재(性齋) 허전(許傳)과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이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당대 도내의 거유(巨儒)로서 문행과 명망이 높았다. 원운(原韻)은 따로 없으며 모두 중수운으로 읊었다.

㉠ 낙고재(洛阜齋)

한훤당의 아버지는 호군(護軍) 벼슬을 한 유(紐)이다. 본디 현풍은 서흥 김씨의 세장지(世莊地)이고, 뒤의 대니산(戴尼山)에 호군공의 묘와 한훤당의 묘가 같이 있다. 그 앞에 한훤당을 향사하는 도동서원이 있고, 서원 북쪽에 익연(翼然)히 자리한 곳이 낙고재인데, 호군공의 묘제 때 사용하는 재사이다.

■ 낙고재중건기(洛阜齋重建記)



낙고재 중건기

경인년 동란 때(1950) 한훤당의 구택(舊宅) 광제헌(光霽軒)과 낙고재가 모두 병화를 입었다. 3년 뒤 임진년(1952)에 김씨과 여러 사람들의

후원으로 광제헌을 먼저 복원하였으나 낙고재는 중건하지 못하였다. 이때 탁동(鐸東)이 서울에 있으면서 거금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제애(霽厓)의 사손 상식(相埴)이 이 소문을 듣고 낙고재 중건의 비용을 자담(自擔)하고 나섰다. 따라서 백만금은 출연하여 1954년 가을에 시작한 공사가 이듬해 봄에 마쳤다. 1955년에 유곡(酉谷) 권상규(權相圭)가 중건기를 쓴 것이 지금의 편액이다.

㊤ 석면(石面) 글씨



사당 기단석 석면 글씨

계층석 앞면에 '戊申四月日'이란 다섯 글자가 있다. '무신(戊申)'년이 정확히 어느 해인지 알 수 없다. 정미년(1607, 선조 40) 7월에 도동서원(道東書院)이 사액되었고, 이후 서원을 대폭 중수하였거나 보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신(戊申)'은 정미년 다음 해인 무신년(1608, 선조 41)로 추정할 수 있다.

㊤ 기와 글씨



사당 지붕 수막새



사당 지붕 암기와



사당 담장에 장식된 기와

기와 앞면에 '萬曆三三年三月日 書院造瓦'라고 써 두었다. 만력 33년은 을사년(1605, 선조 38)으로, 도동서원이 사액 받기 2년 전이다. 이때 많은 장인들을 동원하여 서원과 묘우 등에 사용할 기와를 만들었을 것이다. 당시 기와를 굽으면서 일자를 새긴 것으로, 중간에 여러 번 중수하면서

많이 깨어져 없어졌다. 지금 남은 기와는 몇 편에 지나지 않지만 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김광필신도비(金宏弼神道碑)

을축년(1625, 인조 3)에 건립한 본 신도비의 주요 내용은 한훤당의 선대와 출생, 그리고 수학(受學)과 벼슬살이 및 인품 등을 기록하였다. 특히 점필재에게 글을 배우면서 『소학』을 많이 읽었는데, 스스로 '소학 동자'라 한 것과,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이단을 배척하는 수천 자의 상소문을 올려 군주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내용, 아버지를 섬길 때 정성을 다한 효성과 일두 정여창과의 학문적 토론, 제자인 정암 조광조에게 원대한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축(機軸)을 전수한 것과 광제(光霽)의 고매한 인품과 올곧은 정신 등을 기술하였다. 두액은 전서로 썼으며 귀부(龜趺)와 이수(螭首)의 형식을 갖췄다.

▪ 원 문

<玄風 金宏弼神道碑>

塞喧堂 金先生 神道碑銘 并序

皇明啓文明之運我朝鮮 列聖應運繼作積德隆化於是乎眞儒出於東方道學爰有傳焉卽先生是也先生諱大猷號寒喧堂謹按 國朝儒先錄及景賢錄所載則金氏籍黃海道瑞興府高麗朝金吾衛精勇中郎將諱寶其九世祖也卽將之孫諱天 祿官至匡靖大夫都僉議侍郎贊成事瑞興君公有武略從征日本有功元帝宣授忠顯校尉管軍摠把後三世諱善保奉順大夫判書雲觀事是先生高祖也曾祖諱中坤 本朝初登第歷事四朝有聲稱官至通政大夫禮曹叅議娶玄風郭氏自是玄風仍爲鄉居矣祖諱小亨奉訓郎義盈庫使考諱紐登文科禦侮將軍忠佐衛司勇妣清州韓氏嘉善大夫中樞院副使 贈兵曹判書清城君諱承舜之女先生景泰甲戌五月乙亥生于漢陽貞陵洞之第少豪逸不羈稍長發憤業文喜讀昌黎集每至張中丞傳後叙巡呼雲曰南八男兒死耳不可爲不義屈未嘗不三復流涕焉就佔畢齋金先生請學佔畢先生授以小學曰苟志於學當從此始光風霽月都在此中先生遂服膺焉手不釋卷作詩有曰小學書中悟昨非佔畢齋批曰此言乃作聖根基魯齊後豈無其人乎人有問及時事者必曰小學童子何知大義其律已一以是書爲繩墨立志必以古聖爲準的年三十後始讀他書探蹟六經務要精通靜處一室深夜不寐雖家人子弟莫窺其所爲惟聞蓮子纓抵書

案輕輕有聲因知其尙觀書也體驗充廣自強不息下學上達道成德立此先生爲學門路之直修進之密也成化庚子卽 成廟朝先生入上庠時姦僧潛回佛像惑衆先生疏陳數千言反覆詳論明白剴切其闢異之正格君之誠然也丁未丁外艱廬墓三年至弘治甲寅以行義薦授南部叅奉乙卯爲燕山時移典牲署叅 奉丙辰特叙六品拜軍資監主簿遷司憲府監察丁巳轉刑書佐郎戊午史獄起以先生遊佔畢齋門決配熙川庚申移配順天甲子冬終命加焉年五十一歸葬于玄風烏舌里松林甫老洞卽先塋傍也家被籍沒諸子分配矣正德丙寅中廟靖國命雪先生罪 贈通政大夫都承旨兼 經筵叅贊官尙瑞院正丁丑以公論獻議例贈未足表異請加 贈崇品歲廩其妻錄用子孫家 允復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



김광필신도비

政兼領 經筵事又 命每歲春秋仲月官爲致祭萬曆乙亥 宣廟賜諡文敬公光海庚戌舉國儒生咸上章請以五賢從祀于文廟遂得如請而先生居首又先生遺教之鄉及宗尙國儒之地各自立祠設院本縣則額以道東今在壠下此先生始終也嗚呼其嘉言懿行何可數也而不幸遭時不淑禍出罔極其得傳者宜無幾矣今就其所傳而畧舉焉則平居鷄鳴而起省問親所如儀昏定亦如之凡所以事之者盡其道丁憂哀毀終始以禮卽吉必晨謁祠堂次詣母夫人母夫人性嚴或有不愜意正色不言則惶恐不敢退必起敬起孝須得悅豫始退此可以見其百行之原也訓諸子曰爾等心存敬畏無敢懈惰人或議已切勿相較又曰言人之惡如含血噴人先其口宜戒之教諸女以順舅姑謹祭祀敬娣姒勤婦職恤奴婢母多言慎財利等目爲勸戒又以爲我國士大夫鮮立家訓故化導不及於妻孥教澤不下於臧獲仍倣內則制爲儀節至於內外僕類亦皆分男女序長幼視職勤惰明升降勸懲之規吉凶有費節豐約紓縮之差每以期望讀法整頓此其家範也曾祖妣郭氏先世墳塋在玄風者久遠圯壤樵牧不禁先生謂郭門諸族曰此爲子孫者所不忍觀切宜禁護又以令節用時羞告虔曰相與講睦不亦可乎於是莫不樂從以爲恆式此孝睦之推也若其應官處俗不求甚異於人一以至誠其爲刑郎舉止有法升降之際周旋折旋必中規矩未嘗少違獄訟明恕人皆稱服又雖仕務迫遽不廢講授此乃達不離道也與鄭一蠹汝昌志同道合每相見研磨道義商確古今或至達曙其在熙川得趙靜庵光祖遂傳其長進遠大之機軸凡其住止之地遠近士子之聞風慕從者坌集鄰閭填溢人家執經升堂坐不能容先生誨誘不倦講論諄諄雖有以謗興請止乃引喻以理不抑不沮隨才成就後多名人此師道自任教育爲樂也佔畢公居吏部事無建明則先生上詩諷之此事師無隱也一蠹宰縣置一金盞先生曰不意公作此無益後必誤人嘗治曹梅溪偉之喪索平日齒髮其家人告無則曰久從太虛不意其疎如此此交道必信也方在謫所雖禍機叵測先生處之夷然不改常操禍及之日沐浴冠帶而出履脫還着神色不變徐以鬚含口曰身體髮膚受之父母不可竝此受傷乃從容而就焉此臨凶不亂也乃舉此一二事餘可以推想矣蓋先生剛柔兼質健順備德持己以敬存心以誠講究己精涵養既厚確而不滯通而不流此果吾儒義理之學中正之道而濂洛諸賢之所以沂沿洙泗者也我東方自有文獻以來以儒名者亦豈少哉而所尙詞藻所慕功名間有所謂特立者亦不過爲一節一行之士耳孰有能撥脫勇健篤實踐履輕枝葉而就本實外口耳而反心身者乎麗氏之末惟有鄭先生園隱知行此道爲海東首儒而至我 朝先生實唱發其關鍵焉雖其既不果得位行道又未及著書垂教而猶能宗一世儒林立斯文赤幟同時輔仁則有一蠹公躬承旨訣則有靜庵公厥後接武而起者平實有如李晦齋精純有如李退溪皆作我東之眞儒爲百世之師範亦先生正脉中私淑者也至今後學得知夫道學之爲正學而莫不宗尙之此固先生爲功也夫人順天朴氏贈貞敬平陽府院君天祥之四世孫司猛禮孫之女居在陝川郡冶壚縣先生初受室未歸時別設所寓之堂而號之後乃歸玄風舊居卽縣西戴尼山之陽率禮村先生始號爲簑翁謂雖雨外濕而內不濡旣而曰爲名以露非渾然處世之道卽改之夫人後先生三十六歲而卒子男四人長彥塾展力副尉次彥庠司憲府監察次彥序次彥學女壻五人長南部參奉河珀次訓練院正李長培次司憲府監察鄭應祥次士人姜文叔次忠義衛鄭成璘孫四人曰岱東部參奉曰立副正曰翊曰昱曾孫男八人壽忱壽悅壽恒壽愷生員壽恢察訪壽恬壽驚壽怡玄孫男十三人應夢昌

陵參奉應吉應福司果應成府使應賢應白應哲應信應憲應先曰定曰審曰

岩司果第五代孫前察訪大振方爲宗嗣今內外裔至有爲六七代者凡男女老幼并二百四十餘人豈非積餘之蔓祉哉先生之外曾孫有曰寒岡鄭公逮實有以繼述先生之志業趾美增光者多矣嘗爲先生集景賢續錄甚備而不幸災於火莫傳豈不爲永恨哉至是再周之甲子即天啓四年宗子大振與其同爲後者及鄉之士類相議曰墓道迨無顯刻不獨爲後裔之羞亦斯文共當其責以告于方伯則方伯李公敏求即爲之施措盡其誠明年乙丑石既具諸公命顯光以其文嗚呼自非善言德行者安能說出可彷彿其萬一哉只據兩冊叙以銘焉銘曰覆惟一天載惟一地道在其間不亡不二既無古今寧有夏夷求之以人便自覺知道何道率其秉彝先生是契自任不疑謂聖賢業吾分內事事無難事在我植志行遠自邇登高自卑晦翁有書作聖之基光風霽月師不我欺服膺身踐今悟昨非不出日用妙會天機根深枝暢源濬泉達參驗貫穿究極包括次第階級規模節目厥有成法信行斯篤勿忘勿助無過不及眞積力久是成是立成不獨成立必俱立推爲麗澤亦樂教育泝接伊洛淵源洙泗道果東矣庶普厥施既不見容反爲禍崇時耶命耶道不可恃有待天定難誣此理功存百世澤在多士咸仰正學愈久彌光松林之原洛流榮岡幽宅在是鐫賁無疆

▪ 해석

<한훤당 김선생 신도비명 병서>

명(明) 나라가 문명(文明)의 운(運)을 열자, 우리 조선의 여러 성왕(聖王)들이 그 운을 따라 계속하여 일어나서 덕을 쌓고 교화를 높였다. 이에 진유(眞儒)가 동방에서 나와 도학(道學)이 이에 여기에 전해지게 되니, 바로 선생이 그 분이다.

선생은 휘(諱)가 광필(宏弼)이고 자(字)가 대유(大猷)이며, 호(號)는 한훤당(寒暄堂)이다. 국조(國朝)의 『유선록(儒先錄)』과 『경현록(景賢錄)』에 기재된 것을 삼가 살펴보면 김씨는 황해도(黃海道) 서흥부(瑞興府)가 본적(本籍)이니, 고려조(高麗朝)에 금오위 정용 중랑장(金吾衛精勇中郎將)을 지낸 휘 보(寶)가 9세조이다.

낭장의 손자인 휘 천록(天祿)은 벼슬이 광정대부(匡靖大夫) 도첨의시랑찬성사(都僉議侍郎贊成事)에 이르고 서흥군(瑞興君)에 봉해졌다. 서흥군은 무략(武略)이 뛰어나 일본(日本) 정벌에 종군(從軍)하였다가 공을 세우매, 원(元) 나라 황제가 충현교위 관군총파(忠顯校尉管軍總把)를 제수하였다. 그 후 3세조 휘 선보(善保)는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이니, 바로 선생의 고조(高祖)이다. 증조(曾祖)는 휘가 중곤(中坤)인데 본조(本朝, 조선조를 가리킴) 초기에 급제하여 네 조정을 차례로 섬겨 명성이 있었고, 관직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이르렀다. 현풍 곽씨(玄風郭氏)에게 장가드니, 이로부터 현풍이 거주하는 고을로 되었다. 조고(祖考)는 휘가 소형(小亨)인데 봉훈랑(奉訓郎) 의영고사(義盈庫使)이다. 선고(先考)는 휘가 유(紐)인데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사용(忠佐衛司勇)이 되었다. 선비(先妣)는 청주 한씨(淸州韓氏)인데,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병조 판서

(兵曹判書)에 추증되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진 휘 승순(承舜)의 따님이다.

선생은 경태(景泰) 갑술년(단종 2년, 1454) 5월 을해(乙亥)에 한양(漢陽)의 정릉동(貞陵洞) 집에서 탄생하였다. 선생은 젊어서 호걸스럽고 뛰어나 얹매이지 않았다. 차츰 자라면서 분발하여 글을 배웠다. 『창려집(昌黎集)』을 즐겨 읽었는데, 「장중승전 후서(張中丞傳後敘)」에서 “장순(張巡)이 남제운(南霽雲)을 부르며 이르기를, ‘남팔(南八)은 남아(男兒)이니 죽을 뿐이다. 불의(不義)에 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반복하여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점필재(佔畢齋) 김 선생(金先生, 김종직)을 찾아가 배울 것을 청하자, 점필재 선생은 『소학(小學)』을 주며 말씀하기를, “만일 학문에 뜻을 둔다면 마땅히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광풍제월(光風霽月) .

의 기상(氣象)이 모두 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셨다. 선생은 마침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손에서 『소학』 책을 놓지 않았다.

선생이 시(詩)를 지었는데, “『소학』 가운데서 어제의 잘못을 깨닫는다 [小學書中悟昨非]”라는 글귀가 있었다. 점필재가 평론하기를, “이 말은 바로 성인(聖人)이 되는 근기(根基)이다. 노재(魯齋)의 뒤에 어찌 그러한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세상일을 묻는 자가 있으면 선생은 반드시 말씀하기를, “소학동자(小學童子)가 어찌 대의(大義)를 알겠는가?” 하였으며, 몸을 다스림에 한 걸 같이 이 책을 승묵(繩墨, 규칙)으로 삼고 뜻을 세움에 반드시 옛 성인을 표준으로 삼았다.

나이 30이 된 뒤에 비로소 다른 책들을 읽고 육경(六經)을 탐구하였는데, 정밀하게 통달함을 힘썼다. 방 하나에 고요히 거처하여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으니, 비록 집안 식구와 자제들이라도 그 하는 바를 엿보지 못하였다. 오직 연자(蓮子)의 갇꾼이 책상에 닿아 작게 소리가 들렸으므로 아직도 책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험하고 확증하며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았으며, 아래로 인간(人間)의 일을 배우고 위로 천리(天理)를 통달하여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확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생이 학문을 함에 있어 문로(門路)가 바르고 진수(進修)함이 치밀한 점이었다.

성화(成化) 경자년(성종 11년, 1480)은 바로 성종조(成宗朝)였다. 선생이 상상(上庠,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간사한 중[僧]이 몰래 불상(佛像)을 돌려놓아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이에 선생은 수천 자(字)의 상소(上疏)를 올렸는데, 반복해서 자세히 논하여 명백하고 간절하였다. 이단(異端)을 배척한 바름과 군주를 바로잡으려는 정성이 그러하였다.

정미년(성종 18년, 1487)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다. 홍치(弘治) 갑인년(성종 25년, 1494)에 이르러 행의(行義)로 천거되어 남부 참봉(南部參奉)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인 을묘년(연산군 1년, 1495)은 연산군(燕山君) 때인데 전생서 참봉(典牲署參奉)으로 옮겼다. 병진년(연산군 2년, 1496)에 특별히 6품직으로 서용(敍用)되어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옮겼다. 정사년(연산군 3년, 1497)에 형조 좌랑(刑曹佐郎)으로 전직하였다.

무오년(연산군 4년, 1498)에 사옥(史獄)이 일어나자, 선생은 점필재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하여 희천(熙川)으로 유배(流配)되었다가 경신년(연산군 6년, 1500)에 순천(順天)으로 옮겨지고 갑자년(연산군 10년, 1504) 겨울 사약(死藥)이 내려졌다. 이때 나이가 51세였다. 현풍(玄風)의 오설리(烏舌里) 송림(松林) 보로동(甫老洞)으로 돌아가 장례하니, 바로 선영(先塋)의 곁이었다. 집이 적몰(籍沒)되고 여러 아들들은 이곳저곳에 나뉘어 유배되었다.

정덕(正德) 병인년(중종 1년, 1506)에 중종(中宗)이 반정(反正)하고 선생의 죄를 씻을 것을 명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상서원정(都承旨兼經筵參贊官尙瑞院正)을 추증하였다.

정축년(중종 12년, 1517)에 공론에 따라 의논을 올리기를, “준례에 따른 추증으로는 표창하여 특별히 대우함에 부족하오니, 청컨대 송품(崇品)을 더 추증하고 해마다 그 아내에게 녹봉을 내리며 자손들을 기록하여 등용하소서.”라고 하였다. 마침내 윤허(允許)를 받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에 추증되고, 다시 매년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 관청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만력(萬曆) 을해년(선조 8년, 1575)에 선조(宣祖)는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광해군(光海君) 경술년(광해군 2년, 1610)에 온 나라의 유생(儒生)들이 일제히 글을 올려 오현(五賢)을 문묘(文廟)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는데, 마침내 소청한 대로 윤허를 받아 선생이 첫 번째 자리에 올랐다. 선생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지방과 국가의 유현(儒賢)을 높이고 숭상하는 지역에서는 각각 사당을 세우고 서원(書院)을 설치하였다. 본현(本縣, 현풍현을 가리킴)에는 도동서원(道東書院)이라고 사액(賜額)하여 지금 선영의 아래에 있다. 이상이 선생의 시말(始末)이다.

아! 선생의 아름다운 말씀과 훌륭한 행실을 어찌 다 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불행히 나쁜 때를 만나 화(禍)가 망극하였으므로, 그 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 전하는 것을 대략 들기로 한다.

평소 닭이 울면 일어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문안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저녁에 잠자리를 정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여 무릇 아버지를 섬김에 그 도리를 다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슬퍼하고 몸이 수척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시종 예(禮)를 따랐으며 상복(喪服)을 벗은 뒤에는 반드시 새벽에 사당에 참배하고 그 다음에는 모부인(母夫人)에게 나아가 뵈었다. 모부인은 성품이 매우 엄하였는데 혹 뜻에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어 정색(正色)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선생은 감히 물러가지 못하고 반드시 공경과 효도를 더하여 모름지기 기뻐함을 얻고야 비로소 물러갔다. 이는 효행이 백 가지 행실의 근원임을 볼 수 있다.

선생은 여러 아들들을 훈계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어 감히 게을리 하지 말며, 사람들이 혹 자신을 비판하거든 절대로 따지지 말라.”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남의 악을

말하면 마치 피를 입에 머금고 남에게 뱉는 것과 같아서 먼저 자기 입을 더럽히게 된다. 마땅히 경계하라.” 하였다. 또한 여러 딸들을 가르치되 시부모에게 순종하고 제사를 정성껏 받들며 동서들을 존경하고 부인의 직책을 부지런히 하며 노비들을 구휼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며 재리(財利)를 삼가는 등의 조목으로 권고하고 경계하였다.

선생은 또 말씀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가훈(家訓)을 세운 이가 적기 때문에 교화가 처자식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르침과 은택이 노비들에게 내려가지 못한다.” 하였다. 그래서 『내칙(內則)』을 따라 의절(儀節)을 만들었다. 마침내 내외의 노비에 이르러서도 모두 남녀(男女)를 구분하고 장유(長幼)를 차례지었다. 말은 일을 게을리 하는가 부지런히 하는가를 살펴보고 올리고 내리며 권면하고 징계하는 규정을 분명히 하였다. 길흉(吉凶)의 일에 비용을 들이게 되면 풍족하게 하고 검약하게 하는 것을 적절히 가감하여 조절하였다. 매양 초하루와 보름에는 가법(家法)을 읽어 정돈하였다. 이것은 선생이 집안에서 행한 법도였다.

증조비(曾祖妣) 곽씨(郭氏)의 선대 분묘가 현풍(玄風)에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졌으며 나무꾼과 목동(牧童)들을 금하지 않았다. 선생은 곽씨 문중의 여러 종족(宗族)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자손이 된 자가 차마 볼 수 없으니 철저히 금하고 보호하라.” 하였고, 또 “명절에 철에 따른 음식을 올려 경건히 고유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화목을 다지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곽씨 문중들이 모두 기꺼이 따라 몇몇한 법식으로 삼았다. 이는 효도와 화목을 미루어 넓힌 것이었다.

관청에서 사무에 수응하고 세속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아주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한 결 같이 지성으로 하였다. 형조(刑曹)의 낭관(郎官)이 되어서는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어, 당에 오르고 당에서 내리는 때에 둥글게 돌고 네모지게 꺾어 돌아 반드시 법도에 맞아서 조금도 어기지 않았다. 옥사(獄事)와 송사를 분명히 처리하되 너그럽게 용서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복종하였다. 또 비록 관청의 사무가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강학(講學)과 전수함을 폐하지 않았다. 이는 바로 영달하여도 도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과 뜻이 같고 도가 합하여 서로 만날 때마다 도의를 연마하고 고금의 일을 상의하여 혹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희천(熙川)에 있을 때에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를 얻어, 마침내 길고 원대한 데로 나아가는 기축(機軸)을 전수하였다. 무릇 거주하고 머무는 곳에는 원근의 선비들이 선생의 풍도(風度)를 듣고 사모하여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학도들이 이웃 마을에까지 가득하고 사람들의 집에 꼭 차서 경서(經書)를 잡고 당(堂)에 오르는 자들이 다 앓을 수도 없었다. 선생은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강론하기를 간곡히 하였다. 비록 비방이 일어난다 하여 중지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마침내 이치로 타일러, 꺾지도 않고 기분이 상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재주에 따라 성취시켰기에, 뒤에 유명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스승의 도로 자임(自任)하여 영재를 교육함을 낙(樂)으로 삼은 것이다.

점필재(佔畢齋)가 이부(吏部, 吏曹)에 있으면서 임금께 건의하여 밝히는 일이 없자, 선생은 시(詩)를 올려 풍자하였다. 이는 스승을 섬김에 숨김이 없는 것이다.

일두(一蠹)가 고을의 원이 되어 금잔(金盞) 하나를 장만하자, 선생은 “공(公)이 이처럼 무익(無益)한 일을 할 줄 몰랐다. 뒤에 반드시 사람을 그르칠 것이다.” 하였다. 일찍이 매계(梅溪) 조위(曹偉)의 상을 치를 적에 평소에 빠진 이빨과 머리털을 찾았으나 집안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자, 선생은 말씀하기를, “오랫동안 태허(太虛, 조위의 字)와 종유(從遊)하였는데 그 영성함이 이와 같을 줄을 몰랐다.” 하였다. 이는 봉우 사이에 사귀는 도를 반드시 성실히 한 것이다.

유배지에 있을 때 비록 화(禍)의 기미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선생은 태연히 대처하여 떳떳한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 화가 이르던 날에는 목욕한 다음 관(冠)을 쓰고 띠를 매고 나왔다. 신이 벗겨지자 다시 신고 정신과 안색을 바꾸지 않으며 천천히 수염을 쓰다듬고 입을 다물며 말씀하기를,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았으니 이것까지 상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마침내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다. 이는 홍액에 임하여 어지럽지 않은 것이다. 이 한두 가지 일을 든다면 나머지는 미루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강유(剛柔)의 자질을 겸하고 건순(健順)의 덕(德)을 겸비하여 몸 갖기를 경(敬)으로써 하고 마음 두기를 성(誠)으로써 하였다. 그리하여 도의를 강구(講究)함이 이미 정밀하고 함양(涵養)함이 또한 두터우며, 확고하면서도 막히지 않고 통하면서도 흐르지 않았다. 이는 과연 우리 유학(儒學)의 의리(義理)의 학문이요 중정(中正)한 도(道)인바, 송(宋)나라 염락(廉洛)의 여러 현자(賢者)가 수사(洙泗)를 거슬러 올라가 이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

우리 동방(東方)은 문헌이 있는 이래로 유학(儒學)으로 이름난 자가 어찌 적겠는가마는 숭상하는 바가 사조(詞藻 문장)이고 사모하는 바가 공명(功名)이었다. 간혹 이른바 우뚝하게 선 자가 있었으나, 또한 한 절개와 한 행실의 선비가 됨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그 누가 용맹하게 벗어나고 독실하게 실천하여 지업을 가볍게 여기고 근본과 열매에 나아가며 구이(口耳)의 학문을 외면하고 심신(心身)으로 돌아왔겠는가!

고려 말기에 포은(圃隱) 정 선생(鄭先生)이 이 도를 알고 이 도를 행하여 해동(海東)의 첫 번째 유자(儒者)가 되었다. 우리 조선조에 이르러는 선생이 실로 그 관건(關鍵)을 창도하여 개발하였다. 비록 지위를 얻어 도를 행하지 못하였고 또 미처 저술하여 가르침을 남기지 못했으나 오히려 한 세상의 유림(儒林)의 종주(宗主)가 되고 사문(斯文)의 적치(赤幟)를 세웠다.

같은 시기에 인(仁)을 도운 자로는 일두공(一蠹公)이 있었고 몸소 가르침을 받은 자로는 정암공(靜菴公)이 있었다. 그 뒤에 선생의 발걸음을 이어 일어난 자로는 평실(平實)함이 이회재(李晦齋, 이언적) 같은 분이 있었고

정순(精純)함이 이퇴계(李退溪, 이황) 같은 분이 있었다. 이는 모두 우리 동방의 진유(眞儒)가 되고 백세(百世)의 사범(師範)이 되는바, 또한 선생의 정맥(正脈) 가운데에서 사숙(私淑)한 분들이다. 지금에 이르러 후학들이 도학이 올바른 학문이 됨을 알아 높이고 숭상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는 진실로 선생의 공이다.

부인은 순천 박씨(順天朴氏)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천상(天祥)의 4대손이고 사맹(司猛)인 예손(禮孫)의 따님인데, 거주한 곳이 합천군(陝川郡) 야로현(冶爐縣)에 있었다. 선생이 처음 장가들어 본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별도로 우거하는 집을 마련하고 당호(堂號)를 지었었다. 뒤에 마침내 현풍의 옛날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오니, 바로 현풍현의 서쪽 대니산(戴尼山)의 남쪽에 있는 솔례촌(率禮村)이었다. 선생이 처음에는 사옹(簣翁)이라 호하였다. 비록 비가 와서 밖은 젖어도 안은 젖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선생은 이윽고 말씀하기를, “이름을 지은 뜻이 너무 드러나니, 세상에 처하는 도가 아니다.” 하고는 다시 고쳤다. 부인은 선생보다 36세 뒤에 별세하였다.

아들은 4명이다. 장자인 언숙(彦塾)은 전력부위(展力副尉)이고, 차자인 언상(彦庠)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며, 다음은 언서(彦序)와 언학(彦學)이다. 여서(女壻)는 5명이다. 맏이는 남부 참봉(南部參奉) 하백(河珀)이고, 다음은 훈련원 정(訓鍊院正) 이장배(李長培), 사헌부 감찰 정응상(鄭應祥), 사인(士人) 강문숙(姜文叔), 충의위(忠義衛) 정성린(鄭成璘)이다. 손자는 4명이다. 동부참봉(東部參奉)인 대(岱), 부정(副正)인 입(立), 그리고 익(翊), 육(昱)이다.

증손은 8명이다. 수침(壽忱), 수열(壽悅), 수항(壽恒), 생원(生員)인 수개(壽愷), 찰방(察訪)인 수회(壽恢), 수념(壽恬), 수종(壽悤), 수이(壽怡)이다. 현손은 13명이다. 창릉 참봉(昌陵參奉)인 응몽(應夢), 그리고 응길(應吉), 사과(司果)인 응복(應福), 부사(府使)인 응성(應成), 응현(應賢), 응백(應白), 응철(應哲), 응신(應信), 응헌(應憲), 응선(應先), 정(定), 심(審), 사과인 탕(宕)이다. 제 5대손인 전 찰방(前察訪) 대진(大振)이 현재 종손(宗孫)이며 이제 내외손으로 6, 7대에 이르는 자가 모두 남녀노소를 합하여 총 2백 40여 명에 이른다. 이 어찌 선(善)을 쌓은 남은 복이 아니겠는가!

선생의 외증손에 한강(寒岡) 정구(鄭逵) 공이 있으니, 실로 선생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광채를 더한 것이 많다. 일찍이 선생을 위하여 『경현속록(景賢續錄)』을 엮은 것이 매우 구비되었으나, 불행히 화재로 불타서 전하지 못하니, 어찌 영원한 한(恨)이 되지 않겠는가!

이 재주(再周)의 갑자년에 이르니, 바로 천계(天啓) 4년(1624년)이다. 종손인 대진이 역시 선생의 후손이 되는 자와 지방의 선비들과 상의하기를, “묘도(墓道)에 아직까지 선생의 덕을 드러낸 신도비(神道碑)가 없으니 비단 후손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문(斯文)이 함께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하여 방백(方伯, 監司)에게 아뢰었다. 방백인 이민구(李敏求) 공이 즉시 그 일을 위해 조치해서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해인

을축년(인조 3, 1625년)에 돌이 갖추어지자, 제공(諸公)들이 나에게 글을 지을 것을 명하였다.

아! 스스로 덕행을 잘 표현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그 만분의 일인들 방불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유선록(儒先錄)』과 『경현록(景賢錄)』 두 책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명(銘)을 한다.

명은 다음과 같다.

뿔어쭙은 오직 한 하늘이요

실어쭙은 오직 한 땅이다.

도가 그 하늘과 땅의 사이에 있어,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네.

이미 고금에 차이가 없거늘,

어찌 중하와 오랑캐의 구분이 있겠는가.

사람에게서 찾으면

곧 스스로 알게 되리라.

도는 무슨 도인가

병이(인륜)를 따르는 것이네.

선생은 이것과 계합(契合)하시어

자임하여 의심하지 않았네.

성현의 사업이

내 분수 안의 일이니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나의 입지(立志)에 달려 있도다.

먼 곳에 감은 가까이서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름은 낮은 데서부터 하니

회옹에게 책(『소학』)이 있어

성인이 되는 기본이라네.

광풍제월 기상이 이 책에 있다 하니

스승은 나를 속이지 않았도다.

가슴속에 새겨두고 몸소 실천하여

어제의 잘못을 오늘에 깨달았네.

일상생활에 벗어나지 않고

하늘의 기틀을 묘하게 깨우치니

뿌리가 깊음에 가지가 번창하고

근원이 깊음에 샘물이 멀리 뻗네.

참험하여 꿰뚫고

연구하여 포괄하니,
학문의 차례와 계급
규모와 절목이
이미 완성된 법이 있으므로
믿고 행함을 독실하게 하였네.
잊지 않고 조장하지 않으며
과와 불급이 없었네.
참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도록 하여,
완성하고 세우니
완성은 홀로 완성되지 않고
서면 반드시 함께 서는 것이라,
미루어 봉우들과 강론하고
또한 후진 교육을 즐겨워하였네.
거슬러 올라가 이락에 접하고,
연원을 찾아 수사에 이르니
도가 과연 동방으로 와서
그 베품을 널리 하였도다.
하지만 용납 받지 못하여
도리어 화의 빌미가 되니
시운인가 천명인가
도를 믿을 수 없었네.
하늘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니,
이 이치를 속이기 어렵도다.
공로가 백세토록 보존되고
은택이 제제다사에게 남아 있으니
모두들 올바른 학문이라 우러러보아
오랜수록 더욱 빛나네.
송림의 언덕은
낙동강이 산을 감고 도는 곳.
유택이 이곳에 있으니
비석을 새겨 무궁한 후세에 남기네.

◎ 환주문(喚主門)



환주문 편액

도동서원은 수월루(水月樓)가 문루인 동시에 외삼문이고, 문루 밖에는 외삼문이 없다. 문루에서 돌 계층으로 가파르게 오르면 좁은 환주문(喚主門)이 있는데, 이를 통해 안으로 보면 서원 강당인 중정당이 정면에 있다. 사모지붕 위에 절병통이 얹혀 있어 소박하며 특이한 대문의 건축 양식이다. '환주(喚主)'란 '주인을 부른다'는 뜻으로, 문밖에서 집안에 있는 주인을 부르는 문일 수도 있고,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속의 주인을 부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약간 숙여야 한다. 특히 갓을 쓴 유생이라면 고개를 숙여야 들어설 수 있어 유생의 엄숙함이 보이는 듯하다.

3) 달성 도동서원 현황

(1) 달성 도동서원의 주변입지와 풍수¹²³⁾

① 달성 도동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달성 도동서원 주변환경

달성 도동서원은 쌍계서원을 이긴한 것으로 원래 현풍(玄風)의 비슬산 기슭에 위치하였으나,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도동리 35)에 위치하고 있다.

현풍은 신라시기 추량화현(推良火縣)이었는데, 경덕왕대 현효(玄驍)로 고쳐져 화왕군(火旺郡-창녕군)의 영현(領縣)으로 되었다가 고려 때에 현풍으로 개명되었다. 1018년(현종 9) 밀성군(密城郡)에 속해 있다가 1895년(고종 32)에 창녕으로 귀속된 후 다시 복구되어 현풍군이 되었다. 이후 1914년 대구에 부(部)를 둘 때에 달성군에 병합되었다. 현재의 달성 도동서원은 현풍으로부터 7km 거리에 있으며, 대구로부터는 직선 거리로 서남방 27km에 위치하고 있다.

123)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106쪽 참고

달성 도동서원은 배후산인 대니산의 한 줄기가 서북으로 뻗어 내린 끝부분 북쪽 기슭에 북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전방에는 강 건너 고령(高靈)의 개진들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서원의 뒤로는 산 능선이 동으로 부터 뻗어와 남쪽과 서쪽까지 3면을 에워싸고 있는데, 북향만 트여져 낙동강과 접하고 있다. 이에 서원은 전제적으로 북향으로 배산임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원 바로 뒤의 산봉(山峰)은 해발 283m이며, 그 언저리 기슭이 서변으로 돌출되어 강의 물줄기를 우회시키고 있다.

낙동강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여러 산곡으로부터 발원되어 경북 북부의 내륙을 거치며 여러 지류들이 합쳐져 흐르고 있다. 이러한 낙동강은 해평, 인동, 왜관 등의 평지를 가로지르며 강폭이 400~800m에 이른다. 화원(花園)과 현풍 부근에 와서는 물줄기가 크게 완곡되고 있으며, 달성 도동서원 앞에서는 유속(流速)이 매우 느리다.¹²⁴⁾ 한편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던 백두대간은 영천과 경주 사이에서 분기하여 서남으로 뻗어내려 오면서 현풍 동쪽에 비슬산(1,083m)을 형성한다. 비슬산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한 지맥이 현풍읍내를 가로질러 강 안쪽에 우뚝 솟았는데, 이곳이 대니산(408m)이다. 달성 도동서원은 주봉인 대니산에서 4.5km 가량 떨어진 서북 기슭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터는 거의 평지와 같아 표고는 30m 내외이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릉으로 인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으로 진입하는 길은 대략 3가지이다.¹²⁵⁾ 첫째, 구마고속도로 변의 현풍에서 구지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낙동강을 좌편에 끼고 진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평탄한 들녘을 지나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이다. 비록 거리는 멀지만 진입로 좌측으로는 낙동강이, 우측으로는 산록(山麓)이 펼쳐져 시원한 전경을 보여준다. 이 길을 이용하면 인접 마을의 민가 지붕 너머로 서원 일곽을 조망할 수 있다.

둘째, 현풍에서 낙동강을 우측편에 끼고 바로 진입하는 길이다. 비록 거리는 가까우나 도동에 근접해서는 높은 산령(山嶺)을 넘어야 한다. 근자에 고개를 넘는 도로가 새로이 단장되어 출입이 편리해졌다. 이 고갯길은 산릉이 다람쥐 형상이라 하여 다람재라고 불러 지는데, 정상에 올라서면 도동 일대와 낙동강 건너 개진면 일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 길을 이용할 시 서원의 서쪽면을 통한 고저차로 건물 상호의 위계 질서를 확연히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대구에서 고령을 거쳐 개진으로 와서 낙동강을 건너는 방법이다. 현재도 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있는데, 집중호우로 강안길이 유실되거나 침식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면 옛 도강길을 따라 인접지역으로 드나든다. 강 건너 개진에서 서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들어올 때는 기와지붕이 중첩된 건축군과 담장으로 어우러진 서원 일곽의 전체 경관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124) 낙동강의 수운에 관해서는 오세창, 「낙동강 유역의 수운연구」 『사회과학연구』 8-1, 2000 참조

12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38~39쪽

서원 뒤의 산릉을 넘어서 남쪽 기슭에는 절골지, 오설지 등의 소류지가 위치하고 있다. 그 아랫동네에는 절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어, 예전 주변일대에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원이 있는 도동 1리 마을에는 현재 수십 호의 민가와 문중 재실이 있으며, 민가 주위에는 몇 채의 축사와 창고 등이 있다.

② 달성 도동서원의 입지와 풍수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결시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데 알맞은 장소를 구하는 이론을 말한다. 즉 사람이 살기 좋게 바람을 막아 주고, 물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기 좋은 곳을 말하는 것이다.

풍수지리설에서 방향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동향(東向 : 봄, 청룡, 청색)은 해가 뜨는 곳이므로 특히 중요시하였는데, 해가 뜨는 여명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하루의 시작, 일년의 시작과 같은 이미지로 연결되었다. 남향(南向 : 여름, 주작, 적색)은 잡귀를 쫓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주작은 인간에게 화복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새이므로,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서향(西向 : 가을, 백호, 백색)은 동쪽에서 뜬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백색은 선인(仙人)들이 인간세계를 떠난 선계(仙界)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북향(北向 : 겨울, 현무, 흑색)은 어둠과 음침함, 추위로 연결되는데, 인간 무의식 속에서 가장 기피했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⁶⁾

한국의 고건축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풍수지리사상을 비롯한 자연사상의 영향을 받아 택지(宅地) 선정과 배치를 하였다. 그런데 달성 도동서원은 전체 배치가 북향(北向)하고 있어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경내의 모든 기준은 혈처(穴處)인 강당이 중심이 되어 배치되기 때문에, 북향하고 있는 경우 동서방위의 시각을 버리고 모든 건축군이 중정당을 기준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예는 옥산서원(玉山書院)에서도 나타나는데, 두 경우 모두 지형과 접근로에 따라 불가피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은 낙동강이라는 큰 강이 지역적으로 한계를 주고 있으므로, 터를 잡을 만한 공간을 찾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¹²⁷⁾

이와 관련하여 전통마을의 형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형국(形局)이 잘 갖추어진 정도가 높으면 형국의 방위가 불리하더라도 입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북향의 마을들은 득수(得水)의 조건보다 장풍(藏風)의 조건에 더 유리한 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²⁸⁾ 달성 도동서원의 경우 비록 북동향이지만 좌우 능선이 에워싸고 있어 아늑하며, 바로 앞에 면한 강과 강 건너의 넓은 들과 준수한 산들로 인해, 조용하고 시원한

126) 金亨度, 「傳統 聚落의 住宅坐向에 對한 實驗的 研究」, 동아대석사학위논문, 1994, 15~16쪽

127) 金南應, 「朝鮮時代 書院建築의 配置와 外部空間 特性에 關한 研究」, 단국대석사학위논문, 1979,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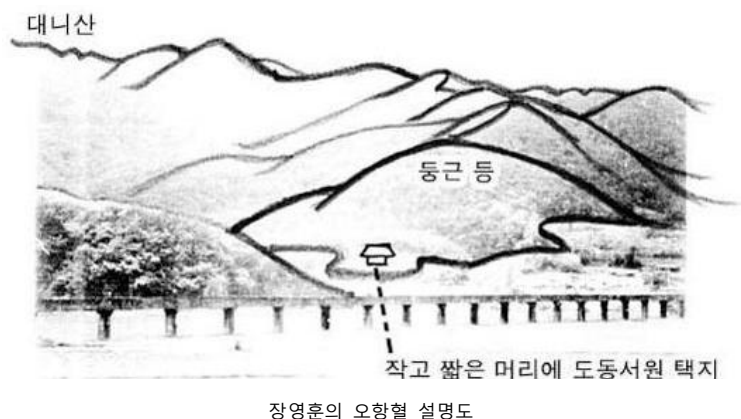
128) 이현병·김성우, 「전통마을에서 形局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 論文集』25-10, 2009, 195쪽

전망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도동서원은 주산이 힘이 있고 살기를 띠지 않으며, 조산(祖山)이 강 건너에 다소 멀리 위치하고 있으나, 청룡과 백호가 혈을 겹겹이 보호해 주고 있어 보국은 훌륭한 곳이라 평가되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은 퇴계 이황과 한강 정구가 의논하여, 송림(松林)의 언덕에 낙동강의 흐름이 산등성이를 두른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초기 서원건축은 유학의 사유체계 중 음양론(陰陽論)과 이기론(理氣論)을 바탕으로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의 학습을 위한 장소성에 비중을 두어 산수(山水)가 뛰어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¹²⁹⁾ 이황은 평소 환경의 교육성을 강조하였으며, 정구는 풍수지리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한편 김굉필의 친상(親喪)시 거처였던 정수암이 근처 동편에 있고, 김굉필과 가장 친했던 정여창과 어울렸던 제일강산정이 근처 남서쪽에 있다. 또한 김굉필이 객승화와 어울렸던 재양정이 남동쪽에 있으며, 김굉필의 묘소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김굉필을 배향하기 위한 서원 건립에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진다.

김굉필의 후손인 김태화의 증언에 따르면, 달성 도동서원의 대지는 풍수지리설에서 학좌형(鶴座形)이라고 한다. 구전(口傳)되기를 주건물인 중정당을 건축할 때 상량만 하면 자꾸 무너져서 우선 중정당 전면의 좌우로 양재(兩齋)를 건축하여 학(鶴)의 날개를 먼저 올려놓고 다음에 중정당을 건축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의미로 팔작지붕의 휘어오르는 듯한 양날개를 두려워 한 나머지 무겁게 내리 누르는 듯한 맞배지붕을 취한 것이라 한다.¹³⁰⁾

그러나 풍수전문가인 장영훈은 그의 저서 『생활풍수강론』에서 달성 도동서원이 오항혈(鰲項穴)¹³¹⁾이라고 주장한다. 오항혈은 자라목 모양의 혈이며, 김굉필의 15대 후손인 김희월도 장영훈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이 오항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도동 서원 내부의 사당과 중정당 앞에 각각 1구씩 자라머리 모양의 석물(石物)이라는 것이다.



장영훈의 오항혈 설명도

129) 都龍吳·李在憲, 「儒學思想의 思惟體系에 의한 鄕校·書院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1-8, 1995, 107쪽

130) 옥선호, 앞의 논문, 371쪽

131) 장영훈, 「조선시대 명문사학 서원을 가다」, 2005년

거북(혹은 자라)은 수명이 길고 물에서도 물에서도 살기 때문에 예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구지가(龜旨歌)」에 나타난 대로 신성한 군주의 출현을 바라는 사람들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영물이었으며, 고구려의 주몽이 금와왕(金蛙王)의 군사에 쫓겨 달아날 때 다리를 놓아 구해준 것도 거북이었다.

달성 도동서원은 대니산의 지맥을 받고 있는데, 이를 형세론으로 보면 대니산 서쪽으로 뻗어주는 산줄기의 출렁거림은 세(勢)가 되고, 이것이 다시 북쪽으로 내려오면서 완만한 형(形)을 만든다. 이 같은 형산(形山)을 배산으로 삼고서 낙동강에 임수(臨水)하였다. 달성 도동서원의 주산인 대니산을 형국론으로 보면 대니산이 서북쪽으로 뻗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머리를 틀면서 떨어지는 그 곳 중간부위에 솔뚜껑을 얹어 놓은 듯한 형상의 산이 있고, 둥근 산이 살짝 머리를 내민 것이 보인다. 그 머리 자리에 달성 도동서원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당은 혈처에 용이 들어오기 전에 기운을 저장하여 끊임없이 기(氣)를 불어주는 기의 저장고인 잉(孕)이 위치하는 자리이다.¹³²⁾ 이를 형국론으로 보면 둥근모양은 거북이 등에 해당하고 서원은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 낙동강을 따라 물을 찾아 내려오는 영구하산형(靈龜下山形)이라 할 수 있지만, 머리부분이 워낙 작아 목을 길게 내밀고 물을 보고 있는 자라형국에 속한다고 한다.



달성 도동서원 석물

달성 도동서원에는 사당 앞에 돌로 된 자라모양의 석물이 있는데, 사당자리가 남쪽방위에 앉아 있는 것을 의식하여 상대적인 북쪽 방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무정을 뜻하는 거북석물을 사당의 정서와 맞게 근엄한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중정당 앞에 석물이 또 한 기가 배치되어 있다. 달성 도동서원의 환주문을 지나 중정당으로 진입하다보면 좌우측으로 서재가 있고, 중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납작하게 다듬은 돌을 깔아 사람 하나 지날 만한 돌길이 있다. 돌길과 만나는 기단 아래 중앙에는 돌로 된 자라모양의 석물이 있는데, 양쪽의 송곳니가 길게 찢어진 입을 앙다물고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며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달성 도동서원은 자라목 형국에 이러한 자라목 석물을 설치함으로써, 형국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132) 朴祥九, 「朝鮮時代 書院建築 터잡기 및 建物配置의 風水地理的 解析」, 영남대석사학위논문, 2007, 222쪽

(2) 달성 도동서원의 배치와 좌향¹³³⁾

① 달성 도동서원의 배치와 중심축

달성 도동서원 주산의 표고는 281.5m, 혈처의 표고는 27.5m로서 주산으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혈처와 직각부의 청룡과 백호의 높이도 각각 26m, 125m로서 혈처를 잘 보위하고 있다.¹³⁴⁾ 달성 도동서원의 부지는 전방으로는 수월루에서 강까지의 거리가 350m 정도여서 조금의 여유가 있는 편이나, 후방에는 경사가 있는 송림(松林)의 언덕으로 더 밀어 올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 좌우로는 30° 가까운 심한 경사지가 인접하여 횡으로 더 넓히기에도 무리가 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주위 조건으로 인하여 전후 70~80m, 좌우 50m 가량의 경사도를 지닌 언덕 기슭의 대지를 이용하여 건축군을 조성하게 되었다. 중정당앞 마당의 땅바닥에서 각 건물별 기둥하부와 초석이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사당이 4.993m, 중정당이 2.521m, 동재인 거인재는 0.476m, 서재인 거의재는 0.952m, 누각인 수월루는 -2.840m이다.

달성 도동서원은 이러한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공간과 공간의 지반차를 크게 함으로써 성질이 다른 공간끼리의 분리효과를 연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간의 위계성과 주요건물로의 집중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연결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의 배치유형은 전학후묘형(前學後廟形)이며, 전저후고(前低後高)의 대지조건에서 사당(祠堂)이 가장 후면의 고지에 위치하고, 전면 저지에 강당(講堂)과 동·서재(東·西齋)가 위치하고 있다. 사당, 강당, 중문, 정문(祠堂, 講堂, 中門, 正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중정당 전면에 동재와 서재가 배치되어 있다.



달성 도동서원과 중심축

133)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사당 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참조

134)朴祥九, 앞의 논문, 240쪽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한강 정구가 서원의 건립을 기념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서원 입구에 서 있으며,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을 따라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 배치되고, 강학공간 우측 담 너머로 지원공간인 전사청(典祀廳)이 있다.¹³⁵⁾

중심축선상에 누각(樓閣)인 수월루(水月樓), 중문(中門)인 환주문(喚主門), 강당(講堂)인 중정당(中正堂), 내삼문(內三門)인 신문(神門)과 사당(祠堂)이 배치되어 있다. 중정당 앞쪽 좌우에는 유생들이 기거하던 기숙건물인 동재인 거인재(居仁齋)와 서재인 거의재(居義齋)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제향공간을 강학공간보다 위쪽에 두려는 서원건축 특유의 위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 중기 서원건축의 대표적인 전형을 보여준다. 외곽에는 낮은 돌담(1.1m)을 두르고, 사당공간에는 특별히 높은 담(1.8m)을 둘러 영역을 강하게 한정하고 있다.

수월루는 누각건물이면서도 그 아래에 외삼문(外三門)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서원에서 유일한 팔작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월루가 강당인 중정당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2층 누각으로 급경사지에 건립되어 있다. 그리하여 전면의 조망 확보와 함께 강학공간을 감싸 안음으로써, 강학공간 내의 긴장감 조성과 수월루 쪽으로의 강한 해소감을 가지고 있다.¹³⁶⁾

이 수월루를 지나면 급한 경사지 위에 좁고 가파른 계단이 나타나며 그 위에 환주문이 위치하고 있다. 환주문은 서원의 규모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그 높이 또한 머리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낮으나, 달성 도동서원의 공간 구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주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가로로 펼쳐진 담장은 강학공간의 마당에서 볼 때는 1.1m 정도의 박이 내다보일 정도로 그 높이가 낮으나 아래에서 볼 때는 급한 경사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뒤편 공간은 전혀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주문을 향하는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면 환주문의 열린 문 사이로 중정당의 전면에 위치한 현판이 또렷하게 부각되어 강한 중심성과 방향성을 느낄 수 있다. 환주문을 향하는 계단 사이사이에는 그 위치에 따라 중정당의 처마선, 기단선 등이 강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환주문을 통과하면 면 분할이 되어있는 다듬은 돌 허튼층쌓기 기법의 기단위에 중정당이 전체의 모습을 시야를 꽉 채우면서 드러나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동재, 서재와 함께 강학공간을 구성한다. 마당 크기는 약 17m×11m의 장방형 모습이지만 동재, 서재의 길이가 짧아 중정당 기단 아래의 낮은 축대와 동재, 서재로 한정되는 크기는 대략 17m×9m의 가로폭이 훨씬 넓은 장방형을 이룬다. 환주문 바로 앞마당에

135) 달성 도동서원의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유인호·하현정, 「道東書院의 配置形態와 공간구성에 관한 研究」 『韓國産業應用學會論文集』11-3, 2008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36) 전영일·박용재, 「退溪 李滉(1501~1570)의 '敬'思想을 통한 陶山書院 建築空間의 考察」 『東國論叢』39, 2000, 116쪽

들어서면 중정당과 동재가 이루는 오른쪽 트임 사이로 전사청과 전사청으로 통하는 사주문이 보여져 중정당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한다. 중정당과 전사청 사이에는 제물의 검수를 행했던 생단(牲壇)이 있고, 중정당 좌측에는 장판각(藏版閣)이 중정당 측면을 향하며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 배치되어 있다.

사당은 중정당 바로 뒤에 약 6m 더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서 엄숙함을 더하고 있으며, 1.8m 정도의 담장 등으로 인해 서원 내에서 폐쇄성과 독립성이 가장 강한 곳이다. 제기고(祭器庫)의 역할을 하는 증반소도 담장 외부에 별도로 배치하여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서양건축은 단일건물로 그 내부에 중심과 부속공간이 존재하지만, 한국 전통건축물은 건축군(建築群)으로 구성되어 공간의 진행이 내외부에서 엮여져 발생하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시선을 유도한다.

달성 도동서원은 산기슭에 세워짐으로써 지형의 고저차로 인한 채들의 배치로 인해 중첩과 시각틀 구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의 연속으로 인한 명암의 대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다른 공간의 차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달성 도동서원의 담장은 담장 속에 또 여러 개의 담장을 세움으로써 안팎의 교차 반복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달성 도동서원은 공간지각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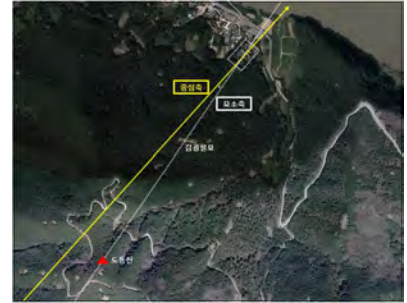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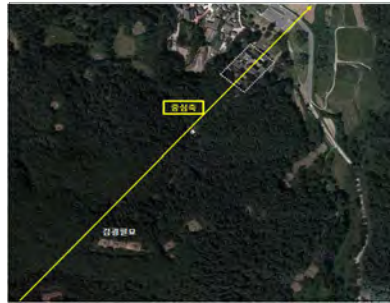
달성 도동서원은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 중심축선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축(主軸)을 따라 안쪽으로 진입할수록 지반의 높이가 상승한다. 주요 건물들이 담장으로 둘러싸여진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면서도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문들을 통해 자연스런 공간의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위계질서를 잡고 있다. 주축을 따라 형성된 주요 공간 외에도 서원의 주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전사청을 비롯해 문간채, 곡간채 등으로 이루어진 지원공간이 부축(副軸)을 구성하고 있다.

②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과 좌향

좌향(坐向)이란 앉아서 바라본다는 의미로서 방위에 관한 풍수의 원리를 다룬다.¹³⁸⁾ 지세, 인공적 건축물 등은 나름대로의 좌향을 가지고 있는데, '좌(坐)'란 대상물을 어느 곳에 자리 잡아 기대어 놓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이고, '向'은 대상물의 주축(主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보는 사람의 심상(心想)을 좌우하는 것이다. 서원건축의 입지와 좌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1차적인 요인은 배향하고자 하는 선현(先賢)과의 인연이 깊은 곳 즉 생가·묘소·강학처(生家·墓所·講道處) 등이며, 주변풍광이나 풍수적 요소는 2차적인 요인이 된다.

137) 黃英珠·金正在, 「空間知覺에 따라 나타나는 道東書院의 現象的 透明性 表現에 관한 研究」『建築歷史研究』12-3, 2003 참조

138) 玄重英·朴贊龍, 「朝鮮時代 傳統住宅 風水의 坐向」『韓國庭園學會誌』16-3, 1998, 56쪽



달성 도동서원의 묘소축과 생가축

옥선호의 「서원건축의 입지와 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달성 도동서원의 위치는 김광필의 생가가 있는 솔레마을과 김광필에 의해 이름 지어진 대니산을 잇는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원의 뒷산인 도동산과 김광필의 묘소를 잇는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¹³⁹⁾ 즉 주산(主山)과 묘소를 잇는 선과 생가와 송산(宗山)을 잇는 두 연장선의 교차 지점에 서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서원의 좌향도 주산과 김광필의 묘소를 잇는 선을 축선으로 하여 북동향하고 있는데, 이를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달성 도동서원 건물자체의 좌향을 보면, 도동산과 김광필의 묘소를 잇는 연장선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이 묘소를 향하는 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좌향은 방향의 개념과는 다르다. 한 지점이나 장소는 무수한 방향을 가질 수 있으나, 선호성에 의해 결정되는 좌향은 단 하나 뿐이다.¹⁴⁰⁾ 따라서 달성 도동서원의 좌향 즉 중심축은 김광필의 묘소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과 묘소축

139) 옥선호, 앞의 논문, p.372.

140) 玄重英·朴贊龍, 「朝鮮時代 傳統住宅 風水의 坐向」 『韓國庭園學會誌』 16-3, 1998, 56쪽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과 묘소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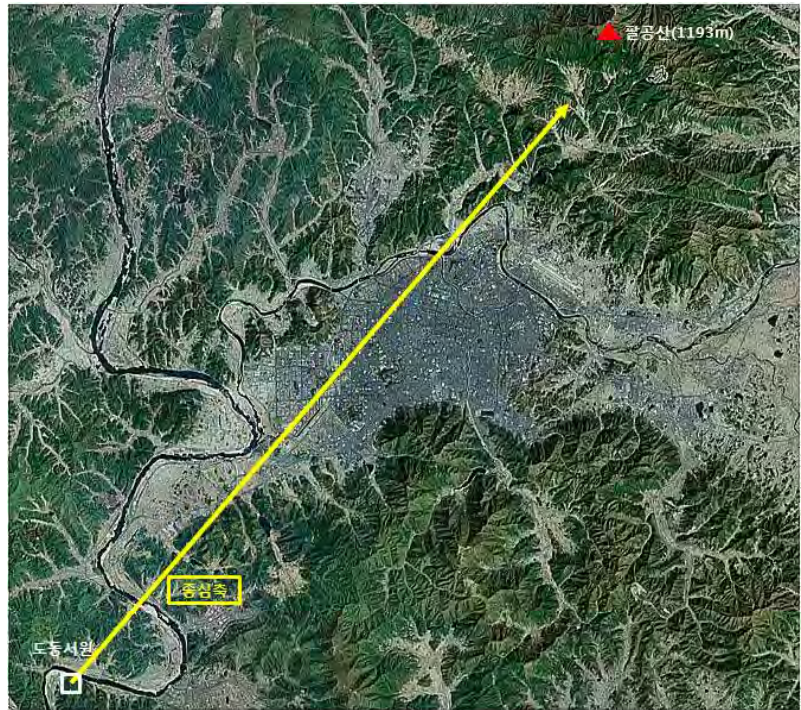
달성 도동서원과 김광필묘 그리고 도동산을 잇는 연장선(묘소축)은 분명히 일치하고 있어, 옥선호의 연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묘소축은 달성 도동서원 건물의 중심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까지 묘소축에 일치시켰으면 생가축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달성 도동서원이 위치하게 되어, 그 의미는 배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지형적 입지상 묘소축선을 따르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축선의 각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풍수지리에 뛰어났던 정구가 이 정도의 축선 차이를 모르고 서원을 건립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김광필의 묘소축을 따르지 않은 달성 도동서원은 분명 어떠한 상징물을 기준으로 좌향을 설정하였을 것이다. 달성 도동서원 인근의 전방으로는 특기할 만한 지형지물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을 연장시켜 보면, 특이하게도 대구에 있는 팔공산을 향하고 있다. 팔공산은 높이 1,193m로서 대구광역시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내달리던 태백산맥이 낙동강·금호강과 만나는 곳에 솟아있으며, 주봉인 비로봉(毘盧峰)을 중심으로 동·서로 20km에 걸쳐 능선이 이어진다. 예로부터 대구를 상징하는 진산 역할을 해왔다. 중심축을 묘소축과 차이를 발생시켜 팔공산 방향으로 잡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③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과 팔공산

달성 도동서원은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공론에 의해 김광필의 내외손 및 사람의 공동협력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감사를 비롯한 본현 내지 인근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특히 김광필의

외증손이며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해 나갔던 정구의 역할이 컸는데, 중건초기 서원의 구획(區劃)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달성 도동서원의 좌향이 팔공산을 향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향된 김굉필보다 달성 도동서원의 건립을 주도했던 한강 정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축과 팔공산

4) 관련계획 및 법규

(1) 관련계획

① 2005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본 계획은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의해 세워진 계획으로서, 6대 기본 추진 전략아래에서 권역별·시도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발전방향은, '산업과 문화, 첨단과 전통,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이라는 대전제 아래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문화세기를 선도하는 민족고유의 문화 관광산업육성'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유교문화의 성지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져있다.

■ 또한, 개방형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문화교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② 2008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본 계획은 2008년 경상북도 건설도시 방재국에서 세운 계획으로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도 단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시키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진 것이다.
- 계획은 향후 12년간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에 걸친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전략 가운데 '한국 속의 문화관광지대 조성' 계획을 포함한다.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계획의 비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경북건설
기본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 ◦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환경 ◦ 열려있고 신뢰하는 교류·협력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개방화와 자유화 ◦ 각종 권한의 지방 분산화 ◦ 산업의 지식 기반화와 정보화의 진전 ◦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의식의 대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된 21세기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지역으로 육성

③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이 계획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산업국이 세운 계획으로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의 관광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 목표와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하고, 대구·경북관광권의 경우 '3대 문화 역사관광의 거점'으로 3대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컨텐츠를 육성, 백두대간 및 동해안을 연계한 녹색관광을 실현하며, MICE산업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육성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④ 2000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2010)

■ 이 계획은 200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북부에서 2000년부터 2010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이다. 본래 2011년에 재수립 되어야 하였으나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0년 계획을 살펴보면 경북북부 지방을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탁월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발굴 보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 시킴으로써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경북북부지방에 집중 분포된 유교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연계 개발 하여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새로운 관광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과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

⑤ 2012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중앙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 ~ 202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경북이 지닌 신라,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동해안, 낙동강 등이 어우러진 녹색자원, 화랑, 선비(양반), 새마을, 불교문화 등 한국정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북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역으로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Korea in korea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경북관광의 비전을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 지대'로 설정하였다. 4대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개발, 누구나 공감하는 관광브랜드 창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문화·생태 융합형 Fun 콘텐츠 발굴로 설정하였다.

⑥ 경북 새천년 만들기 - 21세기 신 경북 비전(1955-2020)

■ 다시 찾고 싶은 『관광경북』 구현

-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3대 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구축
-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 주력
-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을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
- 경북의 정체성 정립과 향토문화 사랑운동을 전개

경상북도 관광개발 추진실적

추진 과제	추진실적
숙박휴양거점 조성	◦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허가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영주지구의 시행중인 사업은 조성공사 추진과 기반조성공사 완료로 원활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편의시설사업 등 공공분야의 기반시설의 원활한 투자로 숙박시설, 상가 등 민자유치가 활발
문화관광루트 개발	◦ 시·군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관광자원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진입도로, 주차장 및 화장실, 탐방로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과 교통접근성 향상에 기여
중점정비	◦ 전통마을중점 정비, 유교문화자원 정비, 전통가옥 정비, 청송덕천마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
관광지개발	◦ 휴양단지 조성, 마을정비개발, 박물관건립, 공원조성 등 중점정비사업과 연계된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자진행
문화자원 정비보수	◦ 유교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유교·불교·역사문화 자원에 중심으로 서원이나 향교의 정비·보수사업과 각종 성역화, 공원화 사업을 비롯, 각종 유적지를 보수·정비
안내센터 설치	◦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박휴양거점, 집중지역, 터미널,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
지역축제활성화 및 연계도로망	◦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주요 지역축제의 신규발굴 및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 발전 유망 축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고, 접근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사업추진

(2) 관련법규

서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해당 법 제도를 근거로 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해야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 문화재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① 토지이용 관련법규

㉠ 토지이용 관련법규에 의한 보존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p>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p> <p>[별표 22] <개정 2009.7.16></p> <p>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p>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p> <p>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시설·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70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는「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문화재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관리

달성 도동서원은 보물 제350호와 사적 제488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은 원형 유지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주체의 설정, 역할과 권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리 방법과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기본 계획의 수립)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기본 계획의 수립)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보존 관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문화재 별 종합 정비 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재 별 종합 정비 계획의 수립)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재수리등 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문화재수리등 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 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p>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p>

③문화유산 운영 관련 법규

㉠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이하 "시지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4호)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23조(수리등)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또는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7 조례 제3954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3호)

제24조(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시장, 구청장·군수(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당해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구청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3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 구청장, 군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상 문제가 없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4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3호)

㉞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정절차)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해 분야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검토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공보에 3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해제 절차)

제3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제27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구청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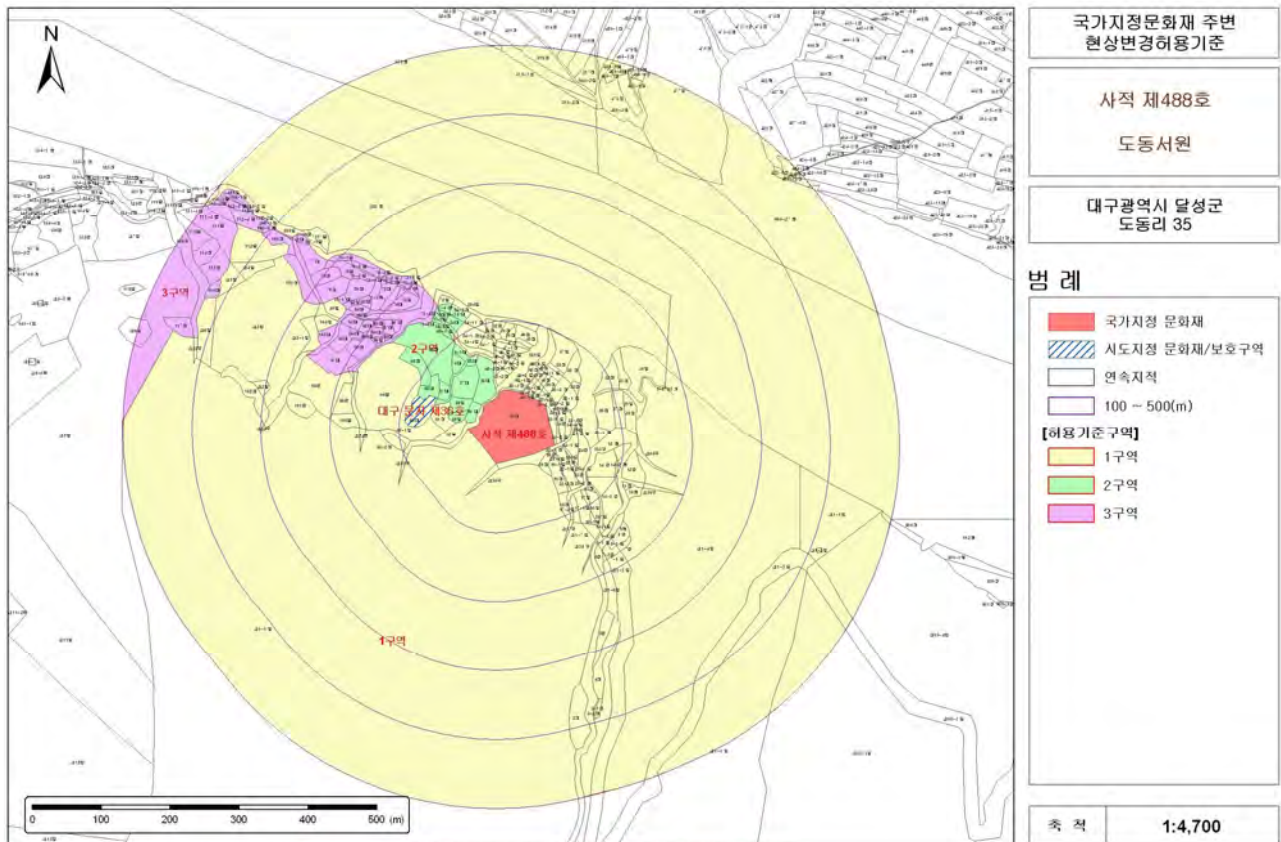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보조금)

①시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장이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3)현상변경허용기준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달성 도동서원 재사액 시기 검토¹⁴¹⁾

1) 서원 사액의 의미

조선시대 서원은 정치·사회·교육·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져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액(賜額)과 관련한 것이다. 사액이란 단순히 현판과 함께 노비와 서적 약간을 지급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서원에 대한 국가적 공인이며,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보장책이기도 하였다.¹⁴²⁾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은 영주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으로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청원에 의하여 명종 4년(1549)에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다. 퇴계는 사액을 요청하면서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에게 쓴 글에서,

*송나라의 고사에 의거하여 서적을 내려주고 편액(扁額)을 써서 내려주며, 겸하여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여 재력을 넉넉하게 한다. 또한 감사와 군수로 하여금 다만 배양하는 방법과 돕고자 내려준 비품을 관할 검찰하게 할 뿐이지 가혹한 법령과 번거로운 조목으로 구속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한다.*¹⁴³⁾

라고 하여 감사와 수령이 서원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에만 힘쓰고 학칙의 구속, 교과의 내용, 서원의 운영 등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향교와는 달리 향촌의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서원을 관리·운영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퇴계의 이러한 사액 요청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풍기의 백운동서원은 황해도 관찰사 주세붕이 창립한 것인데, 그 터는 바로 문성공 안유가 살던 곳이고, 그 제도와 규모는 대개 주문공이 세운 백록동을 모방한 것이다. 무릇 학령을 세우고 서적을 비치하며, 토지와 양식을 공급할 도구를 다 갖추어서 인재를 성취 시킬 만하다. 이황이 편액과 서적, 토지,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모두 따라줄 수는 없으나 편액과 서적 등 2~3건만이라도 특별으로 내려 보낸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고무 감격하여 흥기할 것이다.*¹⁴⁴⁾

141)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도동서원과 달성의 서원들』, 2013

142) 이하 서술은 윤희면, 『조선시대 양반과 서원』, 집문당, 2004 및 이수환, 『조선 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을 주로 참고하였다.

143) 『퇴계전서(退溪全書)』 권9, 「상심방백서(上沈方伯書)」

새로 나타난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높이 평가하고 유생들을 고무하고 진작시키기 위하여 서적과 함께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내리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런 조치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쇠퇴한 관학의 부진을 대처하고, 관학 복구에 따른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지방 사림을 통제하고 순화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사설교육기관이지만 지방 사림을 교육하고 교화함으로써 관학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는 서원이 중앙의 지방통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사액조치와 함께 다음과 같이 서원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유생이 글 읽기로는 고요한 곳이 가장 좋다. 만일 감사와 수령이 학업을 권장하려고 교육명령을 번거롭게 내려 단속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길에 어긋날까 염려되니, 동요시키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¹⁴⁵⁾

이처럼 지방관의 지나친 간섭을 허락하지 않고 서원의 자치적 교육 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던 것이다. 사액이 된 서원은 국가의 공인된 교육 기관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 지방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백운동서원이 사액 이후 위상이 높아지자, 이후에 설립되는 서원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것은 백운동서원처럼 수령, 감사가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람들이 협조하는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서원의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방관은 단지 서원을 설립한 사람들의 사액 요청을 받고 중앙에 보고하여 알리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방 사람들의 적극적인 서원참여는 서원이 기존의 유향소, 사마소와 같이 사람들의 집결소이자, 향촌사회의 중심기구로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마소, 유향소가 폐단의 심화로 수령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면서, 이 두 기관은 자치성을 점차 상실해 갔으며 수령의 통치를 보좌하는 기구로 점차 변모해 갔다. 지방 사람들의 적극적인 서원 참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서원 사액은 교육기관으로서 관학인 향교와 동등한 지위를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전에 규정된 바 없었던 초기에도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원속(院屬)은 해당 지방관의 명으로 면세(免稅)·면역(免役) 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고, 또한 제수(祭需)가 관급(官給)되는 등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서원은 창건되자마자 곧바로 청액(淸額) 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기 서원의 청액 과정은 서원 유생이나 서원 소재지 지방관의 요청을 받아 감사가 청액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사액기준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후 서원이 유향소·향교를 대신해 향촌사회에서

144) 『명종실록(明宗實錄)』 권10, 5년 2월 병오

145) 『명종실록』 권10, 5년 2월 병오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급격히 설립되자 사액의 기준도 일단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말 선조 연간까지만 하더라도 사액문제가 각 정파간의 정치적 목적에 좌우되지는 않았다. 선조연간까지 사액된 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명종~선조연간 사액 서원 일람

도별	지명	서원명	건립연도	사액연도	봉사인물
경상도	풍기	소수서원 (紹修書院)	중종 38년(1543)	명종 5년(1543)	안향(=안유) 등
황해도	해주	문헌서원 (文憲書院)	명종 4년(1549)	명종 5년(1549)	최충·최유길
경상도	함양	남계서원 (濫溪書院)	명종 7년(1552)	명종 21년(1552)	정여창
경상도	영천	임고서원 (臨臯書院)	명종 10년(1555)	명종 10년(1555)	정몽주
경상도	의성	빙계서원 (氷溪書院)	명종 11년(1556)	선조 9년(1556)	김안국
경상도	성주	천곡서원 (川谷書院)	명종 13년(1558)	선조 40년(1558)	주자·정자
함경도	함흥	문회서원 (文會書院)	명종 18년(1563)	선조 9년(1563)	공자
전라도	순천	옥천서원 (玉川書院)	명종 19년(1564)	선조 원년(1564)	김광필
경상도	선산	금오서원 (金烏書院)	선조 3년(1570)	선조 8년(1570)	길재
전라도	능주	죽수서원 (竹樹書院)	선조 3년(1570)	선조 3년(1570)	조광조
경상도	경주	옥산서원 (玉山書院)	선조 6년(1573)	선조 7년(1573)	이언적
경기도	개성	송양서원 (松陽書院)	선조 6년(1573)	선조 8년(1573)	정몽주
경기도	양주	도봉서원 (道峰書院)	선조 6년(1573)	선조 6년(1573)	조광조
경상도	예안	도산서원 (陶山書院)	선조 7년(1574)	선조 8년(1574)	이황
전라도	남원	창주서원 (滄州書院)	선조 12년(1579)	선조 33년(1579)	노진
경상도	현풍	도동서원 (道東書院)	선조 38년(1605)	선조 40년(1605)	김광필

사림계열이 실세였던 명종대에는 소수서원, 문헌서원, 임고서원 등이 사액을 받았는데, 이는 사림세력이 척신계열로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지만, 또한 사액을 받은 세 서원의 제향인이 안향(=안유), 최충·최유길, 정몽주 등 모두 고려조의 인물이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된다. 이후 사림계열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선조대에 들어오면서 사액서원의 제향인도 고려조의 인물에 한정되어 있던 제약에서 벗어나, 사화기(士禍期)의 인물을 포함하여 사림계열이 성리학의 정통으로 내세웠던 김광필·조광조·이언적·이황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제향인의 범위는 약간 확대되었으나, 사액에서만은 성리학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광해군대의 복인정권의 등장은 서원의 설립과 사액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복인정권은 퇴계·율곡학파에 비해 상대적 열세인 학문적 기반과 자파세력 확보 및 가화를 위해 서원·향교·향소 등 향촌 자치기구에 관심을 두면서, 이 시기 서원의 설립 및 사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대북파의 영수인 정인홍(鄭仁弘)은 스승인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추존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광해군 원년(1609)에 경상우도의 남명 제향처인 진주의 덕천서원(德川書院), 삼가의 용암서원(龍巖書院), 김해의 신산서원(新山書院)의 사액을 받고, 7년(1615)에는 경성에서 불과 30리 밖에 있는 양주 서면(삼각산 백운봉 아래)에 남명을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여 이듬해인 1616년에 백운서원(白雲書院)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러한 서원 설립 및 사액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은 인조반정 이후에도 서·남인 간에 어느 정도 정치적 조정이 이루어져 심각한 양상을 보이진 않았지만, 서인의 우세 하에서 서인 쪽에 편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로 대표되는 산림(山林)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집권의 명분과 도학적 정통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학적연원인 조광조·이이(李珥)·성혼(成渾)·김장생(金長生) 등의 서원을 계속적으로 설립하고 사액을 받았다. 이처럼 서원 건립과 사액에 자파 중앙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서원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확대되면서 현종대 들어 향촌사림의 청액 운동을 촉발시켜 청액소(淸額疏)가 폭주하였다. 이에 현종 연간에는 사액의 남설(濫設)을 우려하여 사액에 관한 한 일률적으로 물시(勿施)하라는 통제책이 취해졌으나, 사액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중앙관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특청(特請)'에 의하여 대부분 특례로 사액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액 과정에서의 이러한 당파적 편향성은 이후 서원 문제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고, 또한 이것이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숙종대의 서원 사액에 대한 극단적인 당파적 편향성은 이에 연유하였던 것이다.

숙종대에는 경신(1680)·기사(1689)·갑술(1694)한국으로 이어지는 잦은 정변 속에서 각 정파마다 자파서원을 통해 집권의 명분이 되는 도학적 정통과 명분론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파세력을 확대·부식하고자한데서 서원의 폭발적 증가와 사액이 이루어졌다. 숙종 7년(1681)은 서원 신설과 일체의 사액을 불허한다는 국자적 차원의 통제책이 강화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책은 집권 당파에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였고, 반대 당파를 억압하는데 만 유효하였다.

또한 이전까지 서원의 제향인은 '백세(百世)에 사표(師表)가 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선정 기준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화기를 거치면서 피화인(被禍人)을 제향하는 서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원에 제향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명유(名儒)·선현(先賢)들과의 각종 연고를 들어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 인물을 여러 서원에 거듭 봉사(奉祀)하는 첩설(疊設)은 숙종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조선 성리학에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숙종대에 와서는 그 대상의 선정 기준도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첩설은 당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결국 영조대에는 '첩설처사액불허(疊設處賜額不許)'라는 금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제향인의 질적 저하는 서원의 질적 저하를 가속시켰으며,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해져서 18세기 이래로 영남지역의 서원 사액은 문묘종사 대현을 제향한 서원에 한하여 왕의 특명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그 수도 많지 않았다.

달성 도동서원의 경우 17세기 초에 중건되면서 당시 재사액이 되었는데, 조정에서 재사액을 논의할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는 제향인인 김공필이 동방오현(東方五賢)의 한분으로 추송 받고, 1610년에는 문묘에 종사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숙종 연간 이래로 서원 신설과 첩설 등에 대한 금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처가가 있던 거창과 외가가 있던 합천 등과 같이 연고(緣故)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원 건립과 사액이 진행되었다. 숙종 4년(1678) 도동서원에 추향된 정구 역시 그의 외·처향과 지방관으로 재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원 건립이 이루어졌다.

2) 달성 도동서원 재사액 시기 검토

달성 도동서원의 전신(前身)인 쌍계서원(雙溪書院)은 선조 원년(1568)에 건립되어 선조 6년(1573) 경상감사의 장계에 의하여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영주 이산서원(伊山書院)과 더불어 사액과 동시에 서적을 하사받았다.¹⁴⁶⁾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병화에 소실되어 1604년 김공필의 묘소가 있는 도동으로 옮겨 중건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서원명을 '보로(甫老)'로 개명하였다.¹⁴⁷⁾ 이때의 중건 과정에서는 한훤당의 외증손 이자, 영남학파를 영도하던 정구(鄭逵)와 감사(監司)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감사는 중건에 필요한 물력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는데, 이후 도동서원이 재사액되는 것에 감사의 역할이 컸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사액을 요청하는 과정은 향중사림의 공의로 사액을 청하는 의견이 발의되어 이를 지방 수령을 통해 감사에게 전달하거나, 사림에서 감사에게

146) 『선조실록(宣祖實錄)』 권7, 4년(1573) 11월 28일(갑진)

147) 「도동서원창건사적」, 『도동서원지』, 영남대출판부, 1997

직접 요청하여 감사가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여 예조에서 논의 후 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초창기 서원의 경우 서원 유생이나 지방관의 요청으로 감사가 조정에 사액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었다.¹⁴⁸⁾ 소수서원이 풍기 군수(이황)가 감사에게 계청하고, 감사가 다시 예조에 요청하여 사액이 된 대표적 사례이다. 도동서원 역시 임란이전의 사액과 그 후 다시 사액이 내려질 때도 경상감사의 장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¹⁴⁹⁾

후자에 속하는 밀양 예림서원(禮林書院)의 사례를 보면, 밀양 유생 이이정(李而楨)이 사림을 대표하여 경상감사에게 청액(請額)을 요청하고 감사는 조정에 계문하여, 현종 10년(1669) 사액을 하사 받는다. 그리고 이듬해인 현종 11년 윤 3월에 조정에서 예조정랑 강복선(姜復先)을 파견하여 하사된 편액을 걸고 사우에 사제(賜祭)함으로써 사액이 완료되었다.¹⁵⁰⁾

도동서원의 청액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다. 하지만 당대에 영남학파를 영도하는 한강 정구가 생존하고 있었기에 그를 중심으로 공론을 모아 감사에게 직접 사액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정구는 서원의 각종 의례와 사액에 관한 경상감사의 계문초안(啓文草案)을 검수해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장계(狀啓)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기도 하였다.¹⁵¹⁾

도동서원이 중건되었을 당시 경상감사였던 류영순(柳永詢)은 향중 사림의 요청으로 사액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예조에서는 1606년 12월 26일 왕(선조)에게 성주 천곡서원, 선산 금오서원, 함양 남계서원과 더불어 현풍 쌍계서원의 재사액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게 되었다.¹⁵²⁾ 이후 예조에서는 재차 경상감영에서 고증하여 올린 계문을 받아 '도동(道東)'으로 사액된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 장계를 재차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한강이 1608~1609년 2월 까지 경상감사를 지낸 최관(崔權)과 수신한 편지를 보면 1608년 내지 그 이전의 감사 때에 올린 장계의 답으로 받은 유지(有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³⁾ 그 유지가 최관 이전에 받은 것인지, 당대에 받은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남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609년 초에 최관이 정구와 논의하여 사액에 따른 일회성의 특별한 치제(致祭)가 아닌, 이후의 춘추향사와 가묘제의 제문에 '공손희 조정의 명을 받들어 아무개에게 감히 고합니다.(恭奉朝命敢昭告于云云)'라는 문구를 넣어 치제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다.¹⁵⁴⁾ 물론,

148) 이수한,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 49, 1995

149) 『선조실록』 권7, 6년(1573) 11월 28일(갑진) ; 권206, 39년(1606) 12월 26일(경신)

150) 장동표, 「예림서원 건립중수와 김종직 추승활동」, 『역사와 경계』 64, 경남사학회, 2007

151) 「답최감사관(答崔監司權)」, 『한강집(寒岡集)』 권5, 書

152) 『선조실록』, 39년(1606) 12월 26일(경신)

153) 「답최감사관(答崔監司權)」, 『한강집(寒岡集)』 권5, 書

154) 「답최감사관(答崔監司權)」, 『한강집(寒岡集)』 권5, 書

이 장계는 최관이 아닌 후임 감사인 강첨(姜籤)에 의해 계달(啓達)되어 광해군 원년(1609) 8월 1일에 임금의 윤허를 받게 되었다.¹⁵⁵⁾ 이후부터 서원의 춘추향사의 제문에 위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610년 4월 22일의 제문부터는 “萬曆三十有八年歲次庚戌四月丙子朔越二十有二日丁酉某官姓某等恭承朝命姓某昭告于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維我...”글로 시작하고 있다.¹⁵⁶⁾

이상 달성 도동서원 청액 과정은 사림이 관찰사에게 사액을 요청하고 관찰사는 조정에 상신하여, 그 답변을 관찰사가 받은 후 서원 측에 통고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지에 특별히 치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액을 받고 치제를 하게 되면, 예림서원의 경우와 같이 조정(예조)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하사된 편액을 걸고 사우에 제사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달성 도동서원은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 즉, 사액시기와 관련하여 1607년에 사액되어 당시에 봉안식을 했다는 것과 1610년에 봉안식을 하였기에 이때에 비로소 사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정경운(鄭慶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이다. 이 일기의 정미년(1607) 10월 13일자 기사에는 ‘한헌당 김선생의 봉안식이 10월 28일에 있다는 도동서원 통문이 왔다.(寒暄金先生奉安于道東書院通文來過期以今月二十八日)’라고 하였다.

또한 정구가 최관과 나눈 글 중 ‘조정에서 편액을 내릴 당시에 필시 영공 앞으로 글을 내렸을 것인데...(竊念降額時亦必下書於令前矣)’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1608년 이전에 현판을 내리도록 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내리는 서원의 편액은 당초에 선왕(宣祖)의 친필이라는 말을 듣고는 서원 안의 많은 선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으로 여겨 감격해 하였습니다. 성주 천곡서원은 자양서원(紫陽書院)의 고사를 따르기 위해 어필(御筆)을 보관할 재각을 건립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 하는 중입니다만, 도동서원은 아직 왕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편지에서서도 이에 관해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왕명으로 ‘도동서원’으로 사액되었음에도 실제 현판이 1609년 봄에 이르도록 내려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동서원 봉안식은 현전하는 「입원록(入院錄)」, 「봉안시 분정기(奉安時分定記)」, 「봉안제문(奉安祭文)」 등을 통해 보았을 때 1610년 4월에 설행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서원 내 ‘사액 현판’과 ‘한강수서(寒岡手書)’¹⁵⁷⁾ 판액에는 1607년에 사액되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이 둘은 다르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즉, 1606년 12월 선조의 재사액 윤허가 있는 후 예조에서는 재차 고증(考證)하여 계문(啓聞)하라는

155) 『광해군일기』 원년(1609) 8월 1일(기유)

156) 「제문(祭文)」, 『도동서원지』, 1994, 462~463쪽

157) 1607년 7월에 작성한 글이다.

명을 경상감영에 하였다. 이후 감영에서 재차 계문을 올리면서 소요된 기간과 예조의 최종 승인이 난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현판에 1607년 2월 선사(宣賜)라는 것은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한강과 최관의 편지에서 이미 유지가 내려왔다는 것은 1607년에 사액과 치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지가 감영에 도착하였으며, 이 소식이 서원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판이 1년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기에 각종 소문만 무성하여, 편지로 한강이 그 연유를 묻고 있었다.

『고대일록』의 내용은 1607년 가을에 조정에서 도동서원 측으로 어떤 답변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하여 1607년 10월 28일에 봉안식을 거행한다고 통문을 발송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현판 하사와 치제가 이뤄지지 않아 봉안식은 연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선조 말 왕위 계승을 두고 치열히 전개되었던 당쟁으로 인해 여타의 일에는 관심을 둘 형편이 못되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도동서원뿐만 아니라 재사액이 결정된 다른 서원들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광해군이 집권한 후에도 현풍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곧바로 현판과 치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09년 한강이 일회성의 특별한 치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은(聖恩)을 영구히 가져가기 위해 사제문(私祭文)에도 왕의 명에 의해 작성한다는 내용을 감사의 장계에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문구를 넣어 치제문(致祭文)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는데, 실제 그의 이러한 요구는 1609년 8월에 윤택되었다. 한강의 이러한 판단은 그가 영남뿐만 아니라 당시 집권한 복인정권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도동서원 사액과 치제에 관한 일이 당시에는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한강의 요구는 간접적인 형태이지만 향중사람이 자체적으로 봉안식을 시행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처는 더 이상 서원에 위패를 봉안하지 않은채 비워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서원이 중건된 후에도 실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입원록」에 1610년 이전의 기록이 없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판은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에서 도사(都事) 배대유(裴大維)가 쓴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가 당대에 예서(隸書)와 초서(草書)로 명성이 높았던 만큼 충분히 글을 의뢰했을 개연성은 있다.

짐작컨대, 한강은 이미 사액의 명이 내려진 상태에서 서원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고 보고, 지방사람이 자체적으로 봉안식을 설행할 계획임을 조정에 알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제문과 현판을 하송(下送)하지 않고, 한강의 제안대로 지방에서 현판을 제작하고, 작성된 제문(한강이 지은 봉안문)에 윤택받은 서식을 적용하여 치제문으로 사용

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은전(恩典)을 이행함에 조정의 관원이 불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한강의 제자이기도 했던 교서관 정자 손린(孫遴)을 예관(禮官)으로 보내어 축(祝)을 담당토록 하고, 아울러 예조에서는 관문을 보내어 헌관으로 도사 배대유, 의령현감 이함, 현풍현감 권양을 차정하여 치제의 형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교서관 정자를 예관으로 보내면서 향과 서적을 함께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서관이 국가의 서적 간행과 제의에서의 향축(香祝)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10년 4월 22일 작성된 도동서원 「봉안시제집사분정기(奉安詩諸執事分定記)」를 보면,

初獻:都事 裴大維, 亞獻:宜寧縣監 李涵, 終獻:玄風縣監 權養, 掌儀:參奉 郭迺(院長), 祝:校書正字 孫遴, 贊者:崔嶸·嚴允良·朴寅, 贊唱:嚴惟吉, 司尊:鄭四象, 奉香:李天封, 奉爐:趙光璧, 奉爵:龔爵·贊者:無, 司盥:司悅·金應先 兼, 掌饌:金瑛·郭岫·郭嶺

등과 이하 참제유생(參祭儒生) 80여 명이 기재되어 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는 장의는 원장이었던 객근이 맡았다. 제관을 제외한 기타 집사는 봉안식에 참석한 유생들 중에서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사 배대유는 도동서원 현판을 직접 쓴 당사자이자,¹⁵⁸⁾ 감사의 부재 시 그 권한을 위임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초헌관으로 차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시의 경상감사는 체임(遞任)으로 부재중이었다. 이외에도 중건 당시부터 사액과정까지 시종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구가 빠져있다. 이는 최관과의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현풍사람들은 1604년 도동서원 중건을 시작하여 1607년 재사액이 되었으나, 현판 하사와 치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봉안식을 못한 채 약 3년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1610년에 이르러서야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온전하게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⁵⁹⁾

158) 『열읍원우사적』 현풍

159) 도동서원 사액연도와 관련하여 이수환(영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자문의건서」(2012년 2월 29일)에서 1607년의 사액설은 현판과 정구의 수서(手書)를 보면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록』 등의 기록이 전무하고, 『열읍원우사적』과 1610년 향사 시 제문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1610년 설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도동서원 「입원록」은 1610년부터 기록되어 있고, 「참제록」은 1611년부터 기록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부록2. 달성 도동서원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검토 의견 자문의건서 참조)

道東書院

Ⅲ

도동서원 조사



1. 달성 도동서원 개요

■ 명칭 : 달성 도동서원(達成 道東書院)

■ 배향자 : 김굉필(金宏弼, 1454 ~ 1504)

정구(鄭逑, 1543 ~ 1620)

■ 건립년도 : 1604년 (선조 37)¹⁶⁰⁾

■ 사액년도 : 1610년 (광해군 40)

■ 위치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도동리 35)

좌표 : N 36° 06' 38", E 129° 11' 28"

■ 면적 : 지정구역 : 8,891㎡(약 2,694평)

서원경내 : 2,156㎡(약 653평)

■ 지정번호 : 사적 제488호

■ 지정년월일 : 2007년 10월 05일(※ 2007년 사적으로 신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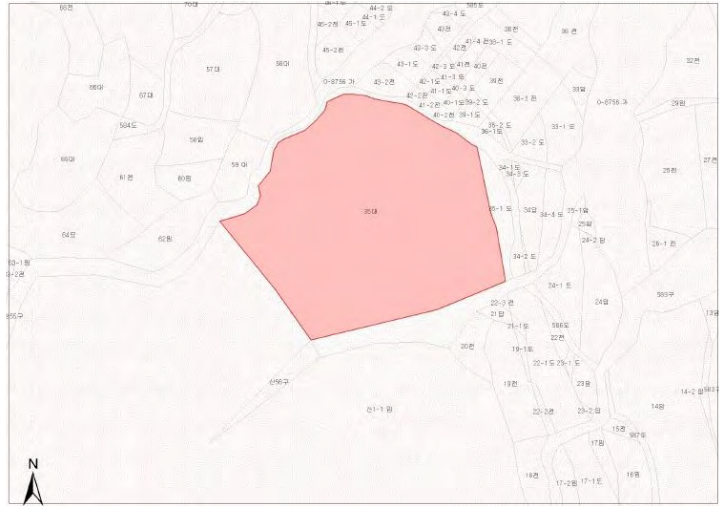
■ 지정사유 : 달성 도동서원은 1604년 지방유림에서 한훤당 김굉필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조선중기 전학후묘의 전형적 배치 형식과 강당과 사당의 공포양식 및 담장 구성수법 등에서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강당·사당과 이에 딸린 담장은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 전면에 위치한 신도비,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서원전역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한다.

■ 지정 구역 내 지정문화재 :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보물 제350호)

■ 소유자 : 도동서원

■ 관리자 : 달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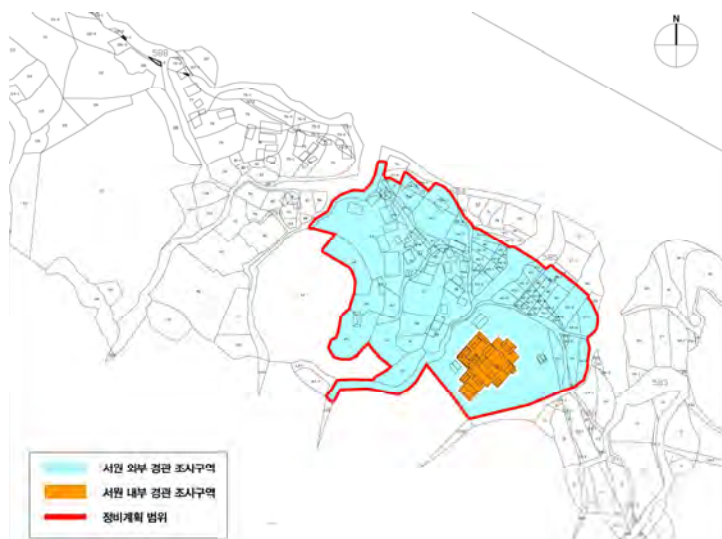
160) 달성 도동서원의 건립연도와 사액연도는 객원연구원 이수환(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이 작성한 2012년 2월 29일 도동서원의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참조하여 건립연도 1604년, 사액연도 1607년으로 기입하였다. (부록2. 달성 도동서원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검토 의견 자문의견서 참조)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문화재구역 현황

1) 조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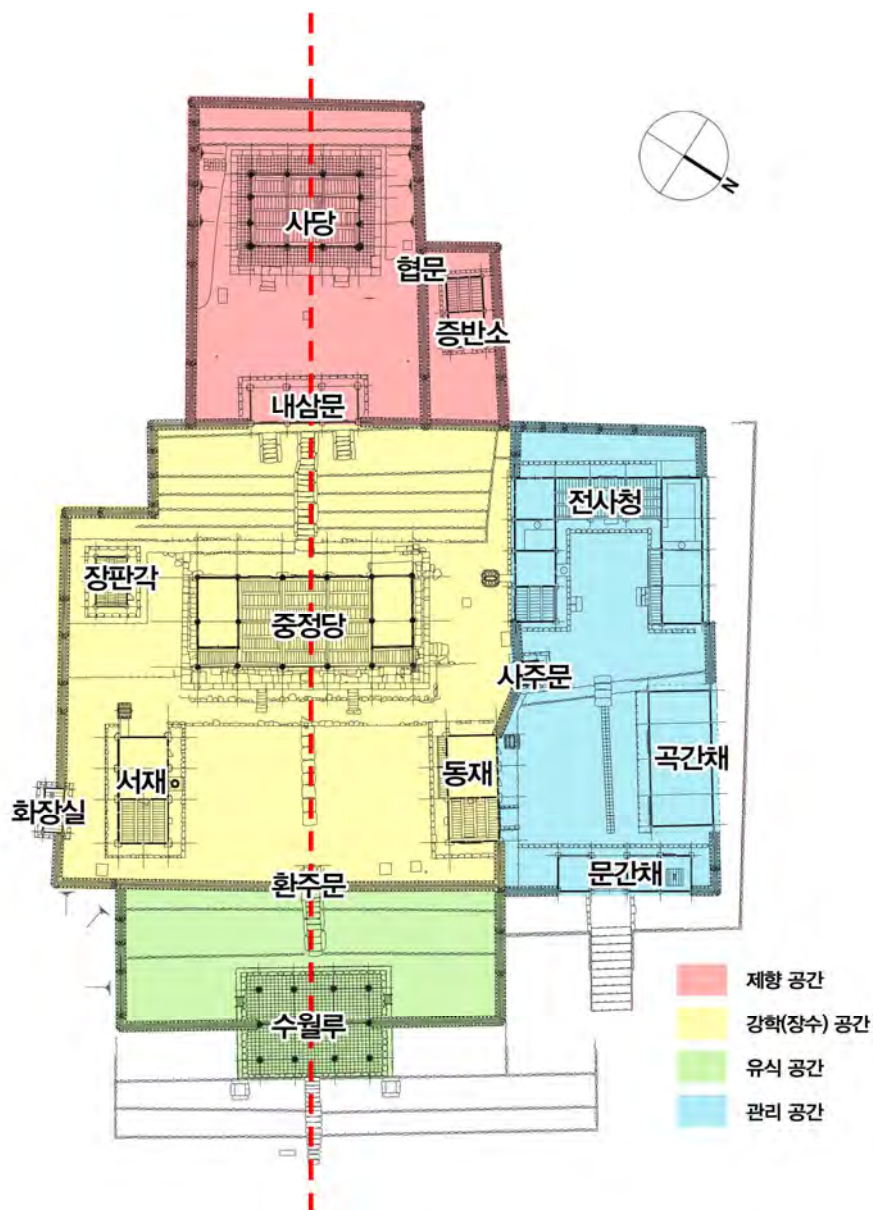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조사구역은 달성 도동서원의 문화재구역을 경계로 하였으며, 조사구역을 서원의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서원 내부의 면적은 2,156㎡(약 653평)이고, 그 외 나머지는 6,735㎡(약 2,040평)로 배후 산지의 일부분, 서원 동서쪽의 완경사지, 서원 전방에서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는 평지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달성 도동서원의 조사는 담장을 기준으로 서원 건축물들이 위치하는 서원 내부와 안내 및 관리시설, 수목 등이 위치하는 서원 외부의 2부분으로 나누었으며, 내부조사 시에는 공간범위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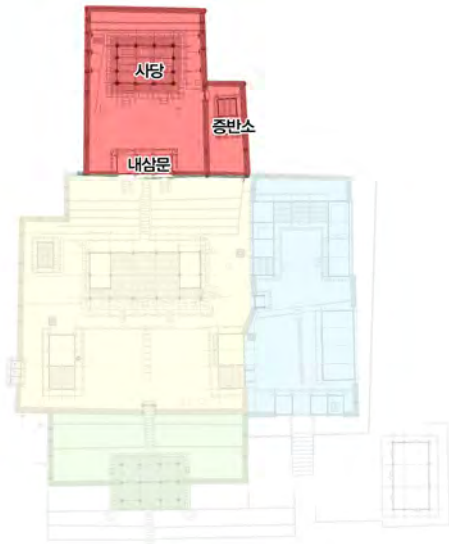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범위도

2. 서원 내부 조사

서원 내부 조사 시 공간범위 설정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향공간, 강학(장수)공간, 유식공간, 관리공간으로 나누었다. 조사 시에는 각 공간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달성 도동서원 공간분활



제향공간 위치도



사당



사당 기단 및 석등



내삼문

1) 제향공간

- 제향공간이라 함은 유교건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으로 제향공간과 학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유교건축 배치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 달성 도동서원의 제향공간은 강당공간에서 계단을 올라 배치 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배치구성으로 구분 시 전학후묘의 배치를 하고 있다.
- 제향공간의 구성은 사당, 증반소, 내삼문, 담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삼문 옆에 배롱나무가 위치하여 전망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 제향공간의 각 구조물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제향공간 건축물 현황표

구분	건립연대	규모	양식
사당	1604	1층, 정면 3칸·측면 3칸	맞배지붕, 겹처마
내삼문	1604	1층, 정면 3칸·측면 1칸	맞배지붕, 홑처마
증반소	1604	1층, 정면 2칸·측면 1칸	맞배지붕, 홑처마
일각문	1604	1층, 정면 1칸	맞배지붕, 홑처마

제향공간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 제향자를 모시는 곳으로 주위공간과의 차단 및 독립된 공간 형성	
구성	사당	• 정면 3칸, 측면 3칸, 주심포 맞배지붕 • 제향자의 위패 및 벽화가 있음
	증반소	• 향사에 필요한 물품보관 장소
	내삼문	• 정면 3칸 맞배지붕
	담장	• 외편담장으로 보물 제350호로 지정
문제점	사당	• 내부 습기 배출 문제 • 기단 적심 유출로 인한 처짐 • 사당 앞 마당의 잔디문제(습기 보존) • 가로등시설 노후화 및 공공디자인 위배
	증반소	• 담장의 붕괴 • 출입문 파손
	내삼문	• 벽체 및 단청의 훼손 •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위험
	담장	• 담장기와의 훼손으로 담벽 훼손

제향공간의 수목현황

구분		수종	수량
낙엽	교목	배롱나무	2
합계			2

(1) 건축물

① 사당

㉠ 개관



내부 측면



내부 가구



사당 배면 기단처집



사당 정면

■ 달성 도동서원의 사당은 강당에서 계단을 올라 내삼문을 지나면 마당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평주와 고주를 사용하여 평면을 구성하였고, 정·배면 평주에 대들보를 통재로 설치하고 보의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있으며, 측면의 경우 고주 상부에서 직접 종보를 받고 있다. 전·후 퇴칸은 평주에서 고주로 뒷보를 걸어 구성한 2고주 5량가이다.

■ 사당의 기단은 넓은 판석을 면석으로 세워 가구식 기단을 형성하고 있다. 중정당의 가구식 기단에서 지대석과 탕주가 생략된 양식으로 지대석 없이 넓은 판석을 세워 면석을 삼고 면석 상단에 운두가 낮은 갑석을 덮었다.¹⁶¹⁾ 기단의 상부 전체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좌·우측면의 기단 석재의 경우 신재로 교체되었다. 신재 교체된 부재는 기존의 부재와 색상 및 크기로 구별이 가능하다. 사당 정면 좌측부 기단 면석에 목서가 남아있으며, 「무신 사월 일(戊申 四月 日)」이라 적혀 있다.

■ 달성 도동서원 사당의 초석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원형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총 12개가 각 원주의 하부를 받치고 있다. 사당의 초석

161) 1989년 발간된 달성 도동서원 실측조사보고서에서를 살펴보면 원래의 기단석은 전면과 좌우측면의 전면쪽에서만 일부있고 배면과 측면 쪽으로는 기단석 없이 바닥에 방전만 깔려 있었으며, 측면으로는 기단 끝나는 곳에서 직각 방향으로 석축이 쌓여져 있었으나 1988년 보수공사때에 배면과 좌우측면에도 전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단을 설치하였다.

형태를 살펴보면 원형초석 상부의 직경이 하부의 직경보다 작아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꼴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운두를 갖추고 있고 거칠게 다듬어 형태만 대충 동일하게 치석하였다. 주좌부분은 별도의 쇠시리 없이 상면만 평탄하게 가공했고, 측면은 원형으로 굴곡졌다.

■ 사당 내부는 통칸으로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다. 우물마루는 기둥과 기둥사이에 긴 장선인 장귀틀과 도리 방향으로 짧은 장선의 동귀틀을 걸어 우물마루를 짜고 동귀틀 사이에 홈을 파 청판을 마감하였다.

㉞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시간 습윤 상태가 지속되어 지의류 등이 서식하며, 배면 및 측면의 경우 내부적심의 유출로 인한 침하가 있음.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당 내부 바닥에 돛자리를 설치하여 바닥하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음 	
단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기배출 및 시공불량으로 인한 벽체 단청박락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담장	◦ 부동침하로 인한 담장 균열	
	◦ 담장 기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발행 후 담장이 오랜 시간 습윤상태로 방치되어 변색 및 균열이 진행됨	

② 증반소

㉠ 개관



증반소

■ 증반소는 제기고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향사 때에 제상에 올리는 젓메를 짓고 기물을 보관, 준비하는 건물이다. 출입은 사당 우측 담장에 내어진 작은 협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의

사방에 협착한 공간을 두고 담장을 둘러 작고 독립된 제사 준비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 증반소의 기단은 2면이 담장에 붙어 있는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각기둥을 세워 형성한 전면 2칸,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의 소박한 건물로서 대지 관계상 박공부분에 출입문을 두었다.

■ 평면은 마루방과 온돌방으로 구별되는데 마루방은 우물마루가 깔려 있고 출입문 외에는 창문이 없으며 마루방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온돌방은 사당쪽으로 쌍여닫이 창문이 1개소 있다. 건물 구조는 기둥위에 보아지와 보를 차례로 놓고 그 위에 장여와 도리와 결구하였으며, 보 위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 장여와 종도리 설치한 3량 건물이다.

■ 보의 상부에 설치된 대공을 살펴보면 우측면은 동자주 대공, 좌측면과 내부 상부에는 판대공을 사용하였다. 건물의 측면부는 풍판없이 박공을 설치하였으며, 기와 끝은 와구토 바르기로 마감하였다.



증반소 협문

㉞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단	◦ 습기로 인한 하부 회백 탈락	
벽체	◦ 경첩이 파손되어 문 사용 불가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배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지의류 및 잡초가 번성하고, 결과적으로 붕괴됨 (가로1.5m×세로0.8m) 	

③ 내삼문

㉠ 개관



담장 보수물질



담장 보수물질



내삼문

■ 내삼문¹⁶²⁾은 중정당 뒤 석축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문의 정면 벽체에 이어진 담장이 사당의 배면까지 둘러져 사당공간을 이루고 있다.



담장 모수리 부분 이격



배면 관리 부실



계단 이격

■ 내삼문의 형식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집이다. 자연석 석축 기반 위에 원형 초석을 놓았으며,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다.

■ 건물 구조는 기둥상부에 주심도리 장여와 대들보를 결구하고 주심도리를 받았으며, 대들보 중앙부분에 판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 장여와 종도리를 받고 있는 3량가 건물이다. 지붕은 풍판 없이 박공만 있는 맞배지붕이다.

■ 내삼문의 정면 기둥열 각 칸에는 판문을 달았고 판벽을 세웠으며, 각 문 상인방 상부에는 3칸을 구획하고 문양구멍을 뚫은 풍혈(風穴)을 설치하였다. 측면과 배면은 모두 트여있다. 측면의 벽체부분에는 X자 형태로 가새를 설치하였다.

■ 보통의 삼문일 경우 중앙문은 사자가 출입하는 문이라 하여 생자인 사람은 출입을 금하고 우측칸 문을 사용하여 출입하여, 동입서출이 가능도록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는 중앙과 우측칸에만 소대석을 갖춘 석계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좌측벽체에 계단을 설치한 흔적 및 고사지의 설치모습, 판문을 3개 설치한 점을 미루어 보아 중정당과 같이 한 계단이 좌측칸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사당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중정당 출입문인 환주문 전면의 석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석조난간 조각과 석조물 조각(연꽃, 거북이 등)들이 나타나며 만자문양, 연꽃, 거북이 등의 형태가 있다. 또한 내삼문은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지만, 단청을 하여 신문의 격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리된 계단은 각 단의 디딤판의 이탈 및 보수물질의 탈락 등이 있음 	

162) 내삼문은 살아있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제사(祭祀)를 올리는 제공간 내로 사자死者가 출입하는 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신문이라고 한다.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좌측 계단이 보이지만, 현재에는 계단 없이 기단으로 정리되어 있음.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윤 상태가 지속되어 지의류 및 잡초가 번성하며, 보수물질의 이질감 등이 있음. ◦ 습기로 인한 침식 진행 중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당 마당에 잔디를 식재하여 습기가 항상 보존되어 건축물에 악영향을 미침 	

(2) 시설물

■ 사당 내 시설물은 마당 좌우측에 세운 가로등과 소화전을 들 수 있다. 소화전의 경우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으로 배치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가로등의 경우 노후화가 심하게 되었으며, 사당 중심에서의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당 마당 전면 좌우측에 보안카메라와 가로등이 있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가 있음.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 디자인 개발』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고 있음. 	
		

(3) 수목

① 조경공간

■ 내삼문 주변 평지, 사당 후면 화계, 사당 남서쪽 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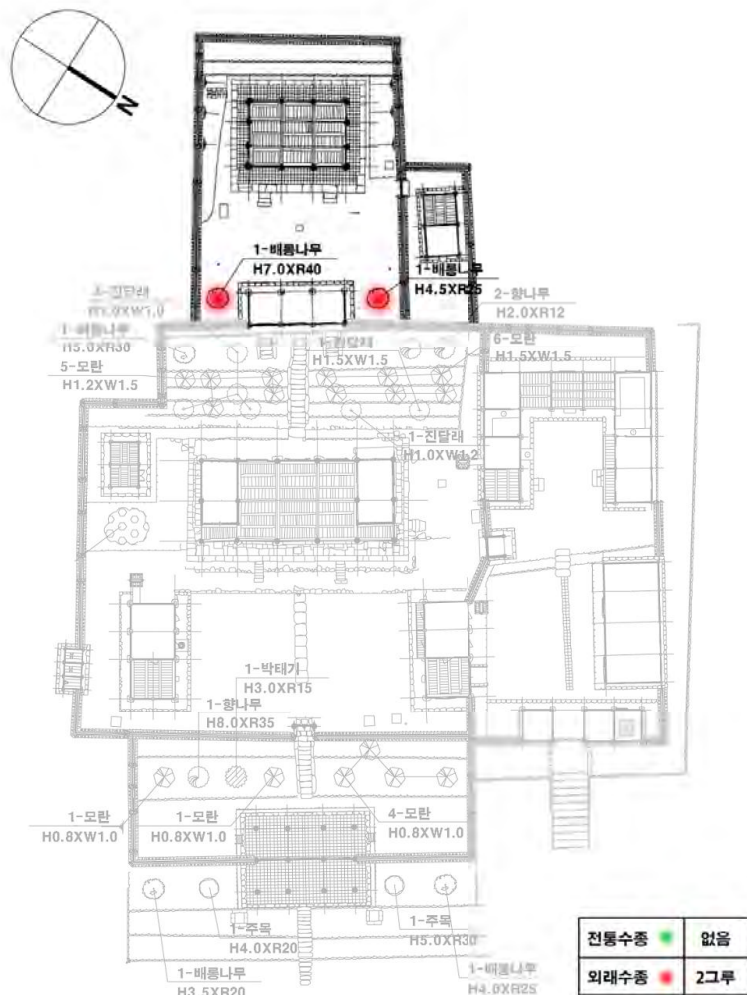
② 조경현황

■ 사당 내 조경이 식재되어 있는 곳은 내삼문 좌우 평지에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사당 건물 뒤쪽 2단의 화계에는 조경이 없다.

■ 내삼문 동쪽의 배롱나무는 서쪽의 배롱나무보다 키가 더 크고 수관이 더 넓다. 모두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이루고 있는 나무로 수령은 약 100~150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벌목 시 환경에

대한 생각 없이 실시하여 주변과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 화계는 사당의 배면과 측면에 있으며, 배면의 1단의 높이는 90cm, 2단의 높이는 50cm, 건물 좌우에는 높이 20cm, 60cm정도 된다.
- 증반소의 주위에는 화계나 화단 같은 시설은 볼 수 없고, 수목도 식재되어 있지 않다.



달성 도동서원 제향공간 수목현황도

2) 강학(장수)공간



강학(장수)공간 위치도



환주문



중정당

■ 강학공간이란, 서생이나 선생이 수신과 강학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서원에서의 역할은 사당과 함께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장수공간이라고도 한다. 장수란, “장(藏)은 마음속에 품는 것을 말함이고, 수(修)는 익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을 품고 익히는 장소라는 뜻이다.

■ 강학공간의 구성은 장수의 중심이 되는 중정당, 동, 서재, 환주문, 담장으로 구성되며 중정당의 중심은 서원의 중심이기도 하다.

강학(장수)공간 건축물 현황표

구분	건립연대	규모	양식
중정당	1605	1층, 정면5칸·측면2칸	이익공, 맞배지붕, 겹처마
거인재	1605	1층, 정면3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거의재	1605	1층, 정면3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장판각	1605	1층, 정면2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환주문	1605	1층, 정면1칸	사모지붕, 홑처마
화장실	1997	1층, 정면3칸·측면1칸	맞배지붕, 홑처마

강학(장수)공간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및 원장의 거주시설로 전망경관이 우수 주위공간과의 연결성 및 전방으로의 열린공간 형성 중정당의 마루 앞부분이 서원의 중심에 해당 												
구성	<table border="1"> <tr> <td>중정당</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칸, 이익공 맞배지붕 중앙 마루와 좌우 온돌방 배치 </td></tr> <tr> <td>동서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재, 거인재로 구성 </td></tr> <tr> <td>환주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각대문으로 공간구획상의 상징적 의미 </td></tr> <tr> <td>담장</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편담장으로 보물 제350호로 지정 </td></tr> <tr> <td>조망경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학(장수)공간은 원장이 서원의 중심에 서서 출입 및 조망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 </td></tr> </table>	중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칸, 이익공 맞배지붕 중앙 마루와 좌우 온돌방 배치 	동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재, 거인재로 구성 	환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각대문으로 공간구획상의 상징적 의미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편담장으로 보물 제350호로 지정 	조망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학(장수)공간은 원장이 서원의 중심에 서서 출입 및 조망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 		
중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칸, 이익공 맞배지붕 중앙 마루와 좌우 온돌방 배치 												
동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재, 거인재로 구성 												
환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각대문으로 공간구획상의 상징적 의미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편담장으로 보물 제350호로 지정 												
조망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학(장수)공간은 원장이 서원의 중심에 서서 출입 및 조망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 												
문제점	<table border="1"> <tr> <td>중정당</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물질로 인한 부조화 현상 부재 파손 및 바닥 석재 훼손 가능성 정면 기단 중앙부 배부름 현상 </td></tr> <tr> <td>동서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변형 </td></tr> <tr> <td>환주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변형 </td></tr> <tr> <td>담장</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기와의 훼손으로 담벽 오염 </td></tr> <tr> <td>마당</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배출시설 미흡으로 인한 담장 훼손 </td></tr> <tr> <td>조망경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주문 옆 가로등시설로 경관저해 환주문 앞 화계시설의 향나무, 외부 앞마당의 느티나무의 성장으로 인하여 경관 저해 </td></tr> </table>	중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물질로 인한 부조화 현상 부재 파손 및 바닥 석재 훼손 가능성 정면 기단 중앙부 배부름 현상 	동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변형 	환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변형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기와의 훼손으로 담벽 오염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배출시설 미흡으로 인한 담장 훼손 	조망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주문 옆 가로등시설로 경관저해 환주문 앞 화계시설의 향나무, 외부 앞마당의 느티나무의 성장으로 인하여 경관 저해
중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물질로 인한 부조화 현상 부재 파손 및 바닥 석재 훼손 가능성 정면 기단 중앙부 배부름 현상 												
동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변형 												
환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변형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기와의 훼손으로 담벽 오염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배출시설 미흡으로 인한 담장 훼손 												
조망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주문 옆 가로등시설로 경관저해 환주문 앞 화계시설의 향나무, 외부 앞마당의 느티나무의 성장으로 인하여 경관 저해 												

강학(장수)공간의 수목현황

구분		수종	수량
낙엽	교목	배롱나무	1
		목단	11
	관목	진달래	6
		장미	2
상록	교목	향나무	2
합계			22

(1) 건축물

① 중정당

㉠ 개관



현판



중정당 기단



중정당 배면



기단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전경

■ 달성 도동서원 강당인 중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이익공의 맞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정당의 기단은 지대석과 면석, 그리고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석은 정렬되지 않은 돌을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마치 장식품을 보는 듯하며, 갑석의 바로 아랫단 면석 사이에는 여의주와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머리 4개와 다람쥐 모양의 길(吉)함을 나타내는 동물상 등을 조각한 석재를 끼워 장식하였다.

■ 중정당은 사당과 함께 서원의 중추적 기능을 갖는 건물이며, 배치상으로도 달성 도동서원의 중심부를 이루는 가장 돋보이는 위치에 세워져 동·서재와 더불어 그 일곽은 서원의 주기능인 교육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전면이 개방되어 흐트러지기 쉬운 공간이나 뒤쪽에 이 서원에서 가장 큰 건물인 중정당 건물이 막고 서있어 아늑한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 중정당의 배치는 전면에 석축을 쌓아 형성된 장방향 대지위에 세워졌고 좌우에 동재(거인재)와 서재(거의재)를 대칭되게 배치하였다. 중정당 기단 하부로는 자연석 기단이 한단 더 있는데 하부기단 중앙에는 석수가 있고 그 앞으로 판석으로 포장된 길이 앞마당 중앙까지 나있다. 중정당 전면에는 환주문이 서 있고, 중정당은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멀리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 중정당 공간구성은 기단 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워 구성하였다.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앙 3칸은 정면에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우물마루로 처리하여 통칸으로 트인 공간을 이루고 양측 뒷칸은 전면에 반칸 마루를 둔 온돌방으로 구성하고 있



중정당 진입로

으며, 정면 툇마루 하부에 함실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공간은 스승의 기숙공간으로 우측 온돌방 배면에 반침을 설치하여 수장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외 좌·우 온돌방의 측면으로 기단의 구성방법과 동일하게 석재로 가공한 퇴를 쪽마루 형태로 형성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과 기둥, 창호, 대공, 화반 등에 나타나는 소박한 형태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중정당 기둥의 하부에 하얗게 탈색부분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인한 것이며, 중정당의 기둥 상부에는 오현중에 한훤당이 으뜸이라는 상징으로 하얀 문종이가 둘러져 있다. 중정당의 기둥 윗부분에 흰 창호지를 발라 놓은 의미는 '도학지중'이라는 한훤당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종으로서의 수위서원(首位書院)임을 내세운 것으로, 이는 전국 650여 서원중 이 달성 도동서원만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 동재 거인재와 서재 거의재는 유교의 5상을 표현한 현판으로, 돌거북에 그 의미를 싣고 있다. 동은 인(仁), 서는 의(義), 남은 예(禮), 북은 지(智), 중앙은 신(信)을 뜻하고 있으며 기단 아래에는 제법 무서운 모습의 거북이 있으며 배움을 뜻하는 강학공간이던 중정당 마당에서는 뛰어 다니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경계, 또는 스승이 다니는 길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의 형상물이 있어 그것을 알려 주고 있다.

■ 또한 기단의 네 마리 용머리는 서원 앞 낙동강물이 회돌이 쳐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보책으로 물의신(神)인 "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상징을 이용한 화재 예방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곳의 정면 기단부 우측계단에는 위로 오르는 다람쥐가, 좌측 계단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다람쥐가 각각 표현되어 있는데 이유는 서원과 향교, 사당 등 삼문이 설치된 곳에서는 "동입서출"의 기본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



중정당에서 본 수월루






기단부 장식물



중정당에서 본 전경

㉠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단	◦ 배면:상면 강회바름이 들뜸	
	◦ 전면:중앙부 배부름 및 갈라짐	
계단	◦ 시멘트로 보수하여 이질감	
초석	◦ 초석에 자갈 등이 붙어 있어 서원 건립 당시의 것인지 확인 필요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공포	◦ 주두:파손(깨짐)	
천장	◦ 개판 이완 - 이완된 개판 속에 말벌집이 있어 관람 시 해충피해 우려	
기타	◦ 기단석 탈락 우려	
	◦ 좌측 기단 위 새의 분비물이 집중적으로 떨어져 있어 산성화로 인한 부식 우려	

② 동재(거인재)

㉠개관



동재 내부



기단



포작



기단 및 초석



동재(거인재) 정면

■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평면은 좌측부터 2칸의 온돌방과 1칸의 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돌방의 전면에는 쪽마루를 달았다.

■ 평면의 크기를 살펴보면 정면 7,330mm, 측면 3,450mm이며, 정면부 각 칸의 크기는 좌측에서부터 2,130mm, 2,160mm, 3,040mm으로 마루칸의 크기가 온돌방 각 칸의 크기보다 크게 나타났다.

■ 기단은 전면과 좌·우측면으로 경사에 따라 낮은 외별대에서 이별대의 자연석 기단을 설치하였으며, 배면은 관리사 공간의 낮은 대지선에서 정면 높이와 편평하도록 높은 자연석 기단을 설치하여 석축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담장이 동재 배면측과 나란히 맞닿아 이어지고 있어 배면의 벽체가 담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기단의 내밀기는 정면 1,200mm, 배면 1,400mm, 좌측면 1,000mm, 우측면 1,100mm으로 배면이 정면보다 넓으며, 우측면이 좌측면보다 넓다.

■ 관리사 공간을 통해 동재의 배면 대청의 하부 공간을 활용한 아궁이 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좌측배면에 굴뚝을 설치하였다.

■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정면 우측 2개의 원기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의 크기는 각기둥 230×230mm, 원기둥 Ø270이다. 건물 구조는 기둥위에 대들보를 건너지른 다음 양쪽에 각각 주심도리를 올리고 중앙에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는 삼량가 가구이다. 상부가구 부재의 크기는 대들보 240×330mm, 창방 90×210mm, 도리 Ø270, 장여 90×180mm이다.

■ 대청마루에 사용된 기둥의 길이가 온돌방에 각기둥의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는데 각기둥 상부는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보아지를 끼우고



대들보가 기둥에 바로 결구되어 장여와 도리를 받고 있으며, 원기둥 상부는 기둥과 기둥머리에 창방을 건너지른 다음 기둥상부는 주두가 놓여 보아지를 받고 있으며, 창방 상부는 소로를 놓고 장여와 도리를 얹어 높이를 맞춘 초익공 구조이다. 익공을 돌출하지 않고 익공 살미는 보머리에 맞추어 직절하였고, 보아지 내부는 한번 단을 주어 직절하였다.

■ 각 도리열의 정면과 배면으로 연목을 겹고 맞배지붕을 구성하였으며, 지붕의 측면은 풍판 없이 박공만 설치하였다. 정면열의 연목을 살펴 보면 교체된 부재와 교체되기 전의 연목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교체되지 않은 연목부재의 경우 소매견이가 나타나며, 소매견이의 방향이 틀어져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된다.

■ 온돌방의 정면과 배면에는 각 칸마다 외여닫이 세살문이 달려있으며, 온돌방과 마루 사이에는 궁판이 있는 외여닫이 세살문을 설치하였다. 마루의 정면은 창호가 없으며, 측면과 배면은 쌍미닫이 판문을 설치하였다. 창호의 이음과 목재 등을 새로 교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의 벽체는 판벽이며, 나머지 벽체는 외벽은 다음 재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마루의 측면 배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고막이벽을 설치하였다. 마루를 오르는 기단상부에 댕돌을 놓았다.

■ 원기둥 상부에 설치된 창방부재 하부에는 세로부재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있으며, 정면 좌측 도리뿔목부재의 상부에서도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또 초석의 경우 정면 온돌방 하부의 초석 석재가 겹쳐져 놓여 있는 점과, 높이 등을 살펴본다 정면기단의 높이 변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㉞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 사진
기단	◦ 기단 상면 시멘트 마감	
창방/ 평방	◦ 창방 및 뿔목 부식	

위치	조사결과	현황 사진
창호/ 문	◦ 마루 판문 신재 사용(이질감)	
공포	◦ 주두 및 상부 가구 파손	
도리	◦ 도리와 장혀 변형(뒤틀림)	
천장	◦ 마루 천장 말벌집 있어 해충 피해 우려	
기타	◦ 서까래 사이 양토 박락	

③ 서재(거의재)

㉠개관



서재(거의재) 정면

■ 서재는 동재와 대칭으로 마주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평면은 좌측부터 1칸의 마루방과 2칸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평면의 크기를 살펴보면 정면 7,320mm, 측면 3,410mm이며, 정면부 각 칸의 크기는 좌측에서부터 3,050mm, 2,140mm, 2,130mm으로 마루칸의 크기가 온돌방 각 칸의 크기보다 크다.

■ 서재의 기단은 전면과 좌·우측면으로 경사에 따라 좌측면부터 이별대에서 외별대로 이어지는 기단을 설치하였으며, 중정당과 같이 면을 바르게 가공한 돌과 자연석을 함께 허튼층으로 쌓았다. 기단의 내밀기는 정면 1,200mm, 배면 900mm, 좌측면 1,000mm, 우측면 900mm으로 정면이 배면보다 넓으며, 좌측면이 우측면보다 넓다. 온돌방의 전면에 아궁이를 설치하였고, 우측면에 굴뚝을 설치하였다.

■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모두 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230×230mm이며, 구조는 기둥위에 대들보를 건너지른 다음 양쪽에 각각 주심도리를 올리고 중앙에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는 삼량가 가구로 동재와 동일하다. 단 서재의 경우는 좌측면 벽체의 중앙에 보조 기둥을 설치하였으며, 상부 보아지를 받고 있다. 상부가구 부재의 크기는 대들보 300×330mm, 창방 90×210mm, 도리 Ø270, 장여 90×180mm이다.

■ 각 도리열의 정면과 배면으로 연목을 걸고 맞배지붕을 구성하였으며, 지붕의 측면은 풍판없이 박공만 설치하였다. 정면열의 연목을 살펴보면 교체된 부재와 교체되기 전의 연목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교체되지 않은 연목부재의 경우 소매견이가 나타나며, 소매견이의 방향이 틀어져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된다. 온돌방의 정면에는 각 칸마다



기단 및 초석



서재 내부

외여단이 세살문이 달려있으며, 온돌방과 마루 사이에는 궁판이 있는 외여단이 세살문을 설치하였다. 동재와 달리 서재는 배면부에 창호가 없으며, 창호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벽체는 외벽은 다음 재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좌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고막이벽을 설치하였다. 마루의 바닥은 가로로 크기 195×150mm의 귀틀을 설치하고 가로로 두께 120mm의 청판을 깔았다. 서재 좌측면 고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마루하부부재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마루 전면부에 120mm정도의 일정한 두께의 청판과 달리 마루 배면부 귀틀과 일부 청판의 경우 귀틀에 걸리는 부분을 치목하고 중간부분은 치목하지 않고 두껍게 남겨둔 형태의 부재들이 있었으며, 이는 마루 설치의 고식방법으로 수리 시일부만 교체하고 기존의 부재들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재와 비교하였을 때 마루좌측의 재사벽과 배면의 재사벽 부분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배면의 경우 상인방에 연귀 맞춤이 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좌우의 간격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재와 비슷한 형태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면서 변형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㉞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단	◦ 아궁이 및 기단 시멘트 마감	
초석	◦ 초석 위 흙 덮힘	
벽체	◦ 하방벽 회벽 탈락 (옛 사진과 비교 확인 필요)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연목/ 부연	◦ 배면 서까래 부식	
담장	◦ 담장 기와 와구토 탈락	
기타	◦ 아궁이 위 그으름 및 양토 회바름 탈락	
	◦ 서재 뒤편 석재가 무분별하게 방치	
	◦ 서까래 사이 양토 탈락 및 회벽 처짐 (붕괴 우려, 습기원인)	

④ 환주문

㉠ 개관



환주문 달동자



절병통





환주문 정면

■ 환주문은 수월루를 지나 강학공간으로 진입하는 문으로 강학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에 중정당과 수월루와 함께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환주문은 공간 구성상 큰 의미를 가지며, 앞쪽의 수월루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진입 및 여유 공간과 배면의 중정당과 동·서재로 구성되는 강학 및 생활공간을 구별하는 공간 구획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 환주문은 높은 석축을 기반으로 화강석 둥근 주좌를 초각하여 주초로 삼고 그 위에 좌·우 하나씩의 원기둥을 설치하였으며, 그 옆으로 두껍고 넓은 용지판을 세워 기둥을 보좌하였다. 기둥은 상부에서 하부로 직경이 넓어지는 민흘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직경 $\varnothing 330$ 정도이며, 기둥 옆에 설치된 용지판의 두께는 85mm정도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창방을 건너지르고 이 창방과 직교하여 기둥머리에 창방을 다시 걸어 기둥열에서 앞뒤로 각각 600mm간격을 내밀어 뜯창방과 결구되어 있다. 뜯창방과 직교된 창방위에 소로를 놓고 기둥상부에는 주두를, 창방이 직교되는 것에는 주두형 부재를 놓아 주두와 주두 사이에는 원형의 보를 걸었고 뜯 창방위에는 장여와 납고리를 엮었다. 뜯창방이 결구된 주두형 부재 하부에는 마구리에 연꽃모양을 초각한 원통형 달동자를 거꾸로 끼워 놓았으며 주두와 주두 사이에 걸려있는 보의 상부에는 상부 부재를 받기위한 목재를 하나 더 설치하였다. 그 위에 추녀와 서까래를 걸어 지붕을 형성하였으며, 사모지붕의 상부 기와마루가 모이는 곳에는 향아리로 절병통을 제작하여 올렸으며, 기와 끝은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지붕에 사용된 기와의 크기는 소와로 2.5겹 잇기를 하였으며 추녀마루는

당골막이 위 적새 3단을 올렸다. 환주문은 작은 일각문이지만 사모지붕으로 옥개부를 강조하였고,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의장한 기품이 있다.

㉠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침하로 인한 담장 균열 (보물 제350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대 시멘트 몰탈 제거 및 보수 필요, 축대 밀림 ◦ 잡풀 제거 등의 상시 관리 필요 	

⑤ 장판각

㉡ 개관

■ 판각은 중정당의 좌측 배면쪽 한단 낮은 대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 경현록 판각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 장판각은 낮은 자연석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각기등을 세워 형성하였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 구조는 기둥위에 보아지와 보를 차례로 놓고 그 위에 장여와 도리와 결구하였으며, 보 위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 장여와 종도리 설치한 3량 건물이다.

■ 내부는 통칸으로 하고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장판각의 출입을 위해 정면의 좌측칸에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하고 정면우측칸 벽체는 판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좌·우측면과 배면은 재사벽을 설치하였다. 좌·우측면과 배면은 하부에는 고막이를 쌓고 정면의 하부에는 고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정면 판벽의 상부에는 장여와 상인방

사이 일부를 트여 환기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측면 벽에는 상·하인방 사이에 중인방 없이 X자형으로 가새를 대었고, 배면에는 중방을 두고 가새로 보강하였으며, 판벽이 있는 전면을 제외하고는 주선이 없다.

■ 전체적으로 작은 건물로 사용된 부재도 작은 규격으로 사용하였다. 측면의 지붕부에는 박공판을 걸고 풍판을 설치하였다.



장판각 기단



장판각 초석



장판각

㉠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면 강회바름 파손 	
벽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방벽 탈락 ◦ 장판각의 특성상 습기조절과 통풍이 중요하나, 정면을 제외하고 하방벽을 벽체로 만들 	

(2) 시설물

- 강학공간의 시설물은 중정당으로 들어가는 판석으로 된 진입로와 소화전, 주변의 배수로를 들 수 있다.
- 진입로의 판석은 정연하게 놓여있지 않지만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두면 될 것으로 보이나, 배수로의 경우 무분별하게 초본류가 자라고 있다. 초본류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건축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 소화전의 경우 주요 경관에서 벗어나 있으나, 디자인 및 재질이 서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소화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전의 디자인 및 재질이 서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배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당 앞 마당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으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길이 생기고, 잔디 및 토사 유실로 재보수가 필요한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당 우측 마당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이끼류 서식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배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당 배면 배수로에 잡초가 자라고 토사가 쌓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함 - 물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판각 배수로 내 잡초 생육 ◦ 잡초 및 토사 제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구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 담장 하부 토사 유실 	

(3) 조망경관

■ 달성 도동서원의 조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신청을 할 만큼 경관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 경관면에서는 서원들 중 최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은 전저후고의 지형조건을 활용한 전면의 개방된 시계 확보에서 비롯하며, 전면의 담장을 낮게 하여 전면으로 개방 강조도록 계획 된 점이 특이하다.

- 하지만 전면에 어울리지 않는 가로등 시설로 인한 경관저해와 수월루 옆 주목 2그루, 환주문 앞 화계 향나무 1그루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 전면 담장 높이 : 1.2m, 좌우측면 담장 높이 : 1.7m



경관조망 저해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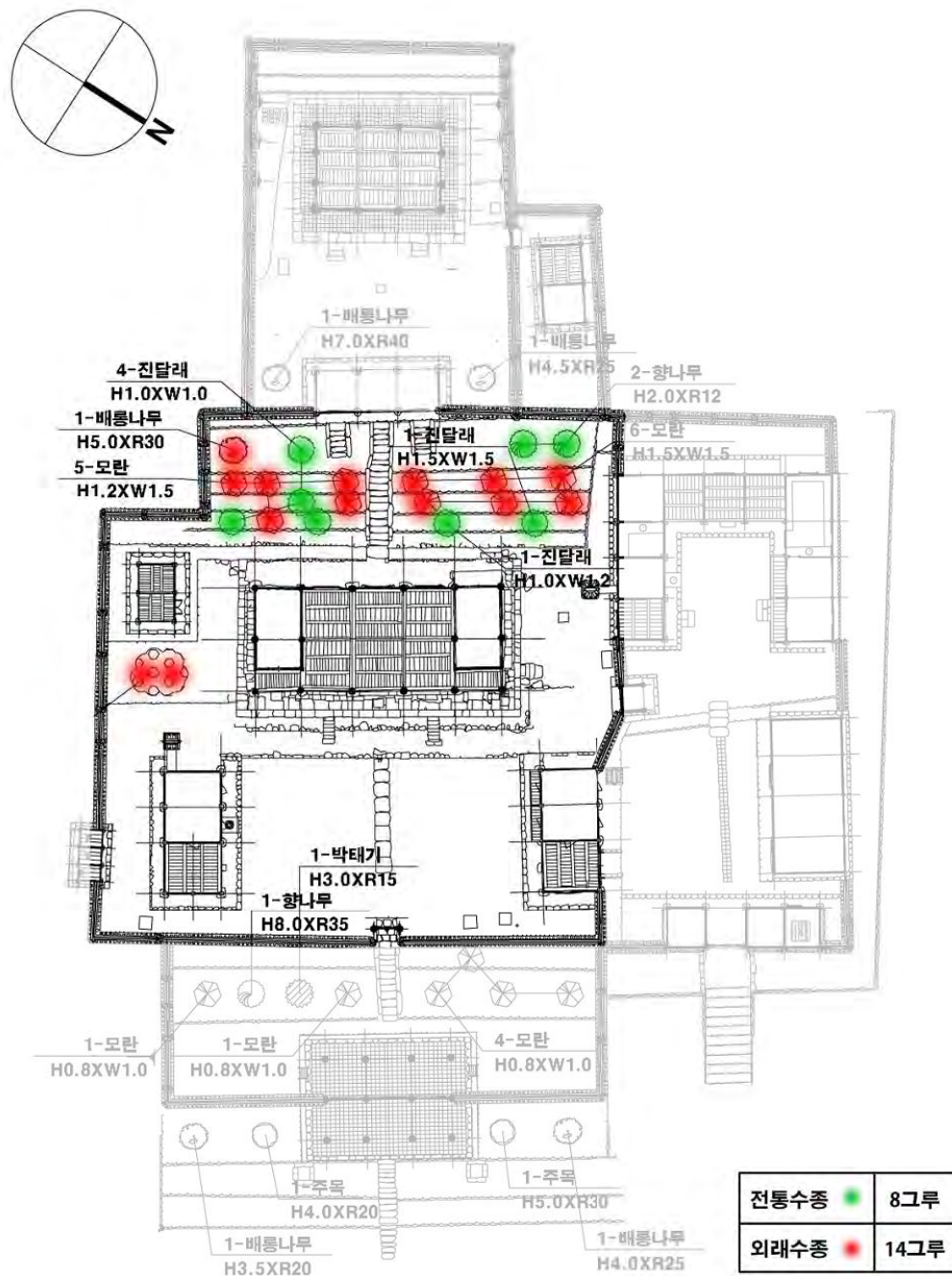
(4) 수목

① 조경범위

- 동남쪽 장판각 주변, 동재·서재·사주문 주변 마당, 내삼문 전면 화계

② 조경현황

- 환주문으로 들어서면 강학(장수)공간이 나타나며, 그 중앙에 중정당(강당)이 위치하고, 그 전방에 동·서재, 중정당 동남쪽에 장판각이 있다. 중정당 후면에는 중앙에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좌우에 4단의 화계에 수목이 자라고 있다.
- 강당 동남쪽 장판각의 돌기단 위에 장미 2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최근에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재 장소도 적정하지 않으며, 생육 상태가 좋지 못하다.
- 강당과 내삼문 사이의 4단의 화계 중 첫째 단의 왼쪽에는 진달래 2그루, 목단 1그루가 심겨져 있으며, 오른쪽에는 진달래 2그루, 목단 1그루가 심겨져 있다. 둘째 단 왼쪽 화계에는 진달래 1그루, 목단 1그루가 심겨져 있으며, 오른쪽에는 목단 3그루가 심겨져 있다. 셋째 단 왼쪽 화계에는 목단 3그루가 심겨져 있으며, 오른쪽 화계에는 목단 3그루가 심겨져 있다. 넷째 단 왼쪽 화계에는 향나무와 배롱나무가 각각 1주씩 심어져 있다. 오른쪽 화계에는 향나무 1그루와 진달래 1그루가 심겨져 있다.



달성 도동서원 강학(장수)공간 수목현황도

3) 유식공간



유식공간 위치도

■ 유식공간이란, 강학공간인 장수의 공간에 대비하는 말로 “식(息)은 열심히 하다가 멈춰서 휴식하는 것을 말함이고, 유(遊)는 한가하게 일삼는 바 없이 노니는 것을 말한 것이다.”이란 말이 있듯이 강학에서 심신이 피로한 것을 달래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 공간구성은 조망경관이 좋은 수월루와 화계시설 등이 있다.

■ 수월루의 경우 소실된 건축물을 1973년 신축한 것으로 수월루에서의 조망경관은 우수하다 할 수 있으나, 중정당에서의 조망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수월루에서 보는 조망경관에서는 서원 재건 시 한강선생이 심어놓은 은행나무가 달성 도동서원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망경관에서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식공간 건축물 현황표

구분	건립연대	규모	양식
수월루	1973	1층, 정면3칸·측면2칸	팔작지붕, 겹처마

유식공간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공간과 달리 모든 방향에서의 전망이 좋음 주위공간과의 조화 및 사방 조망점 형성 	
구성	수월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칸, 중층 누각형식의 합각지붕 아래층은 문 사용, 위층은 정자 사용
	화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석시설의 화계
문제점	수월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단상부 파손 계단 위치선정 미흡 부재(기둥) 터짐
	화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목의 성장으로 수월루에 구조적인 문제 야기 수목의 관리상태 불량
	조망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시설로 경관저해 느티나무 등 성장속도가 빠른 수목을 인한 조망저해



수월루 진입공간



수월루 조망경관

유식공간의 수목현황

구분		수종	수량	비고
낙엽	교목	배롱나무	2	
		박태기나무	1	
	관목	목단	6	
상록	교목	향나무	1	
	관목	주목	2	
합계			12	

(1) 건축물

① 수월루

㉠ 개관



수월루 정면

■ 서원의 정문인 수월루(水月樓)는 이곳에 서원이 들어설 때는 없었던 건물이나, 서원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누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855년 창건되었으며, 지은 지 얼마 안 된 1888년(고종 25) 화재로 소실되어 오랫동안 터만 남았다가 1973년 복원되었다. 누각 아래가 출입문이지만, 닫혀 있을 때는 관리사로 쓰이는 전사청(典祠廳)을 통해 드나들어야 한다.

■ 수월루는 지붕 형태도 달성 도동서원 내에서는 유일한 팔작지붕으로 처마 끝을 마음껏 치켜 올려 멋을 내었으며, 계자난간을 사용했다. 생자가 사용하는 공간의 건물을 모두 백골집이며, 오직 사자를 위한 제사 공간내의 사당과 신문만을 단청으로 치장한데 비해 수월루는 생자를 위한 건축이면서도 화려하게 단청으로 치장하였다.

■ 수월루의 구조는 중층의 누각 건물로 하층은 서원의 대문으로 외삼문을 설치하였고 좌우로는 담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층은 정자로서 서원의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수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중층건물로 사당, 중정당, 환주문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에서 가장 전면에 있어 서원으로 진입하는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측면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서원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자연석기단을 설치하고 기단 상부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상부의 직경이 하부보다 작은 원형의 화강석 초석을 놓고 원기둥을 설치하였다. 기단 내밀기는 모든 면이 1,200mm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바닥 전돌의 크기는 240×240mm, 기둥의 직경은 하부기둥 300mm, 상부기둥 270mm으로 하부기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수월루 중건기



수월루 난간



수월루 배수로

■ 하층기둥의 상부는 창방을 설치하여 연결하였고, 창방 뿔목은 초각이 되어있어 상부 우물마루 귀틀의 보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층 바닥은 모두 우물마루로 되어 있는데 우물마루 귀틀은 기둥 밖으로 빼내어 귀틀 뿔목 마구리에 치마널을 달아 계자난간을 설치하였으며, 배면칸 좌우에 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목계단을 설치하였다. 마루 부재의 크기는 장귀틀 240×150mm, 동귀틀 240×150mm이며, 청판의 두께는 45mm이며, 계단 부재 크기는 부재옆판 60×300mm, 계단디딤판 40×250mm이다. 우물마루 귀틀위에 상층의 기둥을 세웠고, 기둥 상부에는 창방을 설치하였다. 각 기둥 상부에 공포를 설치하였는데 공포는 중정당과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귓기둥 상부에는 귀공포는 없었고 공포와 공포 사이에는 화반 설치하였다. 전면 기둥과 배면기둥 사이에 대들보를 걸어 장여와 결구하고 상부에 주심도리를 받았으며, 대들보 상부를 삼분변작한 위치에 각 동자주를 놓고 중보와 중도리를 받았으며, 중보상부 중앙에 화반을 설치하여 중도리를 받고있다. 수월루 좌우측 상부에는 팔작지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 대들보의 상부 중앙에서 좌·우측 중앙기둥상부에 걸리는 충량을 설치하고 상부에 외기 형성하고 눈썹천장을 설치하였다. 상부 가구 부재의 크기는 창방 165×240mm, 대량 300×390mm, 중량 230×420mm, 종량 240×350mm, 도리(주심도리, 출목도리, 중도리, 종도리) 직경 240mm, 장여 90×130~150mm, 동자주 230×230mm, 동자주두 300×300×120mm이며, 파련대공 높이90mm, 폭 670mm이다.

■ 수월루 팔작지붕의 기와는 한식기와 중와를 사용하여 2.5겹 잇기를 하였으며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적새 7단, 내림마루, 추녀마루는 착고 위 적새 2단을 쌓았다.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8년 화재로 소실 ◦ 외삼문으로 있던 것을 1973년 외삼문을 철거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준공 ◦ 현재는 기존초석을 참고로 하여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결정하고, 공포부분의 격식은 기존의 건축물을 참고하여 결정 ◦ 달성 도동서원에서 유일하게 팔작지붕 사용 ◦ 단청으로 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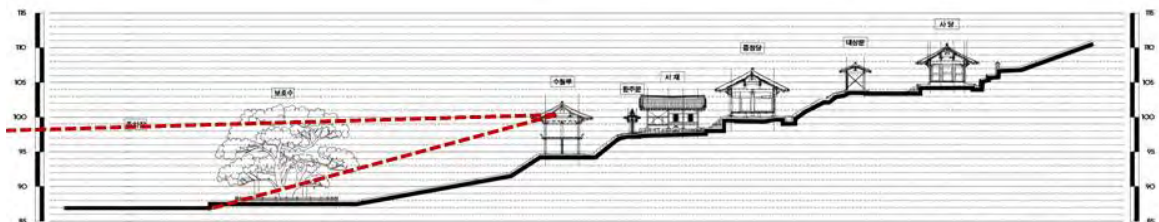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단 상면의 파손이 심각함 ◦ 전돌 및 모서리 파손 ◦ 붕괴우려 	
		
기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 파손(갈라짐)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루 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배수로에 걸쳐있어 안정적으로 계단이 지지되지 않음 ◦ 낙상 사고의 위험과 훼손이 우려됨 	

(2) 조망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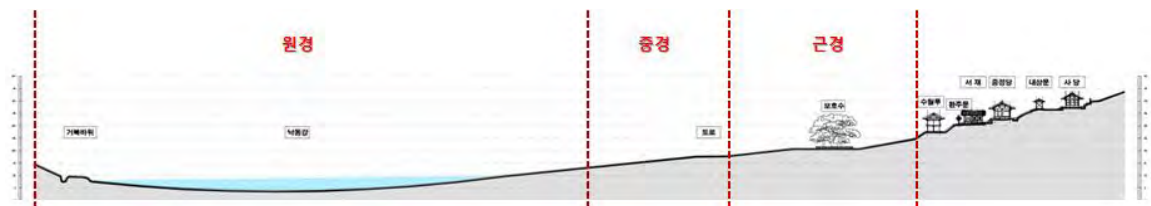
- 철종 8년(1855) 공조판서 이원조의 수월루 상량문에서 중정당 앞에 담장을 둘러 중정당과 동·서재, 중정을 강학(장수)공간으로 구성하고, 환주문 밖에 높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유식공간을 필요하여 수월루를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또한 수월루 상량문은 유식의 공간으로서 수월루 위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

(중략) 층층 난간 깊은 누각은 좌향이 단정하며, 넓은 들과 모래밭은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네. 만 겹의 구름봉우리에 큰 비(碑)는 갱장(羹牆)을 뵈는 듯하고, 한 굽이 맑은 강은 참 근원이 바로 이천(伊川), 낙수(洛水)에 하였네. 전일의 제도보다 사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우리 유림에 무게를 더하려는 것일세. 허공의 누대에 풍정(風霆)을 타니 요부(堯夫)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작은 배에 자욱한 달빛 장식하니 무이(武夷)의 도가(道歌)를 잇는 듯하네 (중략)

- 현재 수월루에서의 조망경관은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경의 경우 주차장이 서원 전면에 설치되어 있어 근경을 훼손하고 있다.



수월루에서의 조망경관



달성 도동서원의 조망경관 범위



수월루에서 바라본 조망경관

(3) 시설물

- 유식공간의 시설물로는 배수로, 분전함, 계단 등이 있으며, 배수로의 경우 수풀이 많이 무성하여 배수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분전함의 경우 시공업자 등이 설치 시 편의상 목재에 바로 붙여 설치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배수로	◦ 수월루 우측 배수로 내 잡초 생육	
분전함	◦ 분전함이 수월루 기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음	

(4)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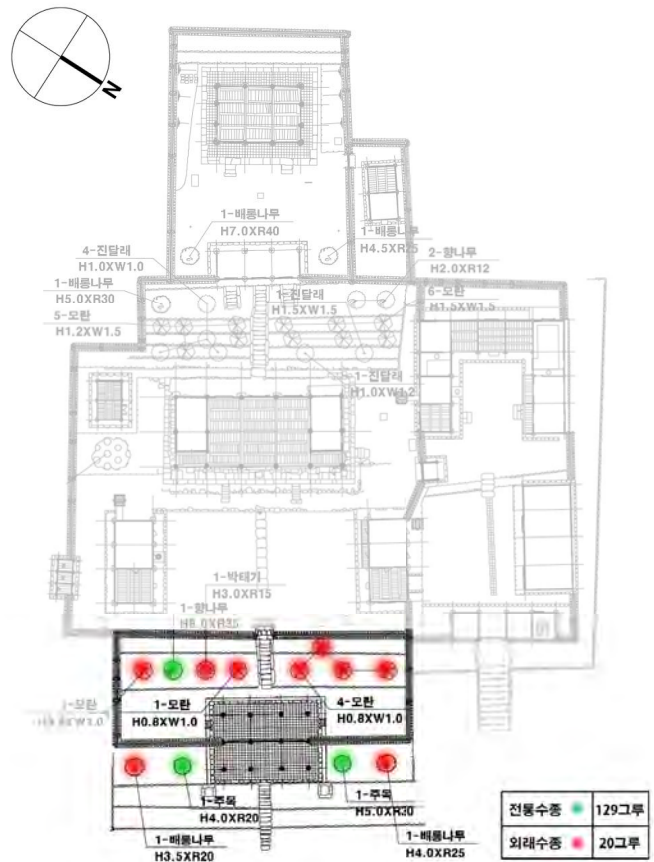
① 조경공간

- 수월루 전면 화계, 환주문 좌우 담장 및 전면 화계

②조경현황

- 달성 도동서원의 정문 및 진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문루인 수월루를 들어서면 전면 중앙에 돌계단이 나타나고 돌계단을 오르면 강당의 마당에 들어서는데 환주문이 있으며, 돌계단의 좌우에 2단의 화계가 조성되어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 수월루 담장의 전면 축대에도 수월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주목나무가 각각 1그루씩 식재되어 있는데, 수월루 추녀에 근접해 있어서 향후 경관을 저해하고 건축물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 옆으로 배롱나무가 각각 1그루씩 식재되어 있다.
- 수월루에서 환주문 사이에 조성된 2단의 화계는 첫 째단 왼쪽에는 목단 2그루, 향나무 1그루와 박태기나무 1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목단 4그루가 있다. 둘째 단에는 계단 좌우에 목단 1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과거에 왼쪽에는 목련이 있었으나 고사하여 별채하였다.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수월루 옆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루와 중정당에서의 전망경관을 저해 ◦ 주목이 계속 성장할 경우 수월루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현재 수월루의 지붕과 나뭇가지가 맞닿음 	
		



달성 도동서원 유식공간 수목현황도

4) 관리공간



관리공간 위치도

- 관리공간은 서원의 관리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전사청, 곡간채, 문간채, 사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리공간으로의 출입은 서원의 바깥에서 서원의 공간과 구분되어 오른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재 뒤편으로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 2개의 출입시설이 있다. 외부에서의 출입시 관람객들이 서원의 구성을 알 수 없어 관리공간으로의 출입 많은 편이다.
- 건축물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동재 뒤편의 출입시설이 있는 장소에 동재의 아궁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장작 등이 무분별하게 놓여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곡간채는 내부에 통칸으로 사용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데 맞벽 등이 탈락되어 있으며, 문간채는 동물의 사육으로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리공간 건축물 현황표

구분	건립연대	규모	양식
전사청	1605	1층, 정면 5칸·측면 4칸	우진각+맞배지붕, 홑처마
문간채	1605	1층, 정면 4칸·측면 1칸	맞배지붕, 홑처마
곡간채	1605	1층, 정면 4칸·측면 1칸	맞배지붕, 홑처마
사주문	1605	1층, 정면 1칸	맞배지붕, 홑처마

관리공간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관리인이 거주하는 공간
구성	전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자형의 건물
	곡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 마루, 좌우 방으로 구성
	문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홑처마 맞배로 내부는 통칸사용
	사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 4칸으로 문과 창고 사용
문제점	강학(장수)공간과 관리공간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
	전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시설이 기둥, 바닥에 방치되어 화재 위험
	곡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내부 맞벽탈락(산자위기 노출)
	문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뒤편 담장 파손 외부 회벽 탈락
	사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측칸을 변형하여 개사육 좌측칸에 잡자재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인 정리 필요

관리공간의 수목현황

구분	수종	수량	비고
수목 식재 없음			

(1) 건축물

① 전사청

㉠ 개관






전사청 정면

- 전사청은 강학공단의 우측에 위치하여 현재의 관리소로 쓰이고 있다. 건물의 평면 구성으로 보아 본래 향사 때 참례객의 집회와 음식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식당으로 사용해오던 건물로 보인다.
- 전사청은 ㄷ자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4칸의 홀처마 맞배집이다. 본체의 중앙 3칸은 전면이 트인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 칸은 전면으로 이어져 익사를 형성하고 있다. 우익사는 배면부터 2칸의 부엌, 2칸의 운동방으로 구성되며, 좌익사는 배면부터 1칸 온돌방, 1칸 부엌, 1칸 온돌방, 1칸 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발간된 달성 도동서원 실측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전사청 평면도를 살펴보면 좌익사 부엌의 전면 창호는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시멘트로 형성된 기단이 현재의 자연석 기단으로 정비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 기단은 자연석 기단을 경사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사각기둥을 놓았다. 기둥의 크기는 150~210×150~210mm로 약간의 크기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물의 구조는 기둥 상부에 보아지를 엮고 장혀와 대들보 주심도리를 올리고 대들보 상부 중앙에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고 있는 간결한 구조이다.
- 대청이 있는 본체와 익사부가 만나는 부분의 상부는 층량을 걸어 종도리가 교차되는 하부를 받치고 있으며, 종도리가 교차되는 부분의 상부에 추녀를 걸고, 안쪽으로는 골추녀를 걸었다. 골추녀는 주심도리 상부까지만 걸려있고 외부 회첨부분에는 골추녀 없이 서까래를 맞대어

끊어 놓았고 끝에는 고살을 붙였다. 지붕은 전면에서 보았을 때 익사부 맞배지붕의 박공부분이 보이고 지붕이 꺾이는 부분은 우진각 지붕으로 용마루 높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적새 5단을 쌓았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 3단을 쌓았다. 전사청 온돌방은 청판 3살문을 설치하였으며, 마루의 배면과 부엌에는 판문을 설치하였으며, 대청 배면 벽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세로살을 설치하였으며, 우익사 온돌방 전면에는 쪽마루를 놓았다.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보다 정리가 필요 ◦ 좌측 마루 물품 적재로 인한 경관저해 (관리인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플러그 연장선이 기둥 옆 바닥에 방치(우천 시 화재 우려) 	

② 곡간채¹⁶³⁾

㉠ 개관

■ 곡간채는 관리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로 대문채를 지나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부가 서쪽을 향하고 있다. 곡간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집으로 내부는 통칸으로 간막이 없이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정면부는 자연석으로 된 낮은 기단을 일별대 설치하였으며, 배면은 석축을 기단으로 삼아 상부에 벽체를 세웠으며, 초석은 사용하지 않고 각기둥을 세웠다. 곡간채의 가구를 살펴보면 기둥상부에 보아지와 장여를 걸구하고 대들보와 주심도리를 받았으며, 대들보 상부 중앙에 동자주를 설치하고 장여와 종도리를 받고 있는 간략한 구조이다. 앞뒤로 연목을 걸었으며 종도리 상부에 원형의 종도리 누림목을 사용하였다.





곡간채

■ 정면부 2칸에는 판문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칸에는 판벽을 설치하였으며, 좌·우측 및 배면부는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판벽의 두께는 24mm 정도이며, 판문의 부재 두께는 30mm정도이다. 배면열은 담장과 이어져 담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곡간채의 지붕 좌우 박공을 살펴보면 풍판과 목기연 없이 박공만 설치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적새 5단을 올렸고,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을 올렸다.

■ 곡간채의 경우 현재 기와지붕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나 건물에 사용된 부재의 크기를 보았을 때 지붕의 원해 형태가 초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63)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278~279쪽

㉔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지붕	◦ 내부 서까래 사이 앙토 탈락	
담장	◦ 부동침하로 인한 담장 균열	

③ 문간채¹⁶⁴⁾

㉕ 개관



문간채



■ 문간채는 관리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문으로 배치 평면상 강학(장수)공간 진입문인 환주문과 같은 열상에 위치하고 있다.

164)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284 ~ 286쪽

■ 문간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집이다. —자형 평면을 가지고 있다. 각 칸의 용도를 살펴보면 정면 좌측 한칸은 외양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칸은 대문칸으로 전면기둥에 판문이 설치되어 있다. 세 번째 칸은 디딜방아간이었으나 현재는 전면부를 변형하고 문을 달아 가축(개)을 키우고 있으며, 마지막칸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정면부 문간을 제외한 벽체와 좌우측 벽체는 화방벽과 제사벽을 설치하였으며, 내부의 각 칸의 구획하는 벽체도 제사벽 마감을 하였고 배면은 일부 인방을 제외하고 벽체가 없다.

■ 기단을 살펴보면 건물 주변으로 일부 자연석 기단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구간을 기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덩벙주초 위에 각기둥을 설치하였다. 상부 가구는 기둥 상부에 장여와 보아지, 대들보를 결구하고 도리를 얹고, 대들보 상부 중앙에 동자주를 얹고 장여와 종도리를 받고 있는 간결한 구조이다. 지붕의 전후로 두께 120mm의 연목을 걸쳐 처마부를 형성한 맞배지붕이므로 한식기와를 이용해 2.5겹 잇기 하였으며, 기와끝은 와구토를 발라 마감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적새 5단을 쌓았으며,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을 올렸다.

㉔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좌측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에 외양간으로 판단되나, 현재 창고로 사용(경관저해) ◦ 잡자재가 방치되어 있음 	
우측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딜방아간이었으나, 현재 전면부를 변형하고 문을 달아 가축(개) 사육 	

④ 사주문¹⁶⁵⁾

㉞ 개관



사주문

■ 사주문은 강학공간과 전사청 공간 사이의 담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사청으로 들어가기 위해 설치한 문이다. 사주문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자연석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4개의 각기둥을 정·배면열 도리방향 기둥 상부를 장여와 주심도리를 연결하고 보 방향으로 위로 굽은 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종도리를 얹어 가구를 구성하였다. 종도리를 중심으로 앞뒤로 연목을 걸어 처마부를 형성한 맞배지붕으로 기와 마구리는 와구토를 발라 마감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용마루 적새 5단으로 되어 있으며,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 3단을 올렸다. 측면은 벽체 없이 중방을 설치하였으며, X자 형으로 가세를 대었다.

(2) 시설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좌측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간채 좌측칸과 그 배면으로 딸감, 천막 등의 잡자재가 쌓여있음 ◦ 동재 아궁이가 인접해 있어 화재 우려 	

165)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282 ~ 283쪽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우측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간채 좌측칸 옆에 잡자재를 이용하여 창고로 사용되는 가건물 설치 미관상 매우 흉물스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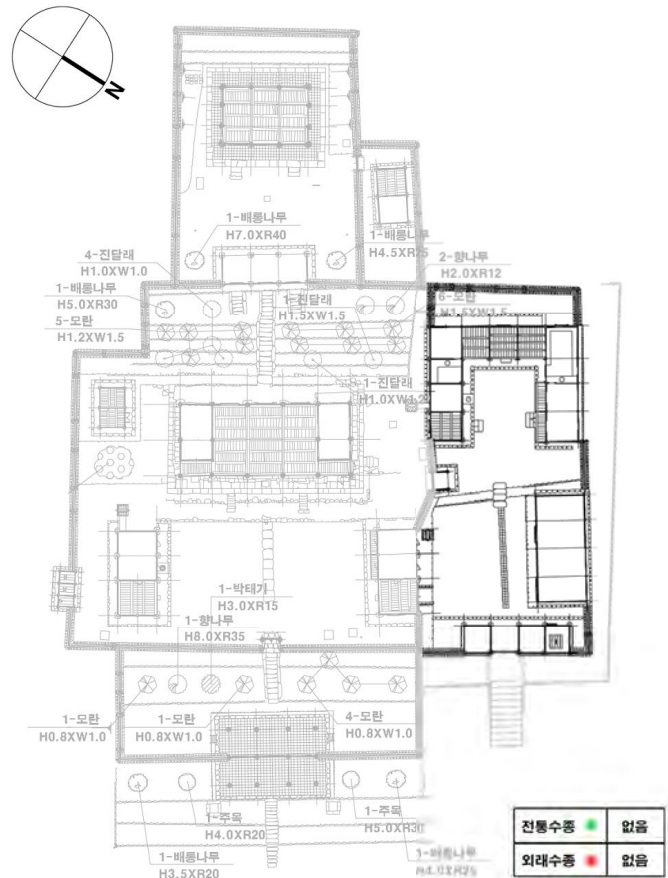
(3) 수목

① 조경공간

■ 전사청 후면 화계

② 조경현황

■ 전사청과 문간채, 곡간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계나 화단이 없다.



달성 도동서원 관리공간 수목현황도

3. 서원 외부 조사



진입영역 위치도

서원 외부 조사는 서원 담장을 기준으로 외부 공간을 진입영역, 배후영역, 마을영역, 정수암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과 구성,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1) 진입영역

■ 진입영역은 서원의 정면에서 주차장을 포함한 시계의 영역으로 서원의 정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진입영역에 구성원은 비각, 은행나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파고다, 화장실 등이 있다.

관리공간 건축물 현황표

구분	건립연대	규모	양식
비각	1976	1층, 정면 1칸·측면 1칸	맞배지붕, 겹처마
유물전시관	2001	1층, 정면 4칸·측면 1.5칸	맞배지붕, 홑처마

진입영역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 서원의 분위기 조성 및 서원내부와 연계된 전망경관을 조성	
구성	비각	• 1×1칸, 맞배지붕 • 내부 비석 입재
	은행나무	• 서원의 랜드마크적인 수목
	기타	• 주차장, 문화해설사의 집, (구)관리실
문제점	비각	• 내부 바닥을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하여 비속과 부조화 • 내부 비석과 외부 모사된 비석의 형태가 틀림
	은행나무	• 은행나무 받침목의 부조화
	진입공간	• 주차장시설로 인한 경관 및 입구시설 부재 • 서원 진입로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관리공간으로 통행로 형성 • 문화해설사의 집, (구)관리실이 중앙에 위치하여 서원경관 저해

진입영역의 수목현황

구분		수종	수량	비고
낙엽	교목	배롱나무	15	
		느티나무	12	
		대추나무	4	
		단풍나무	2	
		은행나무	3	보호수 포함
		매화나무	2	
		모과나무	1	
	관목	회양목	19	
		진달래	2	
상록	교목	소나무	9	동쪽 식재지, 편의시설 주변 식재지 제외
	관목	광나무	80	
합계			149	

(1) 건축물

① 비각¹⁶⁶⁾

㉠개관



이수



비



비각

■ 비각은 서원 외부 진입영역 좌측에 위치하며 개별 담장을 설치하여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다. 문경공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으로 1977년도에 건립되었다. 정면에는 출입을 위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일각문을 설치하였으며, 자연석을 놓아 일별대의 낮은 기단을 조성하였다. 상부의 지름이 하부보다 작은 원형의 화강석 초석 위에 직경 240mm의 원기둥을 놓았다. 기둥과 기둥사이에 창방을 걸고 그 위에 출목이 없는 이익공양식의 공포를 올렸으며, 그 위에 도리 및 대들보를 설치하고 대들보 중앙상부에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는 3량집이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맞배지붕을 올렸으며, 박공부에 풍판을 설치하였다. 정면벽체에는 하부를 널로 막고 상부는 살을 설치한 2짝의 문을 달았으며, 좌·우측면과 측면에는 살창을 설치하였다. 비각 건물 전체에 단청을 하였다.

166) 문화재청,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288쪽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단 상면 시멘트 파손 ◦ 기단석 탈락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문경공비 바닥을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하여 조화롭지 못함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와 및 와구토 파손 ◦ 담장 균열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구)관리실

㉡개관

- 문화관광해설사의 집과 (구)관리실은 서원 외부 진입영역 우측에 위치, 문화관광해설사를 주간에 상시 배치하여 관람객 안내 및 해설을 지원하고 있다. (구)관리실은 현재 관리인이 전사청에 상주하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달성 도동서원을 포함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9개 서원과 국가지정 향교 1개소는 세계유산의 품격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관람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이 수립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과 (구)관리실은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구)관리실

■ 또한 현재 두 건물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서원에서의 조망경관을 해치고, 서원으로의 진입동선에 혼란을 주고 있다.

㉔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이 적용되지 않음 	
조망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루에서의 조망경관 저해 	

(2) 시설물

① 주차장

㉠개관



주차장 전경

- 주차장은 서원 외부 진입영역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방향 길이 약 50m, 단방향 길이 약 20m이다. 주차장의 면적은 약 1,000㎡이며, 차량 수용대수는 승용차 18대, 대형버스 5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 주차장 우측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주기적으로 버스가 주차하며,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대형버스의 주차 빈도가 높은 편이다.
- 현재 주차장이 서원에서 바라볼 때 장축방향을 면하고 있고, 서원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하며, 대형버스(노선버스 포함)의 주차 빈도가 높아 서원의 전명 조망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외부 진입영역 정면에 주차장 및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전면의 전망경관을 훼손 	

② 파고라, 음수대, 버스정류장

㉠개관



주차장 내 버스정류장



파고라, 음수대, 버스정류장 전경

- 파고라, 음수대, 버스정류장은 주차장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파고라는 목부재를 사용하여 육각정자 형태로 만들고 지붕은 한식기와로 마감하였다. 음수대는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지붕은 PC(폴리카보네이트)판넬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버스정류장은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내부에 벤치를 설치하였다.
- 파고라, 음수대, 버스정류장의 디자인 및 재질이 통일되지 않고, 서원 및 진입영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물의 디자인 및 재질이 통일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4) 수목

① 조경공간

■ 서원 진입공간 녹지지역, 서원 담장 밖 및 편의시설 주변공간

② 조경현황

㉠ 달성 도동서원 진입공간 녹지 구역

■ 달성 도동서원 진입공간은 은행나무 보호수, 신도비각, 기념비, 문화관광안내소, 문화재 감시원 사무실, 유물전시관 등이 위치하는 공간으로써 1970~1990년대 조성된 구역이다.

■ 그러나 진입로 동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갈래로 길이 나고 있어서 진입경관 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서원 입구에는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1982년도 지정)가 있는데 한강 정구가 달성 도동서원이 사액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607년에 심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하며, 흉고직경은 약 260cm로 수형이 우람하고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나무 보호 버팀목 설치와 외과수술을 비롯하여 나무 주변에 생육환경을 도와주는 조치와 보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 최근에 수월루 전방의 진입로 좌우의 넓은 축단에 매화나무를 각각 1그루씩 대칭으로 식재해 놓았는데 향후 나무가 거목이 되면 달성 도동서원 전면 경관을 가로막을 수 있다.

㉡ 편의시설 주변 구역

■ 서원 담장 밖 및 편의시설 주변 공간은 주차장, 시내버스 승강장, 음수대, 팔각정, 화장실 등의 2008~2010년도에 새롭게 조성된 시설물과 경관녹지로 구성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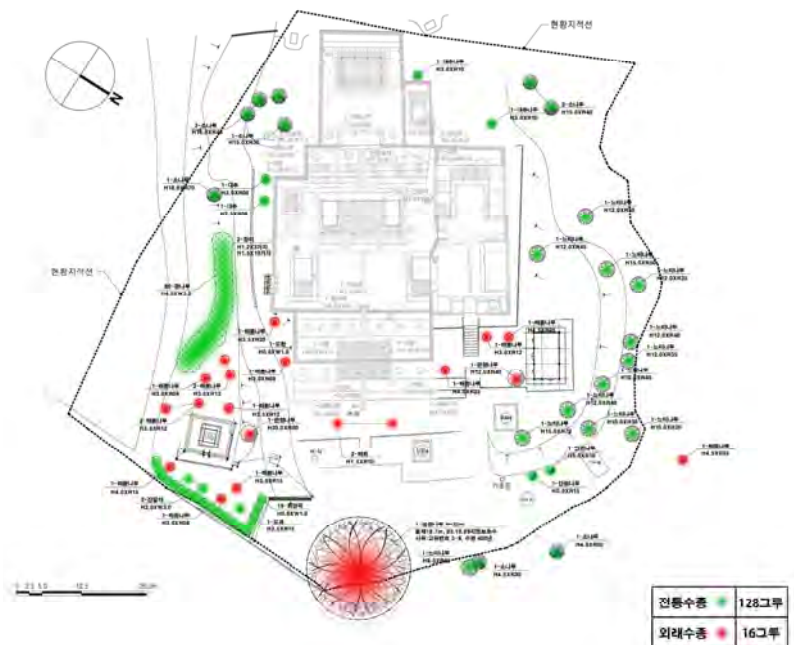
■ 서원 담장 밖 및 편의시설 주변 공간구성은 화장실, 음수대, 팔각정, 주차장, 시내버스 승강장 등의 시설물과 주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시설물 주변에 수목을 심어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심은 공간은 팔각정 주변 식재지와 화장실 주변 식재지가 있다. 팔각정 주변 식재지에는 키 큰 소나무 10그루를 2009년도에 식재하였다. 화장실 주변 식재지에는 9그루의 수목을 2008년도에 식재하였는데, 조형소나무 5그루, 배롱나무 2그루, 은행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이다.

■ 동북쪽에 조성되어 있는 식재공간은 시설물은 없고 수목만 식재되어 있는 경관을 위한 식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곳에는 경관을 위해 키 큰 소나무 21그루가 2곳의 녹지대에 나뉘어 심어져 있는데, 각각 10그루, 11그루씩 모아심기를 하였다.

■ 달성 도동서원 진입부 신도비각, 기념비, 문화관광안내소, 문화재 감시원사무실, 유물전시관 등이 들어서 있는 구역과 서원 전방 동북쪽의 신도비각, 수월루 기단 화계 및 전방 축대, 국역신도비, 안내판, 은행나무 등이 위치하는 구역까지 포함하여 서원 담장 밖 식재지가 하나의 공간을 이룬다.

- 서원 전방 동북쪽의 신도비각은 주변보다 약간 높은 지반 위에 위치한다. 신도비각 주변의 식재현황은 축대 위에 주목 4그루, 측백나무 2그루 등 모두 6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신도비각 축대 전방에는 느티나무 1그루, 배롱나무 4그루, 산철쭉 2그루 등 총 7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식재지 경계부에는 회양목 30그루가 열식되어 있다. 신도비각 축대에서 남서쪽에는 큰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 신도비각 후방이며 서원의 동북쪽 담장 밖 공간은 폭 20m의 언덕인데 계곡부와 만나는 경계지점에 광나무와 개나리의 산울타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 산울타리 경계부 안쪽에서부터 서원 동북쪽 담장 밖까지에는 배롱나무 7그루와 느티나무 1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신도비각 주변에 식재된 수목은 총 52주이며 8종류가 식재되어 있다.
- 달성 도동서원 전방 서북쪽에는 유물전시관, 김광필5백주년추모비, 문화관광안내소, 문화재감시단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 위치한다. 이곳의 지형은 유물전시관과 김광필5백주년추모비가 있는 공간이 언덕 위이고, 문화관광안내소 및 문화재감시단사무실이 위치하는 곳은 언덕 밑으로 그 사이에는 사면이 존재한다. 사면 위 즉 유물전시관과 김광필5백주년추모비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모두 3종류의 배롱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느티나무로 10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배롱나무는 2그루이다. 은행나무는 1그루이며, 문화관광안내소 및 문화재감시단사무실이 위치하는 언덕 밑에는 느티나무 3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 이상 달성 도동서원 외부 구역인 진입부 및 편의시설 주변 구역에는 총 10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개나리와 광나무는 군락으로 심겨져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교목류의 경우 소나무로 36그루, 그 다음이 배롱나무 17그루, 느티나무 16그루, 은행나무 4그루이고, 관목류로는 회양목 30그루, 주목7그루, 산철쭉 2그루이다.



달성 도동서원 외부 진입영역 수목현황도

2) 배후영역



배후영역 위치도



달성 도동서원 배후 산지 흉고직경 30cm 이상 소나무 분포 현황

■ 배후영역은 달성 도동서원의 경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적 요소로서 서원의 뒤편 소나무숲 및 배산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진입영역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 서원의 분위기 조성 및 배후 경관 조성	
구성	배산영역	• 흉고직경 30cm 이상의 소나무가 양호하게 식생
문제점	배산영역	• 어린 소나무와 잡목들이 같이 자라고 있어 어린 소나무의 생육을 방해

달성 도동서원 배후 산지 흉고 30cm 이상 소나무 분포현황표

흉고직경(cm)	수량
65	1
60 ~ 65	-
55 ~ 60	-
50 ~ 55	1
45 ~ 50	7
40 ~ 45	6
35 ~ 40	24
30 ~ 35	20
합계	59

(1) 건축물

① 펌프실



펌프실

■ 서원 배후영역 전사청 뒤편에 최근에 설치된 펌프실을 제외하고 건축물이 없다. 펌프실은 샌드위치판넬로 시공하고 외벽에 나무재질을 덧댄 형식이며, 지붕은 한식기와 형태의 금속기와로 마감하였다.

(2) 시설물

① 방수총함¹⁶⁷⁾



서원 뒤편 방수총 함

■ 방수총은 사당을 중심으로 사당 담장 외부에 3개가 설치되어 있다.

(3)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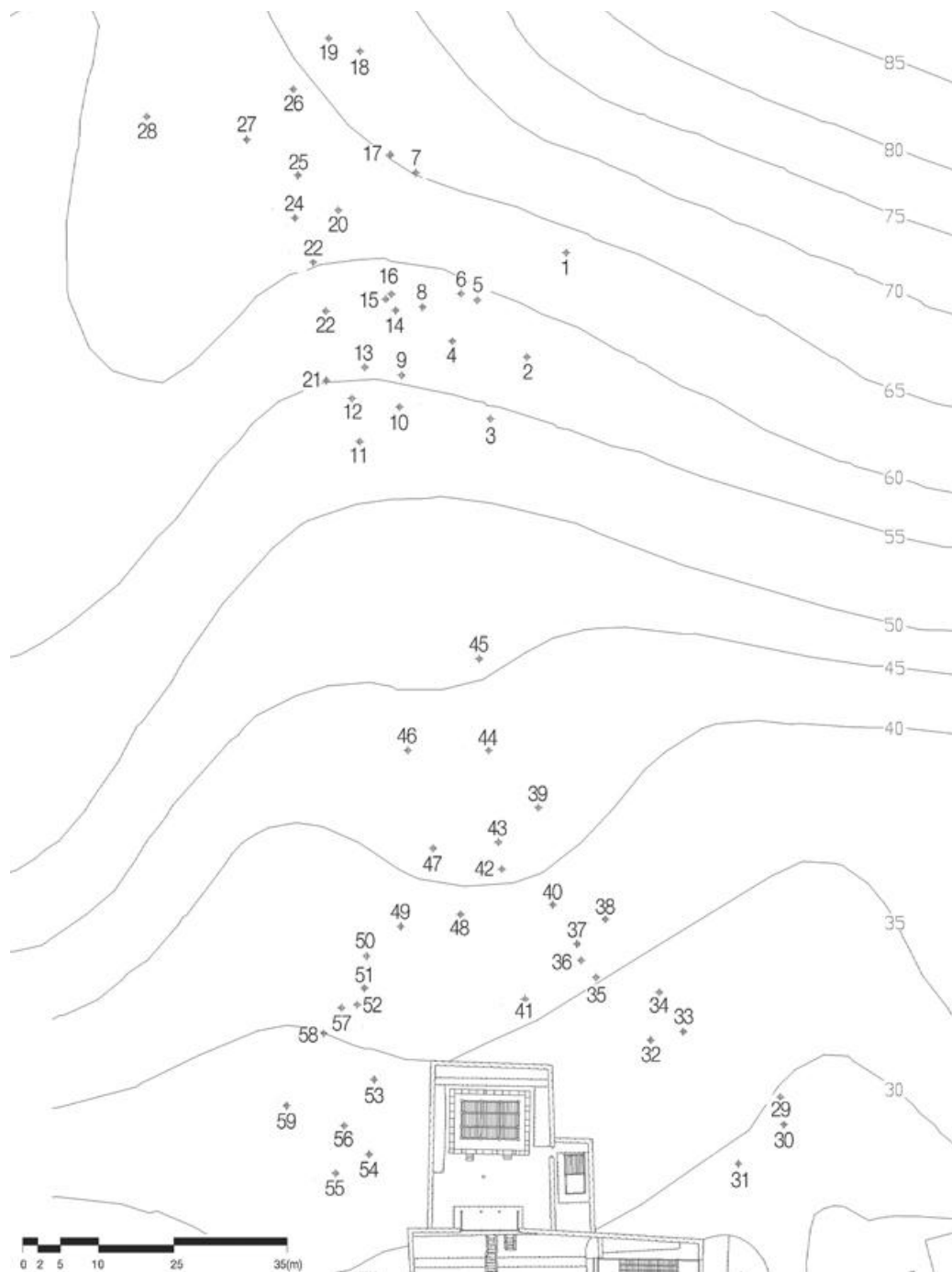
①조경공간

■ 서원 배후 산림지 소나무숲

②조경현황

■ 달성 도동서원 배후 산지 소나무 숲에는 흉고직경 30cm 이상 되는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양호한 식생을 유지하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인접한 곳에는 수고가 높고 수피가 붉은 적송의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음을 볼 때 소나무가 서원의 배후 경관을 위해 보호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 숲 속에는 어린 소나무와 잡목들이 같이 자라고 있으므로 소나무의 생육을 돕고 우량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간벌도 시행하여야 한다.

167) 방수총은 소방차량 또는 옥외소화전등에 장착하여 가압된 소화수를 화점에 자유롭게 방출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토출기구이다.



소나무 위치도

3) 마을영역



마을영역 위치도

- 마을영역은 서원 주변의 민가와 축사등의 생활공간으로 서원이 마을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서원의 특성이 나타게 된다.
- 달성 도동서원 주위 마을에는 서원의 활용을 위하여 충효당을 신축 하였는데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진입영역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가와 축사, 창고 외 2008년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충효당 등의 건축물들이 산재 	
구성	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25가구 중 22가구만 확인 • 외부 마감으로 벽돌, 시멘트모르타르, 샤시를 사용
	충효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한옥 • 장대석 기단 • 팔작지붕이며, 전통기와로 마감
문제점	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축으로 마을전체가 달성 도동서원과 이질감을 느끼게 함 • 민가 건축물들의 노후 및 훼손이 심각함
	충효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달성 도동서원과 연계성이 떨어짐 • 활용도가 떨어짐

(1) 건축물

지번	건물수	층수	기단	지붕	창호	외벽	담장	비고
1 716-1	2	본채	단층	콘크리트	왜식기와	샤시	있음	
		부속채	단층	없음		시멘트 블록 노출		
2 726-8	5	본채	단층	콘크리트			담쟁이 덩굴이 무성함	*마당:시멘트
		부속채			시멘트 슬레이트			*창고
		옥외 화장실				샤시		*사용중
		맞은편 창고	단층	없음	시멘트 슬레이트			*주변에 농기구 방치
		뒤편 축사	단층 (층고 높음)	콘크리트	시멘트 슬레이트 (노후, 훼손)	철골 구조		*사용중 *주변에 농기구 방치 *컨테이너 설치
3 726-10	2	본채	단층	콘크리트	시멘트 슬레이트			*사람 거주 안함
		부속채	단층		시멘트 슬레이트			*사람 거주 *가건물:상태불량, 보온덮개로 벽체 마감, 미관상 좋지 않음 *주변 농기구 및 잡자재 방치
4 726-12	2	본채			드라이 코트	목재 마감		*신축:통나무집 형태, 이질감
		부속채			시멘트 슬레이트	철골 구조		*파손 심각, 잡자재 방치
5 716	4	본채	단층	콘크리트	왜식기와 + 시멘트 슬레이트	샤시		
		부속채	단층		시멘트 슬레이트	시멘트 몰탈 후 황토색 페인트		*대문 옆 나무팔레트, 비료포대 적재
		옥외 화장실						*사용중
		축사	단층 (층고 높음)		시멘트 슬레이트 (노후, 훼손)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목구조		
6 712-3	5	본채	단층		시멘트 슬레이트	샤시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전체적으로 노후
		부속채						*본채와 연결, 창고로 사용 *전면으로 개방 *전면으로 천막 설치 *벽체 훼손, 보온덮개로 벽체 보수 *농기구 방치

지번	건물수	층수	기단	지붕	창호	외벽	담장	비고
6 712-3	5	입구쪽 가건물			시멘트 슬레이트		철골 구조	*전면, 우측으로 개방 (내부 적재물들 노출) *퇴비, 비료, 잡자재 적재
		본채 우측 가건물					시멘트 가건물	*노후, 훼손심함 *용도 알수없음(소각장 추정)
		옥외 화장실					시멘트 가건물	*방치, 사용안함
		비닐 하우스 (3개동)						건조실, 퇴비장, 목재(땔감용)적재
7 712-4	4	본채	단층	없음	시멘트 슬레이트	샤시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부속채				샤시 (정면)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측면, 배면)	*정면 리모델링(목재 마감재 사용)
		마당 중앙 가건물			나무기와		개방형 목구조 (정자)	
		옥외 화장실						*사용안함, 방치
8 712	2	본채	단층	콘크 리트	현대식 양식기와	유리 문 (정면) 샤시	붉은 벽돌	*전면 계단: 스테인레스 난간 *측면:옥상계단, 화장실 설치, 알루미늄 샤시 사용 *배면:LPG가스통 방치-캐노피 또는 가림막 필요
		부속채				샤시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기존 세면시설로 설치 *현재 창고로 사용
9 709	3	본채	단층	콘크 리트 (파손)	왜식기와	샤시 (정면)	정면 적색벽돌 측면, 배면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목재 및 잡자재 방치
		부속채					샌드 위치 판넬 가건물	*창고사용 *주 도로 변에 위치-미관상 좋지않음
		발중앙 건물						*방치, 잔존가치 없어 보임 *마늘 등 건조장으로 사용
10 706-1	2	본채	단층	콘크 리트	왜식기와	샤시 (정면)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석재 다량 적재된 상태로 방치 *농기구 방치
		부속채			시멘트 슬레이트		가건물	*벽체 보온덮개로 마감 *벽체 및 지붕에 당쟁이 덩굴이 무성함

	지번	건물수	층수	기단	지붕	창호	외벽	담장	비고
11	702-2 (폐가)	3	본채 단층	기단 확인 불가	시멘트 슬레이트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진입로 없음 *담쟁이 덩굴 및 잡풀이 무성하여 전체적인 제거가 필요 *주변에 잡자재 및 쓰레기 방치 *붕괴우려 있음
			본채와 연결된 부속채	단층	기단 확인 불가				
			별개의 부속채		지붕 파손				
12	702-8 (폐가)	1	본채	단층	콘크 리트	왜식기와 (훼손부분을 천막으로 싸놓았으나 벗겨짐)	목구조		*폐가로 방치 *붕괴우려 있음
13	706-8	4	본채	단층	콘크 리트	철제 왜식기와	샤시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건물 주변으로 농기구, 비료, 퇴비, 잡자재 등 방치
			부속채1 (샌드위치 판넬)						*나머지 자재들이 부속채 앞에 많이 적재
			부속채2 (목구조+ 콘크리트)					정면 목구조 (축사)	*축사를 창고로 사용
								측면 콘크 리트	
			부속채3 (목구조+ 콘크리트 블록)						*사용안함 *내부에 잡자재 방치 *외부에서 내부가 보임, 미관상 좋지 않음
14	694-3	2	본채			왜식기와+ 샌드위치 판넬	샤시 (정면)	측면, 배면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벽체 균열
			부속채				샤시 구조	가건물	*옥외화장실 추정 *사용안함
15	694-4	1	본채	단층	없음	시멘트 슬레이트 (페타이어 고정)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정면으로 철골구조의 지붕을 연장 하여 옥외 창고로 개축 *개방된 옥외 창고에 비료, 농기구, 잡자재 등을 적재 *배면은 합판으로 1/2정도의 벽면을 가림
16	691	1	본채			왜식기와+ 시멘트 슬레이트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도로 옆 한 단 밑에 건물 위치 도로에서는 지붕만 보임 *주변에 땔감용 목재가 많음

	지번	건물수	층수	기단	지붕	창호	외벽	담장	비고
17	684	1			시멘트 슬레이트 +철제 슬레이트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본채와 담장을 연결하여 부속 채를 덧달아 만들.(개축)
18	682	3	본채		시멘트 슬레이트	샤시 (정면)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부속채			샤시 (출입문)	콘크리트 구조		
			옥외 화장실						*사용중 *주변에 덧발과 수목, 화분 등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음
19	686	3	본채	단층	시멘트 슬레이트		목구조		*창고
			부속채1 (본채로 사용)		왜식 철제기와	샤시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개축하여 거주중
			부속채2 (축사)						*창고로 사용 *창고로 사용중인 건물 내부와 주변으로 매우 지저분함
20	688 (식당)	4	본채			샤시	콘크리트 구조 + 타일마감		
			천막						*천막 내 잡자재 적재 *개방형으로 미관상 좋지 않음
			식당채		샌드위치 판넬	샤시	콘크리트 + 나무판넬 구조		*철골로 확장하여 창고로 사용
			옥외 화장실+ 창고		시멘트 슬레이트		목구조 콘크리트 구조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식당채 옥외 화장실로 사용
21	710-4	4	충효당	단층 (층고 높음)	장대석	전통기와 팔작지붕, 겹처마	목구조 (한옥)	자연석+ 황토 전통기와	*정면 5칸, 측면 3칸 *음료대 설치 *후면에 옹벽 설치 *소화기 배치, 출입문 위 조명
			낙고재	단층	자연석	전통기와 팔작지붕, 홀처마	목구조 (한옥)		*정면 5칸, 측면 2칸 *자연석으로 3단의 화계 *소화기 배치
			옥외 화장실	단층		왜식기와 맞배지붕	목구조+ 조적조 시멘트 몰탈 후 페인트		*정면 3칸, 측면 1칸
			부속채	단층	자연석	왜식기와	목구조		*정면 4칸, 측면 1칸, 뒷칸 *부속채 옆 출입문 목구조 한옥
22	710-2	1	생활관	2층	대리석	전통기와 팔작지붕	콘크리트		*정면 3칸, 측면 2칸 *약2.5m 자연석 축대 위 건축

(2) 시설물

① 체육시설 및 파고라



파고라

■ 체육시설 및 파고라는 관수정으로 오르는 길 우측, 자방도로 1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쪽으로 폐가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다. 위치상으로는 마을의 중앙에 있지만, 주위에 폐가, 잡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고, 달성 도동서원과도 연계성이 떨어져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편이다.

② 나루터



나루터



서원 앞 나루터

■ 나루터는 달성 도동서원 주차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낙동강 변에 위치한다. 나루터로 내려가는 길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나루터는 데크를 깔고, 보호 울타리를 둘렀다. 내리막길은 중간 지점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심하여 붕괴의 우려가 있어 보이며, 장마철에 낙동강이 도로까지 차오르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서원 앞 물길

4) 정수암영역

■ 정수암영역이라 함은 원래 서원의 특성영역에서 벗어나나. 서원의 배향인물인 김굉필선생이 서원이 창건되기 전 부모의 묘소앞에서 시묘살이를 한 장소로서 유교에 있어 학문의 정진보다 기본에 충실하며, 실행하는 사상인 소학정신이 묻어나는 장소로서 선생의 학문 실천지라 할 수 있다.

■ 시묘살이는 부모님 생전의 불효에 대한 뉘우침을 하기 위하여 움막 또는 오두막을 짓고 묘소를 지키는 것이나, 현재는 원래의 모습을 잃고 스님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진입영역의 문제점 도출표

구분	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성 도동서원의 배향인물인 김광필의 효사상 및 유학사상을 실천한 장소로서, 달성 도동서원 입지에 큰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정수암에는 달성 도동서원과 아무런 관련 없는 스님이 거주하며 암자로 사용 	
구성	본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 4칸, 측면 1칸, 배면 툇칸, 팔작지붕 자연석 기단
	부속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 4칸, 측면 1칸, 정면, 배면 각각 툇칸
	가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샌드위치 패널, 알루미늄 샤시 등을 사용하여 가건물 4채, 정수암 부속채 개조
문제점	본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멘트 및 샤시를 사용하여 정수암 배면 증축 암자로 사용되면서 등불을 설치하기 위해 서까래에 전선을 배선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음 정수암 본연의 모습을 훼손
	부속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 샤시를 사용하여 정면으로 확장
	가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주거시설, 옥외화장실, 창고 등을 신축하여 정수암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수암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지붕 및 상부 가구구조의 파손이 심각함 암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각장이 방치되어 있음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된 옹벽이 방치 정수암 정면 급경사면의 식생피복 시급(산사태 우려) 정수암의 접근로는 차량진입이 가능하나 경사가 급하여 폭설 시 통행이 불가


(1) 건축물






① 정수암

㉠ 현황

- 정수암은 달성 도동서원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도동골에 위치하며, 달성 도동서원의 배향인물인 김광필 선생이 시묘살이를 하며 선생의 유교사상(효)을 실천한 장소이다.
- 그러나 현재 정수암에는 달성 도동서원과 아무런 관련 없는 스님이 거주하며 암자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건물, 소각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지붕 및 상부 가구구조의 파손이 심각하고, 시멘트 및 알루미늄 샤시 등으로 증·개축하여 정수암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고 있다.
- 정수암의 정면은 급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잘 부스러지는 토질로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 식생피복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수암으로의 진입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존 건축물	◦ 시멘트, 알루미늄 샤시를 사용한 증·개축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기존 건축물	◦ 정수암의 지붕 및 상부 가구구조의 파손이 심각함	
	◦ 서까래 밑에 전선이 배선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음	
가건물	◦ 경첩이 파손되어 문 사용 불가	
기타	◦ 정수암 정면 급경사면의 산사태 위험 높음	
	◦ 진입도로의 경사도가 급하고,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없음	


(2) 시설물

① 소각장

㉠ 현황

■ 정수암 입구 공터에 암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각장이 있다. 소각장은 약 1.5×1.5×1.5m(너비×깊이×높이) 크기로 벽돌로 만들었으며, 철제문을 달고, 바닥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거칠게 마감하였다. 외벽은 소각 시 발생하는 불꽃으로 그름이 많이 묻어있으며, 철제문은 전체적으로 산화되어 있다.

㉡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정수암 입구 공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암 입구 공터에 그름과 녹으로 덮인 소각장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음 ◦ 소각장 뒤 언덕에 수목이 많아 건조한 겨울에 화재의 위험이 있음 	

② 웅벽

㉠ 현황

■ 정수암 진입도로 좌측에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웅벽이 세워져 있다. 웅벽의 크기는 약 3×1.8m(너비×높이)이며, 벽면에 지의류와 잡초들이 번성하다. 현재 웅벽 위로 토사 유실이 진행되고 있어 붕괴의 위험이 있다.

㉡ 조사결과

위치	조사결과	현황사진
진입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에 지의류 등이 번성하여 미관상 좋지 않음 ◦ 웅벽의 토사 유실 방지 용량을 넘어 벽면 위로 토사 유실이 진행되고 있음 	

4. 관리현황

1) 관리조직

(1) 지자체(달성군)

- 업무 전담 인력 없음
- 관광과 문화재팀(행정직, 학예직, 기술직 각 1명)에서 타 문화재 관련 업무와 겸임
- 보존관리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른 일상관리
- 건물 노후 등 요인 발생 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거 보수정비사업 시행
- 현상변경 허가 기준 등에 의거 서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2) 서원(문중)

- 서흥 김씨 문중 내 별도의 관리체계나 운영조직 없음
- 대대로 현풍에서 살던 여덟 문중인 과주 이씨, 영월 음씨, 평강 최씨, 밀양 박씨, 월성 김씨, 청도 김씨, 서흥 김씨, 현풍 곽씨의 유림들이 공동체제로 향사 및 서원운영

(3) 현장관리인력(문화재안전경비원)

- 주·야간 상시 근무(4명 : 2인 1조, 2교대)
- 문화재 감시·순찰 및 방호, CCTV 등 방재시설 관리,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수행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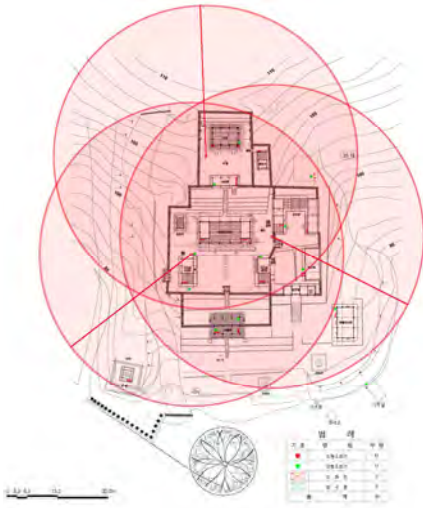
-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배치(탐방객 안내 및 해설)
- 문화재지킴이 활동(수시 모니터링,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

2) 관리시설

(1) 방재시설

① 현황 분석

-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 달성 도동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체는 목구조이며, 지붕재료는 기와로 구성되어 있다. 기와지붕은 기와 자체의 내화성으로 인하여 외부의 비화에 의한 연소의 위험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달성 도동서원 소화전 소화 범위



중정당 우측 옥외소화전 배치현황

화재 발생 시 적심 속의 화재는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화 진압활동이 지연되며, 낙하와 붕괴로 인한 후속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전통 양식의 건축물은 재료가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시 연소의 우려, 진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 목조건축물의 경우, 2005년 낙산사와 2008년 승례문 화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화재의 최성기까지 도달 시간이 불과 15~20분이므로 초기 소화 혹은 예방 활동에 주력하지 않으면 전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서원의 특성상 밀집되어 있는 건축물에 전이될 위험도 크다.

■ 소방시설 현황

- 현재 소방시설은 서원 내에 옥외소화전, 방수총, 소화기, CCTV, 화재감지기, 속보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달성 도동서원 방재시설 현황표

구분	소화기		소화전	방수총	CCTV	화재감지기	속보기
	소형	대형					
소방설비	43	12	3	3	8	8	1
소방용수 (수원)	약 140ton (지하수조 :사당 뒤편 야산)						

- 옥외소화전은 중정당 우측, 거인재 우측, 사당 마당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옥외소화전의 물탱크는 사당 뒤편 야산에 위치하고, 용량은 약 140ton이다.
- 방수총은 사당 담장 외부로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방수총



사당 담장 외부 방수총 배치현황

- 건물별로 3.5kg 분말소화기와 3.0kg 청정소화기를 각 2~3개씩 비치하였으며, 20kg 대형소화기를 12개소에 비치하여 총 55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옥외소화전



소형소화기 비치현황



대형소화기 비치현황

- 소화기의 관리 상태는 양호하다.
- 최단거리 소방서는 달성소방서 구지지역대이며, 출동거리는 10km로 달성 도동서원까지 도달시간은 10분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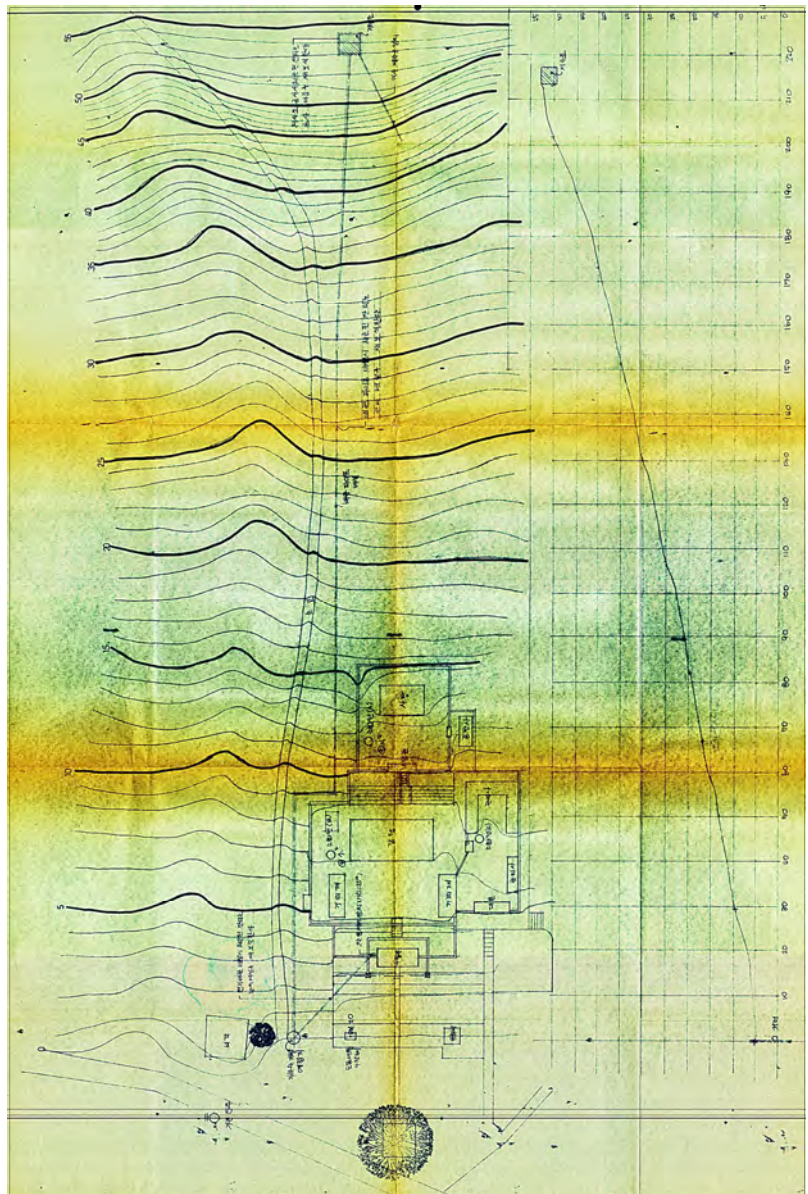
② 안전관리(소방) 시스템

-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시행 : 화재예방 활동 및 자체인력에 의한 화재 초동 진화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문화재 피해 최소화(2009년 최초 작성 후 매년 보완 갱신)
-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 연 2회(산불·재난 관련업무 담당부서, 관할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의용소방대 등 훈련 참여)
- 취약시기별 재난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미비사항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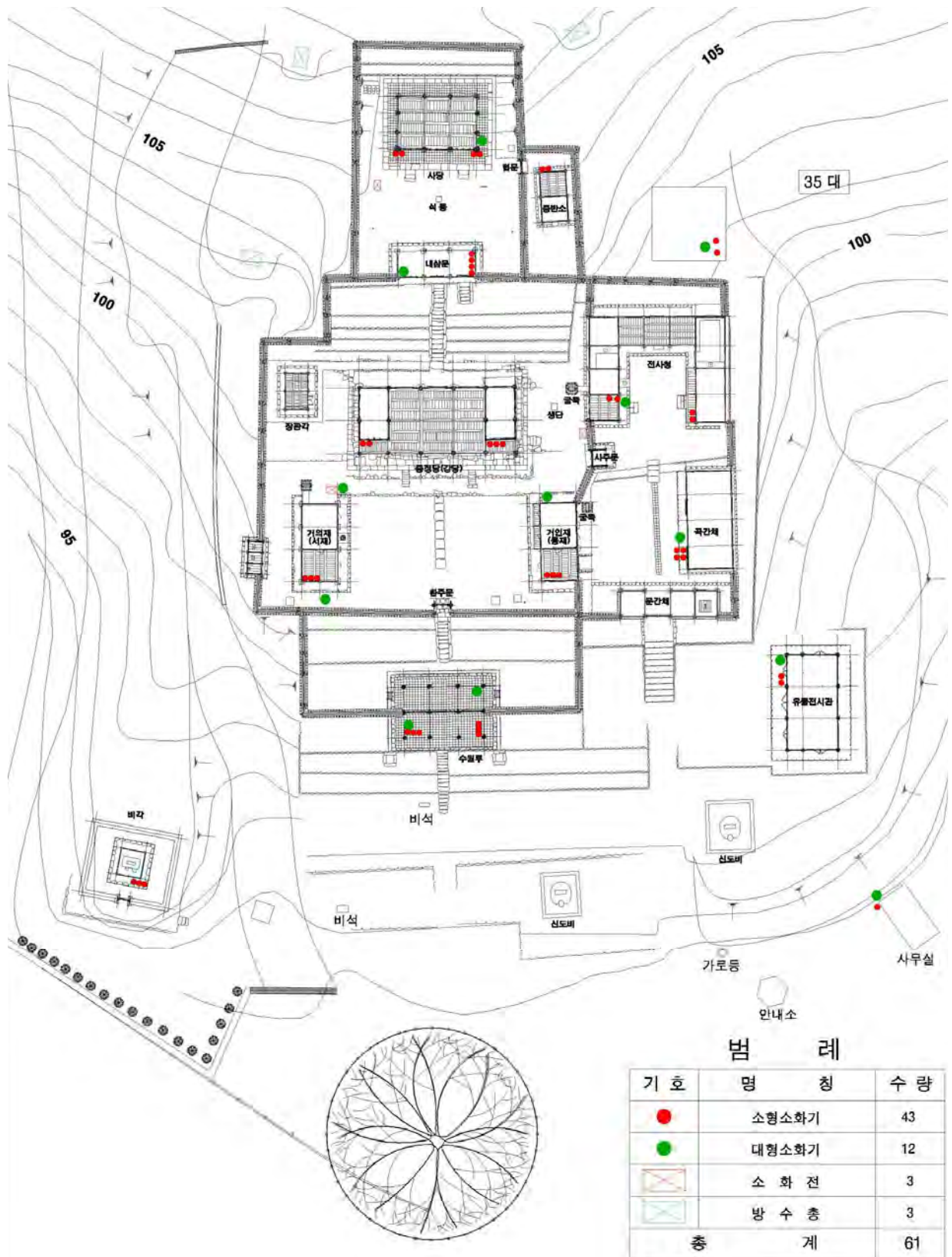
취약시기별 재난 예방 점검내용

점검 시기	점검명	주요 점검대상	점검표
매월 초	문 화 재 안전관리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점검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시설물	소방시설 점검표 문화재 안전점검표
2월	해 빙 기 안전점검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문화재 안전점검표
6월	풍 수 해 안전점검	석축, 축대, 담장, 각종 시설물	문화재 안전점검표
2월 11월	화재예방 안전점검 산불예방 안전점검	각종 소방, 가스, 전기 설비 유류 및 가스정장고 등 문화재 주변 인접 산림	소방시설 점검표 가스설비 점검표 전기설비 점검표 산불예방 점검표

- 소방전문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 : 방재시설 정기점검(월 1회) 및 미비사항 보완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 주·야간 상시감시체제 구축
- 자위소방대 구성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하여 유사 시 초동대응 태세 완비



소방 물탱크 위치 및 소방용수 배관도



달성 도동서원 소방시설 현황도

(2) 배수시설

① 현황

■ 1998년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배수로 설치

- 노출형 : 300mm×300mm×31.0m
- 암거형 : 300mm×300mm×75.0m
- PVC관 : Ø200mm×9.0m

② 문제점

■ 현재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역할을 못하여 물고임, 토사 유실 등의 문제 발생

- 배수로 내 토사 유입, 잡초 생육
- 중정 바닥의 토사 유실로 인한 물고임 발생



보호수 주변 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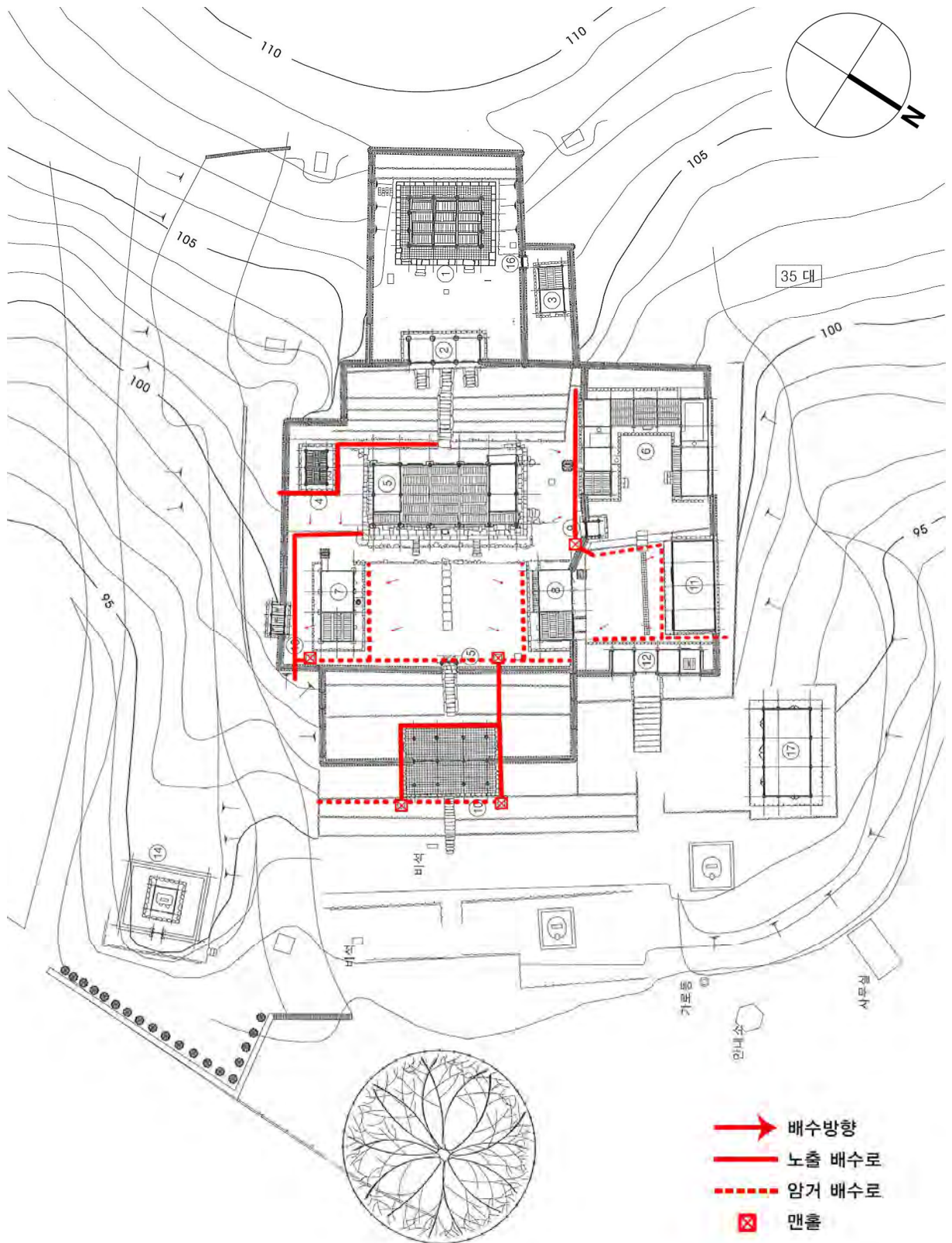
빗물을 맨홀로 유도하는
배수로 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중정 맨홀



중정의 토사유실 및 침하로 인한 물고임
- 맨홀로 물이 유도되지 않음



달성 도동서원 배수로 현황도

5. 활용현황

달성 도동서원은 서원의 적극적 활용프로그램인 서원건물에서 행하는 서원스테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 유교교육 등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요일별로 3~4명이 교대로 문화해설
- 문화관광안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는 방식



충효당

■ 서원의 적극적인 활용프로그램인 서원스테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 유교교육 등이 실행되고 있지 않음

- 2013년 7월 29~31일 서흥 김씨 대종회에서 문중 자손들을 대상으로 충효당에서 충효교육을 처음으로 실시

■ 2008년 농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충효당이 달성 도동서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달성 도동서원의 「서원사액」 재현행사 시행

- 2013년 9월 조정에서 내려온 예관 일행을 경상감영에서 맞이하는 지영례(祗迎禮)를 시작으로, 사액 행렬과 봉안례(奉安禮)를 재연



달성 도동서원 사액봉안례 중 지영례

6. 서원 정비사례

1) 영주 소수서원



영주 소수서원 전경

(1) 개요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내죽리 151-2
- 지 정 : 사적 제55호 (1963.01.21 지정)
- 면 적 : 7,504m²
- 배향자 :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 연 혁 : 조선 중종 37년(1542)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제사 지내기 위하여 사묘(祠廟)를 세우고 그 이듬해 안향 선생을 봉안하며 학사를 이건하여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중종 39년(1548)에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명종 5년(1550)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으며, 그 후 인조 11년(1633) 주세붕을 추향하여 향사를 지내고 있다.

(2) 주요 보수정비 내역

- 1997 ~ 2000 주차장, 조경, 파고라 등의 시설물 설치
- 2006 ~ 2009 강학당, 문성공묘 보수 및 기와번와, 철책보수, 방재 시스템 등

(3) 정비현황

- 영주 소수서원은 1982년 원래 소수서원 경역 북쪽에 유물관(현 사료관)을 건립하고, 그 서쪽에 서원관리를 위한 전사청을 지어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였고, 1991년 정비사업으로 유물관 북쪽에 사료전시관(현 관리사무소)과 충효교육관이 건립되었다. 이로 인해 소수서원은 원 소수서원 일곽, 유물관·전사청 일곽, 사료전시관·충효교육관 일곽 등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 소수서원 진입부에는 죽계천 변으로 정자, 대, 각자 바위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것들은 원생 또는 유림이 모여 회합이나 시회를 열어 풍류를 즐기고 심신을 고양하던 유식공간이지만 현재 수목이 울창하여 죽계천 방향의 경관이 차단되어 있어 유식공간이 가져야 할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 또 하나의 유식공간으로 정문 밖에 좌측 소나무숲에 바위가 돌출되어 형성된 자연 상태의 소혼대(消魂臺)가 있다. 이 곳에서는 서원 내부 전경과 죽계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주요 조망경관 포인트이지만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진입이 매우 힘들다.
- 영주 소수서원은 진입로 설치, 주차장 조성, 안내판 정비 등 최근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히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단, 계단, 진입램프 등에 기존 부재와 어울리지 않는 신재가 많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
- 영주 소수수원 주변은 1996년부터 시작된 경상북도 북부유교권정비사업으로 선비촌, 소수박물관, 선비문화수련원이 신설되어 있어 서원과 유교를 주제로 영주의 귀중한 유물과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고,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생동감 있는 역사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수서원과 연계된 관람동선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경렴정



경렴정에서 바라본 전망경관



영주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연결하는 관람로



고직사 내부 현황

2) 안동 도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전경

(1) 개요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산 61
- 지 정 : 사적 제170호 (1969.05.28 지정)
- 면 적 : 332,556m²
- 배향자 : 이황, 조목
- 연 혁 : 1561년(명종 16)에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건립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과 월천 조목을 함께 향사하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마하던 교육시설이다. 오늘날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운 도산서당과 그 문인들이 세운 도산서원을 통칭하는 것이다. 선조 7년(1572) 도산서당 뒤에 사당(상덕사)을 건립하여 퇴계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선조 8년(1575)에 선조임금이 석봉 한호가 쓴 편액을 하사하였다.

(2) 주요 보수정비 내역

- 1969 ~ 1970 정화보수사업
- 1979 ~ 1980 장판각, 동광명실, 서광명실 경보기 및 보안시설 설치
- 1989 장판각 및 도산서당 보수
- 1998 ~ 1999 전사청, 상고직사, 하고직사, 농운정사, 동광명실 보수
- 2003 옥진각, 안내판, 주변정비
- 2007 동·서재, 진도문, 협문, 동·서광명실 보수
- 2009 도산서당, 장판각, 협문 지붕보수

(3) 정비현황

- 안동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유학사상의 정신적 고향으로 성역화되었다. 기존의 건물들을 해체 보수하였으며 일부 건물은 신축하였다. 가능한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나, 담장, 기단 등 원상의 모습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 각 주요 시설물 앞에는 안내판을 두어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나 일부 안내판의 경우에는 비닐재질의 안내문안이 일부 벗겨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한켠에는 전시관을 두어 유물과 함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안동 도산서원으로의 진입로 입구에는 관리사무실과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으며 상점 등의 편의시설을 두고 있다. 또한 진입로의 곳곳에 벤치를 마련하여 도산서원 전면의 전망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석 담장으로 변형된 담장



신재로 교체된 기단과 계단



전시관 전경



전면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설치된 벤치

3) 안동 병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전경

(1) 개요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 지 정 : 사적 제260호 (1978.03.31 지정)

■ 면 적 : 22,620㎡

■ 배향자 : 유성룡, 유진

■ 연 혁 : 1563년 창건(풍악서당), 1572년 이건

병산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해 많은 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 있었던 47개 서원 중 하나로 철종 14년(1863)에 '병산'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 서원은 본래 풍악서당이라 하여 조선 명종 18년(1563) 구 풍산현 북쪽에 창건되었으나 선조 5년(1572) 류성룡이 이곳으로 옮겼으며, 광해군 5년(1613) 류성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당(존덕사)를 건립하면서 향사의 기능을 갖춘 서원이 되었다.

광해군 12년(1620)에 서애 위패를 여강서원으로 옮겼다가 인조 7년(1629)에 다시 병산서원으로 옮겨와 주향하고 있다

(2) 주요 보수정비 내역

- 1971 ~ 1979 존덕사 외 10동 보수, 경내 원장 건물 기단 및 계단 보수, 안내판
- 2001 ~ 2007 만대루, 전사청, 사당, 강당, 동·서재, 복례문, 장판각, 협문 보수, 주차장 조성, 배수로 정비, 조경, 안내판 등 주변 정비

(3) 정비현황



진입동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내소



서원의 특성을 저해하는 수목 식재

- 안동 병산서원은 자연과 조화하는 한국의 서원 건축 공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서원이다.
- 현재 서원 내 건축물의 수리 및 보수 상태는 가능한 한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부 신재에 의해 시공된 부분은 최대한 기존 부재와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수목의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그러나 서원 내 복례문과 만대루 사이에 너무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서원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면도 있어 보인다.
- 산과 강 그리고 서원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으나, 서원 정면에 설치된 주차장은 서원의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안내소의 위치가 주차장에서 서원으로 진입하는 동선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안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장판각은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서적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특성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서원으로의 접근도로는 비포장으로 주변과는 어울리지만 관람객들의 접근에 불편하고, 도로가 패이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 안동 병산서원은 안동 하회마을과 연계하는 유교문화 길 걷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만대루에서 바라본 강당과 동·서재

4) 경주 옥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역락문

(1) 개요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지 정 : 사적 제154호 (1967.03.08 지정)

■면 적 : 26,075m²

■배향자 : 이언적

■연 혁 : 이 서원은 경주 부윤 이제민이 지방 유림의 뜻에 따라 회재 이언적의 유허에 사당과 동·서재, 강당 및 누각을 건립하면서 창건하였다.

그 후 선조 7년(1574) 사액서원이 되면서 영남문운의 연충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의 병화에도 피해 없이 보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주요 보수정비 내역

- 2007 사주문 보수
- 2008 옥산서원 주변정비 (배수로 담장 석축보수)
- 2009 고직사 보수, 주변 정비

(3) 정비현황

- 경주 옥산서원은 주차장, 진입 녹지 구역의 조경, 서원 건축물 보수 및 수리, 단청, 안내판 및 방범·방재시설 설치, 유물전시관 신축 등 전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 서원 내 건축물의 정비는 잘되어 있으나 서원의 모든 건축물에 단청이 되어 있어 서원 건축의 특성을 저해하고 있다.
- 안내판은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이 적용되어 있으나, 가로등 및 CCTV, 소화전 등은 여러 종류의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고, 서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주차장에서 서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부는 잔디와 소나무를 식재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진입도로도 황토색 시멘트를 사용하여 주변과 어울리게 조성하였고, 주차장은 잔디블럭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개선된 안내판 디자인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가로등



진입부 녹지 조경



잔디블럭을 사용한 주차장



喚主門

道東書院
中正堂

IV

종합정비계획



1. 기본구상

1) 기본원칙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련계획 및 관련법 검토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 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서원에 적용될 등재 기준 해당 항목은 (ii), (iii), (iv), (vi)이다.
 - 기준(ii), 한국의 서원은 유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한 후, 성리학의 보급에 합당한 한국 특유의 서원 건축 형식을 형성
 - 기준(iii), 한국의 서원 건축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증거(testimony)를 보여줌
 - 기준(iv), 한국의 서원 건축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특유한 공간 유형을 창출하였다. 서원의 전면 경관은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산수 자연미의 전형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유가(儒家)의 천인합일사상을 반영
 - 기준(vi),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다. 이들 서원은 향촌사회의 여론과 공론을 집약하는 지성들의 집회소 역할, 제향과 강학 기능을 통한 사회 교육의 장소,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수행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구분	기 준		사 례
문 화 유 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한국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자 연 유 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 통	문화유산은 진정성(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완전성을 보유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을 통한 보호 및 관리체계 수립		

2) 지표설정

(1) 서원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 유지

- 서원의 수리공사는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행
-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을 때 시행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
-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훼손을 초래
-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

(2) 서원의 기록유지

- 서원의 건축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함
- 기록이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오류를 목인할 경우 원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재난과 같은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훼손된 서원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3) 건축양식 유지

- 서원의 건축물 수리 시 반드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건축양식을 바꾸거나 변형하는 것은 안됨
- 양식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에 맞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

(4) 건축기법과 기술 유지

- 서원건축물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함
-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해야함

(5) 건축재료 유지

- 서원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건축 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
- 따라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6) 서원의 장소성 유지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됨
- 동산문화재는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됨
-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서원 주변 자연경관 유지

- 서원 및 주변 경관이 도시개발,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개발행위가 서원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함
- 문화가치가 산업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서원 주변경관까지도 보호, 유지되어야 함
- 서원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 변경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함

2. 기본방향

1) 건축적 특성의 완전성 회복

- 구조, 양식, 기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변형되지 않게 하고, 변형되거나 원형에서 벗어난 요소는 원형을 찾아 서원 건축이 가지는 완전성 회복
-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가치 회복

2) 공간적 특성의 완전성 회복

- 장수의 공간과 유식의 공간을 조화롭게 일체화시켜 서원의 본질적인 완전성 회복
- 유식의 공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경 및 시설물에 대한 경관정비 계획을 수립

3) 사상적 특성의 완전성 회복

- 배향자의 효행과 덕행, 학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서원이 가지는 본연의 사상을 회복

3. 기본계획

1) 서원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 달성 도동서원 보수 및 수리로 인해 변형된 부분을 파악하고, 문헌 및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여 달성 도동서원의 진정성 회복
- 배향자인 한훤당 김공필의 효행과 덕행의 실천장소인 정수암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고, 달성 도동서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달성 도동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

2) 경관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 수월루와 중정당 및 중정에서 바라보는 전망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 또는 이설하여 유식의 공간을 회복
- 주차장 이설, 편의시설(버스정류장, 음수대, 정자, 화장실, 안내판 등) 및 유지관리시설(소화전, 보안등, 방범카메라 등) 이설
- 서원 내 외의 조경정비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진 식재경관을 원형으로 회복
- 수목 이식, 외래수종 제거
- 달성 도동서원 주변 마을(민가)과 달성 도동서원 건축물간의 경관적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계획 마련
- 주변 건물 및 시설물의 형태·색채·지붕선 등의 조화 유도

3) 시설물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 도입시설은 기존 시설 보호를 전제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시각적 차단을 최소화 시켜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도입시설의 기능은 기존 건축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 배수시설, 소방방재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서원 내 건축물에 대한 파손 및 훼손이 없도록 함

4) 활용계획

(1) 기본원칙¹⁶⁸⁾

-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
- 관리 단체는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2) 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 서원문화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활용
 - 역사·민속·인문학적 내용을 발굴하여 스토리 메이킹
 - 인물, 문학, 정신사적 콘텐츠의 자료정리에 충실
 -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
-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의 특징과 개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서원이 현대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활용
 - 직접 옛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원이 되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조선사회 지성인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도서관 및 출판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서원이 주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체험할 수 있는 경관활용 프로그램 개발
- 서원이 역사 문화 장소적, 경관적, 공간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사실에 비해 서원 활용 지원 정책과 예산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이 필요

168)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1, 129쪽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출처 : 문화재청,『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1, 131쪽)

프로그램 유형		주요 내용
체험	교육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유림과 대화, 의미와 해설 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등
	전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 서원생활 문화체험 ◦ 유림과의 토론 ◦ 교육 및 학문 체험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서, 규약 체험 등
답사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답사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의 저술, 업적, 유적 답사 ◦ 관련유적 : 서당, 중가, 누정, 재실, 정려 등
	인물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교육 ◦ 인물 유적 탐방, 인물 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 관련, 서원 탐방 및 증가체험 ◦ 서운의 고문서 조사와 번역
관광 및 홍보	공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전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려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4. 단계별 정비

- 서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
-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가능 하도록 단기적으로 시행할 사업과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공정을 구분하여 계획 수립
- 다양한 사업에 동시다발적인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시기별, 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부담 분산

단계별 정비계획

단계	항목	사업내용
1단계	건축물정비	담장정비, 기반정비, 지붕정비, 단청정비, 기타정비
	시설물정비	배수시설정비, 방재시설정비
2단계	주변정비	조경정비, 정수암 앞 비탈면 식생피복
	시설물정비	관람편의시설정비
3단계	주변정비	마을정비





V

종합정비 기본계획

1. 서원 내부 정비계획

1) 제향공간

■ 제향공간은 앞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 기록원 및 고증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서 추후 훼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고려하여 수록하였다.

제향공간 정비계획 목록

항목	내용	위치	정비계획
건축물정비	계단정비	내삼문	복원
	담장정비	사당, 증반소	보수, 해체수리
	기단정비	사당	보존처리
	단청정비	사당, 내삼문	단청보수
환경정비	마당정비	마당	잔디 제거 후 마사토 포장
시설물정비	가로등	마당	교체

(1) 건축물

① 사당

■ 현재 사당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진과 비교하여 건축물의 형태는 변화된 것이 없으나 수리 후 탈락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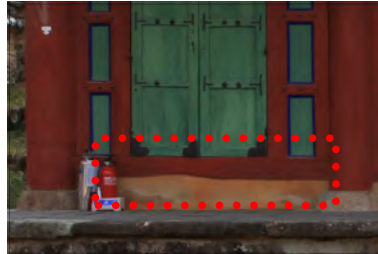
사당 (국가기록원 소장, 연대미상)



사당 (2013년 현황)

■ 사당 내부 바닥에 돛자리가 설치되어 있어 바닥하부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하부벽체에 습기로 인한 백화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내부 돛자리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 사당 기단 및 계단에 오랫동안 습윤상태가 지속되어 지의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세척 및 보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부벽체 백화현상



기단 지의류 서식

- 2006년에 단청보수를 하였으나 현재 단청박락이 심하여 단청보수가 필요하다.



사당 벽면 단청박락



단청보수 후 예상도

- 담장 기와 파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담장이 오랜 시간 습윤 상태가 지속되어 지의류 등이 서식하고, 담장에 균열이 생겨 수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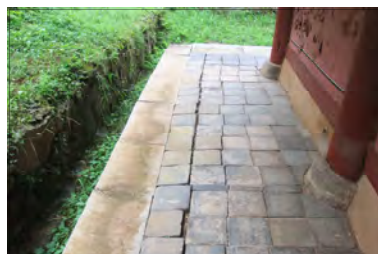


빗물로 인한 침식이 진행중인 담장



담장 상세

- 보수된 기단이 내부 적심의 침하로 인하여 바닥판의 침하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석의 밀림현상이 따라 올 것으로 판단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단침하



갑석 들림

② 증반소

■ 하부벽체 회백 탈락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증반소 하방벽 탈락



회백 보수 후 예상도

■ 증반소 출입문의 경첩이 파손되어 문을 사용할 수 없어 수리가 필요하다.

■ 증반소 일각문 좌측 담장 하부 1.5m×0.8m(가로×세로)가 붕괴되어 시급한 수리가 필요하다.



경첩이 파손된 증반소 출입문



붕괴된 증반소 담장

③ 내삼문



1973년 보수 당시 내삼문 (출처 : 국가기록원 1973년 도동서원보수 자료)



2013년 내삼문

■ 1973년 보수 당시 촬영된 사진에 좌측 계단이 보이지만, 현재에는 계단 없이 기단으로 정비되어 있다. 내삼문의 판문을 3개 설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정당과 같이 동입서출이 가능한 계단이 좌측칸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삼문 보수 전



내삼문 보수 후

- 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습윤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지의류 및 잡초가 번성하고, 침식이 진행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다.
- 사당 마당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어 습기가 항상 보존되고, 이로 인해 건축물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잔디를 제거하고 마사토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지의류 및 잡초가 번성한 담장



잔디가 식재된 사당 마당

(2) 시설물

- 사당 마당 전면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보안카메라와 가로등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제시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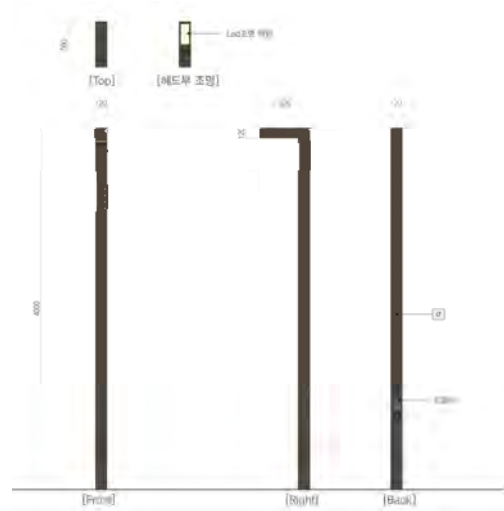
사당 마당에 설치된 가로등



사당 마당에 설치된 보안카메라



보안카메라 디자인 (출처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보안등 디자인 (출처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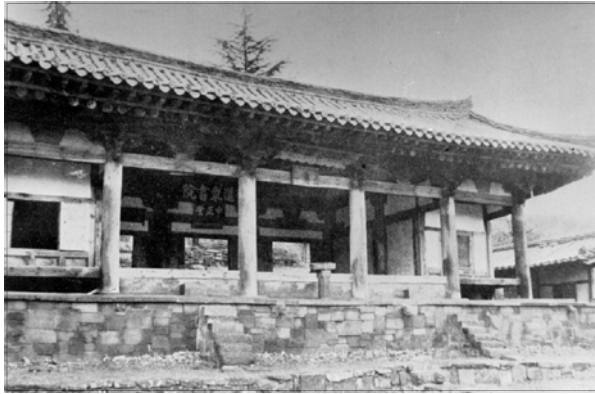
2) 강학(장수)공간

강학(장수)공간 정비계획 목록

항목	내용	위치	정비계획
건축물 정비	계단정비	중정당, 환주문	수리
	담장정비	환주문 옆, 서재 뒤	보수, 해체수리
	기단정비	중정당	모니터링, 보존처리
	지붕정비	동·서재	해체수리
	변형부분정비	동·서재	원상복원
환경 정비	화계정비	중정당 뒤	전지, 전정
	수목정비	장판각 앞, 환주문 앞 화계	제거
시설물 정비	배수시설정비	중정당 마당	수리

(1) 건축물

① 중정당



중정당 (출처 : 국가기록원 소장, 시대 미상)



중정당 (2013년)

- 중정당은 1988년 방충, 방연제 도포, 1992년 보수, 1995년 틈마루 보수, 2006년 기단 보수, 2009년 해체 보수(도리 이상) 등 여러 차례 수리, 보수가 있었으나 건축물의 변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기단을 보수하였으나, 현재 기단 중앙부에 배부름 및 갈라짐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단에 설치된 좌우측 계단 보수 시 사용된 보수물질(시멘트 등)이 기존 부재와 이질감을 발생시켜 보수물질을 제거 후 보수한다.



중정당 기단 중앙부 배부름 현상



계단 보수 시 사용된 보수물질(시멘트)

- 좌측 기단 상면에 조류의 분비물이 집중적으로 떨어져 있어 산성화로 인한 부식이 우려되므로 세척 후 보존처리하고, 연목 등에 조류가 접근할 수 없게 처리하여야 한다.



기단 상면 세척 및 보존처리 전



기단 상면 세척 및 보존처리 후

② 동재(거인재)



거인재(1973년)



거인재(2013년)

- 1973년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뒷마루가 없고, 우측 마루칸 후면 벽에 창도 없으며, 현재 뒷마루가 있는 중앙칸 하단에 아궁이가 있었다. 현재 변형되어 뒷마루와 창이 생겼으며, 아궁이는 전사청 쪽에서 접근 가능한 배면으로 옮겨져 있다.

- 거인재의 변형된 부분은 예전의 모습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현재의 거인재



원상으로 환원 후 거인재

- 거인재 지붕 및 상부가구구조의 파손으로 기둥 위까지 해체수리가 필요하다.

③ 서재(거의재)



거의재 (출처 : 국가기록원 소장, 1992년)



거의재 (2013년)

- 1992년 촬영된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비교해 볼 때, 기존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 수 있도록 시멘트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시설물은 기존 건축물과 이질감을 느끼게 함으로 철거하여 원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그림 239. 현재의 거의재



그림 240. 원상으로 환원 후 거의재

- 좌측 마루칸 하부 벽체의 회벽이 탈락되었고, 배면 서까래가 빗물로 인해 심하게 부식되어 도리이상 해체수리하여야 한다.

④ 환주문



환주문 (197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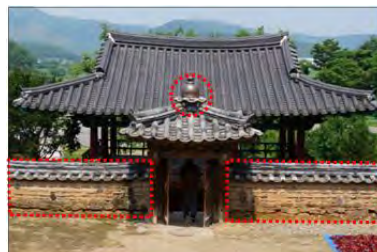


환주문 (2013년)



환주문 (출처 : 국가기록원, 시대 미상)

- 1973년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 볼 때, 환주문 지붕의 절병통 아래 기와가 없으며, 좌우측 담장의 높이가 현재보다 현저히 낮다. 절병통 아래의 기와는 철거하고, 담장은 전망경관을 중시하는 달성 도동서원의 특성상 높이를 낮추어 원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현재의 환주문과 담장



원상으로 환원 후 환주문과 담장

⑤ 장판각

- 기단 상면의 강회바름의 파손이 심하여 보수가 필요하다.
- 마루바닥선 밑 하부 벽체의 회벽 탈락이 심하고, 장판각의 특성상 습기조절과 통풍이 중요하므로 하부 벽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장판각 기단 상면 강회바름 파손



벽체 하부 회벽 탈락

(2) 시설물

- 거인재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며, 중정당에서의 전망경관을 저해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거인재 앞 가로등



중정당의 전망경관을 저해하는 가로등

(3) 수목

- 사당으로 들어가는 내삼문 전면 화계에 많이 심겨져 있는 목단과 진달래는 수령이 오래 되었고, 지형상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육이 좋지 못하며 미숙한 전정으로 인하여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적절한 전지 및 전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중정당 동남쪽 장판각의 돌 기단 위에 장미 2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최근에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재 장소도 적당하지 않으며, 외래 수종으로서 생육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수종이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내삼문 전면 화계



장판각 주변에 식재된 잔디와 장미

- 장판각과 인접한 돌 기단 위에 장미와 함께 잔디를 식재하였는데 식물이 자라면 항상 습기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장판각의 특성상 주변이 공기가 잘 통하고 건조해야 하므로 장미와 함께 잔디도 제거해야 한다.
- 강당(장수)공간의 마당에 잔디가 일부 심겨져 있어서 전통건축의 마당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 강당(장수)공간의 환주문 서쪽 담장 하단부에 전기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복토가 필요하다.

3) 유식공간

유식공간 정비계획 목록

항목	내용	위치	정비계획
건축물정비	계단정비	수월루	보수
	기단정비	수월루	수리
환경정비	화계정비	수월루 뒤	전지, 전정
	수목정비	수월루 좌·우	수리
시설물정비	배수시설정비	수월루 주변	수리
	전기시설정비	수월루	이설

(1) 건축물

① 수월루

- 수월루 기단 상면 강회바름 및 전돌의 파손이 심각하여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리가 시급하다.
- 수월루 중층으로 올라가는 목재계단이 배수로 위에 걸쳐 있어 안정적으로 계단이 지지되지 않으며, 경사가 매우 급하여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현재의 계단을 제거하고 뒤로 물려 재설치하여야 한다.

(2) 조망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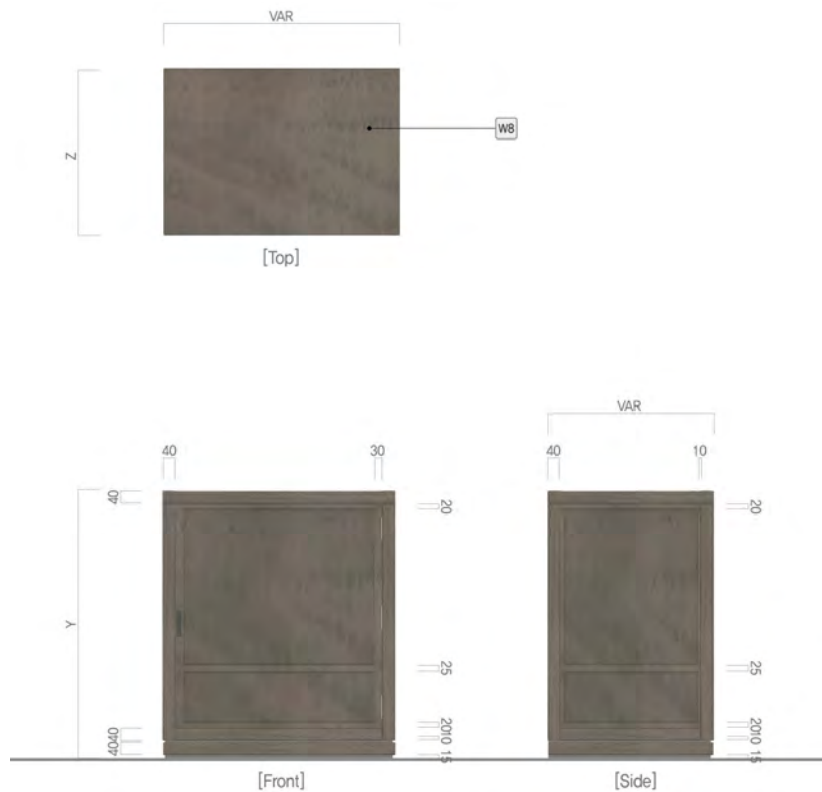
- 현재 유식공간으로서 수월루의 경관은 진입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문화해설사의 집 등의 시설물들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어 유식공간의 회복을 위한 시설물 이전이 시급하다.



수월루에서 바라본 진입 녹지공간

(3) 시설물

- 수월루 우측 배수로 내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 수월루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을 기둥에서 이격하여 설치하고, 분전함까지 연결되는 전선은 지하로 매설하며, 디자인은 서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분전함 디자인 (출처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4) 수목



환주문 동쪽 화계의 향나무와 박태기나무

- 수월루와 환주문 사이에 조성된 2단의 화계는 첫 재단의 왼쪽에 향나무 1그루와 박태기나무 1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식재되어 있어서 생육과 수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향나무는 중정당에서의 전망경관을 훼손할 만큼 키가 자라고 있으며, 박태기나무는 외래수종이면서 고건축 주변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모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월루에서 환주문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화계 하단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하다.

- 수월루 좌우에 인접하여 식재되어 있는 주목 2그루는 현재 수월루의 지붕과 나뭇가지가 부딪히고 있으며, 계속 성장할 경우 수월루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주문 화계 하단부 유실우려



수월루 좌우에 인접하여 식재된 주목

4) 관리공간

관리공간 정비계획 목록

항목	내용	위치	정비계획
건축물정비	계단정비	전사청	수리
	담장정비	곡간채	보수
	지붕정비	곡간채	보수
	변형부분정비	문간채	원상복원
환경정비	경관정비	문간채 주변	경관저해요소 및 가설물 제거
시설물정비	전기시설정비	전사청	이설

(1) 건축물

① 전사청



전사청(1992년 보수 전)



전사청(1992년 보수 후)



파손된 계단

- 전사청은 1977년 보수 시 기단을 시멘트로 보수하였다가 1992년 보수 시 자연석 기단으로 다시 보수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곡간채가 있는 아랫단에서 전사청으로 오르는 계단은 보수물질과 함께 파손되어 있어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보수 시 사용된 보수물질(시멘트 등)은 자연석과 이질감을 발생시키므로 보수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곡간채



곡간채(1981년 보수 후)



곡간채(2013년)

- 곡간채는 1981년에 부식재 교체, 번와공사, 토벽설치공사 등이 있었고, 1995년에 산자이상 해체수리, 드잡이 부식재 교체, 변화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곡간채 내부 서까래 간 양토가 탈락되어 산자가 노출되어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 곡간채 후면 담장은 부동침하로 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축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담장의 보수가 필요하다.



곡간채 내부 산자 노출



곡간채 후면 담장 균열

③ 문간채



문간채(1997년 보수 전)



문간채(2013년)

- 문간채는 1997년에 파손 및 훼손된 기와를 교체·보충하여 고르기하고, 일부 기울어진 기둥을 드잡이 하였으며, 퇴락한 벽체를 보수하였다.
- 1997년 보수 전의 사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형태에는 변형이 없으나, 현재 외양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좌측칸을 개조하여 창고로 사용하면서 잡자재들이 방치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문간채 우측칸은 디딜방아간이었으나, 현재 전면부를 변형하고 문을 달아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변형된 부분을 원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현재의 문간채(마당쪽)



변형된 디딜방아간

(3) 시설물

- 전사청 좌측칸 마루 기둥 옆 바닥에 전원플러그 연장선이 방치되어 있어 우천 시 화재위험이 높음으로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야 한다.
- 문간채 좌측칸 좌측으로 설치된 가설창고와 마당에 설치된 천막은 철거하여야한다.



바닥에 방치된 전원플러그



가설창고



가설천막

(4) 수목

■ 관리공간에는 화계, 화단이 없다.

■ 사주문 좌측 배수로 주변에 잡풀들이 자라고 있고, 곡간채 마당에서 전사청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으로 봉선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 제거하여야 한다.



사주문 좌측 배수로 주변의 잡풀



계단 좌측에 무성하게 자란 봉선화

2. 서원 외부 정비계획

1) 진입영역

진입영역 정비계획 목록

항목	내용	위치	정비계획
건축물 정비	비각정비	비각, 담장	내부 바닥 시멘트 제거, 담장 수리
	문화해설사의 집 정비		철거 및 이설
	(구)관리실		철거
환경 정비	수목정비	주차장 인근, 화장실 옆	제거, 보식
시설물 정비	주차장정비	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또는 이설

(1) 건축물

① 비각

■ 비각 기단 상면의 시멘트 마감이 심하게 파손되어 기단석이 탈락할 우려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며, 비각 내부 바닥이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어 문경공비와 조화롭지 못하므로 시멘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 담장 기와 및 와구토가 파손되었고, 담장에 균열이 심하여 보수가 필요하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구)관리실

■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구)관리실의 디자인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두 건물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서원에서의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서원으로의 진입동선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철거 후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화장실 뒤편으로 이전하여 설치한다.



문화해설사의 집 이전 위치



현재 문화해설사의 집, (구)관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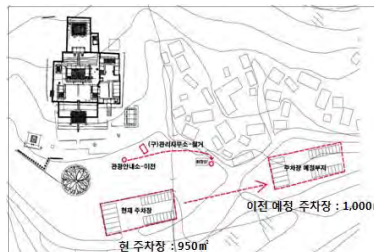
문화해설사의 집, (구)관리실 이전 후 경관

(2) 시설물

① 주차장

■ 주차장은 서원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버스의 주차 빈도가 높아 수월루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 주차장의 이설이 빠른 시일 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잔디 블럭으로 교체하여 조망경관의 훼손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 주차장의 이설은 달성 도동서원의 주요 경관에서 벗어나며, 전체 마스터플랜 및 차량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는 곳이고, 충효당과 연계하여 대형차량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현재 마을회관 앞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차장 이설 위치



현재의 주차장



잔디블럭 설치 후 주차장

② 파고라, 음수대, 버스정류장, 자동판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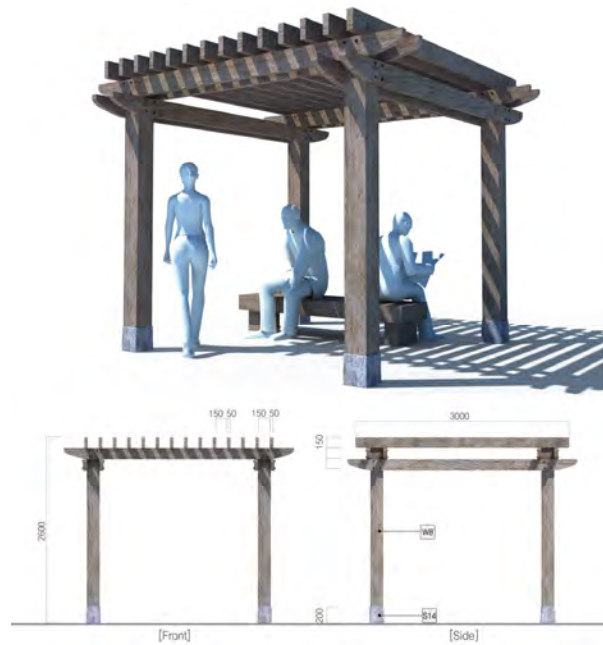
■ 현재 주차장 우측에 위치한 파고라, 음수대, 버스정류장, 자동판매기는 디자인 및 재질이 통일되지 않아 서원 및 진입영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서원의 경관을 훼손하므로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을 적용하여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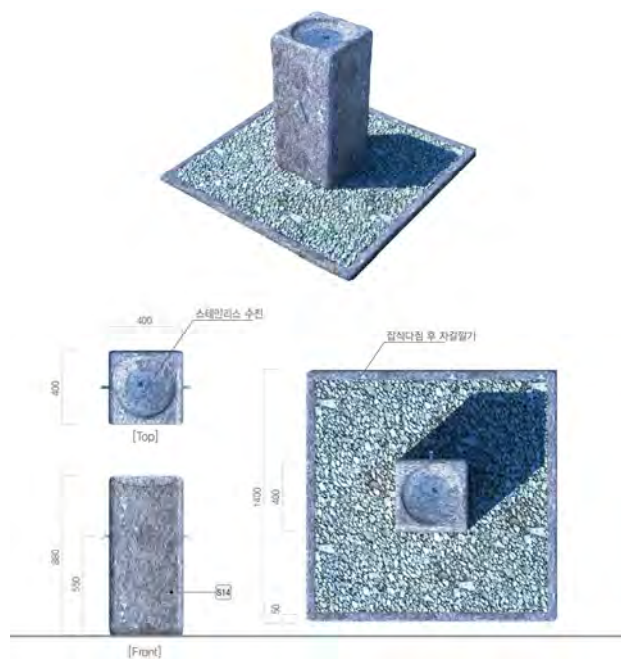
문화해설사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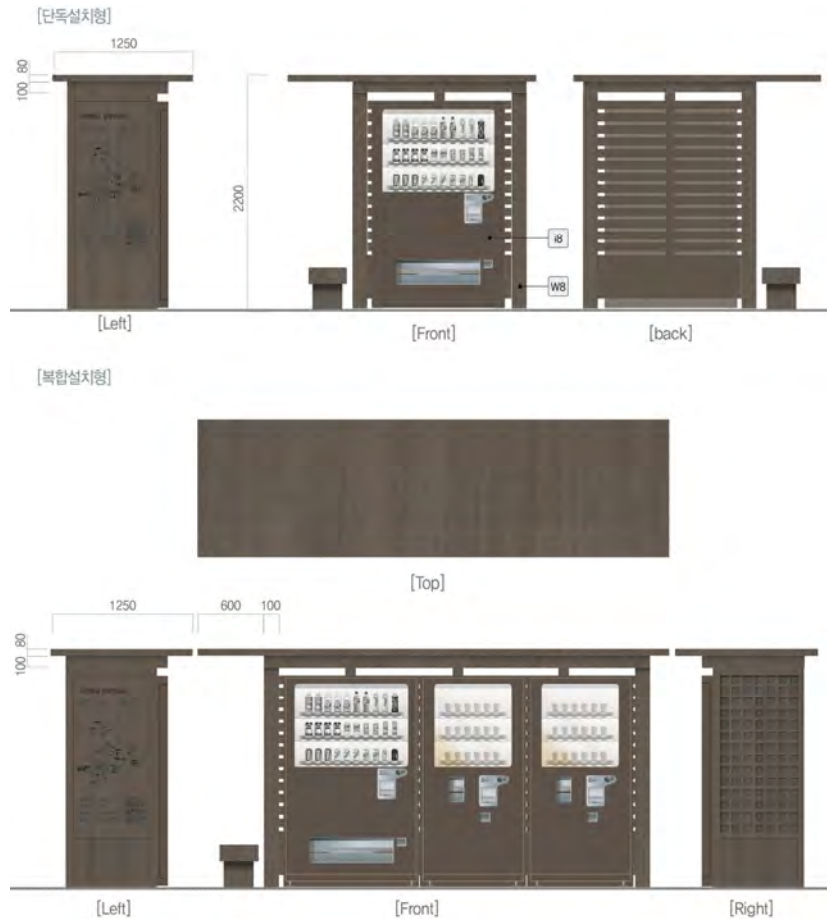
구 관리실



파고라 디자인 (출처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음수대 디자인 (출처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자동판매기함 디자인 (출처 :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3) 수목

- 진입공간에 자라고 있는 대구시 지정 보호수인 은행나무 노거수는 가장자리에 줄을 연결하여 경계구역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근원부까지 자유롭게 접근하므로 향후 노거수의 생육을 돕고 답압에 의한 피해를 줄여 뿌리의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나지막한 나무 목책을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을 막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은행나무 노거수의 굵은 가지의 무게를 지탱하고 수목보호를 위해서 인위적인 버팀목을 설치하였으나 크기, 색상, 비례, 주변경관에 있어서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은행나무 수령이 400년이나 되는 노거수이므로 강풍에 의한 가지의 부러짐 방지, 병충해 방제, 생육을 위한 토양배수, 비배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달성 도동서원 은행나무(보호수)

- 주진입로와 동선의 포장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마사토 포장이나 판석 포장(가운데 잔디식재)이 바람직하며, 길의 가장자리 요소요소에 영산홍이나 산철쭉을 군식 처리하여 서원 외부경관의 이미지를 높인다.
- 최근에 수월루 전방의 진입로 좌우의 넓은 축단에 매화나무를 각각 1그루씩 대칭으로 식재해 놓았는데 향후 나무가 거목이 되면 달성 도동서원 전면 경관을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차장 둘레의 가장자리에 쥐똥나무, 산철쭉, 영산홍 등으로 나지막한 산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산만한 분위기를 줄인다.
- 주차장과 지방도 사이의 완충녹지에 키가 낮은 조경수로 경관식재 한다.
- 주차장 동쪽 및 편익시설물 주변 소나무 식재지의 소나무 그루터기 아랫부분에 진달래, 산철쭉, 영산홍 등으로 하층 군식처리 한다.



주차장 동쪽 소나무 식재현황



마사토 포장 사례



영산홍 군식 처리 사례



수월루 진입로 축단에 식재된 매화나무



서원 정면 경관을 저해하는 느티나무

- 외부공간의 경관 상 서쪽 지역 마을의 민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노출되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므로 소나무를 식재하여 차폐하는 방법도 있다.
- 달성 도동서원 안내표지판 뒤편에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는 성장이 빠르고 크게 자라므로 서원의 정면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느티나무를 제거하여 서원의 정면 경관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배후영역

항목	내용	위치	정비계획
환경정비	수목정비	배후영역 소나무 숲	간벌
시설물정비	탐방로정비	등산로	탐방로 설치

(1) 시설물

① 탐방로

■ 현재 달성 도동서원에서 한훤당묘소까지의 등산로를 추후 한훤당 선생이 시묘살이를 하며 유교정신을 실천한 장소인 정수암까지 연계하는 탐방로를 설치한다.

■ 기존 등산로는 최대한 원상을 유지하며, 한훤당묘소에서 정수암까지의 구간은 기존 등산로와 같이하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하고, 부분별 숲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안내판



한훤당묘소 가는 길



탐방로 정비 계획도

(2) 수목

- 생육이 양호한 소나무들을 조금 벗어난 숲 속에는 어린 소나무와 잡목들이 같이 자라고 있으므로 소나무의 생육을 돕고 우량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간벌도 시행하여야 한다.
-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들이 많으므로 수시 예찰과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서원 경관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숲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3) 마을영역

항목	내용	위치	정비계획
건축물정비	민가정비	마을	마을 건축물 가이드라인 계획, 단계별 마을정비
시설물	편의시설정비	폐가 및 폐건물	폐가 철거 후 공원화

(1) 건축물

- 달성 도동서원 주변 마을의 민가는 노후 및 훼손이 심하고, 개축 시 외부 마감재를 벽돌, 시멘트, 사시, 슬레이트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달성 도동서원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 우선적으로 마을 건축물의 형태, 색채, 지붕선 등의 가이드라인을 계획하여 달성 도동서원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 단계별 마을정비
 - 1단계 : 폐가철거 및 공원화 추진
 - 2단계 : 가설건축물 철거
 - 3단계 : 마을 건축물을 조선중기 건축물로 복원



마을정비 1단계 : 폐가 철거 후 공원화 추진



마을 정비 2단계 : 가설건축물 철거



마을정비 3단계 : 전통마을 복원

(2) 시설물

- 폐가에 인접해 있는 체육시설 및 파고라는 활용성이 극히 저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폐가 철거 후 공원 조성 시 함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달성 도동서원 북서쪽에 위치한 나루터는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고, 콘크리트로 조성된 진입로 중간에 균열이 심하기 때문에 활용 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철거하고 비탈면은 식생피복한다.



폐가 인근 체육시설 및 파고라



나루터 진입로 균열 발생

4) 정수암영역

- 약 20년 동안 암자로 사용되며 스님이 거주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쪽 급경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식생피복만 시행하도록 한다.
- 현재 사용중인 소각장은 산불 등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산불에 대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



비탈면 식생피복



비탈면 식생피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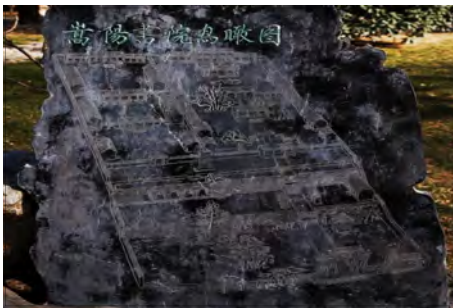


소각장

3. 경관 정비계획



중국 백록동 서원(당나라)



중국 송양서원(후주)

1) 경관정비의 방향 및 체계

(1) 서원의 경관 가치

① 고유성

■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송·원·명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수되나, 조선조에 이르러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그 영향은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으나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조선시대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조선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서원과과는 다른 고유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② 조화성

■ 서원의 역사경관에서 인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경관의 조화이다. 초기의 서원은 강학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원의 제향기능(祭享機能)과 책의 출판과 보급, 열람 등의 출판·장서(藏書)기능으로의 발전에 따라 서원의 건축적 변화도 꾀해졌다. 이러한 건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최대한 조화·순응하면서 자연경관과 인문·사회적 경관들이 상호 조화되어 표출하는 서원 경관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아호서원 입지



도산서원 입지(겸재 정선)

(2) 서원 경관의 보전관리 방향

① 전제조건

- 서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관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러한 활력은 조망자가 현재의 서원 경관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 사람의 성리학적 근거지였던 서원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천인합일’의 사상에 근거한 자연과의 조화 등 서원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서원의 경관보존은 ‘현재 서원경관의 시각적 체험’을 통해 ‘과거 서원의 경관을 상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거와 현재의 경관을 동일 시 할 수 있도록 조망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 한국 서원의 경관보존 방향과 직결되며, 미래까지 한국 서원경관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서원경관의 보존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유추하여 정립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¹⁶⁹⁾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바라본 경관



달성 도동서원 주변 경관

② 보존 방향

- 사라지거나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경관을 보완하는 것
 - 한국의 서원은 500여년의 세월동안 정치·사회·문화사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1871년 서원 철폐령 이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과정 속에서 서원 및 주변 자연경관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경관들을 재현, 보완하여 서원경관의 원형적 가치를 회복한다.
- 현재에도 강하게 인지되는 경관들을 지키는 것
 -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원들은 살아남았으며, 이후 흥선 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비록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성리학적 질서를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 향촌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에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주변 자연경관과 더불어 선조들이 과거에 인지하던 경관들을 지켜 서원의 경관 가치를 지속시킨다.

169)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보전관리 계획, 2010, p.1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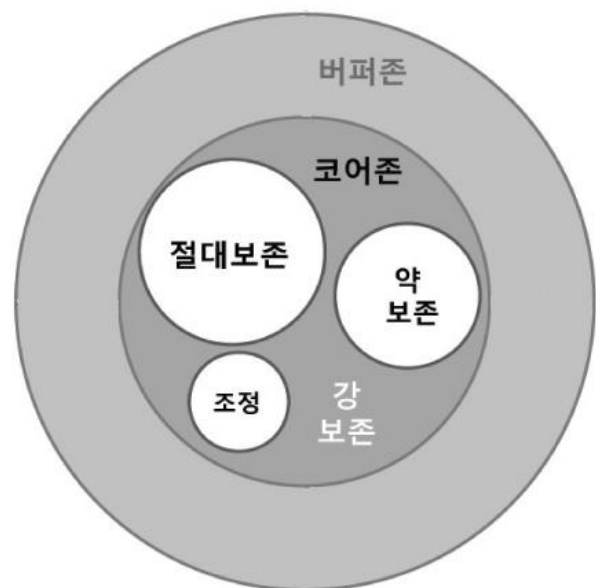
- 서원 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힘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을 발굴하는 것
- 조선의 서원은 서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자연이 빼어난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설정하고 구곡시가(九曲時畵歌)를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곡도(九曲圖)를 그려 완상하면서 성리의 이념을 꽃피우고 구곡비평(九曲批評)을 전개하는 등 이른바 구곡문화(九曲文化)를 형성한다.

■ 이러한 구곡문화를 조사·발굴하여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서원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을 모색하여 서원경관의 활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을 발굴·도입한다. 단 도입하는 경관은 기존의 서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존영역의 설정

① 서원경관의 보존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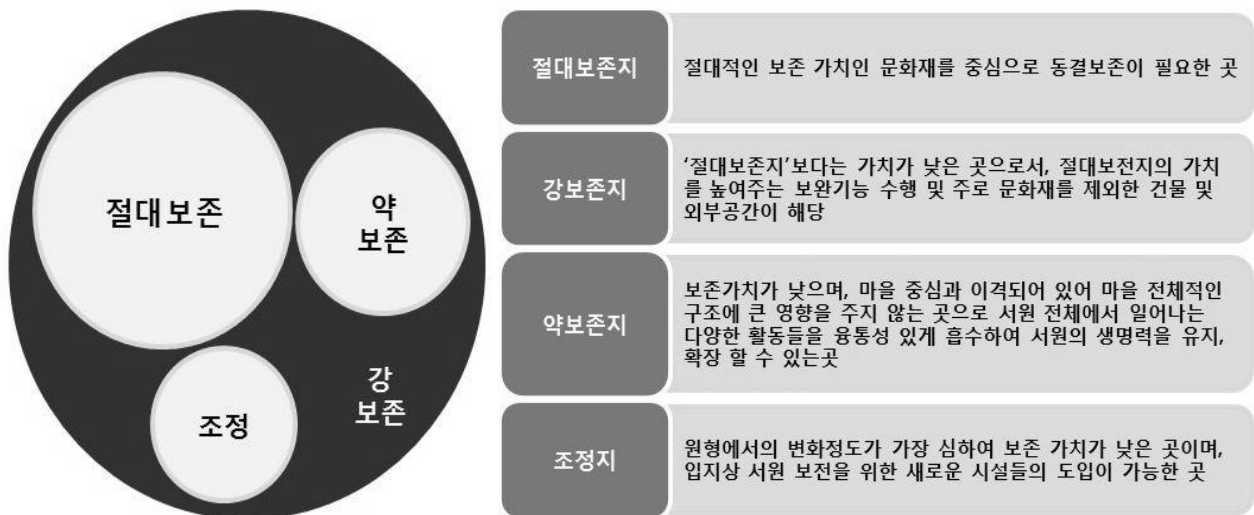
- 서원의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며, 주변 자연경관에 순응·조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서원경관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또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서원 경관과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계별 경관보존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물 혹은 자연환경은 경관보존의 '코어존'(core zone)으로 설정하고, 서원경관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자연, 생산, 주거 등) 환경을 '버퍼존'(buffer zone)으로 설정한다.



서원의 보존 범위

② 서원경관의 보존 위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의 경관은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 그러므로 문화재구역 이외에 서원과의 역사·경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존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존위계는 '절대보존지', '강보존지', '약보존지', '조정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보존 위계 설정

2) 경관 보존구역 설정

(1) 경관보존구역 설정

① 코어존(Core Zone)과 버퍼존(Buffer Zone)의 설정

■ 코어존

- 달성 도동서원을 기점으로 도동서원의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으로 도동서원에서 조망되는 최대한의 구역을 설정하여 동결 보존한다.
- 달성 도동서원의 가시·조망권에 들어오는 서원 주변의 산 능선 내부와 달성 도동서원이 입지하고 있는 산 너머의 정수암과 일부 지역까지 일괄 코어존으로 설정하여 달성 도동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지 조건을 보존하도록 한다.

■ 버퍼존

- 달성 도동서원 경관의 간접영향권으로 코어존의 기준이 된 서원 주변 산 능선에서 조망되는 2선의 산 능선을 연결하여 버퍼존으로 설정하여 달성 도동서원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완충공간이 되도록 한다.

3) 경관 관리방안¹⁷⁰⁾

(1) 경관관리영역의 설정

■ 경관관리영역의 구분

- 서원 및 향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범위를 문화지정 범위와 문화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관리대상을 추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서원의 관람 및 기능을 고려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서원 내부공간, 서원주변의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등 서원 관람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상인 서원 외부공간, 서원으로의 접근로 및 서원 주변의 민가 등 서원 주변공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완충영역으로 구분한다.

관리범위



관리대상

1 영역 서원내부의 방문자의 관람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관리대상 설정 각종안내시설 가로등 휴게시설	2 영역 서원주차장으로부터 서원내부로 진입 동선상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관리대상 설정 주차장 관광안내소 안전시설 각종안내시설
3 영역 서원주변의 경관에 포함되거나 경관특성과 관련된 시설물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관리대상 설정 버스정류장 옥외광고물 주변건축물	4 영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민가, 광고물, 안내시설, 기반시설 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설정 개발사업 건축물 옥외광고물 기반시설

170) 문화재청,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2011 참조

(2) 경관관리영역별 가이드라인

① 경관관리영역별 경관관리 기본방향

■ 서원 및 향교의 공간적 기능, 관람자의 행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된 경관관리영역에 따라 해당공간의 특성별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과 공공디자인의 연출 방향을 설정한다.

제1영역 - 문화재관리



“문화유산 본연의 모습과 조화되는 시설물”

문화재의 보존과 관람기능에 목적을 두어 시설물설치를 최소화하고 서원 및 향교의 경관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제2영역 - 시설물관리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방문자가 진입부 및 주차장으로부터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의 동선상에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정비한다

제3영역 - 조망관리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주변경관 연출”

차량진입 시 서원주변지역의 건축물의 지붕, 담장, 대문, 외부공간, 시설물 등 민간시설을 관리하여 문화유산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4영역 - 환경관리



“이질적인 경관의 최소화”

배후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500m)의 다양한 인공물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연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를 관리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② 제1영역 - 서원내부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서원 및 향교의 내부영역은 서원자체의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이질적인 경관을 방지하며 그 고유의 전통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서원 및 향교의 담장 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안내를 위한 정보시설,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 CCTV, 보안등, 소화시설, 분전함 등의 관리시설 일체를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 관리방향

서원 및 향교의 관람기능 및 편의기능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공공시설물이 문화유산 고유의 공간적인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거형 디자인에 원칙을 두고 관리한다.

■ 가이드라인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기능을 중심으로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 시설물이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를 고려한다. • 문화자원과 부조화 되는 시설은 비관람 동선으로 배치를 조정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를 최소화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이용자의 연령, 행태 등을 고려하여 높이 및 규모를 결정한다. • 안내판이 여러 개의 설치될 경우 높이 및 규모를 통일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서원 및 향교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외관을 고려한다. • 형태적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양식 및 공간기법을 고려한다. • 광택, 유리 등 문화자원과 이질적인 재료는 사용을 지양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명도,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한다. • 글자색은 바탕색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 시인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경우 주조색과의 대비를 고려한다.



③ 제2영역 - 서원외부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서원 및 향교의 외부영역은 방문객의 편의 및 이용성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서원자체의 경관과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서원 및 향교의 담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문화재해설사의 집 등 공공건축물, 각종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판, 유도안내판 등 정보시설,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 볼라드, 보행등, 플랜터 등의 관리시설 일체를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 관리방향

서원 및 향교의 관람을 위하여 보행이 시작되는 주차장으로부터 서원 건축물 입구에 이르기 까지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서원내부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 가이드라인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자의 관람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설을 확충한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통일감 있게 조성한다. 진입동선 돌출시설물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를 조정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물은 2영역에 배치한다. 수용 및 관람 인원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한다. 안내시설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조정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안내소,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건축물은 서원의 공간 및 서원의 건축양식에 조화 되도록 연출한다. 함께 조망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형태적인 유사성이 부각되도록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기능에 중점을 두어 시인성을 확보한다. 1영역에 비해 보조색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한다. 문화유산으로의 전이공간으로서 정온한 분위기의 색채를 사용한다.



④ 제3영역 - 서원주변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서원 및 향교의 주변영역에서는 서원에서 주변으로 또는 주변에서 서원으로 조망 시 돌출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문화유산과 통일감 있는 경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서원 및 향교의 주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붕, 담장, 광고물, 현수막, 위성안테나, 부속시설 가림막 등의 민간건축물 요소, 유도안내판, 교통시설안내판, 시설입구 안내판 등 각종 안내를 위한 정보시설, 포장, 교량, 교차로 등 기반시설 등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 관리방향

서원 및 향교로의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문화유산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 공공기반시설 등을 돌출되지 않도록 문화재와 유사한 코드의 색을 지정하고 가림막을 도입하여 차폐하는 등의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 가이드라인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진입로 변 건축물의 담장, 대문 등은 지나치게 현대적이거나 낙후된 이미지의 노출을 지양한다. 공공통로에 사설시설의 물건적치, 방치 등 노출행위를 제한한다.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마을의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은 문화재 지정구역 내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지나치게 압도적인 기반시설의 조성을 제한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건축양식 또는 전통양식과 지나치게 이질적인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는 가급적 설치를 지양한다. 동일영역 내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형태적인 통일성을 연출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영역의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돌출색 사용을 금한다. 일부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한해 강조색을 허용한다. 서원 내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지붕은 통일감 있는 색채로 연출한다.



⑤ 제4영역 - 서원완충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서원 및 향교의 완충영역은 일정거리 내 다양한 인공물을 대상으로 현상변경 등의 행위 시 문화자원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대상

서원 및 향교로부터 500m(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내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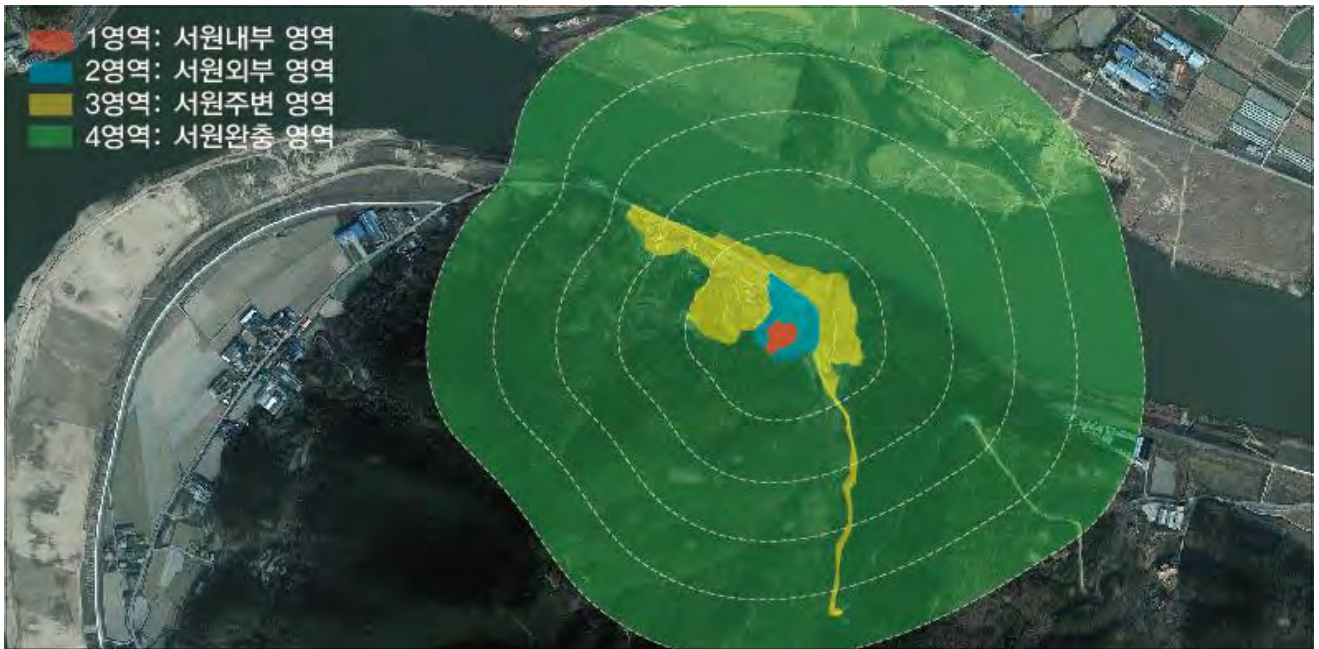
■ 관리방향

서원 및 향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질적인 개발행위, 현상변경 등을 관리하고 통일감 있는 경관을 유지시키도록 경관을 관리한다.

■ 가이드라인

개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각종 개발행위는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서원 및 향교의 규모, 색채,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사율이 높은 재질, 지나치게 현대적인 건축물은 가급적 지양하고 형태, 색채, 재료적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다. 단일 조망영역내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지붕은 통일하도록 한다.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려한 장식보다는 주변문화유산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또는 재료가 연계성을 지니도록 조성한다.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색을 살린 지나친 디자인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문화유산 주변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자전거길, 둘레길 등 접근동선을 활성화한다.

(3) 달성 도동서원의 경관관리 범위 설정



1영역 - 서원내부영역	2영역 - 서원외부영역	3영역 - 서원주변영역	4영역 - 서원완충영역
담장을 따라 동선조성 동선주변의 인공시설 차폐	서원 뒤편의 기계실 제거 권장	서원과 숙박시설(충효예절관) 연결로 내 유도안내판 설치	영역 공통 가이드라인 준수

(4) 달성 도동서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① 1영역 - 서원 내부영역

- 보물로 지정된 담장은 담장을 따라 동선을 조성하고 동선 주변의 인공시설물은 차폐 혹은 제거
- 담장 주변의 보안등은 돌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이를 최대한 낮추거나 제거
- 기계실 등 보조시설은 제거가 어려울 경우 관광객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설명안내판을 설치

② 2영역 - 서원 외부영역

- 서원 뒤편으로 배치된 기계실은 제거하는 것을 권장하나 제거가 어려울 경우 관광객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설명안내판을 설치
- 이용이 불가한 유물전시관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권장
- 관리사무소와 관광안내소는 기능성 향상을 고려하여 통합 배치하는 것을 권장
- 보호수 주변으로 휴게공간의 조성을 권장
- 주차장의 자동판매기는 관리가 부실하고 노후 되었으므로 제거를 권장

③ 3영역 - 서원 주변영역

- 북서측에서 진입하는 MTB코스(다람재길)에는 달성 도동서원 진입을 알리는 안내시설 및 상징시설을 도입
- 도동리 마을길 내 공공시설물은 달성 도동서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 진입로(구지서로) 내 방치되어 있는 적재물은 차폐 혹은 제거 등을 통해 간결한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도록 관리
- 도동나루 진입부에는 달성 도동서원을 상징할 수 있는 전망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
- 서원과 숙박시설(가칭, 충효예절관)을 연결하는 연결로에는 숙박시설 이용향상을 고려하여 연결로 내 유도안내판을 설치
- 서원~숙박시설 연결로에는 야간이용을 고려한 조명시설을 확충
- 인접 민가건축물 서원과 조화롭게 정비

④ 4영역 - 서원 완충영역

- 경관관리영역 공통 가이드라인의 4영역 “서원완충영역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⑤ 경관관리계획도



(5) 설치 및 관리주체에 따른 관리방향

관리영역	설치주체	관리주체
서원 내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준수 • 설치하고자하는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자가 검토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디자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협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관리단체에서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타 시설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인지 협의한다.
서원 외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사설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준수 •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준수 • 설치하고자하는 사설시설물,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자가 검토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타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디자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협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는 주민, 지자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타 시설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인지 협의한다.
서원 주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상업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준수 •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준수 • 주민이나 지자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이나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자가 검토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타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디자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는 서원의 주변공간에서 주민이나 지자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타 시설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인지 협의한다.
서원 완충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건축물, 옥외공간 등에 가이드라인 준수 •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준수 • 서원완충영역 내에서 조성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건축물, 옥외공간,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자가 검토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되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타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디자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와 협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에 반영 • 지자체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외 서원완충영역에 대한 건축물, 옥외공간, 공공시설물 등 가이드라인을 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4) 달성 도동서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¹⁷¹⁾

(1)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시설물은 크게 공공건축물, 안내시설물, 편의시설물, 조명시설물, 안전시설물, 기타시설물로 구분하고 각 시설물을 구분하였다.

■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시설물		
공공건축물	관광안내소 및 해설자대기소	화장실	
안내시설물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설명안내판
	유도(길찾기)안내판	행사정보안내판	금지·주의안내판
	공사안내판	화장실안내판	시설안내판
	수목안내판	주차안내판	사이드포스트
편의시설물	휴게의자	그늘시렁(파고라)	휴지통
	화분대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휠체어보관대	자동판매기함	공중전화함
안전시설물	경계울타리	볼라드	소화시설
조명시설물	보안등	벽부등	
기타시설물	우편함 및 문화재 순찰함	부속시설 가림막	분전함 및 전화단자함
	공사가림막	광고시설물	표지석
	CCTV / 위성안테나	현수막 게시대 / 맨홀덮개	수목지주대

171) 문화재청,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2011 참조

(2)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배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기타의 6가지 항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①개방의 원칙 _ 배치



개방의 원칙_배치

■ 중정에서 자연환경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 배치

■ 주요 조망점에서 문화재로 시각적 차폐를 경감하는 열린 배치

②최소의 원칙 _ 규모



최소의 원칙_규모

■ 수평적 면적을 최소화하여 배후 문화재로의 조망성 확보

■ 수직적 높이를 문화재의 높이보다 낮추어 문화재 이미지 보전

③기능의 원칙 _ 형태



기능의 원칙_형태

■ 서원의 혼을 형상화하여 단출하고 절제된 간결함을 연출

■ 기능에 따른 형태의 차별화로 문화재와의 이미지 구분

④조화의 원칙 _ 재료



조화의 원칙_재료

■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자연재료의 도입

■ 서원 건축물의 재료를 반영한 일체감 있는 재료의 선정

⑤위계의 원칙 _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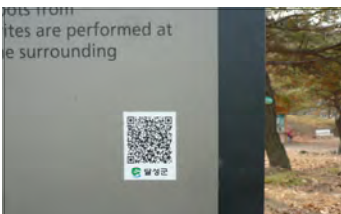


위계의 원칙_색채

■ 시설물 설치위치의 위계에 따른 색의 선정 및 적용

■ 저채도의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으로 통일감 구현

⑥통합의 원칙 _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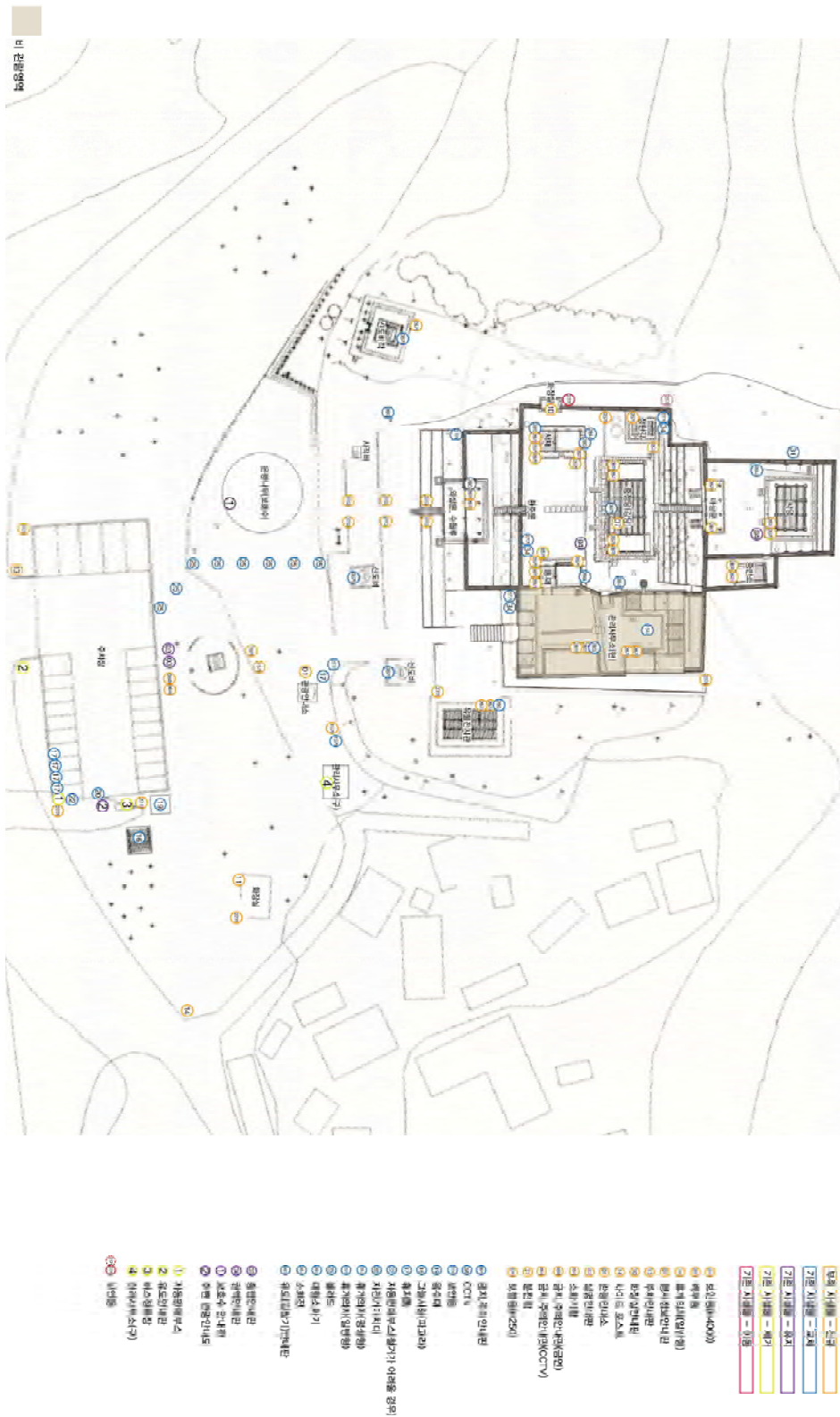


통합의 원칙_기타

■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

■ 새로운 변화에 유연한 스마트 디자인 시스템 구현

5) 달성 도동서원 공공시설물 배치도(A3 접지)



4. 방재시설 정비계획

1) 현황

- 달성 도동서원의 소방·방재시설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통하여 화재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CCTV와 화재감지기 등으로 24시간 감시를 통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방재 시설 강화에 대한 법적 검토

- 문화재에 대한 방재법규 강화로 달성 도동서원의 소방용 설비, 화재 감지기, 도난방지장치와 같은 시설 강화와 피난경로 확보, 정기적 건물 유지관리, 출화방지 대책마련, 방재·안전 교육과 같은 방재 기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방재시설 법규 검토

법적 검토 안	법적 검토 적용 안	
	방재 시설 부분	방재 교육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 안 수립 •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장치 설치 • 문화재 안전점검, 방재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방재의 날(2월 10일) 활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 설비 보완 • 화재감지기 설치 • 출화방지 대책 마련 • 도난방지장치 설치 • 피난경로 확보 • 정기적 건물 유지관리 • 방염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교육 실시 • 관광객 화재안전교육 • 방재 매뉴얼 구축

3) 방재용 설비 보완

■ 옥외 소화전은 방호대상물¹⁷²⁾의 각 부분¹⁷³⁾에서 하나의 호수접속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는 장판각에 소형소화기를 추가 비치하고,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소화기 및 소화전을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소화기함 및 소화전을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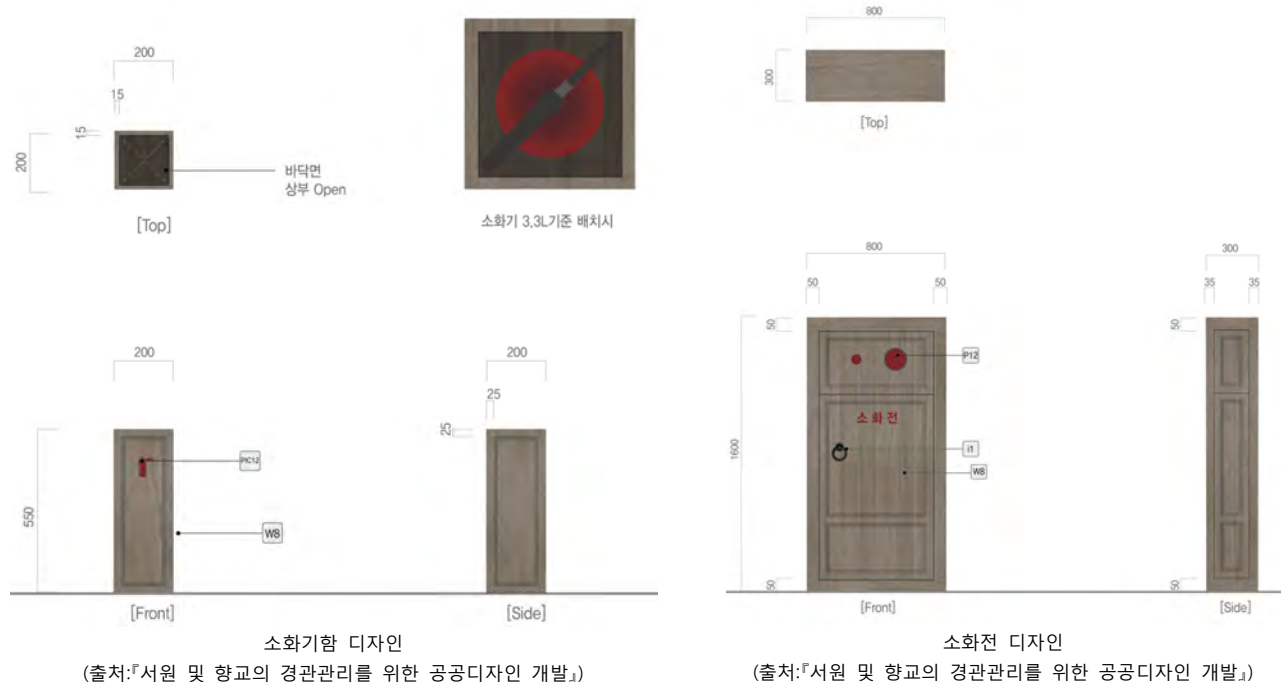
달성 도동서원 소화전 및 소화기함 정비표

구 분	소 화 전 (개소)	소 화 기 함 (개)		비고
		소 형	대 형	
사 당	1	4	1	
증 반 소		2		
내 삼 문		4	1	
중 정 당	1	5	1	
거 인 재		3	1	
거 의 재	1	3	1	
장 판 각		3		추가 비치
수 월 루		6	2	
전 사 청		4	1	
곡 간 채		4	1	
비 각		3		
유물전시관		2	1	
기 계 실		2	1	
구관리실		1	1	
총 계	3	46	12	

■ 소화기함 및 소화전의 디자인 및 재질은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2) 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 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173)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다.



4) 방재용 침단 설비 도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이 다른 건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막설비, 협소한 탐방로나 소화전의 분사범위를 초과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소방장비 등의 시설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월정사 적광전 수막설비



이동식 소방장비

5) 정기적 안전점검·교육 필요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가스통, 아궁이, 연통, 전기배선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후 설비는 교체하고 방재에 취약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수한다.
-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훈련을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진압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한다.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1. 서원 관리계획

1)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목적

■ 관리 및 활용의 구체적 목표는 문화재청에서 2011년 발간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서원을 품격 높은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서원을 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¹⁷⁴⁾, 완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태적·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은 목표는 서원의 건축물 보존관리, 고문서(서적)과 자료의 보존관리, 경관 보전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원의 활용과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대상	구체적 목표
서원의 관리 및 활용	건축물	· 서원의 보수 및 정비 활용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고문서(서적)	· 서원의 기초조사방법과 기록에 대한 사항
	자료	· 서원의 보존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경관	· 서원의 수리와 보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에 대한 사항
	안전	· 서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

2) 계획의 범위

■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계획의 범위는 기존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¹⁷⁵⁾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74)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문화재의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무형적 자산, 기풍과 저서 및 기타 내·외부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된 경우에 한한다. 특히 고고학적 유적이거나 역사적 건축물, 시가지의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진정성은 예술적, 창조적 우수성에 관한 것이며 진실과 진가를 강조하고 있다.(<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베니스 헌장」,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등 참조)

175)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1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서원은 건축, 제향, 인물, 고문서, 의례 등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 종합적 문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서원 건축의 보존·관리는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¹⁷⁶⁾인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주형 문화유산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서원은 제향과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원의 보존이란 단순히 원형 그대로 문화적 상징성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갖고 있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에야 완전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라는 조화로운 보존관리실행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서원의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서원보전의 목적을 제시하고 보존 시행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원의 보존관리주체¹⁷⁷⁾는 법이 제시한 기본 목적과 시행의 틀을 적용하여 보존관리를 실행하는 주체로 서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크게 법에 의해 임명된 주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76)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발췌한 용어로 하회·양동 마을과 같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라고 지칭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정주형 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177) 현재 도산·병산서원은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다. [서원 운영·존현의례(운영위원회), 양사(선비문화수련원), 시설관리(관리사무소·안동시), 서책·목판보존(한국국학진흥원)]

3. 관리 현황 종합

1) 관리체계의 문제점

- 서원 보존관리 - 사적으로서 단위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점적 보수에 집중
- 국가 지원금 - 문화재를 위주로 복원 및 보수를 위한 부분 설계에 한정되며 자립도 배제
- 소유자와 관리자가 분리 - 관리자는 원형보존만을 목표로 설정
- 서원 관리 · 운영 불편
- 주거자의 자의행위로서 전통경관의 부분적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남

2) 관리체계 계획

- 서원의 면적 정비로 인한 서원의 정체성 확보
- 유교사상을 확립하여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 충효당을 이용하여 주변 연계프로그램을 접목, 그 수익으로 달성 도동서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경미한 수리는 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나 알려지지 않음 (숙지필요, 소요자금 필요)
- 소유자와 관리주체간의 협의 및 상호보완 시스템 마련 필요

4. 활용계획

1) 서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 서원은 제향과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지어진 건물로서 각각의 공간에는 거기에 맞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 건물을 사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갖고 있는 내포적 의미를 고려하여 알맞은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
 - 동재, 서재, 수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2) 활용 방안¹⁷⁸⁾¹⁷⁹⁾

(1) 개요

■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지역의 교육, 장서, 문화의 중심역할을 했던 서원이 개화기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서원이 지니고 있던 일부 기능이 소멸되었으나 서원 주변의 경관과 함께 서원 내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건립 당시 혹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원의 경우 변화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정받지 못한 서원은 주변경관 및 서원 내 경관이 크게 변형되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의 경우 사적 제488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서원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한국을 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서원의 교육기능과 장서 기능은 소멸되고 향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잘 보존하여 전승해야하며, 서원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사회에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발해야 한다.

(2) 유교문화 활용 소재

① 문화브랜드 가치 활용

■ 수백년간 지속되어져온 서원의 전통문화유산은 긴 세월동안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의 유·무형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도서출판, 의례, 청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공간까지 잘 남아 있다. 서원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 기능을 되살리고, 성리학의 총본산인 서원을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지성사의 거점 기능

■ 서원은 학맥과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며, 저명한 성리학자의 제향, 한국 서원 교육, 역사 변천의 증거물, 거점공간으로서 서원의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향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들 공간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한국, 더 나아가 동양의 역사와 사상 및 철학을 배우는 교육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78)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문화재청. 2010) 정리·인용 - 이해준, 김덕현, 이왕기

179) 서원·전통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증진 연구 - 국가브랜드위원회

서원의 프로그램 및 활용

프로그램 유형		활용공간	활용내용
교육의례	제향	사당, 재실, 전사청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전통교육	한자교실	강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예절교실	강당, 재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답사	동아리 학습	강당, 재실	취미나 학습 동아리 활동
	한옥 체험	재실	전통 한옥 휴게 체험
	현장 답사	서원 전체 및 주변 경관	서원의 역사·건축·경관 답사
관광 및 홍보	전시 공간	유물전시관	서원의 역사·인물·유물 전시

③ 제향의례의 전통

■ 서원의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이들 의례는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밝히고 후대에 널리 전승하는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④ 지역 정체성 확립

■ 서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공동체를 확립하는데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서원에는 해당지역에 유서를 둔 명현들이 제향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기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서원의 강학례의 원래 목적 지역 사람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의례였던 만큼, 그러한 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시행한다면 서원이 지역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전통 교육 공간의 유산적 가치

■ 서원의 대표적 기능인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서원이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서원 자체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활용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⑥ 활용가능 콘텐츠

■ 긴 세월을 이어온 교육, 의례, 운영기록문서

■ 학CLR규약의례 : 원규, 절목, 계(약)헌, 홀기, 의례

■ 교육, 성적기록 : 강안, 강회록, 고강록, 장서, 출판

■ 재정, 운영 전답안, 노비안, 명문

■ 창건, 연혁기록 : 상량문, 창건통문, 중수기, 중기, 수리기, 공적비

■ 학맥, 정치 : 통문, 소청, 시도기, 고왕록, 시회 등

■ 서원의 문화적 재활용은 이러한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사적 의미와 변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으며, 서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원형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도입하여 박제화 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활용방안

① 경관, 건축자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 자원특성과 경쟁력

■ 서원의 장소성과 경관은 한국적 정서와 자연, 건축관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은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소규모 문화교육행사장으로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원주변의 자연경관과 명소를 서원과 연계한다면 활용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내용

■ 문화 교육행사장으로의 적극 활용방안 : 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이다. 교육의 특징을 이용하여 문화교류의 기능과 부합되는 교육행사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교육 문화 활용 프로그램은 각 서원의 접근성과 위치를 고려하여 서원에 알맞게 프로그램화 한다. 서원 강당 앞마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므로 강당 앞마당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지역에 인접된 서원의 경우 음악회, 문학회 등 활동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서원 공연사례-1



서원 공연사례-2



서원 공연사례-3



서원 공연사례-4

②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

- 서원과 대학을 연계하여 인문학 학술연구회, 학술대회 장소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인접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학술동아리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한다. 연구 동아리, 연구회, 학회 등의 고전 강독, 지역문화, 인물사살 특강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또한 과거 시사단에서 별시를 치렀던 점을 착안하여 시사단에서 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적응자에 대한 프로그램 증가해자의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서원에서의 교육기능을 피해자위주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교에 이해 및 실천능력 향상



서원 강연-1



서원 강연-2



서원 강연-3



백일장 사례

③ 서원산수(書院山水) 강회(講會) 및 산수실경(山水實景) 극장

- 서원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문화강연장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주제로는 천광운영 정도로 할 수 있겠으며 서원에서 개최하는 강회로 세계적인 심포지엄 주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도산서원의 「퇴계의 철학사상」 등이다. 경관이 수려한 서원의 경우 서원의 산수 경치를 실경 무대와 배경으로 하는 가설 산수환경극장, 서원의 서사(敍事)와 경관을 결합하여 서원의 문학적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④ 서원문화 유적답사체험코스 개발

■ 자원특성과 경쟁력

- 여가를 활용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유적 방문 시 효율적인 코스와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방문객은 서원문화와 해당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알릴 기회로 작용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원의 기능과 문화 성격별 유교문화재를 알리고, 서원유물을 통하여 서원의 가치를 재인식 시키는 계기를 만들도록 한다.

■ 개발내용

- 지역별·의미별·주제별 코스 개발 : 서원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유산 방문지로 차별화 하고 서원과 관련된 인물·성씨, 문화유적 기능별, 특화된 주제와 체험, 이벤트 별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서원 인근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거나 관련사건, 인물을 발굴하여 다양한 주제를 체험하도록 한다.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사우, 정려, 인물유적, 일화, 전설, 동족마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⑤ 체험과 탐방을 겸한 테마

■ 서원에서의 유교교육, 의례 체험, 서책 및 목판 제작

■ 인물유적 탐방 : 서원에 제향된 저명 인물들의 생애와 관련 유적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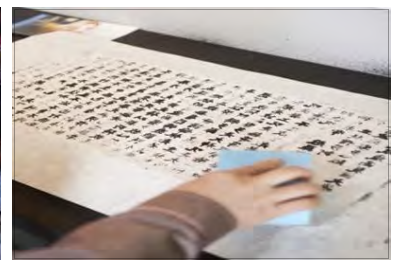
■ 유교문화 유물의 재인식 :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 운영의 실제 모습(관련자료 동원) :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배출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을 포함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소장 자료 전시 및 학습장 개설



서책만들기 체험



목판체험-1



목판체험-2



목판체험-3

⑥ 서원문화제 개최

㉠ 자원특성과 경쟁력

■ 서원의 출신인물, 제향인물을 대상으로 문화제 또는 유교문화 종합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당해 서원만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적의 진정성을 이용하여 장소를 완벽하게 조선 시대로 재구성화 할 수 있다.

■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유교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는 이벤트 효과가 있으며 정적인 서원문화의 이미지를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인 달성 도동서원을 보고 듣기만 하는 간접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을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답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달성 도동서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서원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교육적·체험적·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발내용

■ 조선시대 서원의 재구성(전통교육 및 강학 체험 이벤트)

▪ 옛 조선시대 서원으로 입장 : 원생으로 생활을 통하여 서원문화에 대한 경험을 쉽게 도와주고, 선비의 교육방법과 내용, 학문세계를 학습하며 동시에 동·서재의 기숙과 생활을 체험한다.

▪ 서원의 생활모습 전반 재구성 : 서원에서의 규약, 교육과정, 시험, 의례 등을 직접 체험하며 교육 및 학문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한다. 그리하여 서원의 강학적 전통을 복원하고 관련 분야 대학 등과 연계, 교육과정과 교과서 운영의 실제, 재정 인적 구조, 규약 등을 재구성 한다.

▪ 임원이 서원의 원장과 임원으로 참가 : 서원의 역할과 의무, 생활 양식, 규약 등을 알려주고 수행하게 도와준다. 그리고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설 프로그램의 종합운영 및 특화 이벤트

▪ 기존 운영되던 서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원생의 서원생활을 영상이나 연극화 하여 상영하고 각종 의식행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 서원관련 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제별 답사기행 기획

- 관련유적 : 타 서원, 재실, 사당, 정자, 종가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그룹별, 연령별, 목적별로 적합한 답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연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며,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및 유교문화의 정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전국규모 학술회의 개최

- 선비문화제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전국에 있는 서원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된다.

■ 유교·서원문화 퀴즈대회

-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되며, 퀴즈의 내용은 쉽고 재미있게 서원과 전통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서원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로 구성한다.

■ 서원의 건립의미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

- 음악회를 통한 서원 역사문화 보급
- 문학회를 통한 서원 역사문화 보급
- 전시회를 통한 서원 역사문화 보급
- 기타 서원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행사

• 서원경관의 발굴과 사진, 스케치대회

- 서원 주변경관의 가치를 이해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사진, 스케치대회를 개최
- 계절별, 기후별로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골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 서원스टे이

- 서원이 갖고 있는 강학과 제향만을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건축, 음식, 예절 등의 복합적인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서원스टे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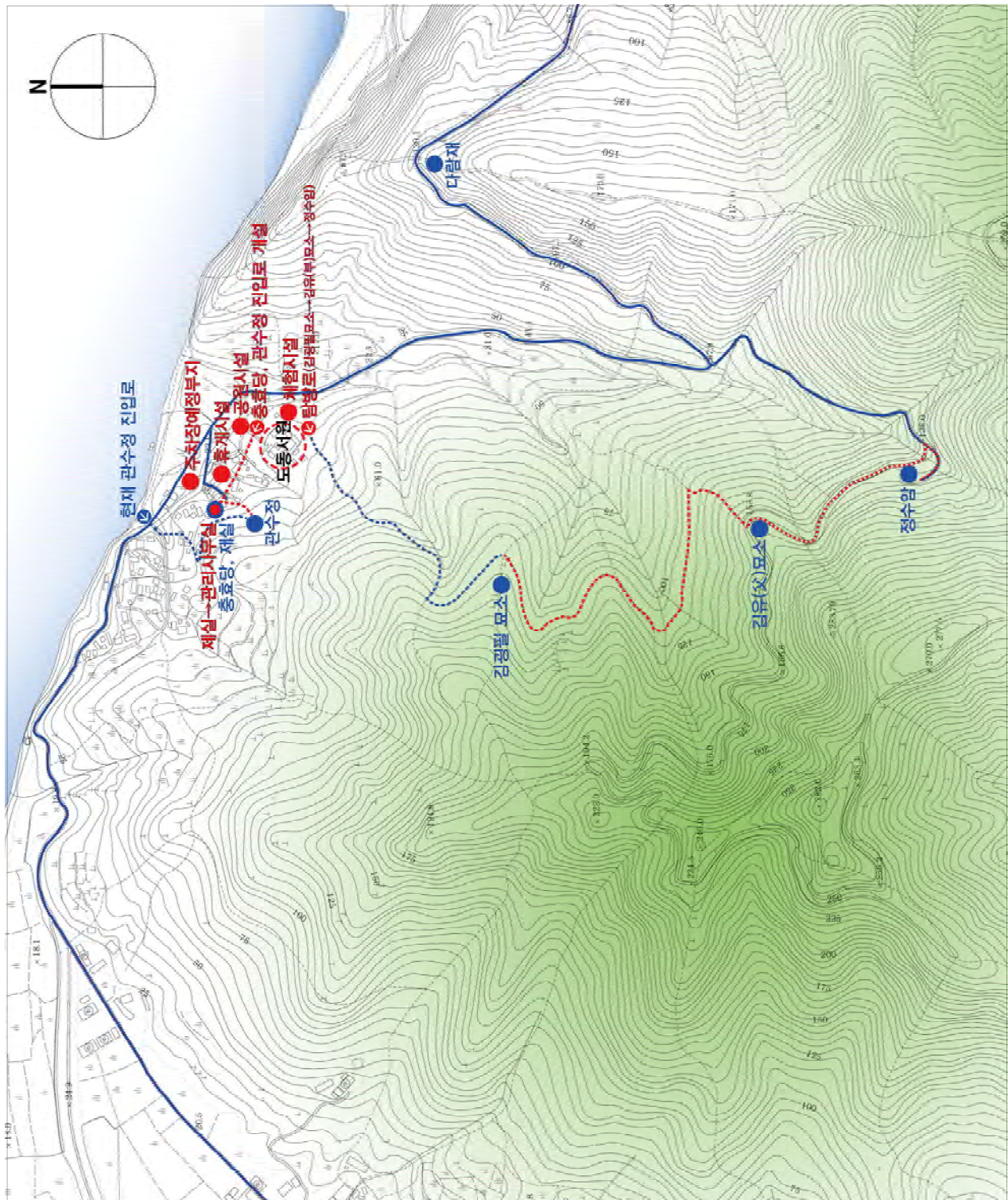


소수서원 선비 체험 사례



서원 예절 교육 사례-1

5. 마스터 플랜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 달성 도동서원은 조선시대 미 휘철 서원 중 하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 한훤당 김굉필선생의 정신, 역사적 가치,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현재의 역할까지 복합적인 고민을 반영한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문화재 보존을 우선하되 특히 보수 및 수리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을 원형으로 최대한 환원하여 후대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 사적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달성 도동서원 일대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달성 도동서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변경관을 정비해야 한다.
- 사업시행시기의 조정을 통하여 특정기간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달성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은 물론 장래 관광여건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세부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 종합정비계획의 실행을 위해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장래 관광수요,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수립한다. 공사비는 단계별, 공정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시설의 집약적 구성과 공간별 사업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달성 도동서원 주변에서 이루어질 일부 개별사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현상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현상변경이 초래하더라도 무분별하지 않고 기본계획 안에서 유적과 조화로우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투자계획

1)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 투자비는 1단계(서원영역정비), 2단계(서원시설정비), 3단계(서원주변정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1단계에서는 건축물정비, 시설물정비를 추진하며 건축물정비에서는 502,869천원이 발생되며 내용으로는 담장정비, 기단정비, 지붕정비, 단청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시설물정비에서 75,158천원이 발생되어 1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금액은 578,027천원이다.

■ 2단계에서 경관정비, 관람편의시설물정비, 기타정비가 이루어지며, 경관정비에서는 464,937천원이 발생하고, 내용으로는 주차장 이설 또는 재설치, 문화해설사의 집 이건, 조경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람편의시설물정비는 탐방로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며, 331,692천원 발생한다. 기타정비에서는 27,100천원이 발생되어 2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금액은 823,729천원이다.

■ 3단계는 사유지 토지매입, 마을정비, 정수암정비를 포함하는 주변정비를 실시하게 되며, 총 소요비용은 1,842,640천원으로 책정된다.

■ 따라서 총 공사소요금액은 3,244,396천원이 발생하게 된다.

2)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 다양한 사업의 동시 다발적인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 따라서 시기별·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여 계획한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수용하여 우수한 실행모델을 완성하고, 달성 도동서원 외곽지역은 유적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보다 경내 환원사업을 우선시하여 운영한다.

■ 추가적인 사업은 제반여건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기간구분은 민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단계별 구획을 실시한다.

단계별 추정사업비

단위(천원)

단 계	항목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천원)	비고
1단계 (1~2개년)	건축물정비	담장정비	126.1	m	810	102,141	평균높이 1.4m기준
		기단정비	342.9	m²	720	246,888	
		지붕정비	88.5	m²	640	56,640	
		단청정비	1	식	-	30,000	
		석축정비	105	m	640	67,200	평균높이 1.2m기준
	시설물정비	안내판 설치	1	식		21,183	
		조명시설 설치	1	식	-	30,700	
		소화기함 설치	25	EA	685	17,125	
		소화전 설치	3	EA	2,050	6,150	
소계						578,027	
2단계 (3~4개년)	경관정비	주차장 이설 or 설치	2,318	m²	70	162,260	잔디블럭 단가 기준
		주차장 철거	2,318	m²	98	227,164	폐기물처리비용 포함
		문화해설사의집 이건	1	식	-	35,513	철거 후 재설치
		조경정비	1	식	-	40,000	수목 제거, 보식 포함
	관람편의시설	탐방로 설치	1,600	m²	200	320,000	
		음수대/파고라 설치		식	-	11,692	
	기타		1	식	-	27,100	
	소계						823,729
3단계 (4~5개년)	주변정비	정수암정비	1	식	-	70,000	식생피복
		마을정비		식		1,500,000	폐가 3채 철거, 정비비용 포함
		사유지 수용비용	4,544	m²	60	272,640	14필지, 평균 공시지가:60,000원
	소계						1,842,640
합계						3,244,396	





VIII

마루

1. 자문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 김 용 수	소속 : 경북대학교
회의일자 : 2013. 7. 11. (목) 10시	
자 문 위 원 의 견	① 서원은 대부분 자연정관을 소중히 했던것만큼 대동서원에도 풍속지리적으로 배어있는 지면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강을 포함한 주변 자연정관 보존관리대책에 대한 내용이 좀더 연구 필요해보인다.
	② 정리위해서 주변정관조사, 식생조사 (호분류, 목분류)분류 를 해서 기록으로 정리시킬것과 제거하고 보완한것 은 연구 ^{연구} 해서 정비계획은 수립 할필요가 있음
	③ 전경, 배정등으로 구분하여 정관 보존, 육성, 정비계획 을 수립할필요가 있음.
	④ 안개판, 가로등, 변기등 공공시설물에대한 관리사항 가이드라인을 작성 해서 서원의 정관에 저해 되지 않는 대안이 제시 되어야 함.
	⑤ 도동서원 다른 특징을 담은 정관계획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함
자문위원 : 김 용 수 (서명)	

정관계획문화재연구원

자문위원 의견서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 채종희	소속 : 배재대학교
회의일자 : 2013. 7. 11. (목) 10시	
자 문 위 원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계획 배경, 가치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음. 현 보존상태에 관한 현황분석 부분과 구상부분은 구분짓고, 서원내 대남을 만나게 할 - 만나게 할, 방문객 편의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 - 분석 함. 서원정리 작업의 경관상 (개방) 입성요인 및 한양학요인에 대해 언급함. 전통을 현대적, 현대적 전통을 이용하여 조사 - 분석 함. 서원정리 작업의 경관상 (개방) 입성요인 및 한양학요인에 대해 언급함. 서원정리 작업의 경관상 (개방) 입성요인 및 한양학요인에 대해 언급함. 서원정리 작업의 경관상 (개방) 입성요인 및 한양학요인에 대해 언급함. 서원정리 작업의 경관상 (개방) 입성요인 및 한양학요인에 대해 언급함. 서원정리 작업의 경관상 (개방) 입성요인 및 한양학요인에 대해 언급함. 서원정리 작업의 경관상 (개방) 입성요인 및 한양학요인에 대해 언급함.
	- 끝 -
자문위원 : 채종희 (서명) 채종희.	

정비계획문화재연구원

자문위원 의견서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 장 현 덕	소속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회의일자 : 2013. 7. 11. (목) 10시	
자 문 위 원 의 견	<p>2. 도동서원 "과입지침"에 의거한 정비계획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계획은 시정하여야 될 것임.</p> <p>- 주변정비에서 변경된 우물 (분상, 마당, 채효) 을 전통적인 모습으로 재현한다 하되 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일제강점기때는 그 이후의 변화해가는 모습을 제외하고, 문헌적인 기록도 검토가 필요함)</p> <p>- 경교는 정서에서 인위적으로 변경된 경관을 회복 (수화장) 한다고 하며 세부적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여야 될 것임.</p> <p>- 각 건물의 연경, 돌계 (정기계, 단계, 입계) 을 제거하여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수부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p> <p>- 주변정비, (마루, 길, 평판, 문, 길유문, 정수암) 계획은 최대한으로 하고, 정비계획을 단기계획, 중상기계획으로 나누어 추진이긴 하지만 예산액을 명기하여야 될 것임.</p> <p>- 종합정비계획이 전체적인 경관과 공간을 살릴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할 필요성이 있음.</p>
	<p>자문위원 : 장현덕 (서명) 2013.7.11</p>


전통문화재연구원

자문위원 의견서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 이 해 준	소속 : 공주대학교
회의일자 : 2013. 7. 11. (목) 10시	
자 문 위 원 의 견	1. 서원 임발문 (의미, 방향) 보다는 "도동서원" 특화·경쟁력 부연에 대한 고려가 좀더 필요하다 (도동서원의 차별적 가치, 자문, 경영, 생산(교육), 건축 등)
	1. 기본 방향의 목표가 불명확하다 판단됨 기본계획에서 주력 임발·보통문제를 제시하고 였어서 이 부연에 대해 "지향적·적극적"인 재정도가 느껴짐
	(경관, 건축디자인, 인물과 정신사적 전통 ...)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수요층 점검) (공헌도의 제시·인용·해설)
	1. 주변 유적의 연계 활용 부분도 매우 주목. 중시되 모든 별도의 활용계획을 만들것에 대한 강
	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지정과 연계 하여 유네스코의 정비·보존계획과 연동, 조율 필요
자문위원 : 1) 해 준 (서원)	

접한 계림문화재연구원

자문위원 의견서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 이 상 해	소속 : 사적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회의일자 : 2013. 7. 12. (금) 14시		
자 문 위 원 의 견	1. 세계유산 등재 신청 준비중인 서원 중에서 이미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된 계획을 우선순위를 잡는 것.	
	1.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목적을 수립할 것.	
	1. 과업지시서에 근거해서 종합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할 것.	
	1. 도동서원 구성 건물물, 주변환경, 시설물, 식생 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할 것.	
	1. 현황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비계획을 제시할 것. 도면으로 표현할 것.	
	1. 도동서원 각 구성물에 대한 정비 (보수, 수리,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할 것. 예를 들어, 건축물인 경우 구조물 (목재)에 대한 부패 교체, 수리 원칙, 기단 등에 사용된 석재에 대한 수리, 교체 등에 대한 방안, 단면 보수, 수리시 사용 원칙, 방안, 각 부분 수리 해체, 보수 시 정비 방안, 등 등에 대한 기본 정비 방안을 제시할 것. 동시에 활용방안도 제시하도록 할 것. 구명	
	1. 세계유산 운영리듬에 근거해서 원형유적 성격과 보존수준이 충족하지 않도록 계획수립할 것.	
	1. 세계유산 운영리듬에 개입된 진정성, 완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1. 현재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해서 정비되어야 할 부대시설물 (주차장, 배수, 등) 이 계획에도 고려해서 협의는 거쳐제안할 것.	
	1. 정수암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리라도 건물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을 것을 권유해서 정비계획을 제안할 것.	
	1. 8월 중순 전후에 보 보칙을 제정후 절차를 정해줄 것을 하도록 할 것.	
	자문위원 : 이 상 해 (서명) 	

제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의견서

1. 종합정비계획의 기본원칙 및 방향은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2. 사업대상, 내용별로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함이 바람직할 것임
3. 보고서 목차의 II. 일반현황에서 도동서원의 독특한 문화유산적 성격과 특징을 요령있게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이것이 보존 정비의 방향 설정 근거가 될 것임
4. 정수암의 경우 墳庵의 사례로 역사자료 고증을 통해 보수 정비의 분명한 대상, 시대, 내용을 정할 필요 있음
5. 활용, 계승의 방안과 구체안이 아직도 미흡하며, 타 서원과의 차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론이 대부분임. 계획서 상에 이에 대한 적극적 사후 준비계획(자료정리, 활용방향,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자료집 제작 등등)을 포함하여 주기를 요망함(예를 들어 문헌사료 및 자료조사 보완은 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존관리, 활용방안은 도출되지 않음)

2013년 9월 일

공주대학교 교수 이 해 준



자문위원 의견서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 김용수 소속 : 경북대학교	
회의일자 : 2013. 9. 10. (화)	
자 문 위 원 의 견	○ 조망경관 측면에서 정면 주리강을 계획안 대로 옆으로 옮기노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그후 주리강(옮긴후공간) 활용 계획이 필요하겠음.
	○ 사원과 광개왕이 근래 식재된 외래수종 및 기타 배식 계획을 이번 기회에 정비할 필요 있음.
	○ 사면 안정 지피석공은 주변식생생태에 어울리는 (예, 싸리종류, 진달래 등) 목, 혼분류로 경관회복이 되도록 함이 좋겠음.
자문위원 : 김용수 (서명)	

재민 계림문화재연구원

자문위원 의견서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 최중희 소속 : 배재대학교	
회의일자 : 2013. 9. 10. (화)	
자 문 위 원 의 견 견	기 시행된 중간보고회의 보완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조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최종보고서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장 유적 현황조사 및 분석의 경우 경관 및 조경현황조사에 있어
	서원 경내의 식생실태 및 식생구조, 식생정비의 기준(준치, 제거, 대체, 보식)
	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관의 경우 서원 경내 및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후, 건축물, 수공간, 식생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분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활용)계획수립에 관련하여 현 도동서원의 활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방문객 통계 및 기반으로 시설(안내, 편의 등)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자문위원 : 최 중 희 최 중 희)	

접탈계림문화재연구원

2. 달성 도동서원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검토 의견

자 문 의 건 서				
대 상 문화재	종 별	사 적	지정 번호	제488호
	명 칭	달성 도동서원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검토 사항	사 유	민원 제출 의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 등		
	내 용	도동서원의 중건 및 사액연도에 대한 검토 의견 (※ 관련 근거 포함)		
	참고 사항	현재 서원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안내판에는 중건 및 사액연도가 각각 1604년과 1610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재대관-사적편』(문화재청/2010.8.)의 내용에 따른 것임		
검 토 의 건				
<p>도동서원의 설립년과 사액년은 실록 등 관찬사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p> <p><중건년>--현재 서원 기와 막새에 만력 33년(1605)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도동서원 중건은 『道東重勝事蹟』, 『敦事錄』(도동서원 소장), 『道東書院重修事蹟志』(국사편찬위원회소장), 『列邑院宇事蹟』(도동서원조 등에 한결같이 萬曆 甲辰(1604)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도동서원 중건년은 160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서원 건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p> <p>근거자료-- ‘斯院之勝在 萬曆三十二年甲辰(1604)’(『道東重勝事蹟』, 『敦事錄』 말미), ‘萬曆甲辰(1604)勝建 本院歷七年庚戌(1610)奉安’(『道東書院重修事蹟志』,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本以雙溪書院 嘉靖甲子創建而壬辰兵燹後 萬曆甲辰(1604)移建于道東松楸之下 庚戌(1610)奉安 道臣啓請 賜額’(『列邑院宇事蹟』 도동서원조)</p> <p><사액년>--현재 도동서원 현판에 1607년에 사액받았다고 되어 있고, 또 정구의 手書에도 1607년에 현판을 나라에서 내렸다는 내용이 있다. 도동서원에 현판을 걸은 것이 1607년(『道東書院四字 都事襄大維筆 萬曆丁未(1607)懸揭』(『列邑院宇事蹟』 도동서원조)임은 틀림없다. 다만 실록 등 관찬사료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또 도동서원이 再賜額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p> <p>현재 도동서원의 사액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列邑院宇事蹟』 도동서원조에 1610년에 奉安하고 감사가 청해서 사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萬曆甲辰(1604)移建于道東松楸之下 庚戌(1610)奉安 道臣啓請 賜額). 또 도동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향사시 제문에 보면 1609년까지는 사액이라는 내용이 없다가, 만력 38년(1610) 제문에 사액을 거듭 내려 번뜻 번뜻 빛친다(宣額玼降 輝映)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 사액년은 16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도동서원 入院錄은 1610년부터 기록되어 있고, 參祭錄은 만력 39년(1611)부터 기록되어 있다.</p>				
상기의 검토 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자문의견을 개진합니다.				
2012 년 2 월 29 일				
소 속 :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직 위 : 교 수 성 명 : 이수환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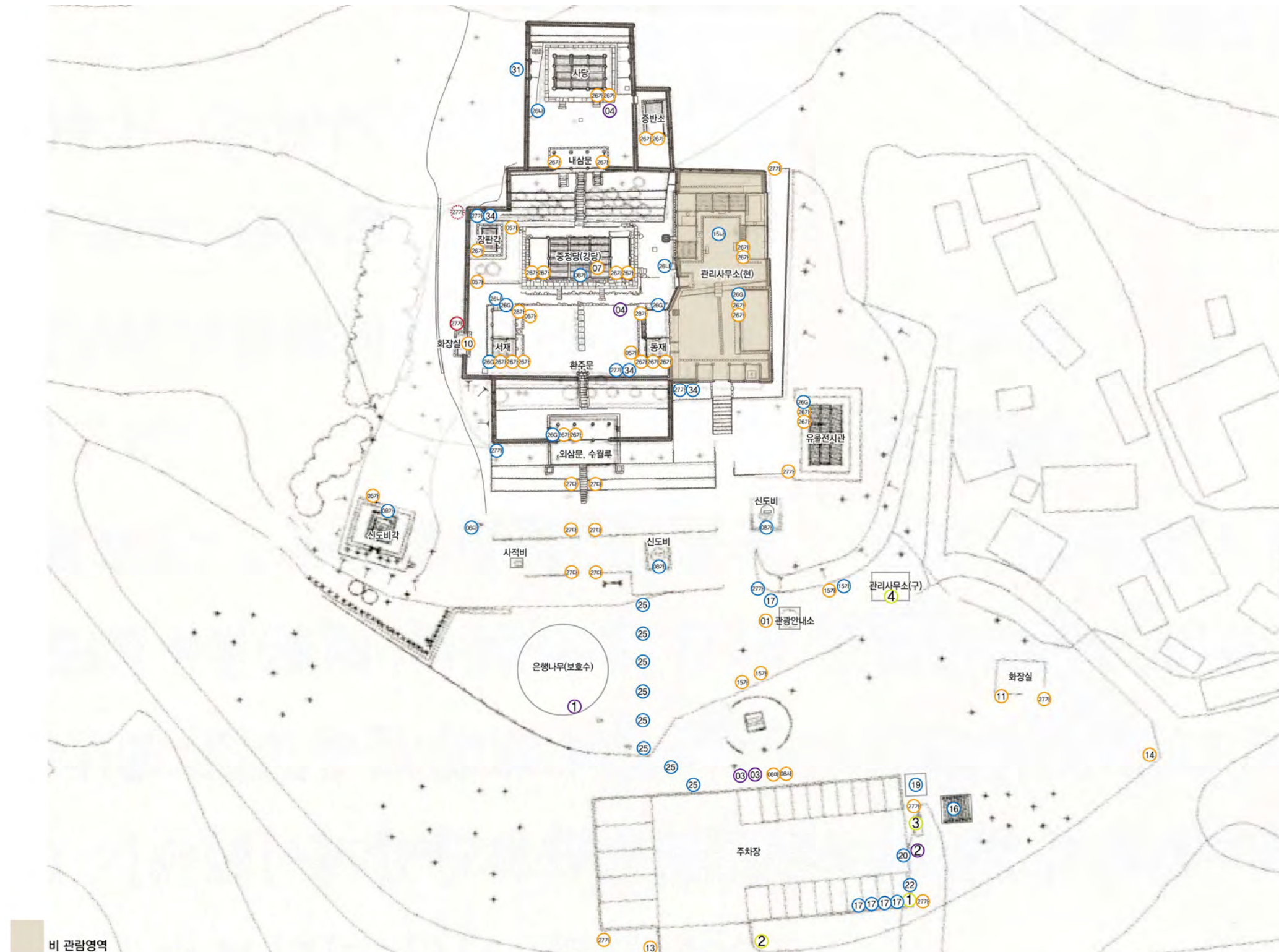
3. 달성 도동서원 식생현황도

식생현황도 (A3 접지)

4.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조감도 5매 (A3 접지)

5) 달성 도동서원 공공시설물 배치도



- 부족 시설물 - 신규
- 기존 시설물 - 교체
- 기존 시설물 - 유지
- 기존 시설물 - 제거
- 기존 시설물 -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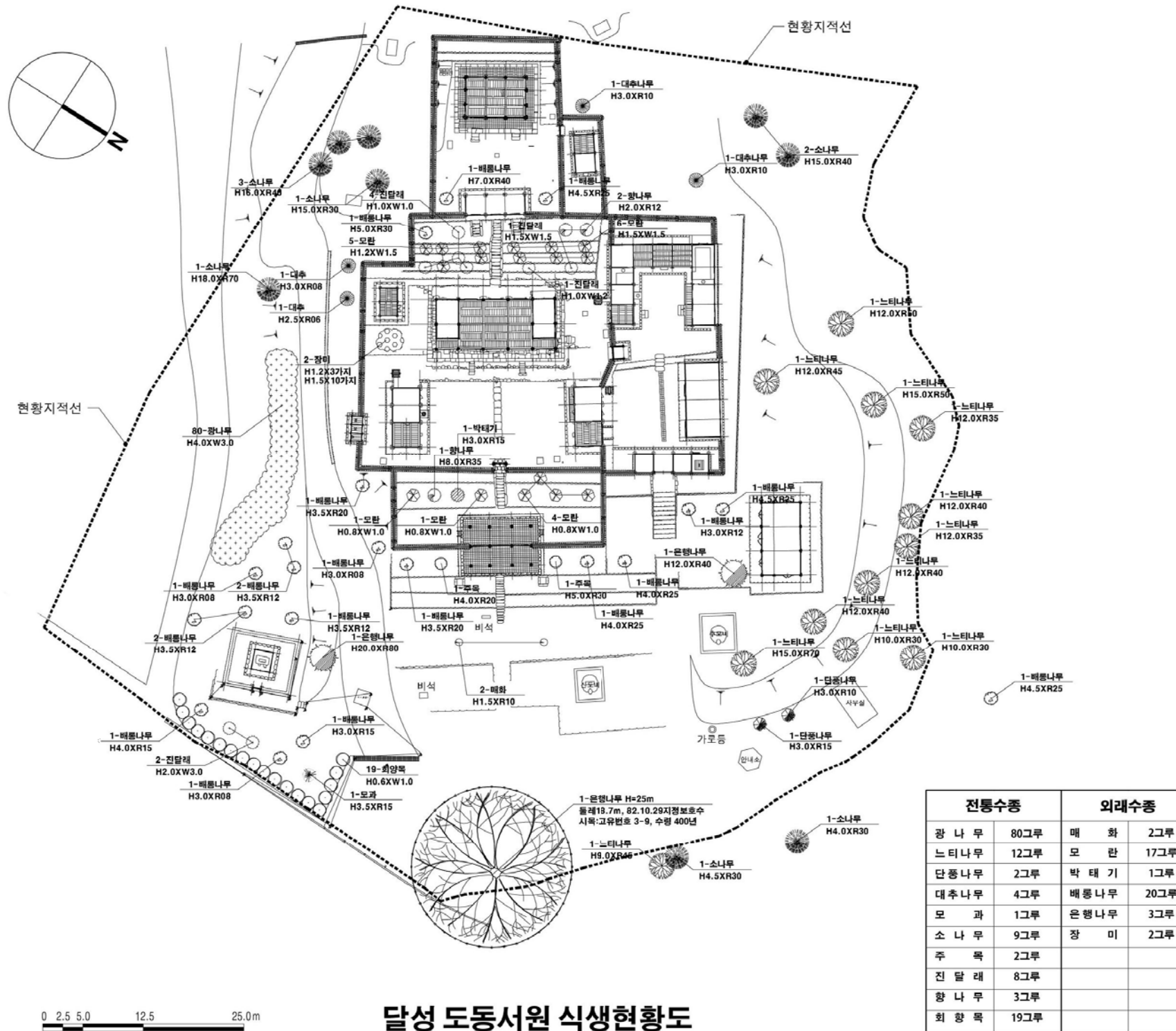
- Step 1**
- 보안등(H4000)
 - 벽부등
 - 휴게의자(일반형)
 - 행사정보안내판
 - 주차안내판
 - 화장실안내판
 - 사이드 포스트
 - 관광안내소
 - 설명안내판
 - 소화기함
 - 금지,주의안내판(금연)
 - 금지,주의안내판(CCTV)
 - 분전함
 - 보행등(H250)

- Step 2**
- 금지,주의안내판
 - CCTV
 - 보안등
 - 음수대
 - 그늘시렁(파고라)
 - 휴지통
 - 자동판매부스(철거가 어려울 경우)
 - 자전거거치대
 - 휴게의자(평상형)
 - 휴게의자(일반형)
 - 볼라드
 - 대형소화기
 - 소화전
 - 유도(길찾기)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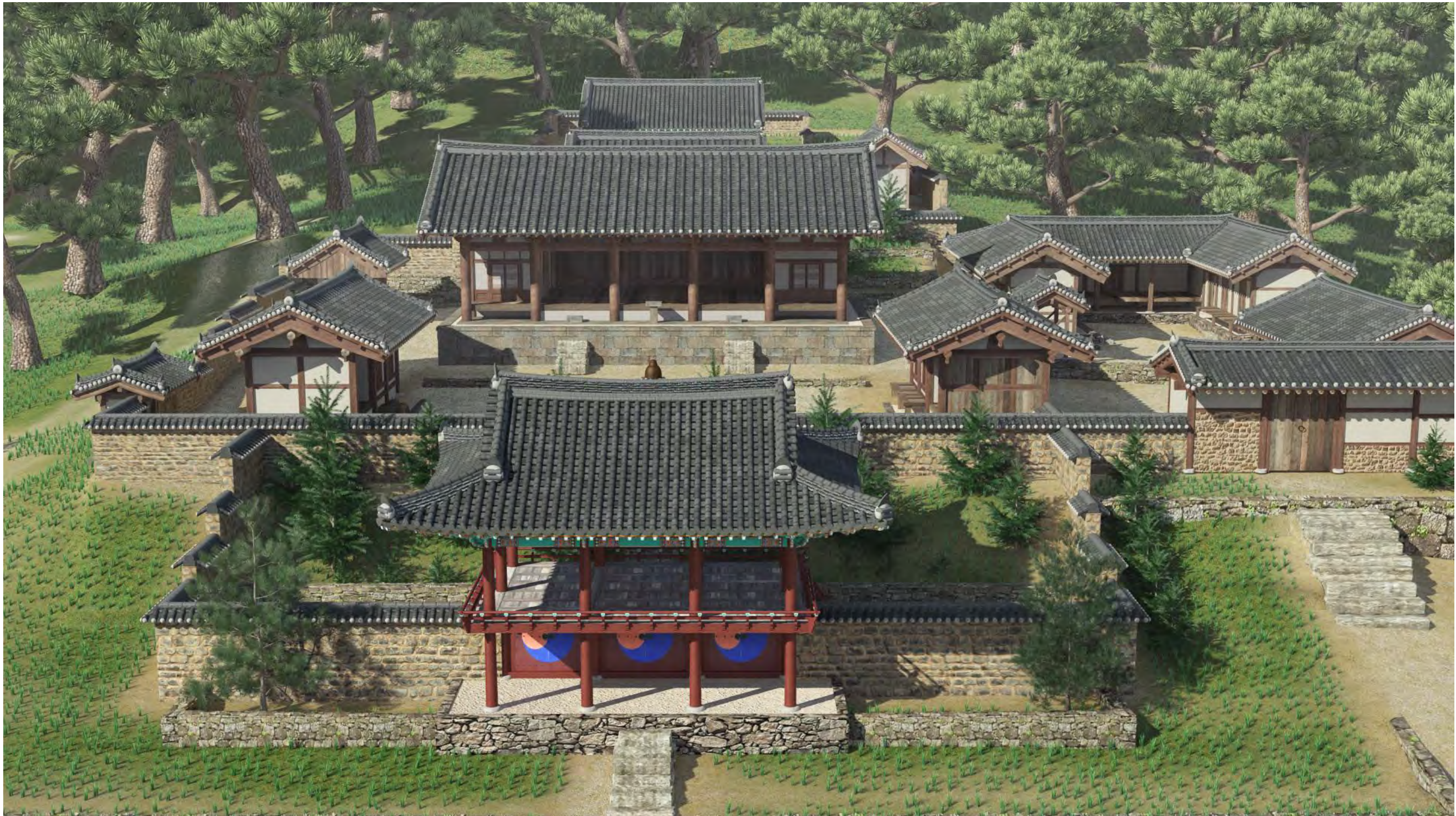
- Step 3**
- 종합안내판
 - 권역안내판
 - 보호수 안내판
 - 주변 관광안내도
 - 자동판매부스
 - 유도안내판
 - 버스정류장
 - 관리사무소(구)
 - 보안등

비 관람영역

3. 달성 도동서원 식생현황도



4.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초판발행	2013. 08.
발행처	문화재청·달성군
기획편집	(재)계림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70번길 9 (황오동 85-26) TEL 054) 745-0540 FAX 054) 745-1540
제작	디자인 창 경상북도 경주시 북정로 98 (성동동 201-2) TEL 054)745-5521 FAX 0303)3443-5521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